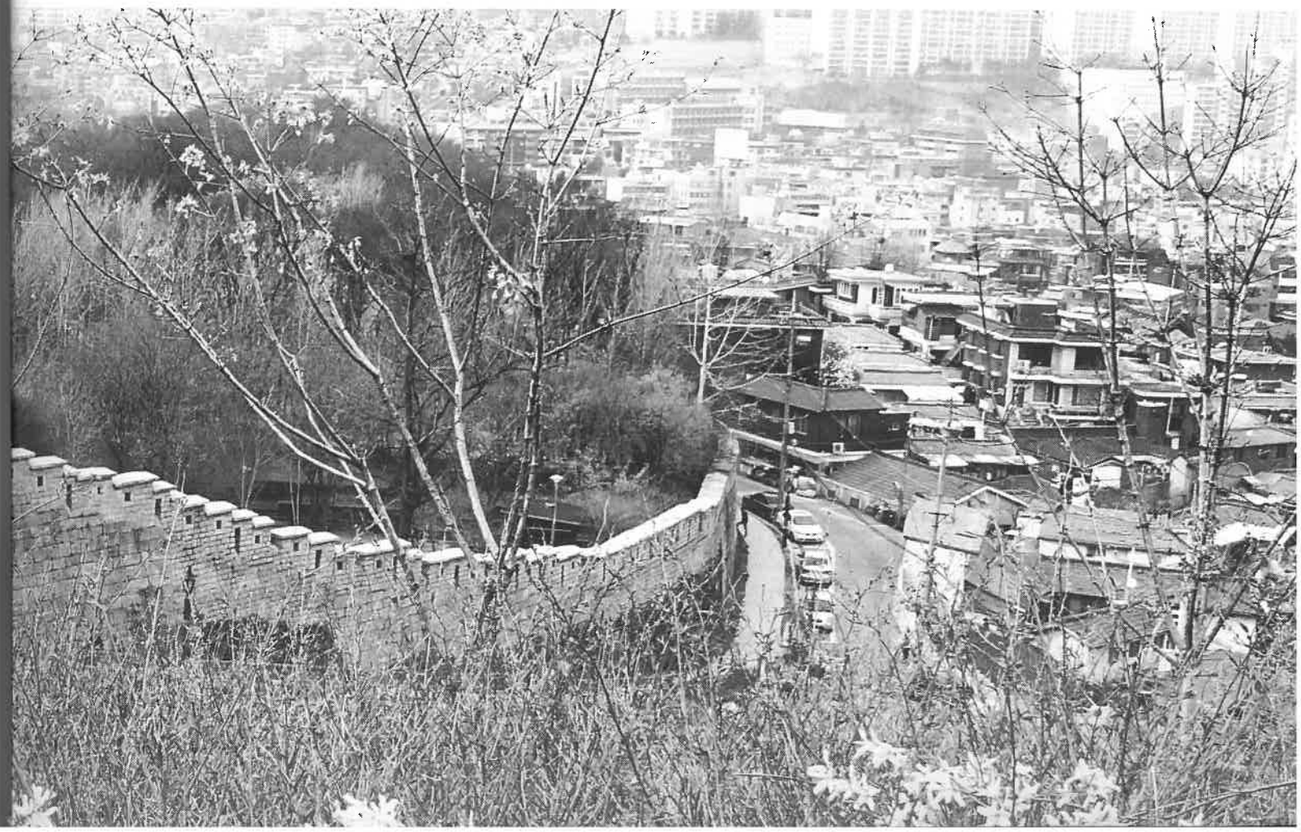
성북문화원
깊은멋·나눔·즐김

201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생태탐방로 사업

한양도성
이야기 자원 모음집



201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생태탐방로 사업

안양도시
이야기 자원 모음집

성북문화원
깊은멋·나눔·즐김

한양도성 이야기자원 모음집

기　　획 | 강성봉(성북문화원 사무국장)
집 필 진 | 박수진(성북문화원)
윤경섭(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
위가야(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최우석(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서준석(서울역사편찬원 전임연구원)
이승준(한성대학교 한국어문학부 학사과정)
자료 조사 | 차현주(한성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수료)
발 행 인 | 조태권(성북문화원장)
발 행 일 | 2014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성북문화원 (www.isbcc.or.kr)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Tel 02-765-1611
Fax 02-765-1619
디 자 인 | 권이지
펴 낸 곳 | 학연문화사

비매품
ⓒ 2014 성북문화원
본 도서의 저작권 및 법적권리는 성북문화원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문서상 합의 없이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자는 2014 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겉표지 사진 : 삼선동 장수마을(성곽마을)에서 바라본 한양도성

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

한양도성 이야기 자원 모음집

2014

차 례

한양도성의 문

번호	제목
1	한양 성곽 개관
2	동대문의 치성(雉城)(1)
3	동대문의 치성(雉城)(2)
4	동대문의 치성(雉城)(3)
5	동대문의 치성(雉城)(4)
6	동대문의 치성(雉城)(5)
7	동대문의 치성(雉城)(6)
8	사월 칠일 이른 아침에 홍인문을 나서면서
9	충주로 가기 위해 도성 동문을 나오면서 짓다
10	성소부부고
11	동각잡기
12	송와잡설
13	우복집-동대문
14	나례(儺禮)
15	조상치(曺尙治)
16	흥인문 안에 우거하면서 원추리꽃을 읊다
17	춘천의 옛 은거지로 돌아가는 동봉 선생을 동교(東郊)에서 송별하며
18	태조실록-마중
19	태종실록-전송
20	세종실록-여행
21	세종실록-마중
22	세종실록-강무
23	만남과 이별-유대정
24	만남과 이별-윤첨정
25	친구의 시에 화답하다
26	고대일록-동대문
27	용재총화-한성의 특산물
28	만남과 이별-김정의 시
29	만남과 이별-윤결
30	홍인지문 좌우성벽 철거(1)
31	홍인지문 좌우성벽 철거(2)
32	최초의 전차
33	돈의문 경매로 매각예정. 철거 서소문 훼철
34	나는 경성 서대문이올시다
35	서대문 경매
36	서대문
37	대한제국 교통의 중심 이동(서대문)
38	서대문역 폐지
39	경성역이라는 이름의 변천
40	동사만록-일기
41	연도기행-돈의문
42	을사견문록-돈의문
43	재조번방지-돈의문, 유성룡
44	패관잡기-돈의문
45	백호전서-서대문
46	국조보감-숭례문
47	봄날 체천에서 지은 잡시
48	병조참판 유공(柳公) 의(誼)의 유사
49	최익현의 출소
50	세자빈의 행차
51	임진왜란과 숭례문

차 례

52	남대문 현판에 대하여
53	숭례문과 대성전의 액자에 대한 변증설
54	숭례문 현판은 누가썼는가?
55	숭례문에 올라 읊은 시
56	아들을 데리고 숭례문에 올라 꽃을 구경하다
57	남대문과 동대문의 종(1)
58	남대문과 동대문의 종(2)
59	남대문과 동대문의 종(3)
60	남대문과 동대문의 종(4)
61	남대문과 동대문의 종(5)
62	사대문과 기우제(1)
63	사대문과 기우제(2)
64	사대문과 기우제(3)
65	사대문과 기우제(4)
66	관왕묘
67	한양도성에서 행해진 제사(1)
68	한양도성에서 행해진 제사(2)
69	숭례문 편액에 얽힌 이야기(1)
70	숭례문 편액에 얽힌 이야기(2)
71	숭례문 편액에 얽힌 이야기(3)
72	남대문 좌우성벽 철거 및 격리
73	남대문, 동대문의 수난 - 걸인들의 소굴화
74	남대문 봉쇄
75	남대문, 정치적 공간(1)
76	남대문, 정치적 공간(2)
77	남대문, 정치적 공간(3)
78	남대문, 정치적 공간(4)
79	남대문, 정치적 공간(5)
80	숙정문 열리다
81	낮도둑
82	동소문, 만남과 이별
83	동소문 밖에서 무과 실시
84	백관이 동소문 밖에서 어가를 맞이함
85	김유를 동소문 밖에서 전별함
86	왜인을 홍화문으로 내보내라고 전교함
87	동소문 밖 박명건의 시체를 재검시함
88	진주의 죄수 수군 박한석의 추안을 아룀
89	철원으로 귀양살이 떠나는 윤무구를 보내며
90	세초
91	동소문 문루 철거
92	혜화문 헐리다
93	혜화문 밖의 노비부처
94	동소문 밖 박명건 자살사건(1)
95	동소문 밖 박명건 자살사건(2)
96	소의문 개괄
97	부연일기, 말을 타고 소의문을 나서다
98	한흥군(韓興君) 이공(李公) 신도비명
99	사형장을 서소문 밖 성밑 10리 양천지방으로 정하다
100	홍순목 등이 죄인을 처형할 때는 서소문 밖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아뢰다
101	이염의 종 만수를 효수하다
102	금표를 범한 자를 참형에 처하여 효수하게 하다
103	이창록을 추문하여 자백을 받다

차 례

104	이창록을 서소문 밖에서 유생이 보는 가운데 추가로 형을 집행하게 하다
105	서울의 화적 6명을 서소문 밖에서 효시하다
106	이의징에게 사사를 명하다
107	죄인 이의징을 사사시키다
108	목호룡의 수급을 서소문 밖에 내걸다
109	박순수의 죄가 부대시참하는 데에 해당한다고 하다
110	최영희의 죄는 능지처사에 해당한다고 하다
111	민순용의 죄는 능지처사에 해당한다고 하다
112	이종락의 죄는 능지처사에 해당한다고 하다
113	최화식, 조충식 등을 참형에 처하게 하다
114	김개남과 성재식을 효수하다
115	최화식 등에 국청을 개좌할 것을 청하다
116	이만손의 상소 등
117	박응서(朴應犀)의 옥사
118	이창록(李昌祿) 성주(星州)의 옥사
119	김제남을 서소문 밖에서 사사(賜死) 등
120	물뢰와 덕개의 형문
121	강씨를 본가에서 사사하라고 하문하다
122	금상문(金商門)에나아가친국을행하였다
123	20일죄인박홍구에게자진(自盡)하도록전교등
124	학생정사원(鄭士元)등과함께노닐다
125	광희문 밖 무덤
126	광희문-하수구와 공동묘지(1)
127	광희문-하수구와 공동묘지(2)
128	석축 철거
129	옛날을 생각하며 시를 읊다
130	세검정(洗劍亭)에서 노닌 기록
131	윤임의 졸기
132	감결문
133	경성의 8문
134	창의문 밖 수륙대회 소동(1)
135	창의문 밖 수륙대회 소동(2)
136	창의문 밖 수륙대회 소동(3)
137	창의문 밖 수륙대회 소동(4)
138	인조반정과 창의문(1)
139	인조반정과 창의문(2)
140	인조반정과 창의문(3)
141	창의문 편액 찾다
142	수구문에서 잡은 범인
143	수구문 이야기
144	수구문에서 잡은 범인

한양도성의 산

번호	제목
145	백악산의 표범을 추적하다
146	백악산에서 호랑이를 잡다
147	남산의 변천
148	인왕산에 태극기
149	인왕산 남묘에서 벌어진 미신적 행동
150	인왕산에서 화투하다 잡혀
151	성삼문의 신주(1)
152	성삼문의 신주(2)

차 례

153	성삼문의 신주(3)
154	양정이 인왕산에서 표범을 몰이하다
155	연못가에서 발견된 호랑이의 발자국을 추적하다
156	양전이 세자궁에 거동하다
157	인왕산에서 사람과 가축을 해치는 표범을 잡게 하다
158	호랑이 잡을 때 임무를 소홀히 한 김호를 파직하다
159	맹수의 일을 의논하다
160	헌부가 맹수 사냥 정지를 아뢰니 전교하다
161	표범을 잡아 바친 겸사 복조천손에게 상을 내리다
162	인왕산 호랑이가 나타나다
163	표범을 잡은 장졸들에게 시상하도록 하다
164	이준생이 백악산에 표범이 나타난다 하여 군사를 풀었으나 잡지 못하다
165	맹수 포획을 전교하다
166	새끼 호랑이를 잡아 바치니 상을 내리다
167	홍언필 등이 이장과 맹수의 일로 상차하니 전교하다

한양도성의 마을

번호	제목
168	편싸움(1)
169	편싸움(2)
170	서계동 편쌈터
171	편싸움(3)
172	석전 소동
173	내동리명물-동승동 낙산
174	내동리명물-청운동 청풍계
175	내동리명물-혜화동 풍차
176	내동리명물-정동서 양인촌
177	내동리명물-충신동 배추밭
178	내동리명물-의주통 독갑이골
179	내동리명물-광희정 파리
180	내동리명물-관동 독립관
181	내동리명물-교북동 독립문

한양도성의 시장

번호	제목
182	남대문에 자유시장
183	남대문시장 관리권으로
184	악마의 소굴 자유시장
185	서울! 그리운 수도의 현모(現貌)
186	남대문시장 상인연합회
187	남대문시장의 역사
188	배오개장 상인연합회 결성
189	동대문시장의 연혁
190	광장주식회사 및 시장 내 번영회의 조직과 업무분석(1)
191	광장주식회사 및 시장 내 번영회의 조직과 업무분석(2)
192	광장주식회사 및 시장 내 번영회의 조직과 업무분석(3)
193	광장주식회사 및 시장 내 번영회의 조직과 업무분석(4)
194	시경 밀수상가를 급습

차 례

195	반공 석방자 환영 시민대회
196	하루하루 올라가는 작금 물가
197	서울에 근대식 3대시장, 明春까지 완성
198	미 군표 돌연 경신
199	남대문시장 대화재(1)
200	남대문시장 대화재(2)
201	천막까지도 철거, 상가는 북창동에 이동
202	동대문시장의 빠락, 강제철거 방침(1)
203	동대문시장의 빠락, 강제철거 방침(2)
204	남대문시장 건설권 쟁탈전
205	심각한 재건쟁탈
206	삼파전의 남대문시장 건설권
207	남대문시장 건설문제, 각기 분리건축으로 낙착
208	서울시, 동대문시장 무허가건축물 철거 보류
209	동대문시장서 300세대 철거 개시
210	남대문시장 관리권 쟁탈
211	남대문시장 귀속대지분 말썽
212	남대문시장 위요 건축대지로 분쟁
213	동대문시장 2층에 주차장
214	남대문시장 대지주 친목회 사건(1)
215	남대문시장 대지주 친목회 사건(2)
216	미군물자 불하에 거액탈세자 적발
217	근대식 남대문시장 3월 말부터 개점
218	3대 시장의 가점포(假店鋪), 강제철거키로
219	공갈장 받은 김두한 의원
220	시위대, 남대문시장 습격하여 상품 등 파괴
221	우리에게 재건 맡기라
222	남대문시장 건설청부업자가 2천여만환 횡령?
223	시 당국 처사에 남대문시장 연고상인들이 비난
224	동대문상인, 내무부 앞에서 노점철거 보류요청
225	동대문시장서 위조한 미군표 10달러권 출현
226	동대문시장 상인들, 이승만 대통령 재출마 요구시위
227	폭력으로 노점상인 축출
228	밀수사치품 단속, 압수품은 600여 점
229	또 다시 철거소동
230	양담배 단속의 실정
231	동대문시장 상인들, 국회 앞에서 엉터리 밀수품 단속에 대해 시위
232	기습적인 철거 소동
233	시장 무허가건축 철거와 대통령 유시
234	허정 서울시장, 경찰 협력 얻어 무허가 판자집 전부 철거
235	일그러진 서울의 지붕 밑(1)
236	일그러진 서울의 지붕 밑(2)
237	일그러진 서울의 지붕 밑(3)
238	남대문시장의 줄어든 사치족속
239	3.15부정선거 가담혐의로 남대문시장 주식회사 사장 구속
240	남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1-1)
241	남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1-2)
242	남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2-1)
243	남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2-2)
244	남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3-1)
245	남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3-2)

차 례

246	동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1-1)
247	동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1-2)
248	동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2-1)
249	동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2-2)
250	동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3-1)
251	동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3-2)
252	서울의 깡패 생태
253	서울의 깡패 생태-이정재와 동대문시장(1)
254	서울의 깡패 생태-이정재와 동대문시장(2)
255	서울의 깡패 생태-이정재와 동대문시장(3)
256	평화시장상우회에 모종 알력?
257	이정재 왕국 축출
258	혁명전후(3) 깡패(1)
259	혁명전후(3) 깡패(2)
260	4.19의 음지(3) 이정재왕국(1)
261	4.19의 음지(3) 이정재왕국(2)
262	4.19의 음지(3) 이정재왕국(3)
263	동대문시장에 42개 점포 소유
264	깡패와 경찰(1-1)
265	깡패와 경찰(1-2)
266	깡패와 경찰(2-1)
267	깡패와 경찰(2-2)
268	깡패와 경찰(3-1)
269	깡패와 경찰(3-2)
270	깡패와 경찰(3-3)
271	이정재는 동대문시장에 상주하던 상인이 아니었다
272	운명의 17일, 말렌코프 이정재에 사형이 내리던날
273	1950년대 서울시내 폭력조직의 계보
274	전후 시장 주변의 풍경(1)
275	전후 시장 주변의 풍경(2)
276	남대문학생깡패단, 범죄단체 조직혐의로 구속
277	사자파 깡패들, 집단폭행
278	사자파 두목, 지명수배
279	사자파 깡패,댄스홀에서 폭행사건 일으켜
280	중부시장 깡패 김춘삼 검거
281	신흥깡패 김춘삼의 등장
282	신흥 깡패 김춘삼(2)
283	깡패 김춘삼과 고아원 원장 김춘삼
284	깡패 김춘삼 체포
285	개척단장 김춘삼
286	테러당한 이정재
287	이정재, 피소당하다(1)
288	이정재, 피소당하다(2)
289	단성사 앞 총격사건(1)
290	단성사 앞 총격사건(2)
291	단성사 앞 총격사건(3)
292	단성사 앞 총격사건(4)
293	단성사 앞 총격사건(5)
294	단성사 앞 총격사건(6)
295	단성사 앞 총격사건(7)
296	단성사 앞 총격사건(8)
297	단성사 앞 총격사건(9)

한양도성의 문

No.	001	작성자	위가야
제목	**한양 성곽 개관**		
이야기	경성(京城) 우리 태조 5년에 돌로 쌓았는데 평양 감사(平壤監司) 조준(趙浚)이 공사를 감독하였다. 세종 4년에 고쳤는데, 주위가 1만 4천 9백 35보로 주척(周尺)으로 재어서 8만 9천 6백 10자요, 높이가 40자 2치이다. 문 8개를 세웠다. 정남쪽 문을 숭례문(崇禮門)이라 하는데, 겹처마요 양녕대군(讓寧大君)이 현판 글씨를 썼으며 민간에서 남대문이라 부른다. 정북쪽 문을 숙정문(肅靖門)이라 하는데, 위에 집 지은 것[架屋]이 없으며 닫아둔 채 다니지 않는다. 정동쪽 문을 흥인문(興人門)이라 하는데 겹처마요 밖을 곡성(曲城)으로 둘렀으며 민간에서 동대문이라 부른다. 정서쪽 문을 돈의문(敦義門)이라 하는데, 조일회(曺一會)가 현판 글씨를 썼으며 민간에서 신문(新門)이라 부른다. 동북쪽 문을 혜화문(惠化門)이라 하는데 처음엔 홍화(弘化)라고 이름하였다. 중종 6년(1511)에 지금 이름으로 고쳤으며, 조이(趙履)가 현판 글씨를 썼다. 민간에서 동소문(東小門)이라 부른다. 서북쪽 문을 창의문(彰義門)이라 하고, 동남쪽 문을 광희문(光熙門)이라 하는데 민간에서 수구문(水口門)이라 부른다. 서남쪽 문을 소의문(昭義門)이라고 하는데 처음 이름은 소덕(昭德)이다. 장경왕후(章敬王后)께 시호(諡號)를 올린 다음 지금 이름으로 고쳤으며, 민간에서 서소문(西小門)이라 부른다. 대개 숭례문·흥인문·돈의문·혜화문이 정문이고 나머지 네 문은 사잇문이다. 예전에는 남소문(南小門)이 있어서 광희문 남쪽, 목멱산 봉대(木覓山烽臺) 동쪽에 있었는데, 김안로(金安老)가 제멋대로 닫았다고 하니, 근거할 바가 없다. 숙종 5년(1679)에 다시 설치하자고 의논하다가 곧바로 중단되었다. 또 수문(水門) 2개가 있는데, 흥인문 남쪽에 있는 것이 오간수문(五間水門)이고, 또 그 남쪽 곧 광희문 북쪽에 있는 것이 이간수문이다. ○ 성의 동서남북을 그 지세의 험하고 평탄함을 헤아려 삼군문(三軍門)에 나누어 맡겨서 훼손되는 대로 수축하게 하였는데, 숙정문 동쪽 가 무사석(舞砂石)에서 돈의문 북쪽 가에 이르기까지 4천 8백 50보는 훈련도감에, 돈의문 북쪽 가 무사석에서 광희문 남쪽 가 남촌(南村) 집 뒤에 이르기까지 5천 42보 반은 금위영에, 광희문 남쪽 가 남촌 집 뒤에서 숙정문 동쪽 가에 이르기까지 5천 42보 반은 어영청에 맡겨서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보살펴 지키게 하고, 인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사산(四山)의 감역(監役) 지금의 참군(參軍) 이 그 산지기를 시켜서 나누어 맡아 살펴보게 하였다. ○ 오래도록 비가 오면 숭례문·흥인문·돈의문·숙정문 네 문에 나가서 영제(禜祭 개기를 비는 제사)를 거행하였다. ○ 영제는 당하(堂下) 3품관이 연 3일간 설행하는데, 그래도 오래도록 개지 않으면 3차에 한하여 또 설행한다. ○ 성문 안에는 월도(月刀)를 꽂는데 영종조(英宗朝)에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가 시작한 것이다. ○ 영종 무신년(1728)에 이인좌의 여러 역적들을 쳐서 평정하고, 왕이 숭례문에 나가 헌괵례(獻馘禮 적			

	장의 머리를 드리는 예)를 받았다. 계해년(1743)에는 왕이 북교(北郊)에서 비를 빌고 돌아오다가 창의문루에 임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들의 성명을 새겨서 걸도록 명하고 이르기를, “후의 임금으로 하여금 여기를 지나면서 성조(聖祖)의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생각하게 하라.” 하였다. ○ 영종 47년(1771)에 성을 나누어 세 군영에 속하게 하였다. 훈국도감의 관내[宇內]는 돈의문에서 동쪽으로 숙정문까지 1천 5백 14타(垜)로 모두 4천 8백 50보이다. 성랑(城廊)이 24개소(所)이며, 무릇 성랑 근처에는 모두 돌을 높이 쌓았는데, 인왕산(仁王山)은 몹시 험하여 5개 처(處) 80보를 쌓지 않았다. 금위영 관내는 돈의문 북변 무사석에서 광희문 남변까지 1천 5백 42타로 모두 4천 9백 35보인데, 성랑이 24개소이다. 어영청 관내는 숙정문에서 동쪽으로 광희문 남쪽 표석(標石)까지 1천 5백 98타로 모두 3천 7백 95보이며, 치첩(雉堞)이 6개 처, 성랑이 27개 소이다. ○ 매해 봄·가을에 병조 판서와 낭청이 공조·한성부의 당상과 낭청과 함께 두루 다니면서 성첩을 조사하여 무너진 곳은 고쳐 쌓으며, 번갈아 맡은 영문에서 장교를 정하여 군사 20명을 거느리고 파수하기를 궁성(宮城)같이 한다. ○ 도성 7개 문의 자물쇠는 문마다 각각 2개씩인데, 상하면 바꿔서 쓴다. 설성(雪城) 《택리지(擇里誌)》에 이르기를, “한양에 외성(外城)을 쌓으려고 하나 아직 주위의 원근(遠近)을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하룻밤에 눈이 와서 밖은 쌓이고 안은 녹았다. 우리 태조가 크게 이상히 여겨, 명하여 눈을 따라 성 터를 정하였으므로 설성이라고 이름하였다.” 하였다.
원천자료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권

No.	002
작성자	위가야
제목	**동대문의 치성(雉城) 01**
이야기	**동대문의 치성을 발굴하다.** **조선시대 서울성곽 '치성' 찾았다 - 옛 동대문운동장 일대서…축성법 연구 새 장** 조선시대에 쌓은 서울성곽에서 처음으로 방어용 부속시설인 치성(雉城)이 확인됐다. 중원문화재연구원(원장 차용걸)은 서울시의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조성계획에 따라 옛 동대문운동장 일대를 발굴한 결과 총 123m의 서울성곽 기저부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원래 동대문에서 광희문까지 연결된 서울성곽(사적 10호)은 운동장 조성으로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축구장 조사 결과 잔존 최고 높이 4.1m, 바닥 폭 8~9m 규모의 성벽 기저부가 노출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유구는 치성. 치성은 성벽 바깥으로 돌출해서 만든 방어시설물인데, 이번에 동대문~광희문 연결부분에서만 4~6곳이 확인됐다. 평면 방형(方形)인 치성의 규모는 남북 10.2m, 동서 8.3m이다. 서울성곽에 치성이 존재했다는 것은 문헌기록에는 남아있으나 지금까지는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다. 차용걸 원장은 "발굴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축성법을 구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이간수문(二間水門)은 도성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을 빼내기 위해 지대가 가장 낮은 지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간수문은 상부의 홍예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완벽하게 남아있었다. 또한 수문 방어를 위해 꽂은 목재도 하부에서 확인됐다. 이간수문은 말 그대로 문자 동-서 방향으로 수문 2기를 개설했으며, 총 규모는 길이 7.4m, 현존 높이 5.4m였다. 또한 성곽 내부에서는 건물지 10곳, 집수시설 2곳, 우물 4곳 등이 확인됐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2008년 12월 18일

No.	003	작성자	위가야
제목	**동대문의 치성(雉城) 02**		
이야기	**박문수가 동대문에 치성을 더 높이 쌓게 할 것을 건의하다** 내국에서 입시하였다. 제조 박문수가 말하기를, “어제 어영 대장이 치성(雉城)의 일에 대해 우러러 말씀드렸는데, 신 역시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흥인문(興仁門)으로부터 광희문(光熙門)까지는 지세가 낮아서 갑자기 도적이 밀어닥칠 경우 필시 수비하지 못할 것이니, 치성을 더 높이 쌓는 것을 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어영 대장에게 그 일을 위임하여 더 쌓은 다음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영 대장과 영상이 상의하지 않고도 의견이 같으니, 내 단연코 그 일을 하겠다.” 하였다. 박문수가 말하기를, “강가의 잠전(蠶田)에 당초 뽕나무를 심었던 것은 누에를 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잠전이 죄다 백성의 소유가 되어 오래도록 뽕나무를 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뽕나무를 심게 하고 간간이 조사한다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내전에서 신칙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영조 78권, 28년(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11월 29일(병술) 1번째기사		

No.	004	작성자	위가야
제목	**동대문의 치성(雉城) 03**		
이야기	**동대문에 치성 다섯 군데를 만들 것을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어영대장 홍봉한이 아뢰기를, “치성(雉城)에 대한 그림을 열람하셨습니까? 광희문 북쪽으로부터 흥인문 남쪽까지 치성 네 군데를 만들도록 정하였습니다.” 하매, 우의정 김상로가 말하기를, “그 간격이 넓고 멀으니 의당 다섯 군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섯 군데에 치성을 만들기로 정하라.” 하였다. 김상로가 말하기를, “중전의 탄신 날짜가 이미 다가왔으므로 하례하는 의절을 즉시 여쭈어서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명년에 하례드릴 것에 대해서도 미리 분부를 내려주시기를 우러러 청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이어서 예관(禮官)의 여러 신하들이 선조(先朝)께서 이미 60세에 경축하였으니, 계술(繼述)의 도리로 볼 때 거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계속해서 아뢰자, 임금이 말하기를, “선조께 하례를 드릴 때에는 내가 사친(私親)의 복을 입고 있어서 하례드리는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승하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 예를 거행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극력 청하였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영조 78권, 28년(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12월 3일(기축) 1번째기사		

No.	005	작성자	위가야
제목	**동대문의 치성(雉城) 04**		
이야기	**치성을 증축해야 될 곳에 홍기를 세울 것을 명하다.** 환궁할 때 흥인문(興仁門)에 들러서 치성(雉城)을 마땅히 증축해야 될 곳에 홍기(紅旗)를 세워놓으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한 개의 치장(雉墻) 사이는 1백 30보(步)를 기준으로 하라." 하고, 성(城) 가까이에 있는 근전(芹田)에 물을 가득 대놓는 것은 성지(城址)를 해치게 된다는 것으로 근전을 다 메우라고 명하였다. 예조 판서 홍봉한(洪鳳漢)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동문(東門)에는 마땅히 몇 개의 치장을 만들어야 하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광희문(光熙門) 이북은 여섯 개의 치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였다. 명정문(明政門)에 나가서 기백(畿伯)과 차원(差員)을 입시하게 하라고 명하여 권농(勸農)에 더욱 힘쓰라는 뜻으로 면려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일찍이 기미년에 이미 친경을 행하였었는데 이제 늙은 나이에 어찌 다시 행할 줄 알았겠는가? 이미 다시 나가서 행한 뒤에 늘 잊지 못하는 것은 백성들이다. 이렇듯이 잊지 못하는 마음에서 농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선무(先務)로 삼았기 때문에 피로함을 꺼리지 않고 몸소 동교(東郊)에 나아가서 다시 뇌를 다섯 번 미는 예를 행하였으니, 아! 도신과 수령들은 나의 이 뜻을 본받기 바란다. 〈전국 시대〉 제왕(齊王)이 아 대부(阿大夫)를 팽형(烹刑)에 처하고 즉묵대부(卽墨大夫)를 높은 벼슬에 봉한 것도 또한 전야(田野)가 개간되었느냐 개간되지 않았느냐에 불과했었으니, 이런 내용으로 팔도(八道)·삼도(三都)에 하유하라." 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영조 79권, 29년(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2월 13일(기해) 6번째기사		

No.	006	작성자	위가야
제목	**동대문의 치성(雉城) 05**		
이야기	**치성 축조를 끝마치다.** 좌의정 이천보(李天輔), 우의정 김상로(金尙魯)가 청대(請對)하여 입시하였다. 친히 비를 빌겠다는 명을 극력 도로 정지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따르지 않았다. 어영 대장 홍봉한(洪鳳漢)에게 숙마(熟馬)를 면급(面給)하라고 명하였는데, 치성(雉城)을 축조하는 일을 끝마쳤기 때문이었다. 병조의 포흠(逋欠)을 낸 고자(庫子)들은 추조(秋曹)로 보내지 말고 본조(本曹)에서 상세히 조사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영조 79권, 29년(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5월 24일(기묘) 1번째기사		

No.	007	작성자	위가야
제목	**동대문의 치성(雉城) 06**		
이야기	**치성 축조에 얽힌 사연** 좌참찬 권적(權樀)을 특별히 본직(本職)에서 해임시키라고 명하였다. 처음 권적이 빈객으로 서연(書筵)에 들어와서 아뢰기를, "치성(雉城)의 터를 닦을 적에 많은 분묘(墳墓)를 발굴하여 다같이 한 구덩이에다 묻었는데 북도(北道) 사람으로 객사(客死)한 자의 고빈(藁殯)도 또한 그 가운데 섞여져 들어 갔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의 아들이 와서 찾다가 찾지 못하고 길에서 울부짖으면서 통곡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돌을 뜨는 장소가 사릉(思陵)과 가깝기 때문에 능침을 진동시켜 놀라게 하였으며 산맥(山脈)을 끊어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니, 어영 대장 홍봉한(洪鳳漢)이 대명하였다. 임금이 기조(騎曹)의 낭관(郎官)과 경기 도사에게 사릉으로 달려가서 봉심(奉審)하라고 명하였는데, 돌아와서 사실과 어긋난다고 아뢰었다. 권적에게 함문(緘問)하라고 명하니, 권적이 사인(士人) 이인익(李寅翼)에게서 들었다고 앙대(仰對)하였다. 이인익은 정배하고 권적은 체직시키라고 명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영조 79권, 29년(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6월 9일(계사) 2번째기사		

No.	008	작성자	박수진
제목	**사월 칠일 이른 아침에 홍인문을 나서면서**[四月七日早出興仁門作]		
이야기	언제나 도성문만 나서면 좋아 / 每出都門喜 하늘 땅이 훨씬 넓은 것만 같네 / 乾坤似許寬 먼 곳 물 아침놀이 비추어주고 / 朝霞明遠水 봄은 산들을 예쁘게 만들지 / 春日媚晴巒 매여 있을 자 또 누구더냐 / 羈紲將誰待 편안하게 마음껏 놀아야지 / 優游浴自安 숲 언덕이 깊고 궁벽하여 / 林丘更幽僻 의관 차릴 필요가 없겠네 / 不必有衣冠		
원천자료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3권		

No.	009	작성자	박수진
제목	**충주로 가기 위해 도성 동문을 나오면서 짓다**[將赴忠州出國東門作]		
이야기	흥인문 밖에 늘어선 버드나무 무성한데 / 興仁門外柳濛濛 멀리 산천 바라보니 하나같이 말끔하다 / 極目川原霽色同 구불구불 들 시내 밝은 해가 흐르고 / 野水逶遲流白日 피어나는 성 구름 실바람을 견디누나 / 城雲澹蕩耐輕風 싯누런 연한 잎들 도성 교외 무성하고 / 穇黃嫩葉迷芳甸 푸르른 벼포기들 아스라이 깔리었네 / 漲綠新苗沒遠空 말 한 마리 노복 둘 간소하기 그지없어 / 一馬二童頗簡略 동쪽이건 서쪽이건 내맘대로 길 간다오 / 我行隨意適西東		
원천자료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2권		

No.	010	작성자	박수진
제목	**성소부부고**		
이야기	장산인(張山人)의 이름은 한웅(漢雄), 어떠한 내력을 지닌 사람임은 알 수 없다.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3대에 걸쳐 양의(瘍醫) 업무에 종사했었다. 그의 아버지는 전에 상륙(商陸 한약재 이름)을 먹고서 귀신을 볼 수도, 부릴 수도 있었다 한다. 나이 98세 때 40 정도로 보였는데, 출가(出家)하여 가신 곳도 알지 못했다. 그분이 집을 떠날 때, 2권의 책을 아들에게 주었으니 바로 《옥추경(玉樞經)》과 《운화현추(運化玄樞)》였다. 산인(山人 장한웅(張漢雄))이 그걸 받아 수만 번을 읽고나자, 역시 귀신을 부릴 수 있었고 학질(瘧疾)도 낫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고는, 마흔살에 출가(出家)하여 지리산(智異山)으로 입산하였다. 그곳에서 곧 이인(異人)을 만나 연마법(煉魔法)을 배웠고, 또 도교(道敎)의 진리에 관한 10권의 책을 읽었다. 빈 암자(菴子)에 앉아 거의 먹지도 않으면서 3년을 보냈다. 하루는 계곡을 지나는데, 두 사람의 중[僧]이 그를 따랐다. 우거진 숲 사이에 이르자, 두 마리의 호랑이가 나타나 엎드려서 맞아 주고 있었다. 산인이 꾸짖자, 호랑이들은 귀를 내리고 꼬리를 흔들며 살려 달라고 애걸하는 태도를 보였다. 산인 자신이 한 호랑이에 올라타고, 두 중으로 하여금 함께 다른 하나에 타게 하여 절[寺] 문 앞에 이르자 호랑이들이 내려 놓고 물러가 버렸다. 산에서 머문 지 18년 만에 서울로 돌아와 흥인문(興仁門) 밖에서 살았다. 나이가 60세였으나 용모는 정정하였다. 이웃에 비워 둔 집이 있는데, 흉측하여 거처할 수가 없자, 그 집의 주인이 귀신을 물리쳐 달라고 그에게 청했다. 산인이 밤에 그 집으로 가 보았다. 두 명의 귀신이 와서 꿇어 앉아 말하기를, "우리는 문(門) 귀신과 부엌 귀신입니다. 요사스러운 뱀이 이 집을 차지하고서 간사한 짓을 하고 있으니 제발 그것을 죽여 주십시오." 하면서, 곧 뜰 가운데의 큰 홰나무 밑둥을 가리켰다. 산인(山人)이 주술(呪術)의 물을 뿜어내자 조금 뒤에 사람 얼굴 모습의 큰 뱀이 번쩍거리는 눈빛으로 꿈틀거리며 절반도 나오지 못한 채 죽어버렸다. 그것을 태워버리게 하자 집은 마침내 깨끗해졌다. 사람들과 어울려 놀면서 화살로 꽂아 물고기를 잡으면, 산인이 죽은 것만 골라서 물동이에 넣고는 숟갈로 약을 떠 넣는다. 그러면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 유유히 헤엄치곤 하였다. 사람들이 죽은 꿩으로 시험해 보라고 하자, 또 숟갈에 약을 묻혀 입 속으로 넣으면 훨훨 날개를 치며 살아나곤 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이상스럽게 여겨,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까?" 물으면, 산인(山人)은,		

	"일반 사람들이란 태어나면서 그 정(情)이 방자하여 삼혼(三魂)과 칠백(七魄)이 택사(宅舍)에서 떠난 사람도 3년이 지난 뒤에야 끊어지니 약으로써는 살려낼 수가 없다." 고 대답하였다. 산인(山人)은 사실과는 다르게 글자를 해독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글만 잘 지어 냈고, 또 밤눈이 어둡다고 말하며 밤에 바깥 출입을 않으면서도 어두운 곳에서 잔 글씨도 읽을 수 있었다. 그 이외의 잡기(雜技) 놀이로, 베로 만든 병에 술을 담는 거나 종이로 만든 그릇에 불을 피우는 것과 같은 일 등 세상 사람의 눈을 휘둥거리게 한 것들이 모두 기록할 수 없이 많았다. 점쟁이[卜人] 이화(李和)란 사람이 점 잘 치기로 한창 유명했었는데, 산인은 자기보다 아랫수로 여겼다. 그가 점치는 것을 볼 때마다 잘 맞히지 못하면 산인이 고쳐서 말해주는데 모두 적중되는 말이어서 이화가 한마디도 감히 보태질 못했다. 이화가, "산인(山人)의 좌우에는 항상 3백 명의 귀신들이 호위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인(異人)이다." 하였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났을 때 산인의 나이는 74세였다. 그는 가산(家産)을 처리하여 조카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승복(僧服)에 지팡이 하나만 짚고 5월에 소요산(逍遙山)으로 입산하였다. 그곳의 중에게, "금년은 나의 명(命)이 다하는 해이니 반드시 화장(火葬)해 달라." 고 말하였다. 오래지 않아 적군이 들어와 앉은 채로 칼에 찔렸는데, 그의 피는 하얀 기름 같았으며 시체가 엎어지지도 않았다. 잠시 후에 큰 뇌성을 치며 비가 내리자 적군은 겁이 나서 가버렸다. 산승(山僧)이 다비(茶毗)를 하자 서광(瑞光)이 3일 동안 밤낮으로 하늘에 잇대어 있었고 사리(舍利) 72개를 얻었다. 그 중에서 큰 것은 가시연[芡] 열매만큼 컸었고, 감청(紺靑)의 빛깔을 띠었다. 모두를 탑(塔) 속에 매장해 두었다. 이 해 9월에 산인(山人)은 강화도(江華島)에 사는 정붕(鄭鵬)의 집에 왔었는데, 정붕은 그의 죽음을 몰랐으며 3일이나 머물다가 가면서 금강산으로 간다고 말하더란다. 다음 해에야 비로소 그가 죽었음을 알았는데, 사람들은, 죽은 뒤에 신선(神仙)이 된 사람이었다고 하였다. 정붕이란 사람 또한 이인(異人)을 만나서 점(占)을 잘 치고 관상을 잘 보던 상률가(象律家)였다. 하는 말마다 대부분 기이하게 적중하였으며 재랑(齋郞 참봉(參奉))을 제수(除授)했으나 받지를 않았다. 혹자는, 그가 귀신을 부릴 수 있었는데 젊어서 죽었다고 하였다.
원천자료	허균, 『성소부부고』 제8권

No.	011	작성자	박수진
제목	**동각잡기**		
이야기	문강공(文剛公)이 이사균(李思鈞)은 곧고 뻣뻣하여 시속에 맞추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여, 기묘년의 사류들에게 용납되지 못하여 전주 부윤으로 나갔었다. 조광조·김정(金淨) 등이 죄를 입자, 부제학에 제수되었으니, 당시의 정권을 잡은 무리들의 생각으로는, 이사균이 반드시 저 사람들에게 감정을 품었을 것이라고 여겨 불러 승진시킨 것이었다. 들어오자 사직하며 아뢰기를, "조광조 등이 죄를 입은 일에 대하여 신은 자세히 모르오나, 반드시 일을 하려 하는데 중도에 지나친 점이 없지 못하여 미워하는 자가 많아서 그리 된 것입니다. 또 조광조 등에게 내리신 전교를 보고 삼가 생각건대, 위에서 만약 이 사람들이 다만 국사를 위하고 다른 생각이 없는 줄을 아셨다면, 그 죄를 감면해야 할 것인데도 감면하지 아니하시니, 아마도 전하의 마음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벌은 비록 보통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만약 남용되면 임금의 덕에 크게 누가 됩니다. 옛 사람은 한 마디 말로 임금을 깨우치게 한 자가 있었지만, 보잘것없는 신과 같은 자가 어찌 전하의 마음을 돌릴 힘이 있겠습니까? 사직합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이사균은 다만 남곤(南袞) 등의 의론에 붙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힘껏 조광조 등을 구하니, 정언 조침(趙琛)이 탄핵하여 관직을 떠났다. 뒤에 이조 판서가 되어서는 또 김안로에게 거슬려서 경상 감사로 나가는데, 김안로가 당시 정승으로 있으면서 흥인문 밖에 나가 전송하려 하였다. 이사균이 듣고는 숭례문으로 나갔다. 그 꼿꼿함이 이와 같았다.		
원천자료	이정형, 「동각잡기(東閣雜記)」		

No.	012	작성자	박수진
제목	**송와잡설**		
이야기	무주(茂朱 무주는 지명으로, 무주 원님을 나타내는 것) 윤명은(尹鳴殷)은 집이 흥인문(興仁門) 안 동학(東學) 근처에 있는데, 문간 뜰에 늙은 홰나무가 있었다. 윤명은이 벼슬하기 전에 한번은 사정(射亭)에 있는 친구 집에 걸어서 갔다가, 술을 너무 마시고 흠뻑 취하여 날이 어두워서 홀로 돌아오다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술이 깨어 머리를 들어보니, 달은 지고 별은 엉성한데 고요하게 사람 소리가 없었다. 다만 남자 한 명이 자신이 누워 있는 곁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으나 윤명은 감히 성명을 묻지 못하였다. 술이 덜 깨어서 느린 걸음으로 돌아오는데, 그 남자도 뒤따라오는 것이었다. 길에서 어떤 사람이 그 남자와 만나 서로 말하는데, "어디를 갔었는가?" 하자, 남자가, "주인이 밤 늦도록 돌아오지 않아, 가서 맞아 온다." 하는 것이었다. 자기 집 홰나무 밑에 와서 돌아보니 보이지 않았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 남자가 뜰에 있는 홰나무의 신(神)임을 알았다.		
원천자료	이기, 『송와잡설(松窩雜說)』		

No.	013	작성자	박수진
제목	**우복집-동대문**		
이야기	갑인년(1614, 광해군6)에 내가 임영(臨瀛)의 부사(府使)로 있던 중 순시를 하다가 양양(襄陽)에 도착하였을 적에 어떤 사인(士人)의 집에 오래된 대나무 그림 두 폭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이를 소동파가 그린 것이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중개인을 보내어 빌려 와 보니, 바로 음각(陰刻)한 인본(印本)이었다. 줄기와 마디와 가지와 잎사귀가 섬세하고 정묘하여 마치 애를 써서 세심하게 그린 것 같으나, 그 막힘없는 생동감과 흘러넘치는 천기는 또 한 마디 한 마디씩을 그리고 한 잎새 한 잎새씩을 그려서 된 것이 아니었다. 내가 비록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동파옹의 지결(旨訣)을 읊조리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상상해 보니, 그 정신과 품격과 필력은 동파옹과 같은 영기(英氣)를 지닌 사람이 아니고서는 능히 미칠 수 없는 점이 있었는바,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 대는 말이 속이는 말은 아닌 듯하였다. 그 고을에 최생(崔生)이 있었는데 이름이 정립(挺立)으로, 일찍이 석양정(石陽正)과 종유(從遊)하여 자못 대나무를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마음을 쓰는 것이 또 정밀하였다. 이에 드디어 비단을 사서 그로 하여금 모사해 묵본(墨本)을 만들도록 하였는데, 비록 간간이 잘못된 곳이 한두 곳 있음을 면치 못하기는 하였지만, 역시 잘 전신(傳神)하였다고 할 만하였다. 그 뒤에 또 들으니 조종조(祖宗朝) 때 중국에서 동파옹이 그린 대나무 그림 두 폭을 구해 와 석공(石工)에게 명해 돌에다 새기게 해 이를 찍어 세상에 유포한 다음, 그 돌을 흥인문(興仁門)의 성 아래에 파묻었는데 그 돌이 지금까지도 아직 남아 있으며, 이것은 바로 그때 찍은 본이라고 하였다. 비록 그 말이 믿을 만한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으나, 우선은 아울러 기록해 두어 학식이 깊고 그림에 대해 잘 아는 자가 나와 평가해 주기를 기다린다. 만력 무오년(1618, 광해군10) 지일(至日)에 쓴다.		
원천자료	정경세, 『우복집(愚伏集)』 제15권		

No.	014	작성자	박수진
제목	**나례(儺禮)**		
이야기	구나(驅儺)에 관한 일은 관상감(觀象監)이 이를 주관한다. 제석(除夕)에 악공(樂工) 한 사람이 창사(唱師)가 되어 붉은 옷에 가면(假面)을 쓰고, 방상시(方相氏) 4인이 황금빛 나는 네 개의 눈이 달린 가면에 곰 가죽을 쓰고, 지군(持軍) 5인이 붉은 옷에 화립(畫笠)을 쓰고, 판관(判官) 5인이 연두색 옷에 화립을 쓰고, 조왕신(竈王神) 4인이 청포(靑袍)에 목홀(木笏)을 들고, 초라니[小梅] 몇 사람이 여자 모습의 가면을 쓰고 대가 긴 깃발을 들고, 12신(神)이 각각 자신들의 가면을 쓰는데 예를 들어 자신(子神)은 쥐 모양의 가면을 쓰고 축신(丑神)은 소 모양의 가면을 쓰는 것이다. 또 악공 10여 인이 도열(桃茢 복숭아나무로 만든 지팡이와 갈대 이삭으로 만든 비)을 들고 이들을 따른다. 그리고 아이들 수십 명을 가려 뽑아서 이들에게 붉은 옷에 가면을 씌워서 아이 초라니[倀子]를 만들어서 의식이 끝날 무렵에 징을 울리며 역귀(疫鬼)를 몰아내도록 한다. 섣달의 대나(大儺)는 광화문(光化門)과 도성의 흥인문(興仁門), 숭례문(崇禮門), 돈의문(敦義門), 숙정문(肅靖門)에서 행하는데, 아이 초라니와 방상시의 복색(服色)과 주사(呪辭)는 고려(高麗)의 의식과 같다. 관상감 관원이 나자(儺者)를 거느리고 새벽에 근정문(勤政門) 밖에 나아가면 승지가 역귀를 쫓을 것을 계청한다. 그러면 내정(內庭)으로 들어가서 서로 창화(唱和)하며 사방에다 대고 부르짖기를 마친 뒤 북을 치고 떠들면서 광화문으로 나오는데, 매 대(隊)마다 횃불을 든다. 마침내 사문(四門)의 성곽 밖에 이르면, 봉상시(奉常寺)의 관원이 미리 수탉과 술을 준비하고 있다가 나자가 문을 나오려고 하면 문 가운데에 신석(神席)을 펴고 희생(犧牲)의 가슴을 벽고(劈辜)하여 찢어서 신석의 서쪽에 자리를 깔고 제사를 지낸 뒤, 끝나면 닭과 축문을 땅에 묻는다. 나식(羅湜)의 시에 이르기를, 나례의 북소리가 둥둥 이웃 마을까지 울리며 / 儺鼓鼕鼕動四鄰 사방 동서로 쫓아내는 형세가 어지럽구나 / 東驅西逐勢紛如 해마다 너를 들으면 흰머리만 늘어날 뿐 / 年年聞汝徒添白 이 나라 귀신 하나라도 없앤 적이 있더냐 / 海內何曾一鬼除 하였다.		
원천자료	이유원, 『임하필기(林下筆記)』 제16권		

No.	015	작성자	박수진
제목	**조상치**		
이야기	조상치(曺尙治) 조상치는, 자는 자경(子景)이며, 호는 단고(丹皐)이다. 또는 정재(靜齋)라고도 한다. 본관은 창녕(昌寧)이고, 문과로 병사(兵使)가 된 신충(信忠)의 아들이다. 기해에 문과에 장원하였고, 벼슬이 부제학에 이르렀다. ○ 공이 세종·문종 두 조정의 지우(知遇)를 입어 오래도록 관직에 있다가 부모의 공양에 편리하도록 자청하여 합천(陜川)·함양(咸陽) 두 고을의 수령을 지냈다. 그때에 집현전이 창설되었는데, 공이 부제학으로 뽑혔다. 세조가 선위를 받으매 드디어 문을 닫고 병을 일컬어 하례하는 반열에 참여하지 않았고, 나이가 은퇴할 때가 못되었는데,상소하여 은퇴하기를 칭탁하기를, “세 아들이 조정에 올라 복이 너무 과하니 마땅히 물러가야 한다.” 하였다. 세조가 그의 속뜻을 알고 허락하였다. 예조 참판을 제수하였으나 다릿병을 칭탁하고 들어가 사은하지 않았다. 세조가 백관을 시켜 동대문에서 전송하니 사흘만에 비로소 벗어나 돌아갔다.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엄자릉(嚴子陵)의 절조가 아니면 한 광무(漢光武)에게 용납될 수 없고, 한 광무의 성스러운 덕이 아니면 엄자릉의 높은 절조를 이루어 줄 수 없다.” 하였다. 《유사(遺事)》 ○ 단종조에 벼슬이 부제학이었는데, 세조가 선위를 받으매, 마단(麻丹) 영천(永川) 창수(滄水)의 마을 이름이다. 에 퇴거하여 종신토록 서쪽을 향하여 앉지 않았다. 일찍이 큰 돌 한개를 얻어서 쪼지 않고, 꾸미지 않고, 그 표면에 써서 새기기를, ‘노산조(魯山朝) 부제학 포인(逋人) 조모(曹某)의 묘’라 하고, 자서(自序)하기를,‘노산조라고 한 것은 오늘의 신하가 아닌 것을 밝힌 것이요, 부제학이라 쓴 것은 사실을 빠뜨리지 않으려는 것이고, 포인이라고 쓴 것은 망명하여 도망한 신하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 하였다. 여러 아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죽거든 이 돌을 묘 앞에 세워라.” 하였다. 공이 죽으매, 여러 아들이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그 돌을 묻었다.공이 일찍이 자규(子規 두견새)를 읊은 사(詞)에, 접동 접동 접동새 소리 / 子規啼子規啼 그 무엇을 호소하노 / 夜月空山何所訴 돌아가리 돌아가리 / 不如歸不如歸 떠나온 파촉 땅을 날아서 건너고저 / 望裡巴岑飛欲度 뭇 새는 깃을 찾아 고요히 잠드는데 / 看他衆鳥摠安巢 너만 홀로 피 토하여 꽃잎을 물들이니 / 獨向花枝血謾吐 그 얼굴 외로웁고 그 모습 초췌하다 / 形單影孤貌樵悴		

	존숭(尊崇)도 안 하는데, 뉘라서 널 돌보리 / 不肯尊崇誰爾顧 슬프다 인간 원한, 그 어찌 너뿐이랴 / 嗚呼人間冤恨豈獨爾 의사충신(義士忠臣) 강개불평(慷慨不平)은 / 義士忠臣增慷慨激不平 손꼽아 못 셀 것을 / 屈指難盡數 하였는데, 대개 단종이 영월에서 지은 자규 노래를 듣고, 느낌이 있어 화답한 것이다. 《취원당수록(聚遠堂手錄)》 ○ 박팽년이 보내 편지에 말하기를, "행차 뒤에 일어나는 티끌을 멀리서 바라보니 높아서 미치기 어렵도다." 하였고, 성삼문이 다른 사람에게 준 편지에 말하기를, "영주(永州)의 맑은 바람이 문득 동방의 기산(箕山)·영수(潁水)가 되었으니, 우리들은 조장(曺丈)의 죄인이라." 하였다. 《영남가찬(嶺南家撰])》
원천자료	이긍익, 『연려실기술』 제4권

No.	016	작성자	박수진
제목	**흥인문 안에 우거하면서 원추리꽃을 읊다**[僑寓興仁門內詠萱花]		
이야기	단극이요 청상에다 유별한 마음으로 / 丹棘靑裳一種心 화려한 숲에서 나지 않은 게 가련하구나 / 可憐生不在華林 금질을 끌어올려 여름 절기 표방하고 / 早提金質標炎序 꽃다운 줄기 빼내어 낮 그림자 돌리기도 / 散擢芳莖轉午陰 염부는 다투어 여러 가지 패옥을 꿰지만 / 艷婦競將紉雜佩 시름겨운 나는 번민 깨친단 말을 못 믿겠네 / 愁人未信破煩襟 북당이 아득히 하늘의 남극에 있는지라 / 北堂渺渺天南極 강개하여 도리어 유자음만 읊노라 / 慷慨還爲遊子吟		
원천자료	김종직, 『점필재집(佔畢齋集)』 제5권		

No.	017	작성자	박수진
제목	**춘천(春川)의 옛 은거지로 돌아가는 동봉(東峰) 선생을 동교(東郊)에서 송별하며**		
이야기	선생을 송별하려고 병든 몸 일으켜서 / 爲送吾君起病身 흥인문 밖에서 더운 먼지 덮어쓴다오 / 興仁門外觸炎塵 하늘 끝의 이별은 오늘 저녁부터이니 / 天涯離別自今夕 메밀꽃 앞에서 눈물 참는 사람이라오 / 蕎麥花前忍淚人 동교에서 술잔 들어 서남자를 전별하니 / 東郊餞飮徐男子 모용과 더불어 세상사를 말하지 않도다 / 不與茅容說世間 우리의 도는 애닯게도 설 땅 없지만 / 吾道傷心立無地 선생은 편히 누워서 일평생 한가하리 / 先生坦腹百年閒		
원천자료	남효온, 『추강집(秋江集)』 제3권		

No.	018	작성자	박수진
제목	**태조실록**		
이야기	5도 도통사 김사형이 돌아오니, 임금이 흥인문(興仁門) 밖까지 거둥하여 그를 맞아 위로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태조 6년 정축(1397,홍무 30) 1월30일 (계미)		

No.	019	작성자	박수진
제목	**태종실록**		
이야기	기보(祁保)·해수(海壽)·한첩목아(韓帖木兒)·임관(林觀)·기원(奇原)이 회암사(檜巖寺)에 유람하니, 세자(世子)가 흥인문(興仁門) 밖에서 전송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태종 8년 무자(1408,영락 6) 10월4일 (무인)		

No.	020	작성자	박수진
제목	**세종실록**		
이야기	사신 창성(昌盛)과 백언(白彦)이 금강산을 구경하려고 강원도로 향하니, 한성부윤 노한(盧閈)으로 접반사(接伴使)를 삼았다. 윤봉(尹鳳)이 흥인문(興仁門) 밖에서 배웅하고, 임금도 또한 좌의정 황희(黃喜)·호조 판서 안순(安純)·좌대언 김맹성(金孟誠)을 명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세종 9년 정미(1427,선덕 2) 5월17일 (갑진)		

No.	021	작성자	박수진
제목	**세종실록**		
이야기	창성(昌盛)과 백언(白彦)이 금강산에서 돌아오매, 윤봉(尹鳳)이 흥인문(興仁門) 밖에서 마중하고, 임금도 찬성 권진(權軫)·병조 판서 황상(黃象)·좌대언(左代言) 김맹성(金孟誠) 등을 보내어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세종 9년 정미(1427,선덕 2) 5월27일 (갑인)		

No.	022	작성자	박수진
제목	**세종실록**		
이야기	평강 등지에서 강무하였다. 왕세자와 여러 관원들이 흥인문 밖에서 공손히 전송하였다. 풍천에 머무르니 경기 감사는 활·살·새매·사냥개·우구(雨具)·마장(馬粧)과 술·물고기를 바치고, 함길도 감사는 여러가지 해물(海物)을 올렸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세종 14년 임자(1432,선덕 7) 2월19일 (무신)		

No.	023	작성자	박수진
제목	**만남과 이별**		
이야기	기해년(1599, 선조32)에 유대정(兪大禎)이 신경숙(申敬叔 신흠(申欽))에게 말하기를, “저는 이홍로(李弘老)와 두터운 교분이 있었습니다. 신묘년(1591, 선조24)에 제가 한림(翰林)이 되었을 적에 이홍로는 좌랑(佐郞)으로서 상중에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고 하기에 찾아가 보았더니, 이홍로가 말하기를, ‘제가 정철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기에, 제가 ‘무엇으로 잡으려고 하는가?’ 하니, 이홍로가 말하기를, ‘잡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대동 찰방(大同察訪)으로 있었을 때, 김공량(金公諒)이 역(驛)에 말을 들여 놓자 제가 면포(綿布) 12동(同)을 주었더니 상께서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고서, 이어서 벽 위에 걸어 놓은 은대(銀帶)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상께서 내린 은사(恩賜)입니다.’ 하였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떻게 정 재상을 잡을 수 있겠는가?’ 하니, 이홍로가 말하기를, ‘또 잡을 만한 일이 있으니, 여기에 어찰(御札)이 있습니다.’ 하면서, 책갑(冊匣)을 열어 젖히면서 어찰을 보여 주려고 하기에 제가 손을 저으며 저지하여 말하기를, ‘꺼내지 마라, 꺼내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그대는 해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이홍로는 또한 ‘아계(鵝溪 이산해)가 태자를 세우려고 청한 뜻은 신성군(信城君)에 있었으며, 나랏일은 우리들이 하기에 다른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후에 이홍로는 그의 생각대로 안덕인(安德仁), 이원장(李元長), 이진(李瑱), 윤탕(尹宕) -초명(初名)은 홍(宏)이다.-, 이성경(李晟慶) 등을 꼬드겨 정 재상을 배척하는 상소를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매우 놀랐으며 마음속으로 이놈과 절교하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큰 화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6품관에 승진하여 이천 부사(利川府使)로 나아갈 적에 이홍로는 이미 상복을 벗고 **동대문 밖으로 나와 전송**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술잔을 돌릴 적에 이홍로가 술잔을 주기에 저는 부채를 휘둘러 그 술잔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홍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와 진즉 교분을 끊은 것을 그대는 알고 있을 것이다.’ 하니,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였다. 유대정의 이 말은 이홍로가 권세를 부리던 날에 있었던 것이니 참으로 거짓이 아니다.		
원천자료	김장생, 『사계전서(沙溪全書)』 제9권		

No.	024	작성자	박수진
제목	**만남과 이별-윤첨정**		
이야기	○ 성은 윤씨이고 직함은 첨정(僉正)인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성질이 방탕하여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았다. 술을 즐겨 마셨으며 취하면 큰 소리로 옆에 앉은 사람들의 비위를 거슬려 비록 사람들의 숨겨진 결점이라도 숨기는 것이 없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간혹 견딜 수 없는 일도 있었으나, 그 말이 모두 농담이고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그저 농담으로 넘기고 그를 나무라지 않았다. 그의 농담은 생각에서 나왔고 해학이나 풍자도 섞여 있었다. 또 자기의 용기를 믿고서 아첨하거나 굽히지도 않으니,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곧은 사람이라고 지목하였다. 이 때문에 환난을 면하였던 것이다. 그때 아주 젊은 세력가로 한(韓)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바야흐로 그의 재주가 발휘되어 모든 사람들은 선동하여 사헌부와 홍문관에서 팔을 걷어 부치고 당시의 여론을 올리고 내렸으며, 하늘까지고 열고 닫을 듯이 그의 칼끝과 칼날이 닿는 곳은 쇠와 돌까지도 부서질 지경이며, 한 번 숨을 불어주면 썩었던 나무에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정도였다. 그래서 한씨의 부친도 농기구를 팽개치고 초가집을 뛰쳐나와 두둑한 봉록을 받는 지위에 올랐다. 그들은 세력을 빌려서 기염을 토하며 세상의 문벌들을 능가하였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발걸음도 조심할 정도였다. 하루는 윤첨정이 술병을 가지고 흥인문(興仁門 동대문) 밖까지 손님을 전송하였다.		
원천자료	김안로, 「용천담적기(龍泉談寂記)」		

No.	025	작성자	박수진
제목	**친구의 시에 화답하다**		
이야기	한가로운 날 감흥이 일어나기에 기옹과 함께 천장을 방문하니 천장이 우리를 위해 감주를 내놓았다. 그때 마침 승려가 찾아와 시를 지어 달라고 조르기에 모두 함께 시권(詩卷) 속의 시에 화운(和韻)하면서 퍼질러 앉아 있다가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헤어졌는데, 천장이 시를 보내 왔기에 마침내 이에 화답하다 [暇日乘興 同畸翁訪天章 天章爲設醴適有乞詩僧至 共和卷中韻 留連到嘿黑而散 天章有詩來 遂和之] 동대문 외딴 곳 사립문 두드리려 / 東城僻處叩荊籬 말 타고 가면서도 약속에 늦을까 걱정했네 / 跋馬還愁赴約遲 손님 앞엔 술잔 대신 감주 한 그릇 / 留客樽空聊置醴 고생하며 승려의 시 억지로 지어 줬네 / 對僧吟苦强題詩 흥을 내기 어려운 겨를 없는 벼슬 생활 / 官身少暇難乘興 우연한 멋진 모임 구태여 기약을 정하리요 / 勝事隨緣豈問期 오늘날 옛사람을 못 본다 한탄 마소 / 莫恨古人今不見 같은 때에 우리들을 태어나게 해 줬는걸 / 天敎吾輩得同詩		
원천자료	장유, 『계곡집(谿谷集)』 제31권		

No.	026	작성자	박수진
제목	**고대일록**		
이야기	3월 4일 임인(壬寅) 충청도 서산(瑞山) 땅에서 연못의 물이 넘쳐나, 물고기와 개구리가 서로 싸웠다는 소문을 들었다. 죽은 개구리 가운데 혹 머리가 끊어지고 배가 찢어진 것, 혹 발이 잘린 것이 부지기수여서 쌓인 것이 언덕 같았다. 군수가 감사에게 보고했고, 감사는 조정에 장계(狀啓)를 올렸다. 또 경성의 동대문 바깥에서는 청개구리와 황개구리가 서로 싸워, 죽은 청개구리가 부지기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근고(近古)에 없던 변고이다. 물고기와 개구리가 서로 싸우는 변란은 백제가 멸망할 쯤에 나왔다고 하니, 너무나 괴이하다.		
원천자료	정경운, 『고대일록(孤臺日錄)』 제3권, 신축(辛丑, 1601)		

No.	027	작성자	박수진
제목	**용재총화**		
이야기	무릇 채소와 과실은 알맞은 흙에 따라서 모두 심어야 그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동대문 밖 왕십리는 무, 순무, 배추 따위를 심고 있으며, 청파(靑坡)·노원(蘆原) 두 역(驛)은 토란이 잘 되고, 남산의 남쪽 이태원(李泰院) 사람들은 다료(茶蓼)를 잘 심어 홍아(紅芽)를 만들고, 경기 삭령(朔寧) 사람들은 파를 잘 심고, 충청도 사람은 마늘을 잘 심으며, 전라도 사람들은 생강을 잘 심는다. 정선(旌善)의 배와 영춘(永春)의 대추와 밀양의 밤과 순흥(順興)의 잣과 함양(咸陽), 진양(晉陽)의 감은 다른 곳에도 이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 고을 것처럼 많은 맛도 좋지 못하다.		
원천자료	성현, 『용재총화』 제7권		

No.	028	작성자	박수진
제목	**만남과 이별-김정의 시**		
이야기	원충(元冲) 김정이 시를 지었는데, 저승으로 돌아가는 오늘 밤 나그네에게 / 重泉此夜長歸客 부질없이 밝은 달이 머물러 인간을 비추네 / 空留明月照人間 하고, 대유(大柔 김구의 자)가 또 고시(古詩)를 읊었으니, 흰 구름 속에다 뼈를 묻으면 길이길이 그만일 것을 / 埋骨白雲長已矣 부질없이 흐르는 물 남아서 인간으로 향하네 / 空餘流水向人間 하고, 또 읊기를, 밝은 달 긴 하늘의 밤 / 明月長天夜. 하니, 원충이 화답하기를, 추운 겨울 이별하는 때로다 / 嚴冬惜別時		
원천자료	『해동야언』 제3권		

No.	029	작성자	박수진
제목	**만남과 이별(동대문)**		
이야기	○ 일설에는 윤결이 술을 좋아하여, 아우 윤준과 함께 구사안의 집에 가서 여러 날 머무르면서, 취중에 시휘에 저촉되는 말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안명세 죽은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신다.”고 하였다. 그러자 같이 있던 사람이 이 말을 진복창에게 일렀으므로 복창이 사안에게, “아무 날 윤결의 형제가 그대 집에 와서 무슨 말을 하더냐.”고 물었다. 사안이 숨기고 말하지 아니하자 복창은 화를 내면서, “그러면 그대도 공모한 모양이니, 내가 마땅히 고변하겠다.” 하였더니, 사안은 드디어 살려 주기를 빌면서 다 이야기 해 주고 또, “취중에 한 말이니, 믿을 수 없다.” 하였다. 복창이 적접 고발하라고 하므로 사안이 그대로 따라 하였는데, 잡아다가 문초를 해 보니, 과연 아무런 사실도 없었다. 이에 복창은 윤준이 평소에 술을 좋아하고 또 겁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옥졸 중에서 윤준과 잘 아는 자를 불러 좋은 술 두어 병을 주며 달래기를, “사건이 장차 풀려서 백씨는 곧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장독이 풀린다.” 하며, 다 마시게 하였으므로 잔뜩 취해서 그만 허위로 자백하고 말았다.장차 사형을 받으려 나가는데 회자수(劊子手 사형할 때 칼로 목을 베는 사람)가 돈을 요구하자, 윤준이 그 아내에게 주지 말라고 하였더니 회자수가 어찌 참혹하게 죽였던지, 듣는 사람이 모두 불쌍히 여겼다. 윤결은 북도로 귀양하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동대문 밖까지 전송을 나갔더니, 결이 시를 지어 주었는데 그 속에 또 시국에 걸리는 말이 있었다.복창이 다시 아뢰어 잡아들이니 드디어 매를 맞다가 죽었다. 《조야첨재(朝野僉載)》에는, “준이 수레에 실려서 나갈 때 그 아내가 길가에서 울고 있었더니, 회자수 두어 사람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준이 그 아내를 보고, ‘돈 준다고 내가 죽음을 면하겠는가.’ 했더니, 회자수가 노해서 형을 지극히 혹독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 윤결(尹潔)은, 자는 장원(長源)이며, 호는 취부(醉夫)요, 본관은 남원(南原)이다. 중종 계묘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형장을 맞고 경원(慶源)으로 귀양하게 되었는데, 복창이 극력으로 다시 문초할 것을 주장하여 마침내는 매를 맞다가 죽었다. 《유분록》 윤결이 매를 맞을 때에 모든 취조관들이 복창을 무서워하여 큰 소리를 치면서 감독하는데, 민제인(閔齊仁)만은 이맛살을 찌푸리고 얼굴을 돌리며, “옥(玉)은 이미 부서졌구나.” 하였다. 복창이 이 말을 듣고 탄핵하였으므로 제인의 관직을 빼앗고 훈록을 깎아버렸다. 일찍이 결이 꿈에 시를 지었는데,		

	바다 위 외로운 배, 천리길에 날은 저물었는데 / 海日孤舟千里暮 **물과 구름사이의 기다란 젓대 소리 두어 마디에 가을이 드는구나 / 水雲長笛數聲秋** 하였는데, 열흘이 못되어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람들은 그 시가 멀리 귀양 갈 징조라고들 말하였다. 《장빈호찬》
원천자료	이긍익, 『연려실기술』 제10권

No.	030	작성자	최우석
제목	**흥인지문 좌우성벽 철거(1)**		
이야기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군부 대신(軍部大臣) 권중현(權重顯)이 아뢰기를, "동대문과 남대문은 황성(皇城) 큰 거리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이 붐비고 수레와 말들이 복잡하게 드나듭니다. 게다가 또 전차(電車)가 그 복판을 가로질러 다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피하기가 어려워 접촉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통 운수의 편리한 방도를 특별히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루(門樓)의 좌우 성첩(城堞)을 각각 8칸씩 헐어버림으로써 전차가 드나들 선로(線路)를 만들고 원래 정해진 문은 전적으로 사람만 왕래하도록 한다면 매우 번잡한 폐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삼가 도본(圖本)을 가져와 성상께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裁決)을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고종 44년(1907) 3월 30일) "성벽훼철 성벽처리소에서의 정함으로 작일부터 한일양국 역부가 동대문 좌우성을 헐기에 착수하였다더라." (『대한매일신보』 1908년 3월 12일)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고종 44년(1907) 3월 30일 「성벽훼철」, 『대한매일신보』, 1908년 3월 12일		

No.	031	작성자	최우석
제목	**흥인지문 좌우성벽 철거(2)**		
이야기	"성벽처리결과 재작일에 내부에서 성벽처리위원회를 열었는데 동대문 曲벽을 훼철하여 석재를 한성위생회에 이용케하는 건 (2) 동대문 오간수문을 *천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 (3) 평안북도 동림진 성벽을 경의철도 개축하기 위해 훼철하는 건을 결의하였는데 1은 한성위생회에서 2는 내부 토목국에서 3은 철도감리국에서 처리한다더라." (『황성신문』 1908년 7월 8일) "동대문 도로 확장 동대문의 인마교통은 년년 증가하고 근일에 경원철도 기공 및 뚝섬의 원예모범장 및 동척출장소 등의 설치로 인하여 경성내외의 운수교통상에 추요한 땅이 되나 동문은 고래로 일요해지인 고로 협익한 통로를 두고 또 문 밖에는 옹벽을 회축하여 교통상에 불편이 심함으로써 금일에 문전의 성벽을 개정하고 폭원인 간의 신도를 수축하여 성외로 직통케 하는데 이 공사는 내무부의 소관으로 시행한다하고 본월 하순에 낙성할 예정이라더라." (『매일신보』, 1911년 5월 23일)		
원천자료	「성벽처리결과」, 『황성신문』, 1908년 7월 8일 「동대문 도로 확장」, 『매일신보』, 1911년 5월 23일		

No.	032	작성자	최우석
제목	**최초의 전차**		
이야기	“전거래왕 어저께부터 전기거가 동대문과 새문으로 래왕한다더라” (『독립신문』, 1899년 8월 11일.)		
원천자료	「전거래왕」, 『독립신문』, 1899년 8월 11일		

No.	033	작성자	최우석
제목	**돈의문 경매로 매각 예정. 철거 서소문 훼철**		
이야기	“경매훼철에 처한 서소문 길 넓히기 위하여 허러버리는 서소문. 서대문도 역시 길 넓히기 위하여 회철 총독부 토목국 조사과에서는 이번에 도로를 정리하기 위하여 경성 서소문을 무너버릴차로 12월 2일에 경매입찰을 시행한다는데 당사자의 말을 들은즉 서소문과 같은 것을 시내 각처에 남겨두면 그것을 보전하기에 불소한 경비가 들뿐 아니라 교통하기에도 극히 불편하고 서소문은 남대문과 같이 문 양편의 성을 헐고서라도 문은 보전하여둘만한 가치가 없음으로 이번에 그 문을 무너버리고 도로를 넓히려는 계획이라. 그러함으로 도로를 넓히여 통행을 편리케 함은 다만 서소문 뿐 아니라 불원하여 서대문도 무너버릴 터이라 하니 과연 당사자 하는 말과 같이 서소문은 남대문과 같이 못하여 역사상으로 말하던지 또는 건축학상으로 말하던지 큰 가치가 없으나 오늘날까지 경성의 성문으로 여러 사람이 서소문 새문하던 이름이 전하여 내려오다가 일조에 그 문을 없이 한다는 말을 들으니 자연히 애석한 마음이 일어남을 금치 못하 겠으나 교통의 편리를 위하여 그럼인즉 할 일 엇으며 물형그린석물과 현판 등 물은 팔지 아니하고 기념으로 영구히 총독부에서 보존하여 둔다더라.“		
원천자료	『매일신보』 1914년 11월 25일		

No.	034	작성자	최우석
제목	**나는 경성 서대문이 올시다**		
이야기	“나는 경성 서대문이 올시다. 나는 경성 서문 오백년의 한, 평생 허다한 역사. 무수한 풍상. 일희일비로 영결. 나는 세종조 즉위 3년 즉 서력 기원 1421년에 축성도감의 지휘하에 팔도 장정 30만명의 손으로 탄생된 경성의 여덜성문되는 우리 팔형제 중에 둘째되는 돈의문이올시다. 세상사람이 통칭 부르기를 서대문이라 하며 또 말하기를 새문이라 하는 고로 몇백년 내려오면서 나는 많이 먹어도 항상 간난아히다려 새악이 새악이 하는 세음으로 새문새문하더니 지금은 이 새문이 아주 경성의 여러분과 인연이 지나서 오는 6일에는 경매가 되어 간다합니다. 새벽 서리 찬바람에 33전파루소래가 종로 종각에서부터 쨍쨍 울려나오면 수문군사는 단단히 닫쳤던 나의 입을 넓히 열어 그 당시 말로 팔만 장안 억만 가구의 늙은이 젊은이가 마음대로 나가기도 하고 팔도 삼백륙십관의 사나이 여편네가 마음대로 들어오기도 하다가 저녁해는 인왕산을 넘어가고 밝은달이 세상을 차지할 때 28수인정소리와 같이 입을 다물어 성외더족의 출입도 막고 불시지변도 방비하던 니로쇼이다. 평시에 나의 직무는 360일 밤낮이러하지 만일 죠국가에 병화가 생길 때에 무재무능한 나도 능히 국가의 간성(干城) 노릇을 하여 성하에 모라오는 군사의 탄환과 활살을 모두 나의 한 몸으로 향하여 모혀들 것만은 이를 능히 견디고 이때까지 엄연하게 한성 서편을 지키고 있다가 다만 몃푼에 경매가 되어 나가 나의 영화롭고 훈공많고 귀중한 이 몸이 무무한 백성의 집 뒷간 기둥이 될는지 하루밤 남의 잠잘 자이랴고 아궁지 신세를 지고 한 주 먹개가 되어 사나운 봄바람에 당처없이 떠다닐 생각을 하닛가 늙은 신세에 눈물이 저절로 옷깃을 적십니다. 당초에 우리 팔형제가 생길 때에 당시 우의정 이원(李原)이라는 재상이 도읍의 성곽은 집안의 울타리라하며 여덟문을 세우고 도성을 중수하자 조정에 의론을 세우셨음으로 우리 팔형제는 그 중대한 책무를 스스로 어렵게 알아 임진란 병자란과 홍경래의 큰 난리에 만고풍상 다겪은 말 어찌 이로전달하리잇가. 나의 문루를 지탱하여주는 널복판에 걸어있는 날개돗친 이백호는 아직도 위엄이 상치않고 서관길천여리에 향즛케 붙어있는 ‘돈의문’ 현판은 먹자국이 새롭것만 세월이 가고 가고 시세가 변하고 변한 것이야 어찌할 수 있으릿가. 우리 끝에 동생 서소문은 지난 섣달에 헐려갓고 우리 맛형 동대문과 셋째 아우 남대문은 좌우 편셩이 뭉주러져 몃해 이래로 우리 형제와 연신이 전혀 끈혓는데 지금에 이 몸조차 형해를 일케되니 이전을 도라보고 지금을 생각하매 감구지회를 어찌 금하오릿가. 이전에는 도읍서편의 중진이라 송장출입은 상의라 물론이오. 내 몸에서 고리배 북못하아만 빼여가도 대명률에 조률하여 엄한 형벌을 씨워셔 이 몸을 보호하더니 이제는 나라에서 공번되 이 이를 파라 독긔와 연장이 무참히 나의 몸을 파회할 생각을 하니 소름이 죽죽 꾀치나이다. 십년전에 미국 사람 골불안(骨佛安)이가 와서 전차를 놀 때 내문턱이 너무 얏다고 아래를 드리파서 주츄가 모다드러나서 남붓그러워 남붓그러워하며 골불안이라하는 양인은 나를 이 모양이 되게 하엿으니 저의 뼈도 편안치 못 하리라 하고 원망을 하였더니 지금에 아주 없어질 줄이야. 어찌 꿈에인들 측량하얏사 오릿가. 이 생각 저 생각 슬픈 일만 생각하면 한없고 끝없지만은 한번 도리켜 다시 도량넓게 생각하여보면 내 몸이 헐려가는 것이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이전에 사람의 지혜가 열리지 못하였을 때야말로 이런 성문이 능히 도읍에 간성이 되었지만은 세상 매사가 모두 진보발달되어 지난번 우리 문 아래로 지나가는 양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른 즉 덕국의 대포 한방이면 남산이라도 무너진다하니 나 같은 놈은 골백이 있어야 조금도 쓸데가 없고 도리어 전과 달라 번화한 경성의 교통에 만방 해가 될 뿐이오. 더구나 도로개정으로 인하여 헐리인다하고 내 몸동이 되얐던 석재는 다시 여러분이 발고 다니실 길로 들어간다하니 죽어도 아주 죽는 것이오. 공번된 큰 일을 휘아여 몸을 버리는 것이니 ‘서대문’의 면목으로 어찌 깃겁지 아니하오릿가. 그도 또한 하혼자 당하는 일이 아니오. 경향각처에 대동지환이오. 동대문이나 남대문 같이 잘 생기지 못하여 옆으로 길을 돌리고 보전하여 주기를 바랄 수도 없는 고로 일희일비로 495년을 한 세상으로 알고 도라가여 경향제위의게 작별 고하압니다.”		
원천자료	『매일신보』 1915년 3월 4일		

No.	035	작성자	최우석
제목	**서대문 경매**		
이야기	서대문의 낙찰 205원-육일에 경매한 새몬 목재만 205원에 시구의 개정으로 인하여 경성 서대문을 헐기로 결정하고 총독부 토목국 됴리과에서는 6일 오전에 경매입찰을 행하여 입찰자 십여명 중에서 결국 이백오원 오십전으로 경성 염덕기(廉德基)에게 낙찰되었는데 본래 경매한 것은 거의 목재뿐이오. 석재는 이것을 도로의 개수에 사용하고 또 고고학 상에 참고할 자료될 부속물은 총독부에서 영구히 보존한다더라.		
원천자료	『매일신보』 1915년 3월 7일		

No.	036	작성자	최우석
제목	**서대문**		
이야기	“구문팔자타령(11) 서대문 위치조차 변화무상. 혁신파 최종무대. 자리와 이름 변전을 일러 무엇하리까. 이 세상을 떠난지도 어언간 열네성상 간판변경도 수차. 문중에서 서대문같이 변천많은 문은 다시 없지요. 나는 본시 위치를 지금 사직동과 송월동 사이에 있는 월암이라는 바위 있는 옆에 정하 그 문을 서전문이라 하니 태조 5년 9월 이지과 20년인 태조의 태종때에.... 정사년에 이 역시 헐리고 말았으니 내가 이미 세상을 하직한 지가 14년이나 되는가보외다. 왕기를 돌든 새문동 폐궁에 춘초리리 지금 사직동 뒤를 새문동(塞門洞)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색문동이라는 이름이 내가 다친 때문에 생긴 것이랍니다. 내가 자리를 옮기게 된 이유는 이조 제3세 태종때에 이숙번이라는 신하가 공훈이 높아 태종의 총애가 대단할 때 마침 이숙번의 집이 내 안에 있어서 인마의 통행**란 하매 태종께 주청하여 나*막어 버린 것이라 합니다. 요란하거든 집을 옴길게지 그런 법이 어대 있겠습니까마는 호랑이 담배 먹는 시대이라 어떻게 합니까. 색문동 이야기가 낫으니 한마디 할가요. 광해주.... 혁신파의 망명로 임오와 갑신변란 주마등 같이 변복되는 근세조선 유신사상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든 일본공사 화방이가 난군에게 몰려서 서대문을 두드리다가 혈로를 인천으로 구한 임오군변이며 갑신정변통에 김옥균 박영효 등의 모사가 실패하여 수구당에게 몰릴 때의 죽첨 공사의 거느린 군대도 여러번 내문통으로 출입하였답니다. 독립회보 상전장 서양문명 수입처 독립협회와 보부상들이 싸우기도 내문밖 감영 앞에서 가장 격렬하엿으며 조선에 서양문화를 끼치어준 서양인도 서대문 출입이 가장 자잣답니다. 그러나 무엇합니까. 반천년기나 **도 내문동으로 전차가 지나가게 되더니 끝을 막어버리고 **핫습니까.		
원천자료	『동아일보』 1928년 4월 30일		

No.	037	작성자	최우석
제목	**대한제국 교통의 중심 이동(서대문)**		
이야기	경인선의 종착역인 서대문역으로부터 경의선의 출발역이 설치될 마포까지 전차노선을 연결하여 한성으로 통하는 독자적인 장거리 교통망 확보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미국인 콜브란에 의해 건설되어 대한제국기 '경성정거장'으로서 사실상 서울의 관문 역할을 수행한 서대문역 일대는 서로는 인천, 남으로는 부산, 북으로는 의주로 뻗어가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 결과 서대문 밖 일대에는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토지투기가 일어나기도 했다. (110~111쪽) 러일전쟁 때 일제의 군용철도로 건설된 경의선은 용산역 이북의 남대문역과 서대문역을 노선에서 배제한 채 용산역에서 서쪽으로 급선회하여 수색-일산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대한제국기 철도노선은 경의선의 시발역으로 결정된 마포와 경인선의 종착역이 서대문정거장을 연결하는 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서대문역이 '서울역'인 셈이었다. 그런데 러일전쟁기에 일제의 군사적 논리에 따라 용산역으로 철도교통의 중심이 순식간에 이전하게 되었다. 이후 통감부 시기를 거치고 병합 이후 서울이 확실히 총독권력의 거점지로 자리매김되면서 남대문역이 경성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기 이전까지는 용산역이 한반도 철도교통의 거점지로서 확고한 위상을 점하게 된다. 경의선이 남대문역을 거치도록 노선변경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191년 이후의 일이다.(125쪽)		
원천자료	김백영, 「러일전쟁 직후 서울의 식민도시화 과정 -비교식민지도시사적 고찰-」, 『지방사와 지방문화』 8권 2호		

No.	038	작성자	최우석
제목	**서대문역 폐지**		
이야기	서대문역 폐지 경성 서대문정거장은 남대문 수색간 직통공사 기타 관계상 오는 3월 21일까지 이를 폐쇄한다더라.(『매일신보』, 1919년 3월 18일) 폐지될 서대문역 - 이십년전 개업, 처음은 남대문 이상 서대문정거장은 이번에 철도선로를 개량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본월 말일까지에 폐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정거장은 명치33년(1900) 7월 8일에 경인철도가 처음 개통하였을 때에 경성정거장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경성방면으로는 그 중종점이었으며 당시로 말하면 남대문 정거장보다도 번창하여 장래에는 번창할 줄로 알았더니 그 후에 세월이 지남을 따라서 경성의 천지는 비범한 발전이 되어 정거장의 세력은 남대문에게 빼앗기게 되었으니 서대문 정거장 부근에는 외국 영사 외 기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여 수년전까지는 일이등 승객이 남대문보다 많아서 유망한 정거장으로 인정되었더니 최근에 이르러서는 서대문에는 하루에 기차가 몇 번씩 떠나지도 아니하고 다만 석탄과 신탄이 조금씩 풀릴 뿐임으로 예전에 번창하던 자취는 그림자도 볼 수가 없게 되었도다. 이번에 폐지하게 됨은 실로 세상의 운수가 발달함에 따라서 엇지 할 수 업슨 운명이라고 어떠한 경성 관리국원은 말하더라.(『매일신보』, 1919년 3월 22일)		
원천자료	「서대문역 폐지」, 『매일신보』, 1919년 3월 18일 「폐지될 서대문역」, 『매일신보』, 1919년 3월 22일		

No.	039	작성자	최우석
제목	**경성역이라는 이름의 변천**		
이야기	경부철도 3월 27일부터 경인선 경성역을 서대문역이라 개칭함. 경부철도주식회사 (『황성신문』, 1905년 4월 11일) 역명 개칭 고시 남대문역을 경성역으로 오는 1월 1일부터 남대문역을 경성역이라 개칭하고 동시에 동 구내에 있는 남대문전신취급소를 경성전신취급소라 개칭할 뜻을 오는 29일부 총독부고시로 공포한다더라. (『동아일보』, 1922년 12월 29일)		
원천자료	「경부철도」, 『황성신문』, 1905년 4월 11일 「역명 개칭 고시」, 『동아일보』, 1922년 12월 29일		

No.	040	작성자	박수진
제목	**동사만록-떠남**		
이야기	서울을 떠났다. 돈의문(敦義門) 밖에 나오니, 눈이 어지럽게 내리는데 눈을 무릅쓰고 가, 마포나루에 도착하였다. 좌영 병방(左營兵房) 백남익(白南益)이 군사를 거느리고 마포나루 가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병으로 갈리고 심의홍(沈宜弘)으로 갈음하게 하였으나, 아직 진중에 부임하지 않았다. 눈이 그치고 바람이 일었다. 진흙길이 미끄러워서 간신히 부평(富平)의 오류동(梧柳洞) 30리에 다다라 유숙하였다. 밤에 목인덕(穆麟德)이 인천(仁川)에서 올라와서 또한 여기에 이르러 유숙하였는데, 장차 서울에 들어가서 하루를 머물렀다가, 인천으로 돌아와서 같이 출발하겠다고 하였다.		
원천자료	박대양, 『동사만록(東槎漫錄)』		

No.	041	작성자	박수진
제목	**연도기행-돈의문**		
이야기	맑음. 아침에 떠났다. 개륜현(介倫峴)에 올랐다. 창릉(昌陵)을 지났는데, 노소(老少) 친구들이 길을 메웠다. 연서관(延曙館) 뒤에 이르니 좌윤(左尹) 구인기(具仁堅) 및 그 아들 도사(都事) 구일(具鎰)이 와서 위문했다. 녹번현(綠礬峴)을 넘으니 이조 참판(吏曹參判) 오정일(吳挺一)·춘방 보덕(春坊輔德) 오정원(吳挺垣)이 와서 기다렸다. 정답게 회포를 풀었다. 홍제 석교(弘濟石橋)를 건너니, 관장(管掌)하는 각 시(寺)의 하리(下吏)들이 마중하며 뵈었다. 홍제원(弘濟院)에 들어가니 경평군(慶平君)을 비롯하여 여러 종친(宗親)이 모두 와서 정역(征役)을 위문했다. 잠시 앉아서 응대했다. 관할(管轄)하는 여러 시(寺)의 낭관(郎官)이 일제히 와서 인사를 드렸다. 경영 관사(京營官舍)에 이르러 관복을 정제하고 가니, 부사·서장관 및 각 부서(部署)의 원역(員役)들이 무리를 따라 나갔다. 돈의문(敦義門)으로 들어가, 종루(鐘樓)를 지났다. 눈에 띄는 고향의 모습이 전이나 다름없었다. 지난해 8월에 작별하던 때의 회포를 돌이켜 생각하니, 눈물이 하염없이 솟는다. 대궐에 나가 입시하여 행정(行程)의 어려웠던 일과 사행의 전말을 진달했다. 복명(復命)을 끝마치고 낙동(駱洞)으로 돌아오니, 서쪽에 걸린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어린 자식이 문에서 마중했다. 이날은 40리를 갔다.		
원천자료	이요, 『연도기행(燕途紀行)』 하권, 병신년(1656, 효종 7) 12월		

No.	042	작성자	박수진
제목	**을사전문록**		
이야기	박광우의 자는 국이(國耳)이며 본관은 밀양으로 기묘년에 생원이 되었다. 을사년 화가 일어나서 대궐에 들어갔다가 상처를 입고 옷자락을 찢어 머리를 싸고 의전부 외랑(外廊)에 앉았었다. 성안 마을의 약도(約徒)들이 글을 올려 어진 이를 신원(伸寃)하고자 하여 그 글을 청하는 이가 앞에 많이 모여 섰었다. 참판 이찬(李瀡)과 참지(參知) 김노(金魯)는 모두 나이가 젊고 글씨를 잘 썼으므로, 두 공으로 하여금 붓을 잡고 종이에 쓰게 하였는데, 공이 한쪽으로 들으며 한쪽으로 부르자, 글이 물이 솟는 듯하여 김노와 이찬 두 사람이 오히려 따라 쓰지 못하였으며 일시에 지은 10여 통의 말뜻이 간절하였다. 공은 젊어서부터 경학(經學)에 밝고 문장에 능하였으며 을유년 갑과(甲科)에 올랐다. 인종조에 강릉 부사(江陵府使)에서 사간(司諫)으로 들어왔고 을사년에 화가 일어나자 사간으로서 중학일회(中學一會) 때에 그 의논을 따르지 않았고, 또 끝난 뒤에 바로 유관의 집으로 향하여 이약해 관순 들과 같이 앉아 이야기한 까닭으로 대궐 뜰에서 추국(推鞫)하고 봉산(鳳山) 동선역(洞仙驛)으로 정배하게 되었는데 유배지로 떠나지 못하고 장독(杖毒)으로 인하여 돈의문(敦義門) 밖에 나가다가 죽었다.		
원천자료	이중열, 『을사전문록(乙巳傳聞錄)』		

No.	043	작성자	박수진
제목	**재조번방지**		
이야기	유성룡이 긴요한 것을 수습하여 따라오라 하니, 이수겸이 울면서 갔다. 돈의문(敦義門)을 나와 사현(沙峴)에 이르자, 동방이 차차 밝았다. 돌아보니 성중에 불이 일어나서 연기와 불길이 이미 공중에 솟구쳤다. 이는 난민(亂民)이 먼저 장례원(掌隷院)과 형조(刑曹)를 불태웠으니 거기에는 공사노비(公私奴婢)의 문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원천자료	신경,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 1권		

No.	044	작성자	박수진
제목	**패관잡기**		
이야기	개[犬]는 사람이 기르는 것이니 사람에 의지하여 먹이를 구하고, 주인을 위하여 집을 지키는 것이 그 본성이다. 중종 말년부터 돈의문(敦義門) 밖 인가의 여러 개들이 북쪽 산으로 올라가서 시체를 찾아서 먹고는 인하여 내려오지 않고 새끼까지 낳아서 6·7년이 되자 수효가 4, 50마리나 되어 사람을 보면 짖으며 물곤하였다. 가정 무신년에 늙은 군사가 개떼에게 물려 죽자, 개들이 다투어 뜯어 먹어서 거의 없어졌다. 금군(禁軍)에게 명하여 연일 쫓아 사냥하여 수십 마리를 잡았지만 달아나서 잡히지 않은 것도 많았다. 이런 것은 그 본성에 거스른 것이라 하겠다.		
원천자료	어숙권, 『패관잡기(稗官雜記)』 제4권		

No.	045	작성자	박수진
제목	**백호전서**		
이야기	대간(臺諫)이 국문하여 실정을 캐낼 것을 여러 날 논계(論啓)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는데 대간이 쟁집(爭執)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계(停啓)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대간이 논계를 정지하였다. 공의 자제들이 도성문 안에서 공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진(李尙眞)의 무리가 듣고서 품달하지도 아니한 채 공의 아들 5명을 모두 금부(禁府)에 가두었다. 신시(申時)에 서대문(西大門) 밖의 여염집에서 사약을 내렸다. - 공이 필묵(筆墨)을 요청하였으나 도사(都事)가 들어주지 않았다. 이 부분에 전지(傳旨)가 기록되어야 한다. - 사약이 이르자 공이 말하기를, "나는 주량이 있는데 이 약이 목숨이 떨어지게 할 수 없을 듯싶다. 소주(燒酒)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였다. 소주를 많이 마신 다음 이어 약을 들고서 운명하였는데, 이날이 5월 20일이었다.		
원천자료	윤휴, 『백호전서(白湖全書)』 부록		

No.	046	작성자	박수진
제목	**국조보감**		
이야기	4월. 도순무사 오명항의 군대가 돌아왔다. 상이 숭례문(崇禮門)에 나아가 승지를 보내어 마군과 보군을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덕이 없음을 인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한 달 남짓 한데서 지내도록 하였으니, 비단옷과 쌀밥도 편안치 않았다. 너희들이 힘을 다한 데 힘입어 흉적을 쓸어 평정하고 왕사(王師)가 빨리 돌아왔으니 나의 기쁘고도 다행스러운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먼 길을 달려 다녀오느라 필시 손상된 바가 있을 것이니 내 매우 염려된다. 궐문 밖에 당도하여 호궤(犒饋)를 받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 부모와 처자를 만나보도록 하라."		
원천자료	『국조보감』 제59권 영조조		

No.	047	작성자	박수진
제목	**봄날 체천에서 지은 잡시[春日棣泉雜詩]**		
이야기	백아곡의 새차가 싹이 처음 나왔는데 백아곡(白鴉谷)은 검단산(黔丹山) 북쪽에 있는데 작설차가 난다 / 鴉谷新茶始展旗 그곳 마을 사람에게 한 포를 겨우 얻었네 / 一包纔得里人胎 체천이라 수질은 그 얼마나 맑은지 / 棣泉水品淸何似 은병에 길어다가 시험삼아 끓여보네 / 閒就銀甁小試之 숭례문 앞 저자가 이른 새벽 열리어 / 崇禮門前市曉開 모여든 사람 말소리 성 너머로 들려오네 / 七坡人語隔城來 조금 늦게 돌아온 바구니 든 계집종 / 携筐小婢歸差晩 한두 마리 신선한 생선을 얻어왔네 / 能得新魚一二枚 높은 솔 깊은 골짝 저녁 그늘 맑은데 / 層松幽壑晩陰淸 고운 햇살 산들바람 빨래하는 소리로세 / 麗日輕風洴澼聲 슬며시 노란 잔디 언덕 위에 앉아서 / 徐就黃莎岸頭坐 시내 저쪽 살구꽃을 한가로이 마주하네 / 隔溪閒對杏花明 펄럭이는 새옷에다 허리에 술병 차고 / 襏新衣帶酒壺 삼삼 오오 짝을 지어 저자 앞을 지나는데 / 三三五五過城鋪 돌아보니 동자가 화살통을 짊어졌네 / 試看童子携箭箙 이들 모두 남산의 옛 활잡이들 아닌가 / 全是南山舊射徒 옅은 구름 가벼운 안개 맑은 기운 자아내어 / 澹雲輕靄弄新晴 평화로운 풍경이 온 성안에 가득하다 / 駘蕩煙光滿一城 저 멀리 관제묘를 눈 들어 쳐다보소 / 遠遠須看關帝廟 온갖 꽃 붉은빛 속에 푸른 지붕 드러났네 / 百花紅裏露靑甍 대사립은 맑은 낮에 항상 아니 열어놓아 / 竹扉淸晝每慵開 시내 다리 푸른 이끼 마냥 자라던 차에 / 一任溪橋長綠苔 뜻밖에 성밖에서 손님이 찾아왔는데 / 忽有客從城外至 꽃구경을 하려고 필운대로 간다나 / 看花要往弼雲臺 소수 종산 지난날 흥취가 아련하다 / 苕水鐘山興杳然 몇 번이나 서럽게 돌아가는 배 보냈는지 / 幾廻怊悵送歸船 고향 전원 생각이 떠오르는 날이면 / 每逢憶念丘園日 도연명 시 한두 편을 한가로이 읊조리네 / 閒誦陶詩一兩篇		
원천자료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1권		

No.	048	작성자	박수진
제목	**병조참판(兵曹參判) 유공(柳公) 의(誼) 의 유사**		
이야기	공이 병조 정랑(兵曹正郞)이 되었을 때다. 밤에 순찰을 돌아 숭례문(崇禮門)에 이르렀다. 자물쇠를 잠갔는가를 살핀 다음 수문장(守門將)의 명함을 받은 뒤 말을 돌려 수각교(水閣橋)에 이르러 도로 숭례문으로 돌아가서 수문장을 잡아들이고 죄를 따져 말하기를, "내가 너를 점검할 때 너는 왜 나를 점검하지 않았는가? 고사(故事)에 감군(監軍)이 문에 이르렀을 때 수문장이 순패(巡牌)를 청해 보았던 것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너는 어찌 청하여 보지 않았는가?" 하고는, 곤장 세 대를 때리고 보냈다.		
원천자료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17권		

No.	049	작성자	박수진
제목	**최익현의 출소**		
이야기	선생이 옥에서 나오니, 도성의 백성들이 뛸 듯이 기뻐하였다. 남녀노소 할 것이 없이 모두 선생의 얼굴을 한 번 보기를 원하여 지나는 곳이나 쉬는 곳에는 사람들이 붐볐고, 또 주찬(酒饌)을 가지고 와서 공급하는 이가 많았다. 그러나 벼슬아치와 유생들은 혹 누(陋)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모두 문을 닫아 버리고 들어앉아서 감히 나오지 못하고, 오직 홍암 박공이 숭례문 밖에 나와 전송하면서 소(疏)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회포를 펴며 정답게 담소하고 겸하여 노자도 주었으며, 선생이 수금되어 있을 때에 박공은 선생이 살아서 옥문을 나오지 못할 줄을 알고 근심과 탄식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제문(祭文)까지 초해 두었는데 제문에 "이윤(伊尹)·부열(傅說)이 될 터인데, 어찌 관용방(關龍逢)·비간(比干)을 본받으랴."라는 구절이 있었다. 그 외에 권병은(權秉殷)·이순익(李純翼)·윤치현(尹致賢)·윤주백(尹周伯)·서여뢰(徐汝賚) 형제와 안기량(安琦良) 및 영평(永平) 선비 이재수(李在秀) 곧 유심재(有心齋) 이공(李公)의 현손이다.·이승희(李承會) 약간 사람뿐이요, 양헌수(梁憲洙) 공이 추후로 의복과 노자를 몰래 부쳐왔다.		
원천자료	최익현, 『면암집(勉菴集)』 부록 제1권		

No.	050	작성자	박수진
제목	**세자빈의 행차**		
이야기	마침내 공이 세자빈의 행차를 배행하였다. 정오에 대가가 비로소 출발하여 막 숭례문을 나갔을 때 적이 이미 사령(沙嶺)에 다가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에 급히 대가를 돌려 남한산성으로 행차하고 세자와 백관이 모두 따라갔다. 공은 익위사 관원 몇 명과 함께 세자빈을 배행하여 마침내 강도에 들어가 궁 안에서 항상 입직하였다.		
원천자료	윤증, 『명재유고(明齋遺稿)』 제43권		

No.	051	작성자	박수진
제목	**임진왜란과 숭례문**		
이야기	왜적이 도성에 들어온 뒤에 서울의 백성들이 모두 흩어져 피했다가 오래지 않아 차츰차츰 돌아오기 시작하여 마을과 저자가 모두 차서 왜적과 서로 섞여 판매하였으며, 적이 성문을 지키고서는 우리 백성이 적첩(賊帖)을 차면 출입을 금하지 않았다. 이에 백성들이 모두 적첩을 받아 적에게 복역(服役)하면서 감히 거스르거나 대항하지 않았다. 또한 적에게 아첨하여 서로 친근하며 앞잡이가 되어 악을 저지르는 자도 있어 혹 적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가 있으면 문득 그놈의 고발로 종루 앞이나 숭례문 밖에 불태워 죽여 참혹함을 극도에 이르도록 해서 위엄을 보이니, 두개골과 백골이 그 아래에 쌓여 있었다.		
원천자료	류성룡, 『서애집(西厓集)』 제16권		

No.	052	작성자	박수진
제목	**남대문 현판에 대하여 - 홍우연에게 써서 주다[書贈洪祐衍]**		
이야기	오직 우영흥(虞永興)은 남파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묘당비(廟堂碑) 같은 것은 오히려 북비의 규칙이 보존해 있으니 지금 북비를 버리고서는 서법을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 이르러는 나·려(羅麗) 이래로 온전히 구비(歐碑)를 익혔으며 본조(本朝) 이후에 안평대군(安平大君)이 비로소 송설(松雪)로써 따로 문경(門徑)을 열어 한 시대가 풍미하였지만 성·신(成申) 여러 사람들은 역시 나·려의 구법(舊法)을 고치지 않았다. 지금 숭례문(崇禮門) 편액은 곧 신장(申檣)의 글씨인데 깊이 구의 골수에 들어갔고 또 성임(成任)이 쓴 홍화문(弘化門) 편액과 대성전(大成殿) 편액은 다 북조의 비의(碑意)가 들어 있으며 또 성달생(成達生) 같은 이는 서법이 특출하였으나 세상에 그를 알아주는 이가 없었는데 그 역시 송설의 문호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여러분들은 모두 용이 날고 범이 뛰는 기세를 가져 석봉(石峯)의 미쳐갈 바가 아니며 석봉은 오히려 송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으니 이 아래로는 회(鄶)의 무기(無譏)와 마찬가지이다.		
원천자료	김정희, 『완당전집(阮堂全集)』 제7권		

No.	053	작성자	박수진
제목	**숭례문(崇禮門)과 대성전(大成殿)의 액자(額字)에 대한 변증설**		

이야기

우리나라 궁전(宮殿)에 씌어진 액자(額字)들은 누구의 글씨인 줄 전혀 모르는데, 도성(都城)의 남대문(南大門)에 숭례문(崇禮門)이라는 이름은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것이요, 그 액자는 세상에서 전하기를, 양녕대군(讓寧大君) 휘(諱)는 제(禔), 태종(太宗)의 장자(長子)인데 처음에는 세자(世子)에 봉해졌다가, 태종 18년(무술)에 덕(德)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대군(大君)에 강봉(降封)되었고 시호는 정(靖)이다. 그는 실상 왕위(王位)에 오르지 않으려고 거짓 미친 체하여 면한 것이다. 의 글씨라 한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 왜적들이 그 액자를 떼어 버려 유실되었는데, 왜란이 평정된 후 남문(南門) 밖의 못[池] 근방에서 밤마다 괴이한 광선(光線)을 내쏘므로 그곳을 발굴하여 다시 이 액자를 찾아 걸었다고 한다.

《서림총화(書林叢話》를 상고하건대,

"명 세종(明世宗) 융경(隆慶) 원년(1567)은 곧 우리나라 명종(明宗) 22년이다. 이해에 우리나라에 온 명 나라 사신 허국(許國)이 유심(兪深)에게 '이곳에 있는 액자들은 모두 보잘것이 없고 숭례문(崇禮門) 액자가 조금 쓸 만하나 이것 역시 아주 좋은 것은 못 되고, 오직 홍화문(弘化門)과 대성전(大成殿)의 액자가 가장 좋은 글씨인데, 그 중에도 대성전 액자가 더욱 좋다.' 하자 원접사(遠接使)가 그 말을 듣고 대성전 세 글자를 모사해 주었다. 대성전 액자는 곧 성임(成任)의 글씨이다."

하였다.

성임(成任)의 자는 중경(重卿), 호는 안재(安齋)이고 벼슬은 이조 판서에 이르렀는데, 촉체(蜀體)를 잘 썼다. 《황화집(皇華集)》을 상고하건대,

"우리나라 문묘(文廟)에 걸려 있는 대성전(大成殿)이란 액자의 성(成) 자를 안평대군(安平大君)-호는 비해당(匪懈堂), 휘(諱)는 용(瑢)이고 자는 청지(淸之)이다. 세종(世宗)의 셋째아들로, 계유정란(癸酉靖難) 때 화를 입었으나 뒤에 신원(伸冤)되었고, 시호는 장소(章昭)이다.- 이 맨 처음 성(聖) 자로 써서 걸었는데, 단종(端宗) 원년(임신)에 명(明) 나라 사신 진순(陳純)·이관(李寬)이 성균관(成均館)에 가서 알성(謁聖)하고 나서 대성전(大聖殿)으로 되어 있는 편액(扁額)을 보고 웃으면서 '우리 중국과 다르다.' 하였으므로, 그 후에 대성전(大成殿)으로 고쳤다."

하였는데, 뒤에 고쳐서 쓴 사람이 바로 성안재(成安齋)이다.

숭례문(崇禮門)의 편액은 정난종(鄭蘭宗) 정난종의 자는 국형(國馨), 벼슬은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이르렀고, 시호는 익혜(翼惠)인데, 동래인(東萊人)이다. 촉체(蜀體)를 잘 썼다. 이 쓴 것이다. 그렇다면, 국초(國初)에 걸었던 편액이 반드시 있었을 것인데, 양녕대군(讓寧大君)이 어째서 다시 썼단 말인가. 난리가 평정된 후 괴이한 광선으로 인하여 다시 찾아 걸었다고 하였으니, 정공(鄭公)은 또 어떻게 해서 그를 써서 걸었단 말인가. 하물며 정공은 세조(世祖) 때 사람으로 글씨를 잘 썼기 때문에 비판(碑版)이나 종명(鐘銘)을 어명에 의해 많이 썼으니, 숭례문의 편액도 그의 글씨라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그리고 그 자체(字體)를 보아도 바로 그의 서체(書體)임이 분명하다. 임진왜란 때에 왜노(倭奴)들에 의해 없어졌다가 난리가 평정된 후 다시 찾아 걸게 됨으로써, 양녕대군의 글씨라고 와전된 데다 괴이한 광선에 대한 설(說)까지 다시 부회(傅會)된 것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좋은 글씨가 땅 속에 묻히면 괴이한 광선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여전인(余全人)의 말에 '송(宋) 나라 말엽에 남쪽으로 행행(行幸)할 적에 순화각첩(淳化閣帖)을 천주(泉州)에 버림으로써 이미 땅 속에 묻혀져 버렸는데, 거기서 가끔 괴이한 광선을 내쏘므로 파 보니, 이것이 바로 마제진적(馬蹄眞跡)이요 은정(銀錠)의 흔적이었다.'고 한 예와 같은 것이다. 정공(鄭公)이 쓴 숭례문의 편액도 명필(名筆)이고 보면, 땅에 묻혀서 광선을 발사하는 것이 무어 이상할 게 있겠는가.

원천자료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경사편

No.	054	작성자	박수진
제목	**숭례문 현판은 누가썼는가?**		
이야기	숭례문(崇禮門)이란 현판은 양녕대군(讓寧大君)의 글씨라고 세상에서 전하는데, 이것은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 나온 말이다. 연전에 남대문을 중수할 때 양녕대군의 사손(祀孫)인 이승보(李承輔) 대감이 윤성진(尹成鎭) 대감과 함께 문루(門樓)에 올라가서 판각의 개색한 것을 보았더니, 후판 대서(後板大書)는 공조 판서 유진동(柳辰仝)의 글씨였다 한다. 아마 이것은 옛날 화재가 난 뒤에 다시 쓴 것인가 싶다.		
원천자료	이유원, 『임하필기』 제35권		

No.	055	작성자	박수진
제목	**청장관전서-숭례문에 올라 읊은 시**		
이야기	옛적에 만호(萬戶) 임득충(林得忠)이라는 사람이 성격이 호방했었는데, 숭례문(崇禮門)에 올라가 읊조리기를, 단청한 누각 허공에 높이 솟아 / 畫閣巖嶢出半空 올라보니 마치 나는 기러기 탄 듯 / 登臨怳若駕飛鴻 평소의 장지를 의탁할 데 없어 / 平生壯志憑無地 천지의 만리 바람에 혼자 누웠네 / 獨臥乾坤萬里風 라고 했었다.		
원천자료	이덕무,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제49권		

No.	056	작성자	박수진
제목	**어린 아들을 데리고 숭례문 성에 올라 빗속에 꽃을 구경하다 2수**		
이야기	하나 가랑비 성을 지나가자 붉은 비단 불타는 듯 / 細雨過城紅錦然 나그네 올라와서 성가퀴에 한가히 기대었네 / 客來閒倚女墻邊 아들 녀석 이 아비 뜻을 억지로 이해하는지 / 稚童强解愚翁意 홑적삼 다 젖어도 돌아가려 하지 않는구나 / 濕盡單衫不肯旋 둘 아이 녀석 꿩 부르며 좋아한다는 말 전하니 / 兒子呼鵾傳喜語 가련하다 그가 벌써 아비의 광기 배운 것이 / 憐渠已學老夫狂 따라오는 몇 리 길이 그림처럼 아름다우니 / 從行數里明如畫 해노의 옛 비단 시주머니 옆구리에 찼구나 / 佩得奚奴古錦囊 아이가 따라오다가 흰 꿩을 부르며 말을 전하기를, “나는 몹시 너를 좋아한다.” 하였다. 내가 “어째서 좋아하느냐?” 물으니, 대답하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였다.		
원천자료	남효온, 『추강집』 제3권		

No.	057	작성자	위가야
제목	**남대문과 동대문의 종 01**		
이야기	보루각 도제조(報漏閣都提調)【김안로(金安老)】가 아뢰기를, “종루(鐘樓)에 종을 달아 놓은 것은 이를 쳐서 인정(人定)과 파루(罷漏)를 원근의 사람들에게 알려 행동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종루의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흥인문(興仁門)과 숭례문(崇禮門)에 각각 종 하나씩을 달아 친다면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옛날 미처 종을 만들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새로 주조하여 매단다면 폐단이 있을 것이니, 정릉(貞陵)·원각(圓覺) 두 폐사(廢寺)【모두 서울에 있다.】의 옛 종이 아직도 폐기된 채 쓰이지 않고 있으니 이 종 두 개를 하나는 흥인문에 달고 하나는 숭례문에 달아서 경복궁(景福宮) 보루각에서부터 종소리를 전달하여 숭례문에 이르게 하고 창경궁(昌慶宮)에 새로 설치한 보루로부터 종소리를 전달하여 흥인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자격장(自擊匠) 박세룡(朴世龍)은 장인(匠人)들 가운데 매우 정교한 솜씨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항상 보루각에 머물러 두어 종을 보수케 하면 종을 항상 견고하고 완전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완전히 주조된 종이라고 수리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못쓰게될 것입니다. 세룡은 항상 새로 설치한 보루각에 소속시켜 보수하게 하소서. 이 사람은 바로 사천(私賤)이니 장례원(掌隷院)의 공노비(公奴婢)로 대신 소속시키고, 그는 영원히 보루각에 소속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아뢰는 뜻이 지당하다. 모두 아뢴 대로 하라.”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중종 81권, 31년(1536 병신 / 명 가정(嘉靖) 15년) 4월 9일(계사) 2번째기사		

No.	058	작성자	위가야
제목	**남대문과 동대문의 종 02**		
이야기	보루각 도감(報漏閣都監)이 아뢰기를, "흥인문(興仁門)과 숭례문(崇禮門)에 종을 매다는 일에 있어서 지난달에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으나 그때에는 가물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중지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가을이 되었으니 종각을 세워 종을 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중종 81권, 31년(1536 병신 / 명 가정(嘉靖) 15년) 4월 9일(계사) 2번째기사 중종 82권, 31년(1536 병신 / 명 가정(嘉靖) 15년) 7월 14일(정묘) 2번째기사		

No.	059	작성자	위가야
제목	**남대문과 동대문의 종 03**		
이야기	정원에 전교하였다. "어제 유생들의 상소를 보니 '김안로가 있는 줄만 알고 나라가 있는 줄은 모른다.' 하였다. 이제 바야흐로 옛것을 고쳐서 유신(維新)하는 때에 김안로가 세운 것은 혁파하지 않을 수 없다. 조복(朝服)의 제도를 김안로가 중국을 모방하려고 했는데 관(冠) 위에 비록 이석(泥錫)을 사용했으나 여러 사람이 정반(庭班)에 서면 햇빛이 비추어 금빛이 찬란하다. 김미(金璽)가 전일 경연에서 아뢰기를 '금관(金冠)은 상께서도 쓰시지 않는데 하물며 신하들이 어찌 쓰겠습니까.' 하였는데 나도 그렇게 여겼다. 이런 참람한 일은 시행할 수 없다. 사람들 마음이 착하지 못하게 된 것은 모두가 참람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대국(大國)과 소국(小國)은 그 제도가 같지 않은데 배신(陪臣)이 금관은 쓴다는 것은 더욱 부당하니 우리 나라 제도를 지키는 것이 낫다. 다만 화(靴)는, 옛날에는 화 위에다 말(韈)을 붙였는데, 지금은 화와 말이 붙어 있어 오르내리기가 편한 듯하니, 이는 고칠 것이 없을 것 같다. 제복(祭服)의 제도는 아직 중국에서 도입해 오지 않았으나 선왕(先王)의 제도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흥인문(興仁門)과 숭례문(崇禮門)에 종(鍾)을 다는 일 역시 불교를 물리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각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꺼번에 세 종이 모두 울려 듣는 사람이 혼란하고, 나 역시 듣기에 불편하다. 시각을 전하는 데 착오가 있는 듯하고 또한 늦기도 한다. 그 종각은 이제 철거해서 영선(營繕)하는 데 쓰라. 그 종을 만약 옮기지 않으면 호소할 일이 있는 자가 혹 울릴 것이요, 다시 옛터로 가져다 두려 해도 전일 양문(兩門)으로 옮길 때에 경과했던 돌다리[石梁]가 다 무너졌으니 성 밑 한 곳에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승려들을 부리는 일을 허흡(許洽)이 아뢰었는데, 김안로 역시 그 말을 거들어 '군사를 모으면 혹 난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하였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참람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고 누가 승군(僧軍)을 모아 자기를 해칠까 염려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승려들을 금하는 것은 본래 법이 있어, 도첩(度牒)이 없는 자는 금하여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다. 견항(犬項)과 의항(蟻項)의 역사 때에 승려들이 도성 안에 출입하면서 백성들과 섞여 살고 있으니, 매우 부당하다. 이왕의 일은 소급해서 고칠 수 없으나, 고양(高陽)의 관사(官舍)를 지으면서 지금도 승군을 역사시키고 있는데 이는 군인들을 대신 시킬 수 없어서인가? 이런 뜻으로 사관(史官)을 삼공에게 보내 의논하라."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중종 85권, 32년(1537 정유 / 명 가정(嘉靖) 16년) 10월 28일(갑술) 1번째기사		

No.	060	작성자	위가야
제목	**남대문과 동대문의 종 04**		
이야기	정원에 전교하기를, “흥인문·숭례문 안에 둔 두 개의 큰 종을 내수사에 주라.”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오랫동안 방치해 둔 물건을 하루아침에 까닭없이 내수사에 주라고 명하시니 보고 듣는 자가 해괴하게 여길 것 같아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쓸모없어 버려 둔 것을 내수사에 보내서 사용하게 하는 것도 무방한 것이고 자전의 분부도 계시고 해서 말한 것이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두 개의 종은 원각사와 정릉사에 있었던 유물이다. 유사가 일찍이 그것을 깨뜨려서 총통을 만들게 하자고 청했을 때에는 상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내수사에 주라고 명하니 장차 무엇에 쓰겠단 말인가. 그것이 결국 절간의 물건이 되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것을 엄폐할 수 없는 것과 같은데, 또 자전의 분부라고 핑계하니, 아, 그것이 옳지 않은 줄 안다면 자전의 분부라고 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겠는가?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명종 29권, 18년(1563 계해 / 명 가정(嘉靖) 42년) 11월 16일(신묘) 1번째 기사		

No.	061	작성자	위가야
제목	**남대문과 동대문의 종 05**		
이야기	헌부가 아뢰기를, “숭례문과 흥인문 안에 있는 큰 종을 내수사에 주라고 전교하셨는데, 이 두 개의 종은 선조 때부터 오랫동안 황폐된 절터에 방치해 두었던 것을 두 문 안으로 옮겨 놓은 지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갑자기 내수사로 옮겨 사용토록 명하시니 사람들은 놀라고 의아해 하며, 그 까닭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일 불사(佛寺)에서 이를 사용하게 한다면, 소문이 원근(遠近)에 퍼져서 무지한 백성들은 허황되고 환상적인 말에 동요되어 더욱 치닫는 물결처럼 불사로 몰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단 치류(緇流)들의 사기를 더해 줄 뿐만 아니라 성상의 덕에도 크나 큰 누(累)를 끼치게 될 것이니 속히 성명(成命)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두 개의 종은 선조의 간신【중종조 때 김안로가 두 개의 종을 두 문 곁에다 달아매고 아침 저녁으로 치게 하도록 건의하였던 것인데, 뒷사람이 그 살벌한 쇳소리가 동남쪽의 지맥(地脈)을 제압하기 때문에 국가 운수에 불리하다는 말을 하여 그 즉시 폐지시켰다. 안로가 간신임은 틀림없지만 그 말이 꼭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두 문 안에 옮겨 놓자고 주장했던 것이니 그 경위가 정당하지 못하고, 또 국가에 쓸모 없는 물건을 오랫동안 버려두었다가 다시 도성문 안에 가져다 두게 된 것을 나 역시 옳지 않게 여겨오던 터에 마침 자전의 분부를 받아 내수사에 보내도록 명한 것이다. 해사가 내수사에 맡겨두면 내수사는 마땅히 그것을 문 밖으로 끌어내서 문 안에 있지 않게 하면 될 뿐인데, 이 일을 가지고 무지한 백성들이 요망스런 말에 동요된다니 나는 모를 일이다. 도로 그 일을 정지할 수 없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명종 29권, 18년(1563 계해 / 명 가정(嘉靖) 42년) 11월 18일(계사) 1번째 기사		

No.	062	작성자	위가야
제목	**사대문과 기우제 01**		
이야기	**기우제의 시작** 날이 가문다고 하여 숭례문(崇禮門)을 닫고 숙청문(肅淸門)을 열고, 저자를 옮겼다. **기우제의 마무리** 숭례문(崇禮門)은 열고 숙청문(肅淸門)은 닫고, 인정(人定)과 파루(罷漏)에 비로소 다시 북을 치게 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세종 40권, 10년(1428 무신 /명 선덕(善德) 3년) 윤4월 23일(갑진) 3번째기사 세종 36권, 9년(1427 정미 /명 선덕(宣德) 2년) 6월 23일(경진) 3번째기사		

No.	063	작성자	위가야
제목	**사대문과 기우제 02**		
이야기	**기우제의 절차** 정원에 전교하였다. “근일 가뭄이 극심해서 비를 바란 지가 오래인데 비가 올 듯하면서 오지 아니하니 매우 걱정스럽다. 기도(祈禱)하는 일을 거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내일 오관산(五冠山) 등에서 기우(祈雨)한 다음에 형편을 보아서 숭례문(崇禮門)을 닫고 숙정문(肅靖門)을 열고 피고(皮鼓)를 치지 말고, 저자를 옮기는 등의 일도 거행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금년에는 무(巫)·맹(盲) 및 소동(小童)의 기우를 아직 거행하지 않았으니 또한 전례를 상고해서 아울러 거행할 것으로 예조에 이르라.” ========== 예조에서 아뢰기를, “춘당대(春塘臺)에서 석척 동자(蜥蜴童子)10279) 가 기우제를 지낼 때 숭례문(崇禮門)을 닫고 숙정문(肅靖門)을 열어 3일 만에 그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예조가 기우제 등의 일로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금년에 한재가 꼭 파종 시기에 닥쳤고 망종(芒種) 절기가 내일(來日)인데 이미 추수(秋收)할 가망이 없어 사정이 민망하고 절박하게 되었으니 기우(祈雨)하는 일을 불가불 일체 거행해야 하며, 폐문 천시(閉門遷市)하고 북을 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속히 거행해야 합니다. 또한 재변이 이처럼 절박한 시기에는 이전에는 대신을 보내 종묘 사직에 제사를 올리고 중신 및 내신을 나누어 보내 기우하는 의식이 있었으니 지금도 그 사례에 의거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춘당대(春塘臺) 못가에서의 석척 기우(蜥蜴祈雨)3194) 는 오는 21일에, 맹무 동자 기우(盲巫童子祈雨)는 오는 25일에 거행하고, 별도로 대신을 보내 종묘 사직에 제사하는 의식과 중신 및 내신을 나눠 보내 기우하는 의식은 속히 거행하며 경복궁에서의 석척 기우와 폐문 천시하고 북을 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우선 일기(日氣)를 보아서 차차 거행할 것이니 일시에 다 거행할 수 없다.” 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명종 23권, 12년(1557 정사 / 명 가정(嘉靖) 36년) 6월 24일(을사) 5번째기사 영조 58권, 19년(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5월 16일(무술) 1번째기사 명종 34권, 22년(1567 정묘 / 명 가정(嘉靖) 46년) 4월 19일(갑진) 1번째기사		

No.	064	작성자	위가야
제목	**사대문과 기우제 03**		
이야기	기우제 절차의 의미 예조 판서 윤인경(尹仁鏡)이 아뢰었다. “사직에는 이미 섭행했고, 종묘에는 연(輦)을 치우고서 가마를 타고 나오시어 재계하는 별궁에서 치재하시다가 비로 인해 정지하셨으니, 비록 이번에 친제하시더라도 번거롭지 않을 듯합니다. 또 지금의 토룡석척(土龍蜥蜴)이나 원통한 옥사를 심리(審理)하는 것이나 해골을 덮어주고 시체를 매장해 주는 것이나 숭례문(崇禮門)을 닫고 숙청문(肅淸門)을 열어놓는 것과 같은 일들은, 토룡으로 비를 부르고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어놓고 사람의 해골을 묻어주고 항아리에 석척·사의를 담아놓고 비를 기원하고 옥사를 즉시 처결하고 의옥(疑獄)을 잘 분별하여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풍운뇌우단에서 친제를 거행하시려는 것은 성탕(成湯)이 상림(桑林)에서 비를 빌고 송 인종(宋仁宗)이 교외에서 친히 비를 빈 것과 같은 아름다운 뜻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종조에는 비록 한재를 만나더라도 친제한 때가 없었으므로 예관(禮官) 만으로 의논하기는 곤란하니, 대신들과 의논하심이 어떻겠습니까?” ========== 삼공이 아뢰기를, “봄 여름의 가뭄에는 숙정문(肅靖門)을 열고 숭례문(崇禮門)을 닫으며 피고(皮鼓)를 치지 않고 징을 사용하는 것은, 양기(陽氣)가 강성하기 때문에 음기(陰氣)를 붙잡아 세우고 양기를 억제하려 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이미 가을철로 들어와 음기가 기세를 부리는 때이므로, 숭례문을 닫고 징을 치는 것은 사리에 어그러질 듯합니다. 더구나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중추(仲秋)에 춘령(春令)14548) 을 사용하면 가을비가 내리지 않고, 하령(夏令)을 사용하면 그 나라가 가문다.’ 했습니다. 단지 비를 비는 일만 하고, 숙정문을 여는 것이나 숭례문을 닫는 것과 피고를 치지 않는 등의 일은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이번에 추장의 사송(使送)으로 온 사람에게는 관원을 명하여 잔치를 내리시면 되고, 부득이 보시기로 하면 왕궁(王宮)에서 인견(引見)하시는 것이 가합니다. 왜인(倭人)을 공궤(供饋)하는 일 때문에 법가(法駕)14549) 를 갖추고 다른 대궐로 행행(行幸)하시는 것은 사체에 방해로울 듯싶습니다. 또한 듣건대, 이 왜인들이 객관(客館)에 있을 적에 건방지고 오만한 말을 많이 하여 폐단이 매우 적지 않았다는데, 지금 동래(東萊)와 웅천(熊川) 고을 등의 수령들【동래 현령 노보세(盧輔世) · 웅천 현감 신포(辛抱) 등을 왜인들 대우를 잘못한 것 때문에 잡아다가 추고(推考)했다.】을 잡아다가 추고하고 있지만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대저 왜인들의 선척을 척량(尺量)할 적에 분명하게 단속해서 하면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주면 좋아하는 것은 곧 그들이 언제나 가지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만일 이런 것 때문에 수령들의 죄를 다스릴 경우, 다음에 수령된 사람들이 과연 모두 현명하다면 공정을 지키고 사곡하지 않겠지만, 만일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면 그들이 물고 늘어질까 싶어 일체 왜인들이 하려는 대로 따르고 국가의 법은 지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일로(一路)와 객관(客館)에서 한 짓을 보면 건방지고 오만함이 막심하니, 심상한 예절로 보셔야 하고 예를 갖추어 대우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대신들이 아뢴 말이 지당하니, 성문을 열고 저자를 환원하여 즉시 전대로 하도록 하라. 객인(客人)들을 접견하는 일도 대신들이 아뢴 말대로 관원을 명하여 공궤하게 하라.”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중종 84권, 32년(1537 정유 / 명 가정(嘉靖) 16년) 4월 26일(갑술) 2번째기사 중종 62권, 23년(1528 무자 / 명 가정(嘉靖) 7년) 8월 1일(경자) 1번째기사

No.	065	작성자	위가야
제목	**사대문과 기우제 04**		
이야기	**기우제 때 북을 치지 않는 절차** 예조가 아뢴 기우(祈雨)의 공사(公事)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달 17일부터 가죽북을 치지 못한다 하였으나, 제사 때에는 음악을 써야 할 것인데, 가죽북을 치지 못할 때에도 쓸 수 있는가? 평시 거둥할 때에도 풍악을 울리지 않을 때가 있으니, 풍악을 울리지 않을 것인가? 이 뜻을 예조에 물으라.” ========== 예조가 아뢰기를, “가죽북을 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세 가지 기우(祈雨)의 절목(節目)이므로 아뢰었습니다. 가죽은 양(陽)에 속하고 쇠는 음(陰)에 속하므로, 가죽북을 치지 못하게 하는 까닭은 음을 부추기고 양을 누르기 위한 것입니다. 친제(親祭) 【문소전(文昭殿)15344) 과 연은전(延恩殿)15345) 의 친제이다.】 할 날짜는 멀었는데, 그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는지 알 수 없으나,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제향(祭享)의 일은 연향(燕享)의 예(例)가 아니니, 음악을 쓴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중종 65권, 24년(1529 기축 / 명 가정(嘉靖) 8년) 4월 15일(경진) 1번째기사 중종 65권, 24년(1529 기축 / 명 가정(嘉靖) 8년) 4월 15일(경진) 3번째기사		

No.	066	작성자	위가야
제목	**관왕묘**		
이야기	○ 관왕묘(關王廟)는, 하나(남묘(南廟))는 숭례문(崇禮門) 밖에 있고, 하나(동묘(東廟))는 흥인문(興仁門) 밖에 있는데, 안무왕(安武王) 관우(關羽)를 향사하였다. 남묘(南廟)는 흙으로 만든 소상(塑像)이며, 동묘(東廟)는 구리쇠로 만든 동상(銅像)이다. 《갑진만록(甲辰漫錄)》 경칩(驚蟄)과 상강(霜降)일에 제사지내고 축문에는 ‘조선 국왕’이라고 하였다. ○ 일찍이 임진년과 정유년의 왜란 때에 관우의 신령이 여러 번 나타나 신병(神兵)으로써 싸움을 도와주어 명 나라 장수와 군사들이 모두 말하기를, “평양의 싸움에서 이긴 것과 도산(島山)에서의 싸움과, 삼도(三道)에서 왜병을 구축할 때 관우의 신령이 늘 나타나 음조(陰助)하였다.” 하였다. 행주(幸州) 싸움에서 이길 때에도 신병이 나타났다 한다. 《임진록(壬辰錄)》에 상세하다. 중국에는 관왕묘가 없는 곳이 없으니 이것은 세상에 전하기를, “고황제(高皇帝 명(明) 나라 태조(太祖)) 때에 관우의 신령이 꿈에 나타나서 음호(陰護)한 공이 있었으므로 온 나라가 모두 관우를 제사지냈다.” 한다. 《지봉유설》 정유년 겨울에 명 나라 장수가 울산(蔚山)의 적진을 공격하다가 불리하게 되니, 무술년 1월에 퇴병하였는데 명 나라 장수 유격(遊擊) 진인(陳寅)이 힘써 싸우다가 적의 탄환에 맞아 쓰러진 것을 싣고 서울로 돌아와서 치료하면서 숭례문(崇禮門) 밖에 있는 산기슭에다가 사당 한 채를 창건하고 그 가운데 신상(神像)을 설치하여 관공(關公 관우)을 모셨더니 장수 양호(楊鎬)를 비롯하여 모든 장수가 은(銀)을 내어 그 비용을 도왔고,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은으로 도왔다. 그 사당이 낙성되자 선조(宣祖)께서도 가서 보았는데, 비변사(備邊司)의 모든 관료들이 임금의 행차를 따라 사당 앞뜰에 나아가서 재배하였다.그 신상은 흙으로 만든 것으로서 낯은 진한 대추[重棗]와 같이 붉고, 봉(鳳)의 눈이며, 수염은 배까지 드리웠으며, 그 좌우에 소상(塑像) 둘이 큰 칼을 가지고 모시고 서 있는데 관평(關平 관우의 양아들)과 주창(周倉 관우의 부하 장수)이라고 이르며, 의젓하여 살아 있는 것 같았다. 이로부터 모든 장수가 출입할 때마다 참배하였으며, 모두 동국을 위하여 신령의 도움으로 적을 물리치기를 빌었다. 5월 13일에 사당에서 큰 제사를 지냈는데, 이날은 바로 관왕의 생일로 만일 우레나 이상한 것이 있으면 이는 관왕의 신령이 이른 것이라고들 하였다. 이날의 일기가 청명하다가 오후에 검은 구름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큰 바람이 서북쪽으로부터 불어오며 우레 소리와 아울러 소나기가 오다가 조금 후에 그쳤다. 뭇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말하기를, “관왕의 신령이 하림한 것이다.” 하였		

다. 그 후에 바로 또 안동(安東)과 성주(星州) 두 고을에 관왕묘(關王廟)를 세웠는데, 안동에서는 나무를 깎아서 신상을 만들었고, 성주에서는 흙으로 소상을 만들었는데, 성주에서는 신령의 이상한 흔적이 현저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얼마 안 되어 왜놈의 추장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죽고 주둔해 있던 모든 왜병이 철수해 갔으니, 이것 또한 이치로는 측량하기 어려운 일이다.옛날에 부견(苻堅)이 진(晉) 나라를 침범해 왔을 때, 진 나라 사안(謝安)이 정절(旌節 대장에게 준 표신(標信))과 기고(旗鼓 군기와 북)로써 장자문(蔣子文)의 사당에 가서 빈 일이 있었는데, 뒷날 사현(謝玄 사안(謝安)의 조카)의 대승을 말하는 자는 "장자문의 신령이 도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었다. 하물며 관왕의 강대(剛大)한 기운으로 어찌 신령의 영험이 없었을까보냐. 관왕묘 앞에 두 개의 긴 장대(長竿)를 세우고 한 장대에는, '하늘을 돕는 큰 임금[協天大帝]'이라 쓰고, 다른 한 장대에는, '위엄이 중국에 떨쳤다[威辰華夏]'고 썼는데, 그 글자가 서까래와 같이 굵어 바람으로 인하여 반공에 휘날려 멀고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쳐다 보았다. 《서애집》

서울 서강(西江)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밤에 모두 놀라 많은 사람들이 산골짜기로 피해 달아나고, 혹은 세간을 싣고 동서로 이사하기도 하였다. 서강을 지나던 사람이 그 까닭을 물으니, "밤중에 병마(兵馬)가 서로 죽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말하여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듣고 서로 놀라고 전파하며 무슨 변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였다. 그 뒤에 사람들이 의심하기를 이것은 남관왕묘의 신령이 한 일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한다. 《서애집》

만력(萬曆) 30년에 명 나라의 신종황제(神宗皇帝)가 4천 금(金)을 무신(撫臣) 만세덕(萬世德)에게 부쳐서 조선 서울에 관왕묘를 세우도록 하였는데, 그 조서에 이르기를, "관공의 신령이 본래 중국에서 나타났었는데, 왜란을 평정하는 역사에도 뚜렷한 도움을 받았다 하니, 조선에서도 당연히 신주를 모셔야 한다." 하였다. 이에 동대문 밖에 땅을 택하여 대신에게 명하여 감독하게 하였는데, 경자년부터 역사(役事)를 시작하여 3년 만인 봄에 준공하였다. 그 소상(塑像)은 그림의 모양에 의한 것이며, 전각(殿閣)·행랑·문간·쇠종과 북을 설치하여 놓은 것이 무릇 백여 칸이나 되는데, 모두 중국의 제도에 의한 것이다. 편액(扁額)에 쓸 것을 명 나라 조정에 청하여 명 나라 임금의 뜻을 받아 '현령 소덕왕 관공의 묘[顯靈昭德王關公之廟]'라고 세웠다. 허균(許筠)이 왕명을 받들어 관왕묘 비문을 지어 올린 것은 뒤에 결국 세우지 아니 하였다. ○ 《문헌비고》에는 이르기를, '선조 35년에 동묘를 세웠다.'고 하였다.

숙종 신미년에 숙종이 지나는 길에 동관왕묘(東關王廟)에 들어갔는데, 좌의정 목내선이 아뢰기를, "마땅히 주 무왕(周武王)이 상용(商容)의 정문[閭]을 지나가다가 구부리고 경의를 표시한 식례(式禮)를 모방하여 관우묘에 식례를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우의정 민암(閔黯)이 아뢰기를, "배례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사오며 식례도 부당하옵니다. 손을 들어서 읍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암(黯)의 의논을 따랐다. 신미년에 또 남묘(南廟)에도 지나는 길에 들어갔는데, 전과 같이 읍을 행하였다.

경인년에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관왕묘에 배례를 하지 않고 읍을 하는 것이 과연 예법으로 보아 잘못된 것이 없겠는가. 선조(宣祖)께서 관왕묘에 친히 제사를 지내실 때에는 반드시 읍례는 행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하니, 좌의정 서종태(徐宗泰)가 아뢰기를, "그때는 명 나라 장수와 함께 가셨으니 혹 배례를 행하셨을 것이오나, 지금까지도 반드시 영구히 준수할 것은 아닙니다. 관왕은 본래 연대가 다른 명장으로 선성(先聖)이나 선사(先師)와는 차이가 있어 읍을 행하는 이외에 다른 예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선조실록(宣祖實錄)》을 상고하여 내게 하니 실록에, "선조는 재배를 행하였다."고 되어 있었다. 임금이 명하기를, "앞으로는 이에 따라 배례를 행하라." 하였다. 《국조보감》

영종(英宗 영조(英祖)) 정미년에 임금이 관왕묘에 임어하여 재배의 예를 행하였다.

관왕묘는 또 전라도 강진군(康津郡) 고금도(古今島)에 있으니, 선조 정유년에 명 나라의 도독(都督) 진린(陳璘)이 창건한 것이다. 숙종 갑자년에 다시 수리하고 따로 한 사당을 그 곁에 세우고 진린을 주향(主享)으로 하고 이순신(李舜臣)을 배향으로 모셨다.

관왕묘의 하나는 안동부(安東府)에 있는데, 선조 무술년에 진정영도사(眞定營都司) 설호신(薛虎臣)이 창건하고 석상을 봉안하였다. 처음에는 안동부 성문 안 북산 꼭대기에 있었고, 또 석비(石碑)를 세우고 임진왜란 때 명 나라 장병이 동으로 나와 조선을 구원하고, 왜군을 정벌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그 뒤 병오년에 서악(西嶽)의 동대(東臺)에 옮겼다.

관왕묘의 하나는 성주목(星州牧)에 있다. 선조 정유년에 명 나라 장수 모국기(茅國器)가 창건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흙으로 만든 소상(塑像)이 있는데 신령스럽고 이상한 일이 매우 현저하게 나타났다. 처음에는 성문 밖에 있었는데, 영종 3년에 남정(南亭) 아래로 옮겨 세웠다.

관왕묘의 또 하나는 남원부(南原府)의 성(城) 서문 밖에 있는데, 선조 기해년 사이에 명 나라 도독 유정(劉綎)이 창건한 것으로서 묘정비(廟庭碑)가 있다. 숙종 42년에 신상(神像)을 고쳐 세웠는데, 모두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고, 명 나라의 총부중군(摠府中軍) 이신방(李新芳)과 총부천총(摠府千摠) 장표(蔣表)와 총부천부(摠府千夫) 모승선(毛承先)을 배향하였다.

숙종 37년에 명을 내려 여러 도에 있는 관왕묘의 제사를 선무사(宣武祠)의 예에 따라 경칩과 상강에 향과 축문을 내려보내 본도에서 제사를 행하도록 하였다.

원천자료	이긍익, 『연려실기술』 별집 제4권

No.	067	작성자	위가야
제목	**한양도성에서 행해진 제사 01**		
이야기	○ 선달에 대나(大儺)의 행사를 광화문(光化門) 및 서울 안의 흥인문(興仁門)·숭례문(崇禮門)·돈의문(敦義門)·숙정문(肅靖門)에서 행한다. 관상감(觀象監)이 역귀를 몰아내는 나자(儺者)를 거느리고 새벽에 근정전(勤政殿) 문 밖에 나아가면 승지가 역귀를 몰아낸다고 계청하고 대궐 안 뜰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선창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 대답하여 두루 다 마친 뒤에 북을 두드리면서 요란하게 지껄이며 광화문으로 나와 대열마다 횃불을 가지고 사교 밖[四郊外]으로 쫓아냈다. 이때 봉상시(奉常寺)의 관원이 먼저 수탉[雄鷄]과 술을 준비하고 있다가 나자(儺者)가 나올 때에 닭고기를 찢고 술을 부어 제사를 마치고는 땅에 묻는다.		
원천자료	이긍익,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12권		

No.	068	작성자	위가야
제목	**한양도성에서 행해진 제사 02**		
이야기	구나(驅儺)에 관한 일은 관상감(觀象監)이 이를 주관한다. 제석(除夕)에 악공(樂工) 한 사람이 창사(唱師)가 되어 붉은 옷에 가면(假面)을 쓰고, 방상시(方相氏) 4인이 황금빛 나는 네 개의 눈이 달린 가면에 곰 가죽을 쓰고, 지군(持軍) 5인이 붉은 옷에 화립(畫笠)을 쓰고, 판관(判官) 5인이 연두색 옷에 화립을 쓰고, 조왕신(竈王神) 4인이 청포(靑袍)에 목홀(木笏)을 들고, 초라니[小梅] 몇 사람이 여자 모습의 가면을 쓰고 대가 긴 깃발을 들고, 12신(神)이 각각 자신들의 가면을 쓰는데 예를 들어 자신(子神)은 쥐 모양의 가면을 쓰고 축신(丑神)은 소 모양의 가면을 쓰는 것이다. 또 악공 10여 인이 도열(桃茢 복숭아나무로 만든 지팡이와 갈대 이삭으로 만든 비)을 들고 이들을 따른다. 그리고 아이들 수십 명을 가려 뽑아서 이들에게 붉은 옷에 가면을 씌워서 아이 초라니[倀子]를 만들어서 의식이 끝날 무렵에 징을 울리며 역귀(疫鬼)를 몰아내도록 한다. 선달의 대나(大儺)는 광화문(光化門)과 도성의 흥인문(興仁門), 숭례문(崇禮門), 돈의문(敦義門), 숙정문(肅靖門)에서 행하는데, 아이 초라니와 방상시의 복색(服色)과 주사(呪辭)는 고려(高麗)의 의식과 같다. 관상감 관원이 나자(儺者)를 거느리고 새벽에 근정문(勤政門) 밖에 나아가면 승지가 역귀를 쫓을 것을 계청한다. 그러면 내정(內庭)으로 들어가서 서로 창화(唱和)하며 사방에다 대고 부르짖기를 마친 뒤 북을 치고 떠들면서 광화문으로 나오는데, 매 대(隊)마다 횃불을 든다. 마침내 사문(四門)의 성곽 밖에 이르면, 봉상시(奉常寺)의 관원이 미리 수탉과 술을 준비하고 있다가 나자가 문을 나오려고 하면 문 가운데에 신석(神席)을 펴고 희생(犧牲)의 가슴을 벽고(劈睾)하여 찢어서 신석의 서쪽에 자리를 깔고 제사를 지낸 뒤, 끝나면 닭과 축문을 땅에 묻는다. 나식(羅湜)의 시에 이르기를, 나례의 북소리가 둥둥 이웃 마을까지 울리며 / 儺鼓鼕鼕動四鄰 사방 동서로 쫓아내는 형세가 어지럽구나 / 東驅西逐勢紛如 해마다 너를 들으면 흰머리만 늘어날 뿐 / 年年聞汝徒添白 이 나라 귀신 하나라도 없앤 적이 있더냐 / 海內何曾一鬼除 하였다.		
원천자료	이유원, 『임하필기』 제16권		

No.	069	작성자	위가야
제목	**숭례문 편액에 얽힌 이야기 01**		
이야기	우리나라 궁전(宮殿)에 씌어진 액자(額字)들은 누구의 글씨인 줄 전혀 모르는데, 도성(都城)의 남대문(南大門)에 숭례문(崇禮門)이라는 이름은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것이요, 그 액자는 세상에서 전하기를, 양녕대군(讓寧大君) 휘(諱)는 제(禔), 태종(太宗)의 장자(長子)인데 처음에는 세자(世子)에 봉해졌다가, 태종 18년(무술)에 덕(德)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대군(大君)에 강봉(降封)되었고 시호는 정(靖)이다. 그는 실상 왕위(王位)에 오르지 않으려고 거짓 미친 체하여 면한 것이다. 의 글씨라 한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 왜적들이 그 액자를 떼어 버려 유실되었는데, 왜란이 평정된 후 남문(南門) 밖의 못[池] 근방에서 밤마다 괴이한 광선(光線)을 내쏘므로 그곳을 발굴하여 다시 이 액자를 찾아 걸었다고 한다. 《서림총화(書林叢話)》를 상고하건대, "명 세종(明世宗) 융경(隆慶) 원년(1567)은 곧 우리나라 명종(明宗) 22년이다. 이해에 우리나라에 온 명 나라 사신 허국(許國)이 유심(兪深)에게 '이곳에 있는 액자들은 모두 보잘것이 없고 숭례문(崇禮門) 액자가 조금 쓸 만하나 이것 역시 아주 좋은 것은 못 되고, 오직 홍화문(弘化門)과 대성전(大成殿)의 액자가 가장 좋은 글씨인데, 그 중에도 대성전 액자가 더욱 좋다.' 하자 원접사(遠接使)가 그 말을 듣고 대성전 세 글자를 모사해 주었다. 대성전 액자는 곧 성임(成任)의 글씨이다." 하였다. 성임(成任)의 자는 중경(重卿), 호는 안재(安齋)이고 벼슬은 이조 판서에 이르렀는데, 촉체(蜀體)를 잘 썼다. 《황화집(皇華集)》을 상고하건대, "우리나라 문묘(文廟)에 걸려 있는 대성전(大成殿)이란 액자의 성(成) 자를 안평대군(安平大君)-호는 비해당(匪懈堂), 휘(諱)는 용(瑢)이고 자는 청지(淸之)이다. 세종(世宗)의 셋째아들로, 계유정란(癸酉靖難) 때 화를 입었으나 뒤에 신원(伸冤)되었고, 시호는 장소(章昭)이다.- 이 맨 처음 성(聖) 자로 써서 걸었는데, 단종(端宗) 원년(임신)에 명(明) 나라 사신 진순(陳純)·이관(李寬)이 성균관(成均館)에 가서 알성(謁聖)하고 나서 대성전(大聖殿)으로 되어 있는 편액(扁額)을 보고 웃으면서 '우리 중국과 다르다.' 하였으므로, 그 후에 대성전(大成殿)으로 고쳤다." 하였는데, 뒤에 고쳐서 쓴 사람이 바로 성안재(成安齋)이다. 숭례문(崇禮門)의 편액은 정난종(鄭蘭宗) 정난종의 자는 국형(國馨), 벼슬은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이르렀고, 시호는 익혜(翼惠)인데, 동래인(東萊人)이다. 촉체(蜀體)를 잘 썼다. 이 쓴 것이다. 그렇다면, 국초(國初)에 걸었던 편액이 반드시 있었을 것인데, 양녕대군(讓寧大君)이 어째서 다시 썼단 말인가. 난리가 평정된 후 괴이한 광선으로 인하여 다시 찾아 걸었다고 하였으니, 정공(鄭公)은 또 어떻게 해서 그를 써서 걸었단 말인가. 하물며 정공은 세조(世祖) 때 사람으로 글씨를 잘 썼기 때문에 비판(碑版)이나 종명(鐘銘)을 어명에 의해 많이 썼으니, 숭례문의 편액도 그의 글씨라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그리고 그 자체(字體)를 보아도 바로 그의 서체(書體)임이 분명하다. 임진왜란 때에 왜노(倭奴)들에 의해 없어졌다가 난리가 평정된 후 다시 찾아 걸게 됨으로써, 양녕대군의 글씨라고 와전된 데다 괴이한 광선에 대한 설(說)까지 다시 부회(傅會)된 것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좋은 글씨가 땅 속에 묻히면 괴이한 광선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여전인(余全人)의 말에 '송(宋) 나라 말엽에 남쪽으로 행행(行幸)할 적에 순화각첩(淳化閣帖)을 천주(泉州)에 버림으로써 이미 땅 속에 묻혀져 버렸는데, 거기서 가끔 괴이한 광선을 내쏘므로 파 보니, 이것이 바로 마제진적(馬蹄眞跡)이요 은정(銀錠)의 흔적이었다.'고 한 예와 같은 것이다. 정공(鄭公)이 쓴 숭례문의 편액도 명필(名筆)이고 보면, 땅에 묻혀서 광선을 발사하는 것이 무어 이상할 게 있겠는가.		
원천자료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5		

No.	070	작성자	위가야
제목	**숭례문 편액에 얽힌 이야기 02**		
이야기	의정부(議政府)의 편액이 가장 잘 쓴 것이라고 하는데, 사가 서거정의 글씨이다. 지부아문(地府衙門)과 성북둔(城北屯)은 오운(五耘) 윤동절(尹東哲)이 쓴 것이고, 어영청(御營廳)은 백하(白下) 윤순(尹淳)이 쓴 것이다. 비변사(備邊司)는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이 쓴 것인데, 지금은 묘당(廟堂)으로 고쳤으니 이는 이유원(李裕元)이 쓴 것이다. 태학(太學)의 명륜당(明倫堂)과 비천당(丕闡堂)은 주지번(朱之蕃)이 쓴 것이고, 안에 건 금자(金字)로 쓴 명륜당은 주 부자(朱夫子)의 글씨이다. 대사마아문(大司馬衙門)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쓴 것이고, 공조와 형조는 석봉(石峯) 한호(韓濩)가 쓴 것이다. 경조부(京兆府)는 장군 유혁연(柳赫然)이 쓴 것이고, 숭례문(崇禮門)은 공조 판서 유진동(柳辰仝)이 쓴 것이다. 흥인지문(興仁之門)은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글씨이고, 장용영(壯勇營)은 몽촌(夢村) 김종수(金鍾秀)가 쓴 것이고, 뒤에 훈국동영(訓局東營)으로 고친 것은 충경(忠敬) 조만영(趙萬永)이 쓴 것이고, 또 총아영(總衙營)으로 고친 것은 이재(彝齋) 권돈인(權敦仁)이 쓴 것이다. 우포청아문(右捕廳衙門)은 장군 장지항(張志恒)이 썼는데 아문 두 자를 덧붙였다.		
원천자료	이유원, 『임하필기(林下筆記)』 제30권		

No.	071	작성자	위가야
제목	**숭례문 편액에 얽힌 이야기 03**		
이야기	숭례문(崇禮門)이란 현판은 양녕대군(讓寧大君)의 글씨라고 세상에서 전하는데, 이것은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 나온 말이다. 연전에 남대문을 중수할 때 양녕대군의 사손(祀孫)인 이승보(李承輔) 대감이 윤성진(尹成鎭) 대감과 함께 문루(門樓)에 올라가서 판각의 개색한 것을 보았더니, 후판 대서(後板大書)는 공조 판서 유진동(柳辰仝)의 글씨였다 한다. 아마 이것은 옛날 화재가 난 뒤에 다시 쓴 것인가 싶다. 유진동은 대를 잘 그렸으므로 호를 죽당(竹堂)이라 하였다. 유진동이 아이 때 그 부형이 그림을 못 그리게 하니 눈물로 댓잎을 그렸다 한다. 그의 신도비는 남약천(南藥泉 남구만(南九萬))이 찬하였다.		
원천자료	이유원, 『임하필기』 제35권		

No.	072	작성자	최우석
제목	**남대문 좌우성벽 철거 및 격리**		
이야기	"南門修道起工 본월 4일에 경성 남대문 양측 도로 개수의 계획을 확정하여 이래 민유지의 매수 등 일을 준비하였는데 우선 남대문 우측(즉 북측)의 도로를 개정하게되어 12일 내에 세관공사부에서 그 공역은 개시할 것이오. 좌측(즉 남측)은 우측의 공역이 마침을 기다려 착수할 터인데 이 도로는 폭 8간이니 전차선로는 우측 길로 이설케 할 것인즉 일반교통이 매우 편리하겠다더라." (『황성신문』, 1907년 9월 9일.) "封鎖된 南大門-李朝建築의最高齡者 동양예술의 정화의 하나로서 오백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옛자태 그대로 만호장안의 사람들을 말없이 안어서 들이고 내여보내든 남대문을 봉해버리게 되었다. 다정한 어머니 품안처럼 무시로 드나들든 그 문이 철사로 가로막은 바 되어 인제는 눈인사만을 하게 되었으매 남대문에 얽힌 기억이 행결 새로워진다. 귀중한 이 고적을 오래도록 보존할나매 이것이 마땅한 소치라고 아니할 수 없으나 남대문 부근으로 거닐면 의례히 멀리 돌아서라도 그 문을 통해서만 지나가고 싶은 이런 중동을 받은 우리로서 다시금 생각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이 문은 이태조 4년(지금부터 542년전) 축성과 동시에 건축에 착수하였으나 원체 규모가 큰지라 4년 후에야 완성되어 현재 남은 이조 목재건축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의 하나다. 그 후 제4대 세종대왕 29년에 개축한 것인데 그때까지는 양편에 성벽이 연해 있어서 성밖에 나가는 자는 누구나 이 문을 통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공중으론 비행기, 지상으론 전차, 자동차 남대문을 모른척하고 지나고 있지 않은가? 거마의 요란스런 소리에 시들은 잔디풀이 떨며 남대문 몸둥이에 먼지만 날러 앉으니 이 역시 금석의 현격을 말하는 것이리라." (『동아일보』, 1937년 12월 5일.)		
원천자료	『황성신문』 1907년 9월 9일 『동아일보』 1937년 12월 5일		

No.	073	작성자	최우석
제목	**남대문 동대문의 수난 - 걸인들의 소굴화**		
이야기	乞人(걸인)의巢窟化(소굴화)한 崇禮門(숭례문)과興仁門(흥인문) 當局(당국)의時急處置(시급처치)를要望(요망) 五(오)백년이조왕업(李朝王業(이조왕업))의도성인 서울의남쪽과동쪽을직히든 숭예문(崇禮門)과 흥인지문의 다락이 오늘날 걸인들의 소굴로 되어 어느날 그들의 손에서 재와 돌무데기로 화하여 버릴런지 알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며 한말의 험한 풍운을 말없이 겪어온 이 두 문루는 시대의 변천과 전쟁방법의 입체화로 성문으로서의 중대사명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들의 옛날 건축예술과 찬란한 문화를 자랑할 귀중한 유산으로 이의 완전한 보존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어늘 관계당국자들의 태만과 부주의로 말미암아 거지떼가 함부로 문루를 소굴로 점령하고 대소변으로 더럽히는 것은 물론 담배를 피우며 거적자리에 불부치는 등 목불인견의 참상으로 이 역사적 문루를 좀먹게 하고 있다. 책임있는 관계당국은 시급히 이 루상을 청소하여 금후의 단속을 엄밀히하고 두 번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시급한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이며 고적보존에 대한 성의와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47년 5월 10일		

No.	074	작성자	최우석
제목	**남대문 봉쇄**		
이야기	동양예술의 정화의 하나로서 5백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옛자태 그대로 만호장안의 사람들을 말없이 안어서 들이고 내여보내든 남대문을 봉해버리게 되었다. 다정한 어머니 품안처럼 무시로 드나들든 그 문이 철사로 가로막은 바 되어 인제는 눈인사만을 하게 되었으며 남대문에 얽힌 기억이 한결 새로워진다. 귀중한 이 고적을 오래도록 보존할나매 이것이 마땅한 소치라고 아니할 수 없으나 남대문 부근으로 거닐며 의례히 멀리 돌아서라도 그 문을 통해서만 지나가고 싶은 이런 충동을 받은 우리로서 다시금 생각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이 문은 이태조4년 지금부터 542년전 축성과 동시에 건축에 착수하였으나 원체 규모가 큰지라 4년 후에야 완성되어 현재 남은 이조시대 목재건축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의 하나다. 그 후 제4대 세종대왕 29년에 개축한 것인데 그때까지는 양편에 성벽이 연해 있어서 성밖에 나가는 자는 누구나 이 문을 통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공중으론 비행기, 지상으론 전차, 자동차. 남대문을 모른척하고 지나고 있지 않은가? 거마의 요란스런 소리에 시들은 잔디풀이 떨며 남대문 몸둥에 먼지만 날러 앉으니 이 역시 금석의 현격을 말하는 것이리라.		
원천자료	『동아일보』 1937년 12월 5일		

No.	075	작성자	최우석
제목	**남대문, 정치적 공간 (1)**		
이야기	선거전이 벌써 종반전으로 들어선 요즘 각 입후보의 '플랜카드'가 수없이 나붙는데 특히 호화판을 이루고 있는 것은 돈많은(?) 자유당의 그것. 서울 시내에도 국보로 지정된 동대문 남대문을 비롯 고궁의 정문 그리고 전국의 고적 같은 곳에까지 양 입후보자의 초상화 혹은 플랜카드가 넌지시 걸려 행인의 시선을 끄는데 지난 5.20 총선 때도 남원 광한루에 걸려있는 플랜카드로 말썽이 생긴 것이 귀에 새롭지만 자유당에서는 소정의 허가나 받고서 했는지 궁금.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 제5조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요하도록 명기되어 있는데 뭐 못 정도 박는데야 그럴 것까지 있을라구?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원천자료	選擧(선거)에古宮(고궁)도한몫 - 여당 게시판화한 국보 『동아일보』 1956년 5월 3일		

No.	076	작성자	최우석
제목	**남대문, 정치적 공간(2)**		
이야기	5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의 남대문도 마침내 선거바람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 숭례문 현판 밑에 '자유당'이란 세 글자가 붙어있고 그 좌우편에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씨의 커다란 초상화가 걸려있으니 선거때라고 이렇듯 개인의 사진이 고적 위에 걸리게 된 것도 역사상 처음이려니와 "서울에 가면 먼저 남산과 남대문을 보게된다"하던 시골사람들도 이젠 "서울에 가면 남산과 남대문 그리고 자유당 입후보자들을 보게된다"고 말하게 되었군.		
원천자료	**서울에 또 하나의 명물** 『동아일보』 1956년 4월 28일		

No.	077	작성자	최우석
제목	**남대문, 정치적 공간(3)**		
이야기	순국선열 유관순 열사의 동상 제막식이 열사의 순국 50주년이 되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앞 중앙녹지대에서 박 대통령을 비롯, 삼부요인과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유관순 동상은 조각가 김세중 씨의 조각, 서명학 씨의 글, 대한통운회장 최준문 씨의 헌납으로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가 세운 것이다. 원상의 높이는 4.5m 전체의 높이 12.1m로 1년에 걸쳐 완공을 본 이 동상의 특징은 동상 좌석 둘레에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6인의 군상을 세기고 1.독립과 번영 2. 갈구 3. 속박 4. 통곡 5. 고뇌 6. 항거를 부각한 것이다. 이날 제막된 동상에 '류관순동상'이라 새겨졌는데 조상건립위에 의하면 이는 유씨종친회가 柳자를 한글로 표기할 때 '류'로 쓰기로 한 결정을 따른 것이라 한다.		
원천자료	남대문앞 동상제막 유관순양 순국 50돌 『동아일보』 1970년 10월 12일		

No.	078	작성자	최우석
제목	**남대문, 정치적 공간(4)**		
이야기	柳寬順銅像(유관순동상)오늘着工(착공) 그랜드호텔앞에建立(건립) 애국선열 조상건립위원회(회장 張太和(장태화))는 十一(십일)일 오전十(십)시 서울태평路(노) 그랜드 호텔앞도로 중앙녹지에 柳寬順(유관순) 동상 건립 착공식을 가졌다.		
원천자료	유관순 동상 오늘 착공, 그랜드호텔 앞에 건립 『동아일보』 1970년 5월 11일		

No.	079	작성자	최우석
제목	**남대문, 정치적 공간(5)**		
이야기	1969년에 시청 앞 광장 대로변에 세워진 김유신동상과 1970년 남대문 뒤에 세워진 유관순동상은 서로 등을 맞대고 남과 북을 지키게 세워졌다고 한다.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에서 고증위원으로 활동한 이서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김유신장군상은 삼국통일 때 고구려로 쳐들어갔고 유관순처녀는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다가 순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유신장군은 북쪽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고 유관순 처녀는 남쪽의 일본을 향해 횃불을 든 모습을 된 것이지요. 그리고 김유신장군의 동상은 우리 민족의 염원인 북진통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들이 말하는 뒷이야기<1>」, 『서울신문』, 1970.10.23) (95~96쪽.) 박정희가 일본의 탄압과 북한의 대남정책을 동일시했던 것을 상기시켜볼 때 삼국통일의 주역인 신라장군 김유신을 서울시청 앞 대로변에 북을 향해 칼을 뽑아들고 달려가는 형상으로 세워둔 것은 그 곳의 역사적 의미를 떠올리게 하며 박정권의 국가수호의 의지를 홍보하고 선전하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와함께 남쪽 일본을 향해 횃불을 들고 선 유관순열사상은 국민들의 반일주의를 활용하여 국가권력의 자주성을 선전하는 데에 활용 된 것으로 해석된다. (97쪽.)		
원천자료	진혜윤, 「박정희 정권시기 기념동상에 재현된 이데올로기」, 서울대 서양화과 석사논문, 2006.		

No.	080	작성자	최우석
제목	**숙정문 열리다**		
이야기	“생겨나자 겸구렁, 행세 못하든 내 신세. 다치어 있길래 신산한 파란도 안 격고 세상밧겨 열린 입이니 한두마듸 말씀 나의 본명은 숙정, 무단히 받은 냉대” 북문을 숙정문이라고 합니다. 북쪽에 있다하여 차별대우를 받는지는 모르되 나는 세상에 태어나는 그날부터 입이 닫기어 문으로 행세를 못하다가 시세가 바뀌어 다른 문이 문의 행세를 못하게 되는 근년부터야 비로소 입이 열리어 문의 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28년 5월 11일		

No.	081	작성자	박수진
제목	**낮도둑**		
이야기	함경도(咸鏡道)는 야인(野人)과 이웃하여 있고 또 번호(藩胡)도 있어, 조정에서는 예부터 방어(防禦)하는 일을 중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남북 병사(南北兵使)와 북도(北道)의 대소 수령(守令)은 모두 무부(武夫)를 가려서 보내는 것이 예(例)였다. 더구나 조정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수령이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것이 없이 오로지 가혹한 징수와 혹독한 형벌을 일삼았고, 백성을 초개(草芥)같이 여겼다. 그래서 백성도 또한 수령을 ‘낮도둑’이라 지목하여 원수같이 여겼다. 간혹 문관(文官)을 가려서 보내기도 하나 백성들의 기대에 걸맞는 사람은 아주 적었다. 북도 시골 사람으로 서울에 처음 온 자가 있었는데, 동소문(東小門)으로 들어와서 성균관(成均館) 앞길에 이르러서는 같이 온 사람에게, “여기는 어느 고을 읍내(邑內)이기에 관사(官舍)가 이같이 높고 넓은가?” 하고 물으니, 같이 온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모르는가? 여기는 읍내가 아니라, 조정에서 ‘낮도둑’을 모아서 기르는 곳이다” 하였다. 이 말이 비록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한 말로 그 마음이 이해는 가지만 듣기에 또한 괴이하다.		
원천자료	이기, 『송와잡설』		

No.	082	작성자	박수진
제목	**만남과 이별(동소문)**		
이야기	17일 이른 아침에 동소문(東小門) 밖의 백성의 집에 나가 있었는데, 또 금부(禁府)에 모두 모이라는 명이 있었다. 색승지(色承旨) 성운(成雲)이 와서 전교하기를, “너희들은 모두 시종하는 신하로 상하가 마음을 같이하여 지극히 좋은 정치를 기약하였다. 너희들의 마음이 착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근래에 너희들이 조정의 일을 처치하는 것이 지극한 과오가 있어 인심을 불평하게 하였기 때문에 마지못하여 죄를 준 것이니, 나의 마음도 어찌 편하겠느냐. 죄주기를 청하는 대신도 어찌 사적인 의도가 있겠는가. 너희들의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내가 밝지 못하여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법률대로 죄를 주면 반드시 이 정도가 아닐 것이다. 너희들은 사심(私心) 없이 국가를 위하였기 때문에 끝으로 감하여 가벼운 죄를 주었으니 알고 떠날지어다.” 하였다. 이날 밤은 동소문 밖 민가에서 잤다.		
원천자료	허봉, 『해동야언(海東野言)』		

No.	083	작성자	박수진
제목	**동소문 밖에서 무과 실시**		
이야기	동소문(東小門) 밖에서 무과(武科)를 복시(覆試)하였는데, 전 사정(司正) 유승연(柳承淵)을 제(第一)로 하였다. 임금이 친열(親閱)하고자 하였으나 마침내 실행하지 않고, 좌대언(左代言) 유사눌(柳思訥)에게 명하여 감독하게 하였다. 유승연을 부사직(副司直)으로 삼았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태종 14년 갑오(1414,영락 12) 4월6일 (기유)		

No.	084	작성자	박수진
제목	**백관이 동소문 밖에서 어가를 맞이함**		
이야기	혜성(彗星)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어가(御駕)가 돌아오다가 소계천(所界川)가에 머무니, 서울에 머물렀던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에서 풍정(豐呈)을 바치고 음악을 연주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술을 올리고, 다음에 좌의정(左議政) 강맹경(姜孟卿)·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양산군(梁山君) 이징석(李澄石)·공조 판서(工曹判書) 이변(李邊) 등이 술을 올리니, 어가(御駕)를 수종하던 종친(宗親)·재추(宰樞)와 서울에 머물렀던 종친·재추에게 잔치를 내려 주었다. 백관(百官)들이 동소문(東小門) 밖으로 나와 어가를 맞이하였다. 해질 무렵에 환궁(還宮)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세조 5년 기묘(1459,천순3) 3월 1일(계미)		

No.	085	작성자	박수진
제목	**김유를 동소문 밖에서 전별함**		
이야기	김유(金宥)가 적성(積城)으로 가니, 김흥(金興)이 동소문(東小門) 밖에 나가 전별하였다. 민건(閔騫)과 예조 판서 이승손(李承孫)을 보내어 전별하고 아청면포 겹원령(鴉靑綿布袂圓領)·초록주 탑호(草綠紬塔胡)·유청주 철릭(柳靑紬帖裏)·백초 과두(白綃裹肚) 각각 1, 시복(矢服)·궁도(弓弢) 각각 1, 대전(大箭) 6, 각궁(角弓) 1장을 주었다. 김흥이 돌아와서 대궐에 나아가니, 노산군이 맞이하여 조계청(朝啓廳)으로 들어갔다. 김흥이 유청사운저사(柳靑四雲紵絲) 1필, 청직금통주슬란저사(靑織金通紬膝欄紵絲) 1필, 용안(龍眼) 1합(盒), 여지(荔枝) 1합, 백사당(白沙糖) 1통(桶), 회회도아(回回條兒) 1조(條)를 바쳤고, 노산군은 아청면포 겹원령·초록주 탑호·유청주 철릭·백초 과두 각각 1, 시복·궁도 각각 1, 대전 6, 각궁 1장을 주었다. 김흥이 또 경정 공주(慶貞公主) 집으로 가니, 노산군이 환관 김충(金忠)을 보내어 어육(魚肉)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단종 즉위년 임신(1452,경태 3) 10월13일 (신축)		

No.	086	작성자	박수진
제목	**왜인을 홍화문으로 내보내라고 전교함**		
이야기	왜인을 홍화문으로 내보내라고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야인(野人)은 늘 동소문(東小門)으로 왕래하거니와, 왜인(倭人)은 이제 비로소 보건대 여염 사이의 작은 길로 데리고 다녀서는 안되겠으니, 홍화문(弘化門) 앞의 큰길로 내보내야 하겠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중종 23년 무자(1528,가정 7) 9월21일 (경인)		

No.	087	작성자	박수진
제목	**동소문 밖 박명건의 시체를 재검시함**		
이야기	형조가 아뢰기를, "장용위(壯勇衛) 박명건(朴命建)이 동소문(東小門) 밖의 소나무에 목을 매어 죽었는데 동부(東部)에서 초검(初檢)한 상처와 한성부(漢城府)에서 복검(覆檢)한 상처가 서로 다릅니다. 처음에는 동류(同類) 장용위【손내은석(孫內隱石).】가 시친(屍親)으로 정장(呈狀)을 하였는데, 그 뒤에 그의 삼촌숙(三寸叔)인 이준(李準)의 정소(呈訴)에 '요즈음에 여자를 얻어가지고 돌아다녔는데 그 본남편이 살해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사간(事干)을 형조에서 막 추문하고 있으니 속히 다시 검시(檢屍)하게 하소서."【 어떤 사람의 말에는 도총부(都摠府)에서 징속(徵贖)을 너무 독촉하므로 목매어 죽었다고 한다.】 하니, 그렇게 하라고 전교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중종 36년 신축(1541,가정 20) 6월11일 (병인)		

No.	088	작성자	박수진
제목	**진주(晉州)의 죄수 수군(水軍) 박한석(朴漢石)의 추안(推案)을 아룀**		

이야기

계복(啓覆)을 들었다. 좌부승지(左副承旨) 이명규(李名珪)가 진주(晉州)의 죄수 수군(水軍) 박한석(朴漢石)의 추안(推案)을 아뢰었다.【한석(漢石)은 그 아비 보중(甫中)을 때려 죽인 죄인으로 죄가 능지 처사(凌遲處死)로 부대시(不待時)였다.】 영사(領事) 유보(柳溥)가 아뢰기를,

"이 사람이 아비를 죽인 정상이 명백하여 의심할 것이 없으니, 천하의 큰 변고이며 성왕(聖王)의 정치에 큰 누를 끼친 자입니다. 천지 사이에 잠시도 용납해 둘 수 없는 자이니 속히 율법에 의하여 전형(典刑)의 엄중함을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율법대로 하라고 일렀다. 형조 판서 유인숙(柳仁淑)이 아뢰기를,

"장용위(壯勇衛) 박명건(朴命建)은, 그의 삼촌 이준(李準)의 정장(呈狀)에 '그 아내의 본남편의 소행인지 의심스럽다.'고 하였기 때문에 추국해 보니 이미 의심스런 단서가 없고 또 의심할 만한 자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매우 못생겨 남편이 없었는데 명건이 상번(上番)했을 때에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만약 타인에게 살해를 당했다면 반드시 상처가 많을 것인데 다른 상처는 없고 다만 목맨 흔적만 있으니 분명히 피살되었다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묻기를 '너의 남편이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은 무슨 까닭이냐, 고민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고 하니 '남편이 저녁을 먹고 숙직을 나가면서 말하기를 「인정(人情)으로 무명 3필을 써야 할 곳이 있는데 구해 놓았는가?」 하기에 얻지 못했다고 대답했더니 고민스런 표정으로 도로 들어왔다. 그래서 마침 궐문에 미처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궐직(闕直)하였는데 「이 또한 큰 죄이니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하며 몹시 걱정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입궐(入闕)했다가 여러 날 돌아오지 않았다. 뒤에 들으니 동소문(東小門) 밖에 목매어 죽은 자가 있다고 하기에 가 보았더니 바로 우리 남편이었다.'고 하였습니다만, 이와 같이 작은 일 때문에 목매어 죽지는 않았을 듯합니다. 그러나 요즘 긴요하지 않은 일로 해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대한 옥사이긴 하나 믿을 만한 증거도 없는데 문득 형추(刑推)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李準)의 본뜻을 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설원(雪冤)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갈 협박하여 뇌물을 받아내려는 처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주인집으로 가서 명건의 아내에게 설득하여 말하기를 '무명 2동(同)쯤은 가져야 염하여 장사지낼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주지 못하겠다고 대답하자 곧 화를 내고 정장(呈狀)한 것입니다. 명건의 아비와 본처(本妻)는 정소(呈訴)할 뜻이 없었는데 이준만이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은 적실한 일이 아닌 듯합니다. 의심할 만한 단서가 없는데 형신하는 것은 미안한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형조가 취품(取稟)할 때 '시친(屍親)의 정장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옳던 그르던 간에 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에 추국을 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뢰는 뜻을 듣고 보니 과연 의심스러운 듯하다. 그러니 의심스런 옥사의 일은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해야 한다."

하였다. 영의정 윤은보, 우의정 윤인경, 좌찬성 유관, 우찬성 양연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박명건의 검장(檢狀)을 상고해 보니 상흔(傷痕)은 바로 목맨자리 뿐으로 타살을 당한 것이 아님은 의심할 만한 단서나 근거할 만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준(李準)의 소장(訴狀)만을 따라 갑자기 큰 옥사를 일으킨다면 사건의 실정은 얻지 못한 채 상(傷)하는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준이 명건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면포(綿布) 2동(同)쯤은 있어야 염습하여 장사지낼 자본이 된다.'고 하였다 하니 이것을 근거하여 헤아려 보면, 그 뜻이 공갈해서 재물을 취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원통함을 씻어 주려던 뜻이 아니었으니 추문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추문하지 말라는 것으로 형조에 말하라."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중종 36년 신축(1541,가정 20) 6월18일 (계유)

No.	089	작성자	박수진
제목	**철원으로 귀양살이 떠나는 윤무구를 보내며**[送尹无咎謫鐵原]		
이야기	첫 번째 쇠북소리에 혜화문이 열리더니 / 惠化門開第一鍾 산 넘고 물을 건너 북으로 가는 길 겹겹이로세 / 關河北去路重重 산이 대신 일산을 펴 외로운 말을 맞고 / 山張寶蓋迎孤馬 얼음발을 안개가 내려 구룡을 숨겨주리 / 霧鎖氷簾秘九龍 다행히도 잠시나마 청쇄달에서 놀았지만 / 試幸暫游靑瑣闥 우리 함께 백운봉을 오를 때만 같겠는가 / 何如同上白雲峯 듣자하니 신진 축에 뛰어난 인물 많아 / 傳聞新進多才俊 검은 머리 붉은 얼굴에 감정 자태 다 좋다네 혜화(惠化)는 서울의 동북편 문 이름. / 玄鬢紅顔意態濃		
원천자료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3권		

No.	090	작성자	박수진
제목	**세초**(洗草)		
이야기	일시(日時) 기축년(1889, 고종26) 8월 9일에 일기청을 설치할 것을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정탈(定奪)하다. 동월 26일에 당상과 낭청을 계하(啓下)하다. 9월 8일에 이전 호위청(扈衛廳) 자리였던 전설사(典設司)에서 회동(會同)하다. 동월 12일에 이전 호위청 자리였던 전설사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다. 동일에 《일성록(日省錄)》과 《윤발(綸紼)》을 내각(內閣)에서 봉출(奉出)하다. 동일에 일기를 정원(政院)에서 옮겨 오다. 경인년(1890, 고종27) 12월 15일에 일기의 수집(蒐輯)을 마치고 이를 받들고 나아가다. 동일에 당상과 낭청 이하를 별단(別單)에 써서 들이다. 18일에 혜화문(惠化門) 밖에서 세초(洗草)하다. 동일에 낭청들을 모두 감하(減下)하다.		
원천자료	『일기청등록(日記廳謄錄)』		

No.	091	작성자	최우석
제목	**동소문 문루 철거**		
이야기	“구문팔자타령(4) 동소문 파락한 금일 잔해 삼선평고성도 환멸 영문장졸의 추격하든 곳도 온데간데 물터로 모여가는 부녀만 오락가락해 어린애들 수수격기에 탈달린 문이 어느문이냐하는 문이즉나외다. 속칭은 동소문이라고 불르나 관명은 혜화문이라고 합니다. ..... “오백년의 역사가진 동소,수구양문 철훼, 돈이 없어 보존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역사 긴 동소문과 수구문을 헐어버려. 창의문만 근보전태” 경성 성벽 구문 중에는 동북간 문인 동소문=혜화문과 남동간에 있는 부정문이라고 하는 광희문=수구문은 퇴락하여 위험하기 짝이 없으며 또한 보관을 소홀히 하여 걸인의 숙박처가 되어 위생상 그대로 둘 수 없다 하야 이전부터 돈을 들여 고적보존회의 손으로 수리보관을 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철회하야 불안이 없이하자는 두 의견이 있어 오든바 고적보존회로부터 경비가 없어서 전기 두문을 유지할 수 없으니 철회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음으로 토목부 관유재산계에서는 재목만을 내자동에 사는 진모에게 1천2백여원에 팔아버리어 철회케하는 중인데 동소문은 이태조 5년에 창건되어 홍화문이라고 하다가 연산군 10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하여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오. 광희문은 본시 수구문으로 출상하든 문인데 창건된 년대는 미상하다고 한다. 이밖에 창의문마저 헐어버리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아직 그럴 필요가 없다하여 그것만은 고적보존회에서 관리하기로 되었다더라.”		
원천자료	『동아일보』 1928년 4월 22일 『동아일보』 1928년 7월 12일		

No.	092	작성자	최우석
제목	**혜화문 헐리다**		
이야기	“풍우 오백년의 노문, 동소문은 헐렸다. 부근 일대 시가정리로” 외국문물이 아직 조선에 들어오기전 서울 장안을 보호하기 위하여 쌓은 성곽의 1문 동소문 1명 혜화문은 작 24일로 드디어 헐리고 말았다. 쇄국의 시대로부터 시간은 흘러 서울 장안의 문물은 엄청난 진보와 변화를 보이고 장안의 발전은 옛날의 고적보다도 교통의 편리를 높이 평가함에 이르러 동소문과 성곽일부는 경성부의 시가정리구역에 들어가 지난 20일 향기로운 아카시아 꽃에 싸인 동소문에는 공부의 사정이 없는 골이디어 헐리기 시작 24일로써 마지막 ‘아취’의 형적조차 장안사람들의 애석해하는 가운데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이 문이 헐린 곳에는 장차 시내로부터 삼선평으로 직통하는 넓이 24미의 한대 도로를 부설하게 되어 동소문 안쪽으로는 동성상업운동장 일부와 조선영호회사 축음스튜디오며 대학의원의 서부쪽 담장 일부가 모두 헐리는 중이다. 동소문은 이태조 5년 장안을 둘러 성곽을 쌓을 때 축조된 것이므로 근 50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본래는 홍화문이라는 것을 9대 성종 14년 창경궁 앞에 동문을 건국하여 홍화문이라 칭하였으므로(현재의 창경원 정문) 중종 6년에 이를 분간하기 위해 혜화문이라 개칭하였든 것이다. 그리고 최초 루문 천장에는 예문 밖 부근의 조해를 막는 의미에서 용 대신에 봉황을 그렸었으나 이미 10여년에 이것은 무너져 없어졌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38년 5월 25일		

No.	093	작성자	위가야
제목	**혜화문 밖의 노비부처**		
이야기	혜화문(惠化門) 밖의 냇가 동쪽에 석벽이 있었다. 거기에 돌로 만든 처마가 덮여 있고 두 개의 기둥이 지탱하고 있는데 기둥 역시 모두 돌로 만든 것이다. 벽면에 불상 하나가 조각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노비부처 [奴佛] '라 부르고 그 시내를 '불천(佛川)'이라 이름 지었다. 도성 동쪽의 나무하는 노비들이 날마다 그 밑에 모여들어 올려다보며 욕하기를, "우리를 남의 종으로 만든 놈이 이 불상이다. 불상이 무슨 면목으로 우리를 쳐다본단 말인가." 하면서 낫을 추켜들어 눈을 파내니 불상의 두 눈이 모두 움푹 파였다. 혹사당한 원한이 마침내 불상에게까지 옮겨 갔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그들의 속담에 "이 불상이 없어지면 노비 역시 없어진다." 하였는데, 노비를 없애는 것은 그래도 가능하지만 석불은 누가 없애겠는가. 내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불상이 높이 솟아 있고 그 발밑에 냇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매년 장마가 져서 산이 깎이고 하천이 메워져 수십 년 사이에 모래가 그 처마까지 쌓이는 통에 불상의 몸체가 전부 파묻혀 제거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속담대로 과연 이 불상이 없어진 것이다. 영조 신해년(1731, 영조 7)에 노비 가운데 양인 어미 소생은 어미의 신분을 따르도록 명하니 노비가 비로소 줄어들어 지금은 집안에 노비가 없는 자가 대부분이다. 금상 신유년(1801, 순조 1)에 내시노비(內侍奴婢) 대장을 소각하도록 명하여 공노비가 모두 사라졌으니 사노비가 자신들의 천역에 종사하려 하겠는가. 결국에는 반드시 모든 노비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대체로 노비의 자식이 대대로 노비가 되는 것은 중국 성왕(聖王) 시대의 법이 아니라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다. 기자(箕子)의 팔조법금(八條法禁)에 도둑질한 자를 노비로 삼도록 한 것은 그 당대만을 징계한 법이니, 어찌 대를 이어가며 노비로 삼게 하였겠는가. 그러나 끝내는 대대로 남의 종살이를 하는 원한이 불상의 눈을 파내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니, 불상이 만약 지각이 있다면 응당 그들을 가엾게 여겨 눈물을 흘리고 성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공노비 대장이 모두 잿더미가 되어 온 백성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으니, 하늘에 왕업이 장구하기를 비는 것으로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올해의 대풍을 해마다 기약할 수 있어 복록이 국가에 돌아가고 은택이 노비에게 돌아가게 되었으니 노비가 없는 집안도 걱정할 것이 없다. 한편 자기 몸을 팔아 노비가 되는 자가 어찌 없겠는가. 이러한 경우는 옛 법에도 있는 것으로 단지 당대에 국한된 노비일 뿐이다.		
원천자료	성대중, 『청성잡기(靑城雜記)』 제5권		

No.	094	작성자	위가야
제목	**동소문 밖 박명건 자살사건 01**		
이야기	형조가 아뢰기를, "장용위(壯勇衛) 박명건(朴命建)이 동소문(東小門) 밖의 소나무에 목을 매어 죽었는데 동부(東部)에서 초검(初檢)한 상처와 한성부(漢城府)에서 복검(覆檢)한 상처가 서로 다릅니다. 처음에는 동류(同類) 장용위【손내은석(孫內隱石).】가 시친(屍親)으로 정장(呈狀)을 하였는데, 그 뒤에 그의 삼촌숙(三寸叔)인 이준(李準)의 정소(呈訴)에 '요즈음에 여자를 얻어가지고 돌아다녔는데 그 본남편이 살해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사간(事干)을 형조에서 막 추문하고 있으니 속히 다시 검시(檢屍)하게 하소서."【 어떤 사람의 말에는 도총부(都摠府)에서 징속(微贖)을 너무 독촉하므로 목매어 죽었다고 한다.】 하니, 그렇게 하라고 전교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중종 95권, 36년(1541 신축 / 명 가정(嘉靖) 20년) 6월 11일(병인) 1번째기사		

No.	095	작성자	위가야
제목	**동소문 밖 박명건 자살사건 02**		
이야기	좌부승지 이명규가 진주의 죄수 박한석의 추안을 아뢰다 계복(啓覆)을 들었다. (중략) 형조 판서 유인숙(柳仁淑)이 아뢰기를, "장용위(壯勇衛) 박명건(朴命建)은, 그의 삼촌 이준(李準)의 정장(呈狀)에 '그 아내의 본남편의 소행인지 의심스럽다.'고 하였기 때문에 추국해 보니 이미 의심스런 단서가 없고 또 의심할 만한 자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매우 못생겨 남편이 없었는데 명건이 상번(上番)했을 때에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만약 타인에게 살해를 당했다면 반드시 상처가 많을 것인데 다른 상처는 없고 다만 목맨 흔적만 있으니 분명히 피살되었다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묻기를 '너의 남편이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은 무슨 까닭이냐, 고민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고 하니 '남편이 저녁을 먹고 숙직을 나가면서 말하기를 「인정(人情)으로 무명 3필을 써야 할 곳이 있는데 구해 놓았는가?」 하기에 얻지 못했다고 대답했더니 고민스런 표정으로 도로 들어왔다. 그래서 마침 궐문에 미처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궐직(闕直)하였는데 「이 또한 큰 죄이니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하며 몹시 걱정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입궐(入闕)했다가 여러 날 돌아오지 않았다. 뒤에 들으니 동소문(東小門) 밖에 목매어 죽은 자가 있다고 하기에 가 보았더니 바로 우리 남편이었다.'고 하였습니다만, 이와 같이 작은 일 때문에 목매어 죽지는 않았을 듯합니다. 그러나 요즘 긴요하지 않은 일로 해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대한 옥사이긴 하나 믿을 만한 증거도 없는데 문득 형추(刑推)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李準)의 본뜻을 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설원(雪冤)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갈 협박하여 뇌물을 받아내려는 처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주인집으로 가서 명건의 아내에게 설득하여 말하기를 '무명 2동(同)쯤은 가져야 염하여 장사지낼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주지 못하겠다고 대답하자 곧 화를 내고 정장(呈狀)한 것입니다. 명건의 아비와 본처(本妻)는 정소(呈訴)할 뜻이 없었는데 이준만이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은 적실한 일이 아닌 듯합니다. 의심할 만한 단서가 없는데 형신하는 것은 미안한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형조가 취품(取稟)할 때 '시친(屍親)의 정장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옳던 그르던 간에 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에 추국을 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뢰는 뜻을 듣고 보니 과연 의심스러운 듯하다. 그러니 의심스런 옥사의 일은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해야 한다."		

	하였다. 영의정 윤은보, 우의정 윤인경, 좌찬성 유관, 우찬성 양연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박명건의 검장(檢狀)을 상고해 보니 상흔(傷痕)은 바로 목맨자리 뿐으로 타살을 당한 것이 아님은 의심할 만한 단서나 근거할 만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준(李準)의 소장(訴狀)만을 따라 갑자기 큰 옥사를 일으킨다면 사건의 실정은 얻지 못한 채 상(傷)하는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준이 명건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면포(綿布) 2동(同)쯤은 있어야 염습하여 장사지낼 자본이 된다.'고 하였다 하니 이것을 근거하여 헤아려 보면 그 뜻이 공갈해서 재물을 취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원통함을 씻어 주려던 뜻이 아니었으니 추문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추문하지 말라는 것으로 형조에 말하라."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중종 95권, 36년(1541 신축 / 명 가정(嘉靖) 20년) 6월 18일(계유) 1번째기사

No.	096	작성자	박수진
제목	**소의문 개괄**		
이야기	서남쪽 문을 소의문(昭義門)이라고 하는데 처음 이름은 소덕(昭德)이다. 장경왕후(章敬王后)께 시호(諡號)를 올린 다음 지금 이름으로 고쳤으며, 민간에서 서소문(西小門)이라 부른다.		
원천자료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권		

No.	097	작성자	박수진
제목	**부연일기-말을 타고 소의문을 나서다**		
이야기	맑음. 밥을 먹은 다음 길을 떠나 영화역(迎華驛) 말을 탔는데, 마두(馬頭)는 손명해(孫命海) 중화(中和)에 거주함 였다. 소의문(昭義門)을 나서자, 홍영지(洪英之)가 술을 가지고 와 작별하였다. 동지(同知) 김보천(金輔天), 첨지(僉知) 이양여(李良汝), 한원민(韓元敏) 치눌(致訥)과 그의 아우 자은(子誾)과 홍치의(洪致宜) 의식(義植), 김계승(金季承) 정모(廷謨), 양기문(梁岐文) 학주(學周) 과 당질 인식(仁植)·의석(義錫)·예석(禮錫), 생질 석구(錫九) 등 여러 사람이 잇따라 와 몇 마디씩 나누고 헤어졌다. 집 아이들과 최치수(崔穉叟), 한자은(韓子誾)은 모두 나를 따라 40리를 가 벽제관(碧蹄館) 고양(高陽)의 정당(政堂)임 에서 잤다.		
원천자료	『부연일기(赴燕日記)』 무자년(1828, 순조 28) 4월		

No.	098	작성자	박수진
제목	**한흥군(韓興君) 이공(李公) 신도비명**		
이야기	한흥군(韓興君) 이공(李公) 신도비명 공은 광해 13년 신유년(1621) 10월 16일에 태어났다. 4세 때에 한원군이 몰세하여 안마(鞍馬)만 돌아오자 자꾸 부르면서 찾았는데 나중에 비로소 전말을 듣고는 땅에 엎어져 곡하니, 보는 이들이 안쓰러워하였다. 어느 날 이 부인(李夫人)이 공을 데리고 완풍군(完豐君)을 만나러 갔다. 공에게 고기를 먹이고 일어나 춤을 추게 하니, 공이 울면서 이 부인을 찾았다. 까닭을 물으니, 귀에 대고 말하기를, “제가 비록 어리나 상제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이고 춤을 추게 합니다.” 하니, 좌중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완풍군이 공을 무릎에 앉히고 쓰다듬으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반드시 이씨 가문을 키울 것이다.” 하였다. 한원군이 해를 당한 곳이 소덕문(昭德門) 안에 있었는데, 공은 장성한 뒤로는 종신토록 그 길로 다니지 않았다. 김 부인(金夫人)은 단정하고 점잖았으며 자애롭고 순한 성품이었는데 공은 가르침을 받들매 어김이 없었다.		
원천자료	박세당, 『서계집』 제11권		

No.	099	작성자	이승준
제목	**사형장을 서소문 밖 성밑 10리 양천 지방으로 정하다**		
이야기	사람을 사형하는 장소를 정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사람을 동대문(東大門) 밖에서 사형하는 것은 실로 미편합니다.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사(社) 에서 죽인다.’ 하였는데, ‘사(社)는 우편에 있으니, 빌건대, 예전 제도에 의하여 서소문(西小門) 밖 성밑 10리 양천(陽川)지방, 예전 공암(孔巖) 북쪽으로 다시 장소를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태종 32권, 16년(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7월 17일(병오) 5번째기사		

No.	100	작성자	이승준
제목	**홍순목 등이 죄인을 처형할 때는 서소문 밖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아뢰다**		
이야기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일전에 전하께서 친국(親鞫)하실 때 '죄인을 무교(武橋)에서 사형하는데 그곳은 도성 안이라서 온당치 못한 바가 있다. 서소문 밖에서만 거행하라.'는 일로 신이 이미 명을 받았으므로 응당 정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급히 처형하여야 할 죄인이 있을 경우 무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집행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한 시각이 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형정(刑政)에 관계되니 아예 없애버릴 필요는 없으며, 우선은 옛법을 그대로 두었다가 후일에 만약 이러한 죄인들이 있으면 그때에 가서 무교에서 사형을 집행하게 하도록 의금부(義禁府)에서 품정(稟定)한 다음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옛날부터 내려오던 법전(法典)을 완전히 없애버릴 필요는 없다. 아뢴 바가 과연 옳으니 이것을 정식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초파일에 등을 다는 것은 불교 행사이므로 영원히 혁파하라고 특별히 명하셨으며, 사등(紗燈)은 재물을 허비하는 것이므로 영원히 폐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단을 배척하고 재물을 절약하는 성상의 뜻이 일단 반포되자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억만년 무궁한 복도 오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신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러러 여쭙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궁궐의 중건은 백성들의 재력을 가지고 하는 만큼 모든 규모를 응당 검소하게 하여야 하겠는데, 지금 그 칸살이 창덕궁(昌德宮)이나 창경궁(昌慶宮)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띠로 이엉을 엮고 흙으로 섬돌을 쌓은 것이 유독 오늘날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더 늘려 세우지 마시어 검박한 덕을 밝히소서. 이것이 신의 구구한 바람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아뢴 바가 사리에 매우 부합되니 마음에 새겨두겠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과거를 보여 선비를 뽑는 것은 문벌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지만, 아전이나 서리들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어온 전식(典式)입니다. 그러므로 제멋대로 과거에 응시하여 조적(朝籍)에 오르는 것은 외람되고 턱없는 일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따질 것이 없지만, 이제부터 이속(吏屬)로서 현재 그 직임을 맡고 있는 자는 감히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다시 강조하고 정식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일전에 있었던 두 죄인에 대한 처분에 대해 보고들은 사람들이 매우 우러러 칭송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범죄를 따져보면 재물을 속여서 빼앗은 죄를 범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본 사건으로 말하면 전적으로 어리석고 몰지각한 것에서 연유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번의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덕은 백성들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니 마땅히 유사(有司)의 의견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을 경우에는 살리는 방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고종 9권, 9년(1872 임신 / 청 동치(同治) 11년) 4월 30일(계미) 1번째기사

No.	101	작성자	이승준
제목	**이염의 종 만수를 효수하다**		
이야기	전교하기를, “만수(萬壽)를 서소문 밖에서 능지(凌遲)하여 효수(梟首)하고 전시(傳屍)하되, 뭇사람을 모아서 보이라.” 하고, 또 어서(御書)를 내려, “종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교만 방자함을 돋우면 위를 업신여기고 명을 욕되게 한 죄이니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만수의 머리를 가져다가 구수영(具壽永)에게 주어 영응 부인(永膺夫人)에게 가지고 가서 보이고, 어서의 뜻으로 이르게 하라.” 하였다.		
원천자료	『연산군일기』 연산 54권,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7월 13일(신축) 20번째기사		

No.	102	작성자	이승준
제목	**금표를 범한 자를 참형에 처하여 효수하게 하다**		
이야기	전교하기를, “서쪽 금표(禁標) 안을 범하여 들어온 두 사람을, 의금부로 하여금 수레에 갖추어 서소문(西小門) 밖으로 싣고가 법대로 참형에 처하여, 동서 금표에서 효수(梟首)하되, 그 죄명(罪名)을 써서 널리 보이라.” 하였다.		
원천자료	『연산군일기』 연산 55권,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8월 18일(을해) 2번째기사		

No.	103	작성자	이승준
제목	**이창록을 추문하여 자백을 받다**		

이야기

이창록이란 자는 성주(星州) 사람이었다. 사람됨이 어리석고 망령스러우며 술에 취하면 실성하였다. 일찍이 글 하나를 지어서는 소초(疏草)라고 하면서 옷소매 속에 넣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춘추(春秋)의 풍우(風雨)요, 초한(楚漢)의 건곤(乾坤)이로다. 싸움으로 일을 삼고 살인으로 법을 삼았도다. 비단옷 입고 고기를 먹으면서도 마음에 부족한가. 간당(奸黨)이 조정에 가득하니 나라를 보전하기 어렵도다. 군자는 어디로 돌아갔나, 소인이 의기양양하도다. 형을 죽이고 동생을 죽였으니, 아, 이상도 하다. 착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임금이 되었도다.' 하는 등의 말이 있었다. 이에 그 마을 사람인 성변규·송주빈(宋周賓)·이양득(李揚得)·이란(李蘭)·홍지(洪祉)·이여빈(李汝賓)·여유근(呂惟謹)·유원(兪遠)·이경원(李慶元) 등이 보고는 놀라워하면서 온 주(州)에 모두 알리고는 이창록의 집을 헐고 마을에서 내쫓았으며, 학유(學諭) 송원기(宋遠器) 등 36명이 연명(聯名)으로 본주에 정장(呈狀)하자, 목사 민호(閔鎬)가 감사 심돈(沈惇)에게 보고하였고, 감사가 조정에 계문하였다. 이에 드디어 잡아다가 국문하였다. 이창록이 공초하기를,

"일찍 부모를 여의어 불학무식하며, 난리통에 굶주린 탓에 실성하였는데다가 또 술을 좋아하여 인사를 살피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에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한답시고 강개하여 시를 지었는데, 말뜻이 황잡스러웠습니다. '초한의 건곤'이란 것은 국가에 분란이 있는 것을 가리킨 것이며,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면서도 마음에 부족한가.'라고 한 것은 진(肆)과 의(讒)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형을 죽였다.'는 것은 진(肆)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동생을 죽였다.'는 것은 의(讒)를 가리켜 말한 것이며, '간당이 조정에 가득하다.'고 한 것은 유영경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착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임금이 되었도다.'라고 한 것은 고어(古語)에 있는 말로 역적 진(肆)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 글은 기유년간에 지었는데, 김제남(金悌男)의 흉모가 있었다고 들었으므로 듣고 본바에 따라 스스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같이 의논하며 사주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술취한 김에 지어서 전년 9월에 성변규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뒤에는 그 글이 간 곳이 없었습니다. 이 뒤로는 다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였다. 추국청이 【영의정 기자헌, 판중추부사 심희수, 우의정 정창연, 판의금부사 박승종, 지의금부사 박건, 동지의금부사 이경함, 대사헌 이병, 대사간 유인길, 승지 한찬남이었다. 】 아뢰기를,

"지금 이창록이 공초한 바를 보니 글을 지은 상황에 대해서는 감히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해석한 말에 있어서는, 모두 변환시킨 것으로 몹시 흉악스럽습니다. 형추하여 실정을 알아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드디어 형신하라고 명하였다. 1차 형신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가형(加刑)할 것으로 다시 아뢰자, 전교하기를,

"기유년에 이미 김제남의 흉모를 듣고서 5년 동안이나 감추어 둔 채 고하지 않은 것은 무슨 뜻인가? 상세히 캐물으라."

하고, 압슬형을 가하도록 명하였으나, 여전히 승복하지 않았다. 2차 형신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고 3차에도 승복하지 않았으며, 4차 형신할 즈음에야 승복하기를,

"형을 죽였다는 것은 임해군을 죽인 것을 말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것은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죽인 것을 말한 것입니다. 착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임금이 되었다는 것은 비유하여 쓴 것입니다. 친척이 없는 몸으로 외로이 시골에서 살고 있으니 누구와 더불어 논의하였겠습니까. 흉서(兇書)는 지난해 봄에 썼으며, 기유년간에 김제남이 역모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말을 꾸며대어 살아나려고 한 것입니다. 함께 의논하며 사주한 사람이 있다면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하였다. 추국청이 아뢰기를,

"이창록이 범한 바를 이미 승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흉악한 자는 즉시 정형(正刑)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함께 의논하며 사주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국문을 가합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은 '만약 다시 엄하게 형신할 경우 반드시 지레 죽게 되어 정형에 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 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같이 의논하며 사주한 사람에 대해 다시 국문한 뒤 형을 집행하라."

하였다. 이창록이 결안공초(決案供招)하면서 말하기를,

"사주한 사람은 송주빈입니다. 그가 스스로 지어서 신에게 보여주기에 신이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변규 역시 송주빈의 장인이기 때문에 이로써 고발한 것입니다."

하였는데, 추국청이 아뢰기를,

"성변규와 송주빈은 바로 고발한 사람이므로, 혐의진 사람을 거론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이 모함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이미 역적의 입에서 나왔으니 시험삼아 추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 역적의 숨이 곧 넘어갈 것 같으면 형을 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별히 구료하여 날이 밝기를 기다려 형을 집행하라."

하였다. 추국청이 송주빈·성변규 등이 재차 공초한 공사(供辭)로써 아뢰기를,

"이창록이 처음 국문받을 때부터 매번 성변규가 고발한 것을 원망하였는데, 승복한 뒤에 비로소 성변규와 송주빈을 들어 말했으니 혐원(嫌怨)에서 나온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이창록이 죽음에 임하여 한 말을 믿는다면 이것은 바로 이창록이 원한을 갚으려 한 술수에 빠지는 것이며, 흉서를 송주빈이 지은 것이라고 여겨서 성변규와 송주빈에게 죄를 돌리면 이창록이 승복한 것이 헛된 것으로 되고 맙니다. 이는 실로 옥사의 체모가 아니니 성변규 등을 아울러 금

	부로 하여금 처치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창록은 4차 형문한 뒤 숨이 거의 끊어져 오늘밤을 넘기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드디어 당고개(堂古介)에서 참하도록 명하였다. 다음날 이어 전교하여, 유생들이 죽 늘어선 가운데 서소문 밖에서 추형(追刑)하였다. 〈대개 이창록은 8월 14일에 잡아가두었으며 20일에 형을 집행하고 21일에 추형하였는데, 전지와 금부의 계사는 모두 각 날짜에 들어 있다. 연루되어 갇힌 자는 성변규 등 9인이었는데, 모두 풀어보냈다.【이창록의 말은, 비방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소로 지은 것이지 비방한 것이 아니며, 상소장이라고 한다면 말이 이와 같이 전도되었으니 참으로 풍병이 들어 혼이 빠진 자였다. 그러니 그 자신만 죽이면 그만이었다. 어찌하여 추형하고 연좌하기까지 한단 말인가. 유생들이 죽 늘어섰던 것은 더욱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
원천자료	『광해군일기』 광해 93권, 7년(1615 을묘 / 명 만력(萬曆) 43년) 8월 14일(무자) 3번째기사

No.	104	작성자	이승준
제목	**이창록을 서소문 밖에서 유생이 보는 가운데 추가로 형을 집행하게 하다**		
이야기	금부가 아뢰기를, "이창록의 극도로 흉악한 죄는 천지간에 용납할 수가 없는 바, 그 누가 그의 살점을 저며 씹어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대신과 양사와 회동하여 그날 바로 추국하기를 계청한 것은 바로 이 옥사를 역옥(逆獄)으로 다스리고자 해서였습니다. 승복한 뒤에 유생이 죽 늘어선 가운데 대낮에 형을 집행하는 등의 일은 미처 살펴서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실로 이것은 신들의 죄이니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즉시 전교하신 뜻에 의거하여 유생들이 늘어선 가운데 서소문 바깥에서 추가로 형을 시행한 다음, 사방에 조리돌리고 연좌시키고 집을 헐어 못을 파고 고을을 혁파하는 등의 일을 차례대로 거행하면 신인(神人)의 분함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에게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금부가 대신에게 수의한 것으로 입계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서소문 바깥에서 유생들이 늘어선 가운데 추가로 형을 집행하여 대의(大義)를 밝히고 흉악한 무리를 징계시키라."		
원천자료	『광해군일기』 광해 93권, 7년(1615 을묘 / 명 만력(萬曆) 43년) 8월 21일(을미) 5번째기사		

No.	105	작성자	이승준
제목	**서울의 화적 6명을 서소문 밖에서 효시하다**		
이야기	서울의 화적 6명을 서소문 밖에서 효시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인조 3권, 1년(1623 계해 / 명 천계(天啓) 3년) 윤10월 14일(경자) 3번째기사		

No.	106	작성자	이승준
제목	**이의징에게 사사를 명하다**		
이야기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평 이세재(李世載)·정언 이희무(李喜茂) 등이 이의징(李義徵)의 일에 대하여 다투어 논하였다. 이세재는 말하기를, "이의징의 죄상은 하천배(下賤輩)들까지도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공론(公論)을 이에 의거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희무는 말하기를, "장희재(張希載)는 죽을 죄를 지었으나, 다만 세자(世子)의 외척(外戚)이란 이유로 혹시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징에 대해서 아직까지 윤허를 내리지 않으시는 것은 실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사년8434) 의 화는 모두 이 사람에게서 연유되었고, 중전(中殿)을 화본(禍本)으로 삼아 여이간(呂夷簡)·염문응(閻文應)의 흉계8435) 를 답습하려고 하여 '서소문(西小門) 밖에 은밀히 잠복해 있다.'는 설을 만들어 내었으며,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에 연급(延及)시키려고 하였으니, 그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지경연(知經筵) 신익상(申翼相)은 말하기를, "예로부터 신하로서 죄를 짓되, 이의징과 같이 하고서도 살아남은 자는 있지 않았습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윤지선(尹趾善)과 검토관(檢討官) 조태채(趙泰采)도 역시 같은 말을 하니, 임금이 참작하여 사사(賜死)하라고 명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숙종 28권, 21년(1695 을해 / 청 강희(康熙) 34년) 1월 22일(갑신) 1번째기사		

No.	107	작성자	이승준
제목	**죄인 이의징을 사사시키다**		
이야기	죄인 이의징(李義徵)을 서소문(西小門) 밖에서 사사(賜死)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이의징은 백도(白徒)8436) 로서 외람되게 국가의 병권을 장악하고, 자기의 졸병(卒兵)을 포치하여 군비(軍費)를 이리저리 탕진하며, 광범위하게 염탐을 위한 계략을 마련하여 일망 타진(一網打盡)의 흉계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기사년8437) 의 초기에 이르러 장희재(張希載)와 결탁하여 궁액(宮掖)을 염탐하고, 민종도(閔宗道)에게 들러붙어 은밀히 사경(私徑)을 열어서 끝내 엄청난 화를 빚어내기에 이르렀다. 또 김정열(金廷說)이 일찍이 국구(國舅)의 비장(裨將)으로 있었던 연고로 해서, '서소문(西小門) 밖에서 은밀히 잠복하고 있다.'는 설을 날조하여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에 파급시키려 하였으니, 이것이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군사를 거느려 통솔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몸으로서 이름이 고변서(告變書)에 들어 갔고, 그 사유를 대충 상소하여 진달한 뒤 버젓이 국문에 참여했다. 그러나 신영원(申英元)을 지교(指敎)한 것과 김인(金寅)을 유도(誘導)한 간특(奸慝)한 정상이 남김없이 모두 드러났으니, 신하로서 이러한 죄악을 짓고서 어떻게 천지 사이에 편안히 살아 남을 수가 있겠는가?"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숙종 28권, 21년(1695 을해 / 청 강희(康熙) 34년) 1월 23일(을유) 1번째기사		

No.	108	작성자	이승준
제목	**목호룡의 수급을 서소문 밖에 내걸다**		
이야기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목을 거리에 내거는 법은 역적을 반드시 군기시(軍器寺) 앞 길에서 능지 처참(凌遲處斬)하고 수족(首足)을 각각 따로 떼낸 뒤 그 머리를 철물교(鐵物橋) 거리에 내걸고 팔방(八方)에 수족(手足)을 돌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목호룡(睦虎龍)은 이미 당고개(唐古介)에서 처참(處斬)하여 몸뚱이가 교외(郊外)에 있으니, 지금 그 냄새나고 더러운 물건을 성(城) 안으로 끌고 들어와 길거리에 내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참(斬)한 시체에 또 다시 그 수족을 참하는 것은 아마도 법의(法意)가 아닐 듯합니다. 어떻게 하리까?"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목호룡의 음흉한 정상은 팔방에 널리 알리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끌고 들어올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돌려 보이는 등의 일은 그 또한 역적 중의 사람이니, 거행하지 않을 수 없다. 동문(東門)에 내거는 율(律)을 적용하여 사흘 동안 문밖에 내걸어 경외(京外)의 사람들로 하여금 환히 다 알게 하라." 하였다. 다음날 아뢰어 목호룡의 수급(首級)을 서소문(西小門) 밖에 내걸고, 사지(四肢)를 각각 따로 떼내었으며, 사흘이 지난 뒤 머리와 수족을 팔로(八路)에 돌려 보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영조 2권, 즉위년(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년) 12월 10일(기묘) 4번째기사		

No.	109	작성자	이승준
제목	**박순수의 죄가 부대시참하는 데에 해당한다고 하다**		
이야기	죄인 박순수(朴醇壽)의 결안(結案)에 이르기를, "그는 본디 음흉한 성질로 감히 화(禍)를 즐기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처지가 본디 다른데도 체결한 자는 그릇된 무리이고, 나라의 은혜가 그지없는데도 주무(綢繆)한 것은 불궤(不軌)였습니다. 민진용(閔晋鏞)의 강사(江舍)에 모였던 밤과 이종협(李鍾協)이 자리를 같이했던 모임에서 서로 수작한 것은 모두 지극히 흉악하고 아주 도리에 어그러지는 말이었으니, 뼈가 떨리고 쓸개가 흔들려 달려가 고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본디 마땅할 것인데, 심상하게 여기고 곳곳에서 참여하여 듣고도 예사로 여기고 난만(爛漫)히 화응(和應)하여 스스로 역적을 감싼 죄로 돌아가는 것을 감수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신하로서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모반(謀反)하고 대역(大逆)하여 부도(不道)한 정상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고 지만(遲晩)하였으니, 죄가 서소문(西小門) 밖에서 부대시참(不待時斬)하는 데 해당합니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헌종 11권, 10년(1844 갑진 / 청 도광(道光) 24년) 8월 23일(정사) 3번째기사		

No.	110	작성자	이승준
제목	**최영희의 죄는 능지처사에 해당한다고 하다**		
이야기	죄인 최영희(崔英熙)의 결안(結案)에 이르기를, "민진용(閔晋鏞)·이원덕(李遠德)처럼 흉악한 자가 그에게 빌붙고 민순용(閔純鏞)·이종락(李鍾樂)처럼 간사한 자가 그에게 의지하여 스스로 소굴이 된 정절(情節)이 다 드러났습니다. 모역(謀逆)에 동참한 것이 확실하다고 지만(遲晩)하였으니, 죄는 서소문(西小門) 밖에서 부대시 능지 처사(不待時淩遲處死)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헌종 11권, 10년(1844 갑진 / 청 도광(道光) 24년) 9월 4일(무진) 1번째기사		

No.	111	작성자	이승준
제목	**민순용의 죄는 능지 처사에 해당한다고 하다**		
이야기	죄인 민순용(閔純鏞)의 결안(結案)에 이르기를, "경향(京鄕)에 출몰하며 종적이 매우 비밀스러웠고 역당(逆黨)과 주무(綢繆)하여 마음을 서로 통했습니다. 역적 민진용(閔晋鏞)이 길러 주어 흉악한 모의를 하는 곳마다 동참했고 요사한 이종락(李鍾樂)과 체결하여 교활하고 악독한 짓을 일관되게 해 온 것은 이미 단안(斷案)을 자복(自服)한 것이 있고, 성밑에서 수작한 것에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심(心) 자에 한 획을 더하여 풀이하는 것이 얼마나 흉악한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민진용과 함께 난만(爛漫)하게 하고 이종락과 함께 창화(唱和)하였습니다. 모반(謀反)에 동참한 것이 확실하다고 지만(遲晩)하였으니, 죄가 서소문(西小門) 밖에서 부대시 능지 처사(不待時凌遲處死)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헌종 11권, 10년(1844 갑진 / 청 도광(道光) 24년) 9월 4일(무진) 2번째기사		

No.	112	작성자	이승준
제목	**이종락의 죄는 능지 처사에 해당한다고 하다**		
이야기	죄인 이종락(李鍾樂)의 결안(結案)에 이르기를, "그는 본디 천얼(賤孼)의 종자로 사악한 성질을 더하여 아직 젖비린내 날 나이에 화심(禍心)이 이미 빚어졌습니다. 여기(戾氣)를 타고 나서 요설(妖舌)을 나불거리며, 모의한 것이 불궤(不軌)란 사실이 서광근(徐光近)의 수작에서 정녕했고 이종협(李鍾協)의 증초(證招)에 이미 나타났으니, 이것이 어떠한 흉역(凶逆)의 마음입니까? 4월 5일의 말은 모두 매우 요사하고 허황했는데, 이보(耳報)의 환법(幻法)과 신장(神將)의 가탁(假托)에 이르러서 더욱 속이고 현혹하는 흉계와 모역(謀逆)의 단안(斷案)을 알 수 있으니, 생각해 낸 것이 지극히 참혹하고 정절(情節)을 엄폐할 수 없습니다. 모역(謀逆)에 동참한 것이 확실하다고 지만(遲晩)하였으니, 죄는 서소문(西小門) 밖에서 부대시 능지 처사(不待時凌遲處死)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금오(金吾)에서 대역부도(大逆不道)한 죄인 이원덕(李遠德)의 아들 이용선(李龍善)을 교형(絞刑)에 처할 것을 아뢰었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헌종 11권, 10년(1844 갑진 / 청 도광(道光) 24년) 9월 4일(무진) 3번째기사		

No.	113	작성자	이승준
제목	**최화식, 조충식 등을 참형에 처하게 하다**		
이야기	전교하기를, "남간(南間)에 갇힌 죄인 최화식(崔華植)·조충식(趙忠植)·조병만(曺秉萬)·임도준(任度準)은 이미 연석(筵席)의 하교에서 정한 법을 어겼다. 이것은 스스로 죽을 죄에 빠진 것이다. 모두 윗사람을 범한 부도(不道)로써 서소문(西小門) 밖에서 참형에 처하라."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고종 12권, 12년(1875 을해 / 청 광서(光緖) 1년) 6월 18일(계미) 2번째기사		

No.	114	작성자	이승준
제목	**김개남과 성재식을 효수하다**		
이야기	양호 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에서, '비적(匪賊)의 괴수인 성재식(成在植)과 안교선(安敎善)은 그날로 남벌원(南筏院)에서 효수(梟首)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고, 김개남(金介男)의 머리는 서소문(西小門) 밖 네거리에 매달았다가 3일 후에 김개남과 성재식의 머리를 경기 감영(京畿監營)에서 소란을 일으킨 지방에 조리를 돌리게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고종 32권, 31년(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12월 25일(정묘) 1번째기사		

No.	115	작성자	이승준
제목	**최화식 등에 대해 우선 국청을 개좌할 것을 청하다**		
이야기	판의금부사 이승보, 지의금 이병문, 동지의금부사 홍원식·이기용이 연명으로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들이 방금 전교를 고쳐 써서 내려 주신 것을 보니, '남간에 갇힌 죄인 최화식(崔華植), 조충식(趙忠植), 조병만(曺秉萬), 임도준(任度準)이 이미 경연 석상에서 정한 법률을 어겼으니 이것은 스스로 죽을 죄에 빠진 것이다. 모두 윗사람을 범한 부도한 죄로 서소문 밖에서 참수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막대한 극형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극형을 쓸 적에는 자연 절차가 있으니 지만(遲晩)을 받지 않고 결안(結案)도 받들지 않은 채 참형에 처하는 것은 예전에 없던 일입니다. 국청을 개좌(開座)하지도 위관(委官)을 두지도 않고 곧 결안을 받드는 것도 오히려 감히 행할 수 없는데, 하물며 곧바로 사형을 시행하는 것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번의 처분은 결안을 받드는 것보다 더욱 중합니다. 신들이 이미 앞에서 쟁집하였는데 어찌 지금 와서 봉행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엄한 명령이 있었으나 이것은 법에 있는 바 결단코 받들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한(漢) 나라 정위(廷尉)가 공평함을 잃고도 오히려 후세의 기롱을 당했는데, 하물며 당당한 왕부에서 중형의 시행을 어찌 이와 같이 법을 어기면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형벌을 받을지언정 감히 받들어 행할 수 없습니다. 칙교가 내리고 나니 더할 수 없이 민망하고 황공하기에 감히 서로 이끌고 와서 연명으로 호소합니다. 부디 성명(聲明)께서 깊이 깊이 생각하시어 성명(成命)을 거두어 주소서. 신들은 황송하여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지난날 경연 석상에서는 거행하겠다고 아뢰고서 이제 와서 갑자기 상소하여 아뢰니, 모욕하고 희롱하고자 하는 것인가. 만일 북면(北面)할 마음이 있다면 즉시 거행하라."		
원천자료	『승정원일기』 고종 12년 을해(1875, 광서1) 6월 21일(병술) 맑음		

No.	116	작성자	이승준
제목	**이만손의 상소 등**		
이야기	가을 관동(關東)의 소수(疏首) 홍재학(洪在鶴)이 화를 당하고 중암 김공이 원찬(遠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해 봄에 김홍집(金弘集)이 일본 수신사(日本修信使)로 갔다가 돌아와서 황준헌(黃遵憲)의 사의책자(私擬冊子)를 바쳤는데, 그 안에 '천주(天主)와 야소(耶蘇)가 우리 주자(朱子)·육상산(陸象山)과 같다.'는 구절이 있었다. 영남 유생 이만손(李晩孫) 등이 척사 위정(斥邪衛正)의 의리로 소를 안고 와서 대궐에 호소하였는데, 명망이 매우 성대하였다. 김공이 그 말을 듣고 장하게 여겨 소청(疏廳)에 편지를 보내어 극히 포장(褒奬)하고, 겸하여 당세의 화친을 주장하는 무리들의 죄상을 말하였는데, 사기(辭氣)의 사이에 절로 표현이 너무 지나침을 면치 못하였다. 중암의 편지가 소청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만손은 이미 중도에서 방향을 바꾸었고, 편지는 중외에 전파되어 시끄러웠다. 잇달아 영남의 상소가 다시 올라오고, 경기·관동 및 호서·호남의 유생이 아울러 일어나서 소장을 올렸는데, 그 가운데 관동의 상소가 더욱 준열하였다. 그러나 근본 지목은 또 김공에게로 돌아왔다. 홍재학이 마침내 윤7월에 서소문(西小門) 밖에서 능지처참(陵遲處斬)을 당하고, 김공은 대사간 이원일(李源逸)의 탄핵을 받아 지도(智島)로 안치(安置)하라는 명이 있었다. 선생은 놀라움을 견딜 수 없어 곧 최영조(崔永祚) 및 종질 최영직(崔永稷)에게 명하여 홍재학의 영연(靈筵)에 가서 곡하게 하고 또 김공을 남문(南門) 밖에 나가서 전송하게 하였다.		
원천자료	최익현, 『면암집(勉菴集)』 부록 제2권		

No.	117	작성자	이승준
제목	**박응서(朴應犀)의 옥사(獄事)** 中		
이야기	28일에 김제남을 처음에는 외딴 섬에 위리안치시키기로 명했는데, 승정원에서 삼사가 지금 엄하게 국문하기를 요청한다고 하여 섬으로 보내라는 전교를 받들지 않았다. 이때에 와서 삼사의 아룀으로 인하여 서소문(西小門) 밖에서 죽음을 내렸다. 6월 초하룻날 사약을 내려 죽게 하였다. ○ 삼사가 합계(合啓)하기를, "좌의정 이항복이 정협(鄭浹)을 잘못 천거했으니 파면하소서." 하였다. ○ 29일에 영창대군을 폐하여 서인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 지평 이성구(李聖求)는 이항복을 탄핵할 수 없다고 하여 동료들과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피혐하였다. ○ 6월 1일에 전교하기를, "역적의 괴수 김제남이 앞장서서 주창하여 반역을 꾀한 사실은 여러 역적의 공초에 자자하게 나타난다. 감히 양갑 등과 함께 안팎에서 서로 응하여 한 몸이 되고, 음모와 비계(秘計)는 귀신도 헤아릴 수 없었다. 춘추(春秋)의 대의(大義)로서 논단한다면 사람마다 이를 베어 죽일 수 있다. 무장(無將)이라는 말은 춘추에 나타나 있고, 부도(不道)라는 죄는 한(漢) 나라 법에서 엄하게 다스렸는데 하물며 역적의 두목이 되어 일을 주창한 자이랴. 애당초 무신년에 마음을 품어, 김직재(金直哉)의 사건을 다행하게 여겨 오랫동안 계획을 쌓아 몰래 반역을 도모해 왔던 것이다.서얼의 무뢰배와 가만히 결탁하고 무부의 불평 분자를 모집하여 선왕(先王 선조)의 밀지(密旨)라고 속이고, 대비의 권세를 의지하여 화가 궁궐 안에서 발생하여 조석간에 변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를 국문하는 것은 법리상 당연하지마는 쥐를 잡으려고 돌을 던지다가 그릇을 깨뜨릴까 염려되므로 나는 차마 때리면서 고문하지 못하나 조정의 의견이 또한 엄하므로 죽음을 내려 공의(公議)에 답한다."고 하였다. 승지 권진(權縉)이 지었다《조야기문》		
원천자료	이긍익, 『연려실기술』 제20권		

No.	118	작성자	이승준
제목	**이창록(李昌祿) 성주(星州)의 옥사**		
이야기	성주 사인(士人) 이창록(李昌祿)이 그 당시의 일을 통분하게 여겨 항상 말하기를, "착하지 못한 이를 내가 어떻게 임금이라 한단 말인가."하더니 을묘년 7월에 정인홍이 고발하여 이창록은 국문 받고 죽었다. 대역죄로 처단하고 본 고을을 고쳐 신안현(新安縣)이라고 하였다. 《일월록》 ○ 창록이 글을 지었는데, "형을 죽이고 아우를 죽였으니 이 일을 어떻게 차마 하였는고. 내 어찌 착하지 못한 이를 임금으로 여기랴."라는 말이 있었다. 성변규(成卞奎) 등 9명이 이를 보고 목사에게 고하여 조정에 아뢰었다. 이에 잡아다가 압사형(壓沙刑)으로 신문했으나 죄를 자복하지 않았고 당고개(堂古介)에서 사형을 집행하였다. ○ 전교하기를, "임금을 범한 흉악하고 패역한 죄가 어찌 형을 죽이고 아우를 죽인 죄를 임금에게 돌리는 것보다 큰 것이 있으리오. 이것이 역적과 무엇이 다르랴. 유생을 차례대로 둘러서게 하고 대낮에 군기시(軍器寺) 앞 길에서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경솔히 깊은 밤에 후문 밖에서 사형을 집행하였으니 매우 섭섭하다." 하니, 의금부에서는 서소문(西小門) 밖에서 또다시 형을 집행하였다. 《응천일기》 ○ 성주(星州)의 선비들이 변고를 만나 금고(禁錮)되고 그 화가 또한 정구(鄭逑)에게 미치게 되었다. 정구의 제자 김주(金湊)가 고을 사람을 위하여 변명하는 상소문의 초고를 썼다. 또 일찍이 소를 올려 정인홍의 죄는 마땅히 목을 베어야 한다고 논하였다. 인조 반정 후에 조정에서 성주의 선비들이 오랫동안 금고된 것을 민망스럽게 여겨 특별히 은과(恩科)를 실시하니 김주가 첫째로 발탁되었다. 《계곡집》		
원천자료	이긍익, 『연려실기술』 제21권		

No.	119	작성자	이승준
제목	**김제남을 서소문 밖에서 사사(賜死) 등**		
이야기	6월 ○ 1일 김제남을 서소문 밖에서 사사(賜死)하였다. ○ 4일 어제 정언 조정립(曹挺立)은 이항복이 아뢴 바, '갑자기 멈추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는 것과, 김제남을 바야흐로 국문하기를 논의하다가, 사약을 내리기를 분부한 것으로서도 피혐하지 않고 양사와 옥당이 올린 차자를 배척하였으며, 아울러 양사를 모두 갈 것을 차자로 올렸으나, 다만 새로된 장령과 헌납만을 내쳤다. ○ 18일 죄인 김응벽(金應璧)의 진술 속에서, '목(穆)·성(成) 두 능을 저주하였다.'고 하여, 오늘 이상(二相) 박홍구(朴弘耉)와 예조 판서·선공(繕工)·관상제조·중사(中使)·승지를 보내어 응벽을 붙들고 가서 찾아 파내게 하였으며, 이성록(李成祿)·이유연(李幼淵)이 역적의 진술에서 나왔으므로 잡아 가두었다. 전라 수사 이립(李竝)과 나주 목사(羅州牧使) 박동열(朴東說)도 구속하라는 명이 있었다고 하며, 허균(許筠)·박동량·김상용·이경전(李慶全)과 영의정도 그 입에서 나왔다고 한다. ○ 19일 동학(東學)의 유생 조경기(趙慶起) 등 9인이 상소하여 정조·윤인·이위경을 죄주기를 청하였다. ○ 22일 의(璶 영창대군의 이름)를 유시에 정릉동(貞陵洞) 사가(私家)로 내쳐 안치하고 장(將)과 수직(守直)을 정하였다. 생원 정창언(鄭昌言)이 상소하여 조경기 등을 배척하였다.		
원천자료	『응천일록』1 광해군 기유(1609, 광해군 1) 12월부터 광해군 병진(1616, 광해군 8) 12월까지		

No.	120	작성자	이승준
제목	**물뢰와 덕개의 형문**		
이야기	9일 죄인 몰뢰는 형을 더했으나 불복하였다. 창덕궁으로 이어(移御)한 후에 2품관 이상이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죄인 덕개는 확실한 다짐을 받기 위해 두 차례의 형문과 신장(訊杖) 아홉 도(度)를 가했더니 바로 불었는데, 그 내용은, "애단은 등불을 밝히는 일을 하여, 관왕묘(關王廟)에 나갈 때마다 귀희와 함께 모의했다는 것은 황당한 듯합니다. 작년 8월 달이 밝은 때에, 애단의 오라비 이씨 성을 가진 자가 흰 고양이 대가리를 갖다가 애단에게 주어서 소주방(燒廚房)에 갖다 두는 것을 제가 보았고, 또 한 번은 어떤 물건이 안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자 길이가 못 되는 것을 싸가지고 와서 저의 상전과 서로 말할 때에 주는 것을 제가 보았으나, 사람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고양이 대가리 및 싸서 온 물건을 자주자주 보았고, 한 치 남짓한 작은 승건(僧巾)을 혹 열 개를 만들고 혹 스무 개 남짓을 만들었는데, 혹은 초록색, 혹은 남색, 혹은 유청색 비단으로 만들었습니다. 혹은 작은 상자에 담기도 하고, 혹은 보자기에 싸기도 해서 저를 시켜서 대비 침실에 가져 가서 높은 난간에 두고 오게 했습니다. 문안하는 길에 장보문(長保門)이 있는데, 애단이 어린 아이 머리를 가져오고, 제가 구덩이를 파서 이 문 바닥에 묻었습니다. 그때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나 금년 5월 사이인 듯합니다. 아이 머리는 애단의 오라비가 구해서 그 누이 동생인 무녀에게 주었습니다. 무녀의 처소에 애단이 항상 왕래했는데 그 무녀의 이름은 모르며, 신문(新門) 근처에 살고 있다 하는데 문 안인지 문 밖인지도 모르고, 새로 신이 내린 무당이라 합니다. 저주한 역모(逆謀)에 제가 함께 참여한 것이 확실합니다." 하였다. 금부가, 죄인 귀희와 옥지를 서소문(西小門) 밖에서 사사(賜死)하였음을 아뢰었는데, 귀희는 곧 윤숙원(尹淑媛)이고, 옥지는 곧 정상궁(丁尙宮)이었다.		
원천자료	『응천일록』 6 인조 임신(1632, 인조 10) 정월부터 인조 임신(1632, 인조 10) 12월까지		

No.	121	작성자	이승준
제목	**강씨를 본가에서 사사하라고 하문하다**		
이야기	강씨는 교자에 태워 내보내고 본가에서 사사하라고 하문하였다. 차비문에서 의금부 서리를 불러 하문한 내용 중에, “강씨는 나인(內人)에 견줄 정도의 사람이 아니니 내보낼 때에는 본궁의 교자에 태워 내보내고 사사할 때의 장소는 서소문 밖에서 하지 말고 본가에서 하라.”라는 내용이 있었다. - 《금부등록》에 의거함 -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인조 24년 병술(1646, 순치3) 3월 15일(임술)		

No.	122	작성자	이승준
제목	**금상문(金商門)에 나아가 친국을 행하였다**		
이야기	금상문(金商門)에 나아가 친국을 행하였다. 영의정 김양택(金陽澤), 좌의정 정존겸(鄭存謙), 영중추부사 김상복(金相福), 판중추부사 이은(李溵), 판의금부사 정홍순(鄭弘淳), 지의금부사 이계(李溎), 동지의금부사 박상로(朴相老)·조준(趙竣), 대사헌 박상덕(朴相德), 대사간 정이환(鄭履煥), 정언 송환억(宋煥億), 문사낭청 이병모(李秉模)·유의양(柳義養)·정민시(鄭民始)·김이정(金履正)·조상진(趙尙鎭)·심풍지(沈豐之)·서유방(徐有防)·이보온(李普溫), 형방 도사 장석관(張錫寬)·이두원(李斗源), 문서색 도사(文書色都事) 심희(沈禧)·이경열(李景說)이 나왔다. ○ 백포립(白布笠)과 포직령(布直領)을 갖추고 금상문에 나아가 어좌(御座)에 올랐다. 정홍순이 아뢰기를, “어느 죄인을 올립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이덕사를 올리라.” 하였다. ○ 하교하기를, “의금부 당상 들은 모두가 선대왕의 신하들이건만, 이 흉적들을 보고도 어찌 이렇게 안일하게 시간을 끌고 있단 말인가. 의금부 당상 을 모두 삭직(削職)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이조 판서 서명선이 판의금부사 가 되고, 행 부사직 서유린(徐有隣)과 대사간 정이환과 승지 김익(金)이 동지의금부사 가 되어, 우선 장전(帳前)에 입시하고 사은(謝恩)은 나중에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자리가 빈 승지 의 대임은 도청(都廳) 정민시(鄭民始)가 하되, 우선 입시하고 사은은 나중에 하라.” 하였다. ○ 하교하기를, “이덕사에게 신장(訊杖) 몇 도(度)를 언도하였는가?” 하니, 서명선이 아뢰기를, “9도입니다.” 하였다. 서명선이 이덕사의 소매 속에 있던 소초(疏草)를 올리자, 하교하기를,		

	"이 소초는 너무나 흉악하고 참담하다." 하였다. 죄인에게 대역(大逆)에 대한 지만(遲晩)을 받은 뒤 하교하기를, "죄인 이덕사가 이미 대역 부도 무상(大逆不道誣上)에 대해 지만하였다. 예로부터 흉역(凶逆)이 어찌 한정이 있었겠는가마는, 오늘날의 이덕사 같은 자는 천고에 처음 있는 역적이라 하겠다. 내일 아침에 율문(律文)에 따라 서소문(西小門) 밖에서 능지처참(陵遲處斬)하되, 백관(百官)은 규례대로 서립(序立)하여 조정의 신료들로 하여금 경계하고 두려워할 바를 알게 하라." 하였다.
원천자료	『일성록』 정조 즉위년 병신(1776,건륭 41) 4월1일(임인)

No.	123	작성자	이승준
제목	**20일 죄인 박홍구에게 자진(自盡)하도록 전교 등**		
이야기	20일 죄인 박홍구에게 자진(自盡)하도록 전교하였다. 정문부는 죽었고, 박지겸(朴之謙)·박지태(朴之泰)는 교수하였음을 아뢰었다. 합사가 아뢰기를, "김재신(金載臣)·조여빈(趙汝賓)·정광택(鄭光澤)·성대훈(成大曛) 등은 고변자의 공초에 간절히 나왔는데도 곤장 한 대 때리지 않고 일시에 완전히 석방하였으니, 모두 도로 가두어 엄히 국문하소서. 홍구에게 자진하도록 하라는 분부가 천만 뜻밖에 나오셨으니, 도로 가두어서 빨리 사형에 처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국청에서 그 진위를 살펴서 이미 의논하여 처리하였으니, 번거롭히지 말라. 홍구에 대하여는 일찍이 정승의 자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70인데 어찌 꼭 추국할 것인가? 이미 재량하여 처치하였으니 번거롭히지 말라." 하였다. ○ 22일 금부가 아뢰기를, "역적 기필헌의 머리를 한성부와 포도청이 이미 검사하여 의심이 없다 하니, 머리는 매달고 시체는 벌여놓으며, 집을 허물어 버리고 못을 파며, 연좌자에게 적몰하는 등의 일을 전례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비답 하였다. ○ 23일 죄인 박구(朴矩)·김정간(金廷幹)을 각 두 차례씩 형문하였다. ○ 24일 죄인 김정구·박구를 가형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금부에서 박홍구(朴弘耉)가 서소문 밖에서 자진하였음을 아뢰었다. ○ 25일 죄인 김정간은 한 차례 형문하고 압사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고, 박구는 가형하였다. 죄인 이정(李程)은 형문하고, 박구는 가형하고, 전녹(田祿)은 잡아 가두었다. ○ 30일 참지 최현(崔晛)의 상소는 대개, '중신이 등대할 때에 역적 김원(金愿)의 모의를 알면서도 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니, 이런 큰 죄를 짓고 얼굴 두껍게 세간에 살 수 없습니다. 법관에 내려 죄를 다스려주십사.'는 것이었는데, 비답하기를, "너는 안심하고 직무를 살피라."		
원천자료	『응천일록』 3 인조 계해(1623, 인조 1) 6월부터 인조 무진(1628, 인조 6) 3월까지 갑자년(1624, 인조 2)		

No.	124	작성자	박수진
제목	**학생 정사원(鄭士元) 등과 함께 노닐다**		
이야기	병신년(1776, 영조 52) 3월 25일, 학생 정사원(鄭士元)·동자(童子) 정경삼(鄭慶參)과 함께 청교(靑橋)에 사는 심자승(沈子承 심경문(沈景文)의 자)의 집에 이르니 여문중(呂文仲)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과 함께 광희문(光熙門)을 나와 전관(箭串)의 고개에서 쉬면서 동쪽에 있는 아차산(峨嵯山)을 바라보니, 붉은 쇳물을 내려 부은 듯이 훌떡 벗어져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나지 않았다. 산 밑의 평원(平原)에는 푸른 꼴이 무성한데, 역말들이 꼴을 뜯고 있으며 밭보리가 이리저리 쓰러져 있다. 길은 비단 필목처럼 훤한데 공중에서 메추리의 울음소리만 들려온다.		
원천자료	이덕무, 『청장관전서』 제3권		

No.	125	작성자	박수진
제목	**광희문 밖 무덤**		
이야기	진휼청 당상 서유린(徐有隣)과 조시준(趙時俊)이 아뢰기를, "선전관 구종(具綜)이 서계한 데 대해, 품처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논열(論列)한 것은 모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빈천하여 의지할 데 없는 무리들이 날마다 광희문(光熙門) 밖에 와서 장사를 치르는데, 다른 무덤은 생각지도 않고 곧장 파서 매장하는 바람에 옛 해골들은 도리어 밖으로 드러나고 싱싱한 사초는 중간에 대부분 옮겨다가 덮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문 밖에 사는 군병들이 매양 봄여름이 되면 말을 방목하여 그 말들이 마구 짓밟고 다니는 바람에 사초는 다 뜯어 먹히고 무덤의 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금송군(禁松軍)으로 하여금 산을 순찰하게 할 때에 만일 해골이 밖으로 드러나 있거든 부관(部官)에게 보고하여 흙으로 잘 덮어 주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광희문 밖의 몇 리(里) 지역은 금표(禁標) 안에 속하므로 당연히 금지해야 할 구역인데,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번의 특별한 조처로 인하여 금표 안팎에 모두 무덤을 쓰도록 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로 인해 남의 해골을 드러내면서 사초를 가져갈 경우 다른 무덤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니, 또한 가련하다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광희문 밖과 아현(阿峴) 근처에 금령을 어기고 몰래 매장하는 무리와 남의 해골을 드러내면서 사초를 가져가는 폐단에 대해 각기 자내(字內)의 군문(軍門) 및 해산(該山)의 참군(參軍)으로 하여금 엄히 금지하게 하소서. 군마(軍馬)를 놓아먹이는 것도 특별히 해부(該部)와 각 군문에 신칙하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되, 만일 혹시라도 종전의 버릇을 다시 반복할 경우에는 드러나는 대로 무겁게 처벌하소서. 그리고 순산군(巡山軍)이 만일 드러난 해골을 보았을 경우에는 즉시 해부에 고하게 하는 것이 일에 있어 가장 편리하고 합당하겠으니, 그가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비국 당상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좌참찬 이명식(李命植)이 아뢰기를, "금표 구역 안에 들어와 장사를 지내다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지지난 신사년(1701, 숙종27)에 모조리 파서 옮겼는데 지금 다시 어렵지 않게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햇수가 오래된 것은 비록 옮겨 묻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번의 사단으로 인해 엄히 금지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겠습니다. 군마를 놓아먹이는 것도 각각 금지하게 하소서. 그리고 전달하여 보고하는 사람으로는 순산군과 금송군이 아니면 달리 적임자가 없습니다." 하고, 공조 참판 윤시동(尹蓍東)과 행 부사직 김상집(金尙集)도 그렇다고 하여, 그대로 따랐다. 서유린이 또 아뢰기를, "사방 교외에서 해골을 잘 묻어 줄 때 각 부관(部官)들이 함께 참석해서 거		

	행하는데, 그들이 패초를 받아 입직하기 때문에 감독하고 신칙하는 일이 중간에 끊기는 것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부(各部)의 입직은 우선 가관(假官)이 대신 행하게 하고, 실관(實官) 2인은 검찰하는 일에 전념하라는 뜻으로 한성부에 분부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원천자료	『일성록』 정조 10년 병오(1786,건륭 51) 3월23일(정묘)

No.	126	작성자	위가야
제목	**광희문 - 하수구와 공동묘지 01**		
이야기	동성의 노래[東城吟] 도성의 모든 하수 모여드는 곳 / 國城有尾閭 조그만 바위 구멍 광희문일레 / 光熙小石竇 사람의 혈맥 같은 수많은 개천 / 溝瀆如腠絡 밤낮으로 이곳을 새어나가고 / 日夜此中漏 똥 오줌이 바다로 빠져나가니 / 玉粒輸海航 인분 실은 우마차 꼬리를 무네 / 糞馬連尾走 천연으론 본디가 펀펀하던 곳 / 天作本圜衍 어찌하여 패고 언덕이 졌나 / 培塿胡坳窶 겹쌓여 옴딱지가 떨어져 나오고 / 壘壘發癬疥 덩이덩이 떡만두 널려 있는데 / 顆顆列飣餖 가끔 또한 나무에 걸리어 있어 / 或挂在樹間 고약한 비린내가 물씬 풍기네 / 陣陣鮑魚殙 어디 한번 물어보세 그대들이여 / 借問諸君子 모두 다 살아 생전 이룬 게 뭔고 / 共有底成就 코 끌고 주막에 가 함께 마시며 / 彎鼻入肆飮 길에서 주먹 쥐고 싸움질했지 / 血拳當街鬪 기생이며 첩에게 정을 쏟느라 / 房膩藹牽憐 상자 속의 비단을 바닥내면서 / 籯錦黷成富 밤에는 고기 음식 배불리 먹고 / 殽羞飫良宵 낮에는 제기차기 쌍륙놀이라 / 簸鞠消清晝 이걸로써 서로들 으스대다가 / 以玆胥夸矜 허둥지둥 서둘러 쓰러졌다네 / 汲汲有顚仆 칠귀로써 단전을 지켜야 하니 / 七鬼守丹田 몹쓸 잡초 뉘 능히 제거할 건고 / 茨棘疇能耨 세월은 전광석화 잠깐 사이라 / 石火焱一閃 장수해도 장수라 할 수 있겠나 / 高齡未爲壽 누수 다해 새벽종 울려퍼지고 / 漏盡曙鍾鳴 청사 초롱 촛불이 가물거리면 / 紗燭靑熒繡 어느새 여지없이 종말 찾아와 / 於焉穩稅駕 세상 영욕 다시는 따질 수 없네 / 不復問榮疚		
원천자료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1권		

No.	127	작성자	위가야
제목	**광희문 - 하수구와 공동묘지 02**		
이야기	시(詩)○보유록(補遺錄) 여기에 실린 여러 작품들은 모두 원고(原稿)에는 빠진 것으로, 난고(亂藁) 및 지인이 전송하던 것을 뒤미처 얻어 보록(補錄)한 것이다. 수구문(水口門) 밖에 다리가 있고 곁에 '영도교(永渡橋)'라는 작은 빗돌이 있다. 대개 동망산(東邙山)과 서망산(西邙山) 두 산이 있는데, 동망산은 성도(盛都)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동망산으로 가는 상여는 모두 수구문을 경유하여 이 다리를 지나서 가므로 이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근래에 어느 고관이 건너가다가 상서롭지 못하다고 여겨 빗돌을 무너뜨리고 갔다고 한다. 목숨을 아무리 아낀대도 불로장생은 못할 터이고 / 惜生應未長生得 죽음을 꺼린대도 한 번의 죽음이 오지 않을까 보냐 / 嫌死能無一死來 영도교 옆의 들꽃 길이여 / 永渡橋邊芳草路 작은 빗돌 없어진 뒤 돌아올 이 몇일까 / 短碑亡後幾人回		
원천자료	박세당, 『서계집(西溪集)』 제4권		

No.	128	작성자	최우석
제목	**석축 철거**		
이야기	"대경성의 내일 위하여 희생되는 동소문, 간선도로 공사 착수" 서울의 8문 중 현재 남어있는 문은 동대문 남대문 창의문 광희문 동소문 다섯 문인데 그 중 이번에 동소문이 헐리게 되었다. 춘풍 추우 540개 성상의 기나긴 역사를 가진 동소문은 거처러운 세파에 몰리여 자라나는 대경성의 시가지계획령의 실시와 동시에 드디어 그 쇠잔한 자태는 이 따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신설되는 대경성 간선도로의 하나로서 지난 4월 초하루부터 착공된 이 길은 창경원으로부터 돈암정에 이르기까지 연장 1리 길 폭 25미터의 대도로로서 도중에 있는 동소문은 고적조사회의 승낙을 얻어서 부토목과가 관리하게 되어 간단한 석재로서 적당히 처분하게 되었다. 속칭 동소문의 정말 이름은 혜화문으로 부근에 혜화정 혜화공립심상소학교 등의 '혜화'라는 두자는 이 문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이조의 태조시대는 홍화문이라고 하였는데 9대 성종 14년에 창경궁(현재 창경원)의 동문을 홍화문이라고 불르게 된 후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중종 6년에 혜화문이라고 개칭한 것이다. 그후 수회 개축하여 화강암의 아취는 왕년의 훌륭하였던 건축술의 자태를 자랑한다. 아취의 중앙석재에 봉황의 표가 새겨져 있는 것은 동소문 밖 일대의 해충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동소문이 헐리는 동시에 옆에 성벽 일부도 헐리게 되었다. 신간선도로의 명년도 완성에 의하여 동소문 3천평의 열무장 1대에 널려있는 인구 약 10만을 포함하고 있는 일대 주택지는 동소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층 더 삶의 거리로 번거러워진다.		
원천자료	『매일신보』 1938년 5월 26일		

No.	129	작성자	박수진
제목	**옛날을 생각하며 시를 읊다**		
이야기	여름철에 병들어 누워 있으려니 숨통이 꽉 막힌다. 한양에 있는 누각과 정자들, 바람이 소리내며 문으로 솔솔 들어오던 일들이 그리워 왁하고 소리 지르며 발광을 해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나 그 옛날을 생각하고 지금의 현실을 슬퍼할 때 옛날 두보(杜甫)가 가을을 흥겨워했던 그 뜻을 잊을 수가 없다 하겠다. 창의문 앞에는 돌길이 뚫려 있고 / 彰義門前石逕通 삼각산 봉우리가 중천에 꽂혀 있지 / 華峯三角揷天中 시냇물 돌아흘러 마음까지 시원하고 / 回溪不斷澄心水 높다란 버드나무 시원한 바람 불었는데 / 高柳長吹拂面風 명사들이 잔치 열어 국가 기상 결정짓고 / 名士開筵關氣象 영왕이 칼 씻은 곳 영웅호걸 따로 없지 / 寧王洗劍想豪雄 지금은 장독 서린 오랑캐 접경에 / 如今瘴熱鰕夷界 낮은 처마 대에 막히고 햇빛만 이글거리네 / 竹壓矬檐海日紅 이는 세검정(洗劍亭)을 읊은 시다. 세검정은 창의문에서 북쪽으로 5리 거리에 있음.		
원천자료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4권		

No.	130	작성자	박수진
제목	**세검정(洗劍亭)에서 노닌 기록**		
이야기	세검정의 뛰어난 경치는 소나기가 쏟아질 때 폭포를 보는 것뿐이다. 그러나 비가 막 내릴 때는 사람들이 수레를 적시면서 교외로 나가려 하지 아니하고, 비가 갠 뒤에는 산골짜기의 물도 이미 그 기세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정자는 근교에 있으나, 성 안의 사대부 중에 정자의 뛰어난 경치를 만끽한 사람은 드물다. 신해년(1791, 정조 15) 여름에 나는 한혜보(韓徯甫) 등 여러 사람과 명례방(明禮坊)에 모였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뜨거운 열기가 찌는 듯하더니 검은 구름이 갑자기 사방에서 일어나고, 마른 천둥소리가 은은히 들렸다. 나는 술병을 차고 벌떡 일어나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폭우가 쏟아질 징조이다. 제군들은 세검정에 가보지 않겠는가. 만약 가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벌주(罰酒) 열 병을 한꺼번에 주겠다.” 하니, 모두들, “이를 말인가.” 하였다. 이리하여 마부를 재촉하여 나왔다. 창의문(彰義門)을 나서자 빗방울이 서너 개 떨어졌는데 크기가 주먹만큼 하였다. 말을 달려 정자의 밑에 이르자 수문(水門) 좌우(左右)의 산골짜기에서는 이미 물줄기가 암수의 고래[鯨鯢]가 물을 뿜어내는 듯하였고, 옷소매도 또한 빗방울에 얼룩졌다. 정자에 올라 자리를 펴고 난간 앞에 앉아 있으려니, 수목은 이미 미친 듯이 흔들렸고 한기(寒氣)가 뼈에 스며들었다. 이때에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더니 산골 물이 갑자기 흘러내려 눈 깜짝할 사이에 계곡은 메워지고 물 부딪치는 소리가 아주 요란하였다. 흘러내리는 모래와 구르는 돌이 내리치는 물 속에 마구 쏟아져 내리면서, 물은 정자의 초석(楚石)을 할퀴고 지나갔다. 그 형세는 웅장하고 소리는 맹렬하여 서까래와 난간이 진동하니 오들오들 떨려 편안치가 못하였다. 내가 묻기를, “어떻소?” 하니, 모두 말하기를,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다.” 고 했다. 술과 안주를 가져오게 하고 익살스러운 농담을 하며 즐겼다. 조금 있자니 비도 그치고 구름도 걷혔으며 산골 물도 점점 잔잔해졌다. 석양이 나무에 걸리니, 붉으락푸르락 천태만상이었다. 서로를 베고 누워서 시를 읊조렸다. 한참 지나자 심화오(沈華五)가 이 일을 듣고 정자에 뒤쫓아 왔으나, 물은 잔잔해진 뒤였다. 처음에 화오(華五)는 같이 오자고 하였으나 오지 않았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조롱하고 욕을 해댔다. 그와 함께 술을 한 순배 마시고 돌아왔는데 그때에 홍약여(洪約汝)·이휘조(李輝祖)·윤무구(尹无咎) 등도 함께 있었다.		
원천자료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14권		

No.	131	작성자	박수진
제목	**윤임의 졸기**		

이야기

윤임의 자는 임지(任之)며 본관은 파평(坡平)인데, 장경왕후(章敬王后)의 오라버니요, 인종대왕(仁宗大王)의 외삼촌이다. 무과에 올라 벼슬이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이르렀다.

을사년 8월 21일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정순붕(鄭順朋)·형조 판서 이기(李芑)·호조 판서 임백령(林百齡)·공조 판서 허자(許磁) 등이 정원(政院)에 나아가서 역모(逆謀)를 고발하고 뵙기를 청하니, 명종(明宗)과 자전(慈殿 문정왕후(文定王后))께서 충순당(忠順堂)에 거동하여 위의 네 사람을 불러놓고, 영부사(領府使) 홍언필(洪彦弼)·영의정 윤인경(尹仁鏡)·좌찬성 이언적(李彦迪)·병조 판서 권벌(權橃)·좌참찬 정옥형(丁玉亨)·우참찬 신광한(申光漢)·예조 판서 윤개(尹漑)·판윤(判尹) 윤사익(尹思翼)과 대사헌 민제인(閔齊仁)·대사간 김광준(金光準) 등도 불러서, 윤임·좌의정 유관(柳灌)·이조 판서 유인숙(柳仁淑)들의 죄를 논정(論定)하니, 대신들은 경중을 구분하여 죄줄 것을 청하였다. 어떤 이는 죄를 주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옳지 않다고 말하였는데, 윤임은 귀양보내고, 유관은 체직(遞職)시키고, 유인숙은 파면시킬 것을 명하였다.

영의정 윤인경은 말하기를, "주상께서 종묘사직을 위하여 대계(大計)로서는 진실로 옳은 일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로서는 반드시 인심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니, 지금 대죄(大罪)로써 다스릴 수 없습니다. 윤임은 이미 스스로 불안해 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서울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니 마땅히 외방으로 보내야 할 것이요, 유인숙은 여론이 모두 조금 죄의 증거가 있다고 하니, 파직시킬 만하며, 유관은 알 수 없으나, 여론이 역시 죄의 증거가 있다 하니, 체직함이 옳습니다." 하였다. 대사헌 민제인은 말하기를, "위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면, 인심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윤임은 본래 스스로 불안해 하는 마음이 있었고, 지금 그의 행동이 죄의 자취가 없지 않으니, 위에서 처치하는 것이 종묘사직을 위하여 위태로운 것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무릇 논의는 대신으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옳다고 말한 뒤에라야 죄를 받는 자가 자복하고, 다시 다른 의론이 없을 것입니다. 윤임의 죄는 선조(先朝) 때로부터 나타나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말이 허경(許坰)의 추안(推案)에 나타났었고, 오늘날 또 상감의 마음을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하였으니, 진실로 죄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인숙의 죄의 자취는 분명하지 않으나 과실이 있고, 유관도 스스로 불안하게 여겼으니, 이와 같이 죄를 정하는 것이 진실로 마음에 쾌할 바이나, 윤임이 죄를 입으면 왕대비(王大妃 인종비)께서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주상께서 반드시 위안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정순붕(鄭順朋)의 상소에 세 사람의 죄상을 극도로 말하였으므로, 다시 충순당(忠順堂)에서 대신과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여, 비로소 반역으로 논죄하였다. 전지(傳旨)에 이르기를, "윤임은 화란을 일으키려는 마음을 품고 궁위(宮闈 내전(內殿))를 해치려는 증거가 드러났으며, 동궁(東宮)에 불이 난 뒤에 헛소문을 조작해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항상 불안한 마음을 품고 스스로 보전할 계책을 간교하게 하였으니, 그 죄의 정상을 따져보면 법으로 용서할 수 없겠으나, 다만 선후(先后 장경왕후(章敬王后))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갑자기 전률(全律 해당한 법률. 곧 죽이는 것)을 쓰면,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므로, 다만 관대한 전에 좇아서 나의 차마 못하는 뜻을 보이니 절도(絶島)에 안치(安置)하라." 하여, 남해(南海)에 정배시켰다.

전지에 이르기를, "윤임은 본래 흉특한 자질로서 오랫동안 성사(城社)의 세력을 빙자하여, 처음에는 삼흉(三兇)과 결탁하여 국모를 해치기를 도모하였고, 동궁에 불이 난 뒤에는 무도한 말을 많이 퍼뜨려서, 여러 사람의 귀를 의혹하게 하여 흉칙한 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항상 불안한 마음을 품고 몸을 보전할 계책으로 권세 있는 신하와 결탁하고 흉악한 뜻을 행하여 사직을 위태롭게 하려고 한 증거가 모두 드러났으니, 법에 의하여 사약을 내리라." 하였다. 충주에 이르러 사약을 내렸는데, 나이는 59세였다. 진사 안세우(安世遇)가 정원에 나아가서 고변(告變)하기를, "윤임이 이유(李瑠 계림군(桂林君))와 더불어 역모를 도모하였는데, 이를 연락하고 편지를 전한 계집종 모린(毛麟)이 지금 신의 어머니가 은신(隱身)한 집에 숨어 있으니, 만약 이 사람에게 물으면 사실을 알 것입니다." 하였다. 안세우가 또 공술하기를, "신이 윤임의 전처와는 6촌간이며, 윤임의 종 모린이 신의 어머니 집에 온 것은 종 맛덕[末叱德]의 친족인 때문입니다. 윤임이 죄를 입은 뒤에 모린이 신의 어머니 집에 와서 말하기를, '인종(仁宗)께서 승하한 뒤에 유관(柳灌)이 환노(宦奴) 연이(連伊)와 편지를 통하였고, 대내(大內)에 통서(通書)함에는 여종이 드나들었으며, 또 윤임은 그의 첩 옥매향(玉梅香)이 그 흉모를 몰래 누설할까 우려하여 항상 한 방에다 가두어 두었으므로, 옥매향은 시기(猜忌)를 일으켰으며, 유배가던 날에 창의문(彰義門) 밖 의막(依幕)에 앉아서 그의 아들 흥의(興義)와 사위 덕응(德應)에게 옥매향을 만약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계책이 반드시 탄로될 것이다고 하여 급히 말을 보내서 태워 오려 하였으나, 평소 시기한 까닭으로 따라가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원천자료	이중열, 『을사전문록(乙巳傳聞錄)』

No.	132	작성자	박수진
제목	**감결문**		
이야기	다음과 같이 감결합니다. 개수한 일기를 이달 18일에 봉(封)하여 올리게 되었으니, 담을 갸자 15부, 멜 줄을 갖춘 담지군(擔持軍) 30명, 겉싸개용 홍색 무명보 15건(件), 인로군(引路軍) 2명, 묶을 홍색 끈을 들어갈 수량을 헤아려 용환차로 진배하되 동일 파루(罷漏)를 기다려 대령하여 본청에 진배하며, 19일 창의문(彰義門) 밖 차일암(遮日巖)에서 세초(洗草)할 때 내하 일기(內下日記) 이외 신여 일기(燼餘日記)가 그 수가 매우 많으므로 전에 감결에서 책정한 말 3필로는 실어나르기에 부족하니 모두 17필을, 인로군과 세초군 등은 서원이 영솔하여 모두 동일 파루 때 본청에 대령할 일입니다. - 호조, 병조, 제용감, 선공감, 군자감, 광흥창, 위장소		
원천자료	『일기청등록(日記廳謄錄)』		

No.	133	작성자	박수진
제목	**경성의 8문**		
이야기	경성(京城)의 8문에서 정남쪽에 있는 문을 숭례문(崇禮門) 속칭 남대문 이라 하고, 정북쪽에 있는 문을 숙청문(肅淸門)이라 하며, 정동쪽에 있는 문을 흥인문(興仁門) 속칭 동대문 이라 하고, 정서쪽에 있는 문을 돈의문(敦義門) 속칭 신문(新門) 이라 하였으며, 그 동북쪽에 있는 문을 혜화문(惠化門) 속칭 동소문 이라 하고,서북쪽에 있는 문을 창의문(彰義門)이라 하며, 동남쪽에 있는 문을 광희문(光熙門) 속칭 남소문 이라 하고, 서남쪽에 있는 문을 소의문(昭義門) 속칭 서소문 이라 하였다. 그리고 또 수구문(水口門)이 있었으니, 소의문과 수구문 이 두 문은 시체를 내보내는 데에 쓰였다. 《지봉유설(芝峯類說)》		
원천자료	이긍익, 『연려실기술』 제1권		

No.	134	작성자	위가야
제목	**창의문 밖 수륙대회 소동 01**		
이야기	동부승지 유간(柳澗)이 아뢰기를, "지난 5월 28일 승속배(僧俗輩)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꾀어 창의문(彰義門) 밖에서 수륙 대회(水陸大會)를 베풀었는데 도내(都內)의 사녀(士女)들이 철시(撤市)하고 달려갔습니다. 성(城)을 넘어가기도 하고 문틈을 뚫고 나가기도 하여 도로를 꽉 메웠으므로 보기에 경악스러웠습니다. 창의문의 수문장(守門將)은 금단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으면 당연히 병조에 와서 고해야 하는데도 전혀 조처한 일이 없었으니, 매우 통분스럽습니다. 담당 수문장을 추고하여 치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수문장은 의금부에 내리라." 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그곳에 사찰을 지었는가? 무엇 때문에 거기에서 수륙 대회를 베풀었는지 회계하라." 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선조 200권, 39년(1606 병오 / 명 만력(萬曆) 34년) 6월 1일(무술) 3번째기사		

No.	135	작성자	위가야
제목	**창의문 밖 수륙대회 소동 02**		
이야기	비망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듣자니, 매우 경악스럽다. 이와 같이 대중을 미혹시키는 일과 도내에 승인(僧人)이 출입하는 등 등의 일에 대해 법사(法司)에서 엄금하고 통렬히 다스려야 하는데도 이런 일이 있게 만들었다. 수승(首僧)과 기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형추(刑推)하여 치죄할 것을 헌부(憲府)에 이르라." 사신은 논한다. 근래 문교(文敎)가 진기되지 못한 탓으로 학술(學術)이 밝지 못하니, 이단이 일어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일이다. 성상의 전교에, 법사에서 엄금시키라고 한 것은 사람들을 용동(聳動)시키기에 충분하지만 먼저 문교(文敎)를 신명하는 것만 못할 것 같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선조 200권, 39년(1606 병오 / 명 만력(萬曆) 34년) 6월 1일(무술) 4번째기사		

No.	136	작성자	위가야
제목	**창의문 밖 수륙대회 소동 03**		
이야기	유간(柳澗)이 회계하기를, “신들이 듣건대, 탕춘대(蕩春臺) 근처에다 수륙회를 크게 베풀었는데 도성의 남녀들이 부지기수로 성을 넘어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경복궁의 큰길이 꽉 메워졌으므로 이를 본 서인(庶人)들도 매우 경악하였다 합니다. 대체적인 사연은 지난해 거사(居士)로 일컫는 부류들이 사현(沙峴)의 도로를 수리하였는데 그 일을 끝마친 다음 이어 이 수륙회를 베푼 것이며, 회장(會場)의 근처에는 소림굴(小琳窟)이 있고 새로 초막(草幕)을 지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수륙회를 베풀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르겠습니다만, 법사에서 요사스러운 기구(器具)들을 가져다가 이미 소각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수도기(囚徒記)를 보건대 법사에서 수승(首僧) 등을 잡아 가두었다고 하였으니, 반드시 처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복통(劉福通)의 변이 도하(都下)에서 일어날 수도 있으니, 그 무리를 엄히 다스려서 뒷날의 우환을 근절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경성(京城) 근처의 사찰로 병화(兵火)에 불타버린 것은 다시 중창(重創)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성상의 전교가 이러하니 이단을 물리치고 후환을 걱정하는 것이 지극하다. 그러나 문교(文敎)가 흥기되면 학술이 밝아지고 인정(仁政)이 행해지면 민생(民生)이 편안해지는 것이니, 그렇게 되면 신역(身役)을 피하는 거사(居士)의 무리와 대중을 미혹시키는 이류(異類)들의 걱정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선조 200권, 39년(1606 병오 / 명 만력(萬曆) 34년) 6월 1일(무술) 6번째기사		

No.	137	작성자	위가야
제목	**창의문 밖 수륙대회 소동 04**		
이야기	(중략) 도성(都城)을 수축하는 것은 바로 병조의 소임인데 근래 해이함이 더욱 극심하여 곳곳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넘어 통행하는 것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심지어 창의문(彰義門) 아래에 혈도(穴道)까지 뚫었으므로 잡인(雜人)들이 평지처럼 왕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륙회(水陸會) 때 도성의 남녀들이 모두 이곳을 통하여 나갔었으니, 수축할 뜻이 없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병조의 색낭청은 파직시키고 당상은 추고하소서. 수성 금화사(修城禁火司) 또한 담당 관서이니 마땅히 해조(該曹)에 신품(申品)하여 무너지는 대로 즉시 수축해야 하는데도 모르는 체 방치하였으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 너무했습니다. 담당 낭청은 파직시키고서. (하략)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선조 200권, 39년(1606 병오 / 명 만력(萬曆) 34년) 6월 9일(병오) 4번째기사		

No.	138	작성자	위가야
제목	**인조반정과 창의문 01**		
이야기	훈련 대장 구성임이 창의문을 개수할 것을 청하니 허락하다 훈련 대장 구성임(具聖任)이 아뢰기를, “창의문(彰義門)은 바로 인조 반정(仁祖反正) 때 의군(義軍)이 경유하여 들어왔던 곳이니 마땅히 개수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내년 봄에 개수하라고 명하였다. ========== 창의문(彰義門)에 초루(哨樓)를 설치하도록 명하였다. 이때 장신(將臣) 구성임(具聖任)이 장차 성문을 수개(修改)하려고 하면서 초루를 세우도록 청하였는데, 이를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 임금이 북교(北郊)에서 기우제(祈雨祭)를 행하고, 창의문루(彰義門樓)에 역림(歷臨)하여 옛일을 추상(追想)하여 시(詩)를 짓고, 이를 새겨 걸도록 명하고, 정사공신(靖社功臣)의 성명 또한 판자에 열서(列書)하도록 명하였다. 인하여 하교하기를, “후세 임금으로 하여금 이곳을 지나면 반드시 척연(惕然)히 성조(聖祖)께서 중흥(中興)하신 어려움을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 소현묘(昭顯廟)에 치제하도록 분부하였으니, 소현묘가 연로(輦路)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나는 길에 숙빈묘(淑嬪廟)에 참알(參謁)하고, 환궁함에 미쳐서는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도중에서 고로(故老)를 불러 계해년 반정(反正) 때의 일을 물으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인정문(仁政門)에 들어오기에 미쳐 비가 억수처럼 내리니, 임금이 섬돌 위에 앉아서 이조 참판 이익정(李益炡)을 불러 삼당(三黨)을 참작해 등용하여 공도(公道)를 넓히라는 뜻으로 신칙하고, 별유(別諭)를 내려 판부사 유척기(兪拓基)를 돈소(敦召)하고 사관(史官)에게 함께 오도록 명하였다. 이때 유척기가 외방에 있은 지 거의 4년이 되었는데, 조야(朝野)에서 다시 조정에 들어오기를 기대하였으나, 유척기는 매양 상소함에 문득 ‘부죄신(負罪臣)’이라 일컫고 관함(官銜)을 쓰지 않았었다. 그래서 별유에 먼저 장두(章頭)의 폄칭(貶稱)을 버리라는 하교가 있었느나, 유척기가 또 힘써 사양하고 명에 응하지 않았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영조 52권, 16년(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년) 8월 1일(기해) 5번째기사 영조 53권, 17년(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년) 1월 22일(무자) 4번째기사 영조 58권, 19년(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5월 7일(기축) 1번째기사		

No.	139	작성자	위가야
제목	**인조반정과 창의문 02**		
이야기	왕이 대신·금부 당상·포도 대장을 부르게 하고, 또 도승지 이덕형(李德泂), 병조 판서 권진을 입직하게 하였다.【이반의 상소를 올렸으나 왕이 여러 여인들과 어수당(魚水堂)에서 연회를 하며 술에 취하여 오랜 뒤에야 그 상소를 보았는데, 역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다. 이에 유희분·박승종이 두세 번 비밀리에 아뢰어 속히 조사하게 할 것을 청하였으므로 이 명을 내렸다. 대신 이하 관원들이 대궐에 나갔으나 대궐문이 벌써 닫혔으므로 비변사에 모였는데, 비변사 당상들도 와서 모였다. 】 도감 대장 이흥립(李興立)은 군사를 거느리고 궁성(宮城)을 호위하게 하고,【흥립은 박승종의 사돈으로서 그의 추천으로 직임을 제수받았는데 이 때 은밀히 반정군과 합세하였다. 】 천총 이확(李廓)을 보내어 창의문(彰義門) 밖을 수색하게 하였다.【이반이 문 밖에 반정군이 주둔해 있다고 고했기 때문이었다. 이확이 명령을 받고 즉시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 때 밤이 이미 자정이 지났다. 】 이날 금상(今上)은 연서역(延曙驛) 마을에 주둔하였는데, 대장 김류(金瑬),【이때 전 강계 부사(江界府使)로 집에 있었다. 】 부장 이귀【이때 전 평산 부사로서 논핵을 받아 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 등은 최명길(崔鳴吉)【전 병조 좌랑. 】·김자점·심기원【유생. 】 등과 홍제원(弘濟院)에서 모였고, 장단 방어사(長湍防禦使) 이서(李曙)는 부하 병사를 거느리고 왔고, 이괄(李适)【북병사(北兵使)에 제수되었는데 떠나지 않았다. 】·김경징(金慶徵)【전 찰방인데 김류의 아들이다. 】·신경인(申景禋)【도총도사(都摠都事). 】·이중로(李重老)【이천 방어사(伊川防禦使). 】·이시백(李時白)·이시방(李時昉)·【유생인데 이귀의 아들이다. 】 장유(張維)【전 한림. 】·원두표(元斗杓)·이해(李澥)【유생. 】·신경유(申景裕)【무신인데 전 부사이다. 】·장신(張紳)·심기성(沈器成)·송영망(宋英望)【유생. 】·박유명(朴惟明)·이항(李沆)【무신. 】·최내길(崔來吉)【사예. 】·한교(韓嶠)【전 현감. 】·원유남(元裕男)【전 병사. 】·이의배(李義培)【무장. 】·신경식(申景植)【전 현감. 】·홍서봉(洪瑞鳳)【전 승지. 】·유백증(兪伯曾)【전 좌랑. 】·박정(朴炡)【승문원 정자. 】·조흡(趙潝) 등이 모두 와서 모였다. 문무 장사(將士) 2백여 명이【군사는 모두 1천여 명이었다. 】 밤 3경에 창의문으로 들어가【전날부터 바람이 불고 운애가 끼어 성안이 낮에도 어두웠었는데 반정군이 문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바람이 멈추고 구름이 걷혀 달빛이 대낮처럼 밝았다. 】 창덕궁 문 밖에 도착했을 때 이흥립이 지팡이를 버리고 와서 맞이했고 이확은 군사를 이끌고 후퇴하였다. 그리고 대신 및 재신(宰臣)들은 군대의 함성소리를 듣고 모두 흩어져 도망갔다. 김류 등이 단봉문(丹鳳門)을 열고 들어갔고, 상이 구굉(具宏)【무장. 】·심명세(沈命世)【유생. 】·홍진도(洪振道)【전 현감. 】 등과 함께 잇달아 도착하였는데 김류가 인도하여 인정전 서쪽 뜰 위에 가서 동향하여 호상(胡床)에 앉았고		

	여러 장사들이 줄지어 시위하고 있었으며, 궁 안의 시위 장졸은 모두 흩어졌다. 【입직 승지 이덕형·정립(鄭岦), 형방 승지 박홍도, 좌우 사관과 선전관 등이 처음 군대의 함성을 듣고 침전의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 시위할 것을 청하였으나 궁중에서 대답이 없었고 시신(侍臣)들도 모두 흩어졌다. 이때 승지 유진증(兪晉曾)·권규기(權奎己)·민성징(閔聖徵)은 집에 있었다. 】 왕이 북쪽 후원의 소나무숲 속으로 나아가 사다리를 놓고 궁성을 넘어갔는데 【평상시에 궁인들이 후원에 긴 사다리를 설치하여, 밤에 출입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는데 왕이 이 사다리를 사용하여 궁성을 넘어갔다. 】 젊은 내시가 업고 가고 궁인 한 사람이 앞에서 인도하여 사복시 개천가에 있는 의관 안국신(安國信)의 집에 숨었다. 【왕이 국신의 집 사람인 정담수(鄭枏壽)로 하여금 나가서 변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탐지하게 하였는데, 담수가 돌아와서 들은 것이 없다고 아뢰니, 왕이 말하기를 "혹시 이이첨이 한 짓이 아니던가." 하였다. 왕이 이때 임취정(任就正) 등을 신임하여 이첨의 권세를 억제하려고 했었는데 유희분이 은밀히 왕에게 아뢰기를 "이첨의 세력이 너무도 높으니 그가 꺾임을 받지 않고 변란을 일으킬 계략을 가질듯 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왕이 의심했던 것이다. 】 그리고 세자 이지(李祬)는 왕을 뒤쫓다가 찾지 못하고 장의동(莊義洞) 민가에 숨었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광해 187권, 15년(1623 계해 / 명 천계(天啓) 3년) 3월 12일(임인) 5번째기사

No.	140	작성자	위가야
제목	**인조반정과 창의문 03**		
이야기	상이 의병을 일으켜 왕대비(王大妃)를 받들어 복위시킨 다음 대비의 명으로 경운궁(慶運宮)에서 즉위하였다. 광해군(光海君)을 폐위시켜 강화(江華)로 내쫓고 이이첨(李爾瞻) 등을 처형한 다음 전국에 대사령을 내렸다. 상은 선조 대왕의 손자이며 원종 대왕(元宗大王)의【정원군(定遠君)으로 휘는 이부(李琈)인데, 추존되어 원종이 되었다.】 장자이다. 모후는 인헌 왕후(仁獻王后) 구씨(具氏)로【연주군부인(連珠郡夫人)이다. 추존되어 왕후가 되었다.】 찬성 구사맹(具思孟)의 딸이다. 만력 을미년1) 11월 7일 해주부(海州府) 관사에서 탄생하였으니, 당시 왜변이 계속되어 왕자 제궁(王子諸宮)이 모두 해주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탄강할 때 붉은 광채가 빛나고 이상한 향내가 진동하였으며, 그 외모가 비범하고 오른쪽 넓적다리에 검은 점이 무수히 많았다. 선묘(宣廟)께서는 이것이 한 고조(漢高祖)의 상이니 누설하지 말라고 하면서 크게 애중하여 궁중에서 길렀고, 친히 소자(小字)와 휘(諱)를 명하고 깊이 정을 붙였으므로 광해가 좋아하지 않았다. 장성하자 총명하고 어질고 효성스럽고 너그럽고 굳건하여 큰 도량이 있었다. 여러 번 자급이 올라가 능양군(綾陽君)에 봉해져서는 더욱 겸양하면서 덕을 길렀다. 처음 광해가 동궁(東宮)에 있을 때 선묘께서 바꾸려는 의사를 두었었는데, 결국 광해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영창 대군(永昌大君)을 몹시 시기하고 모후를 원수처럼 보아 그 시기와 의심이 날로 쌓였다. 적신 이이첨과 정인홍(鄭仁弘) 등이 또 그의 악행을 종용하여 임해군(臨海君)과 영창 대군을 해도(海島)에 안치하여 죽이고 연흥 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을【 왕대비의 아버지이다.】 멸족하는 등 여러 차례 대옥(大獄)을 일으켜 무고한 사람들을 살육하였다. 상의 막내 아우인 능창군(綾昌君) 이전(李佺)도 무고를 입고 죽으니, 원종 대왕이 화병으로 돌아갔다. 대비를 서궁(西宮)에 유폐하고 대비의 존호를 삭제하는 등 그 화를 헤아릴 수 없었다. 선왕조의 구신들로서 이의를 두는 자는 모두 추방하여 당시 어진 선비가 죄에 걸리지 않으면 초야로 숨어버림으로써 사람들이 모두 불안해 하였다. 또 토목 공사를 크게 일으켜 해마다 쉴 새가 없었고, 간신배가 조정에 가득 차고 후궁이 정사를 어지럽히어 크고 작은 벼슬아치의 임명이 모두 뇌물로 거래되었으며, 법도가 없이 가혹하게 거두어들임으로써 백성들이 수화(水火) 속에 든 것 같았다. 상이 윤리와 기강이 이미 무너져 종묘 사직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개연히 난을 제거하고 반정(反正)할 뜻을 두었다. 무인 이서(李曙)와 신경진(申景禛)이 먼저 대계(大計)를 세웠으니, 경진 및 구굉(具宏)·구인후(具仁垕)는 모두 상의 가까운 친속이었다. 이에 서로 은밀히 모의한 다음, 문사 중 위엄과 인망이 있는		

자를 얻어 일을 같이 하고자 하였다. 곧 전 동지(同知) 김류(金瑬)를 방문한 결과 말 한 마디에 서로 의기투합하여 드디어 추대할 계책을 결정하였으니, 곧 경신년이었다. 그 후 경진이 전 부사(府使) 이귀(李貴)를 방문하고 사실을 말하자 이귀도 본래 이 뜻을 두었던 사람이라 크게 좋아하였다. 드디어 그 아들 이시백(李時白)·이시방(李時昉) 및 문사 최명길(崔鳴吉)·장유(張維), 유생 심기원(沈器遠)·김자점(金自點) 등과 공모하였다. 이로부터 모의에 가담하고 협력하는 자가 날로 많아졌다.

임술년 가을에 마침 이귀가 평산 부사(平山府使)로 임명되자 신경진을 이끌어 중군(中軍)으로 삼아 중외에서 서로 호응할 계획을 세웠다. 그때 모의한 일이 누설되어 대간이 이귀를 잡아다 문초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김자점과 심기원 등이 후궁에 청탁을 넣음으로써 일이 무사하게 되었다. 신경진과 구인후 역시 당시에 의심을 받아 모두 외직에 보임되었다. 마침 이서가 장단 부사(長湍府使)가 되어 덕진(德津)에 산성 쌓을 것을 청하고 이것을 인연하여 그곳에 군졸을 모아 훈련시키다가 이때에 와서 날짜를 약속해 거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훈련 대장 이흥립(李興立)이 당시 정승 박승종(朴承宗)과 서로 인척이 되는 사이라 뭇 의논이 모두들 '도감군(都監軍)이 두려우니 반드시 이흥립을 설득시켜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장유의 아우 장신(張紳)이 흥립의 사위였으므로 장유가 흥립을 보고 대의(大義)로 회유하자 흥립이 즉석에서 내응할 것을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이서는 장단에서 군사를 일으켜 달려오고 이천 부사(伊川府使) 이중로(李重老)도 편비(褊裨)들을 거느리고 달려와 파주(坡州)에서 회합하였다.

그런데 이이반(李而攽)이란 자가 그 일을 이후배(李厚培)·이후원(李厚源) 형제에게 듣고 그 숙부 이유성(李惟聖)에게 고하자, 유성이 이를 김신국(金藎國)에게 말하였다. 이에 신국이 즉시 박승종에게 달려가 이이반으로 하여금 고변(告變)하게 하고 또 승종에게 이흥립을 참수하도록 권하였다. 이반이 드디어 고변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12일 저녁이었다. 그리하여 추국청(推鞫廳)을 설치하고 먼저 이후배를 궐하에 결박해놓고 고발된 모든 사람을 체포하려 하는데, 광해는 바야흐로 후궁과 곡연(曲宴)을 벌이던 참이라 그 일을 머물러 두고 재결하여 내리지 않았다. 승종이 이흥립을 불러서 '그대가 김류·이귀와 함께 모반하였는가?' 하므로 '제가 어찌 공을 배반하겠습니까?' 하자 곧 풀어주었다.

의병은 이날 밤 2경에 홍제원(弘濟院)에 모이기로 약속하였다. 김류가 대장이 되었는데 고변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포자(捕者)가 도착하기를 기다려 그를 죽이고 가고자 하였다. 지체하며 출발하지 않고 있는데 심기원과 원두표(元斗杓) 등이 김류의 집으로 달려가 말하기를, '시기가 이미 임박했는데, 어찌 앉아서 붙잡아 오라는 명을 기다리는가.' 하자 김류가 드디어 갔다.

이귀·김자점·한교(韓嶠) 등이 먼저 홍제원으로 갔는데, 이때 모인 자들이 겨우 수백 명밖에 되지 않았고 김류와 장단의 군사도 모두 이르지 않은 데다 고변서(告變書)가 이미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군중이 흉흉하였다. 이에 이귀가 병사(兵使) 이괄(李适)을 추대하여 대장으로 삼은 다음 편대를 나누고 호령하니, 군중이 곧 안정되었다. 김류가 이르러 전령(傳令)하여 이괄을 부르자 괄이 크게 노하여 따르려 하지 않으므로 이귀가 화해시켰다.

상이 친병(親兵)을 거느리고 나아가 연서역(延曙驛)에 이르러서 이서(李曙)의 군사를 맞았는데, 사람들은 연서를 기이한 참지(讖地)로 여겼다. 장단의 군사가 7백여 명이며 김류·이귀·심기원·최명길·김자점·송영망(宋英望)·신경유(申景裕) 등이 거느린 군사가 또한 6~7백여 명이었다. 밤 3경에 창의문(彰義門)에 이르러 빗장을 부수고 들어가다가, 선전관(宣傳官)으로서 성문을 감시하는 자를 만나 전군(前軍)이 그를 참수하고 드디어 북을 울리며 진입하여 곧바로 창덕궁(昌德宮)에 이르렀다. 이흥립은 궐문 입구에 포진하여 군사를 단속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초관(哨官) 이항(李沆)이 돈화문(敦化門)을 열어 의병이 바로 궐내로 들어가자 호위군은 모두 흩어지고 광해는 후원문(後苑門)을 통하여 달아났다. 군사들이 앞을 다투어 침전으로 들어가 횃불을 들고 수색하다가 그 횃불이 발[簾]에 옮겨 붙어 여러 궁전이 연소하였다.

상이 인정전(仁政殿) 계상(階上)의 호상(胡床)에 앉았다. 궁중의 직숙관(直宿官)이 모두 도망쳐 숨었다가 잡혀왔는데, 도승지 이덕형(李德泂)과 보덕(輔德) 윤지경(尹知敬) 두 사람은 처음엔 모두 배례를 드리지 않다가 의거임을 살펴 알고는 바로 배례를 드렸다. 명패(命牌)를 내어 이정구(李廷龜) 등을 불러들이니, 새벽에 백관들이 다 모였다. 박정길(朴鼎吉)이 병조 참판으로 먼저 이르렀는데, 판서 권진(權縉)이 뒤미처 이르러 '정길이 종실(宗室) 항산군(恒山君)과 함께 군사를 모았는데, 지금 들어왔으니 아마도 내응할 뜻을 둔 것 같다.'라고 하였으므로 곧 정길을 끌어내어 참수하였다. 항산군을 잡아다 문초하니, 혐의 사실이 없어 석방하였다. 그런데 정길은 당연히 참형을 받아야 할 자라 사람들이 모두 그의 참수를 통쾌하게 여기었다.

그리고 상궁(尙宮) 김씨(金氏)와 승지 박홍도(朴弘道)를 참수하였다. 김 상궁은 선묘(宣廟)의 궁인으로 광해가 총애하여 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줌으로써 권세를 내외에 떨쳤다. 또 이이첨의 여러 아들 및 박홍도의 무리와 결탁하여 그 집에 거리낌 없이 무상으로 출입하였다. 이때에 와서 맨 먼저 참형을 받았다. 홍도는 흉패함이 흉당 중에서도 특별히 심한 자라 궐내에 잡아들여 참수하였다. 광해는 상제가 된 의관(醫官) 안국신(安國臣)의 집에 도망쳐 국신이 쓰던 흰 의관을 쓰고 있는 것을 국신이 와서 고하므로 장사들을 보내 떠메어 왔고, 폐세자(廢世子)는 도망쳐 숨었다가 군인들에게 잡혔다.

상이 처음 대궐에 들어가 즉시 김자점(金自點)과 이시방(李時昉)을 보내 왕대비(王大妃)에게 반정한 뜻을 계달하자, 대비가 하교하기를 '10년 동안의 유폐 중에 문안 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 밤중에 승지와 사관(史官)도 없이 이처럼 직접 계문하는가?' 하였다. 두 사람이 복명하여 아뢰자 상은 곧 대장 이귀(李貴)와 도승지 이덕형, 동부승지 민성징(閔聖徵) 등에게 명하여 의장을 갖추고 나아가 모셔오게 하였다. 이에 이귀 등이 경운궁(慶運宮)에 나아가 사실을 진계하며 누차 모셔갈 것을 청하였으나 대비는 허락하지 않았다. 상이 이에 친히 경운궁으로 나아갔다. 유사가 연(輦)을 등대하고 위

의를 베풀었으나 상은 이를 모두 거두라 명하였다. 교자에 오르기를 청하였으나 역시 따르지 않고 말만 타고 가면서 광해를 떠메어 따르게 하였는데, 도성 백성들이 환호성을 울리면서 '오늘날 다시 성세를 볼 줄 생각지 못하였다.' 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까지 있었다.

상이 경운궁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걸어서 서청문(西廳門) 밖에 들어가 재배하고 통곡하자 시위 장사 및 시신들이 모두 통곡하였다. 상이 곧 엎드려 대죄하자 자전(慈殿)이 하교하기를,

"능양군(綾陽君)은 종자(宗子)이니 들어와 대통을 잇는 것이 마땅하다. 막대한 공을 이루었는데 무슨 대죄할 일이 있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에 대답하기를,

"혼란 중에 일이 많고 겨를이 없어 지금에야 비로소 왔으니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니, 자전이 전국보(傳國寶)와 계자(啓字)를 바치라고 명하였다. 이에 이귀가 주달하기를,

"자전께서 마땅히 정전(正殿)에 납시어 대신을 불러 국보를 전하소서. 어찌 성급하게 국보를 들여 사람들의 의심을 사겠습니까."

하니, 자전이 누차 재촉하였다. 상이 좌의정 박홍구(朴弘耉)를 명하여 국보를 받들어 들이게 하였으나 오랫동안 하명이 없었다. 상이 한참 동안 땅에 부복해 있다가 야심한 때에 이르러 군신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집에 물러가 대죄하겠다."

하자, 군신들이 극력 간하여 말렸다. 조금 후에 자전께서 사군(嗣君)을 인견하겠다고 명하였다. 이에 상이 내정(內庭)으로 들어갔고 여러 장수도 모두 따라 들어갔다. 자전이 선왕의 허좌(虛座)를 설치해 놓았는데, 상이 재배하고 통곡하니 시신들도 모두 통곡하였다. 이에 자전이 침전에 납시어 발을 드리우고 어보(御寶)를 상(床)에 놓은 다음 상을 인도해 들어갔다. 상이 엎드려 통곡하자 자전이 이르기를,

"통곡하지 마시오. 종사의 큰 경사인데 어찌 통곡하시오."

하였다. 상이 자리를 피해 배례를 올리면서 아뢰기를,

"대사가 아직 안정되지 않아 날이 저물어서야 비로소 왔으니 신의 죄가 막심합니다."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사양하지 마시오.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내가 기구한 운명으로 불행하게도 인륜의 대변을 만나, 역괴(逆魁)가 선왕에게 유감을 품고 나를 원수로 여겨 나의 부모를 도륙하고 나의 친족을 어육으로 만들고 나의 어린 자식을 살해하고 나를 별궁에다 유폐하였소. 이 몸이 오랫동안 깊은 별궁 속에 처하여 인간의 소식을 막연히 들을 수 없었는데 오늘날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소."

하고, 또 군사들에게 이르기를,

"역괴는 선왕에 대하여 실로 원수이다. 조정에 간신이 포진하여 나에게 대악의 누명을 씌우고 10여 년 동안 가둬 놓았는데, 어젯밤 꿈에 선왕께서 나에게 이 일이 있을 것을 말하시더니 경들이 다시 인륜을 밝히는 것을 힘입어 오늘을 볼 수 있었다. 경들의 공로를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군신들이 속히 어보를 전할 것을 청하자, 자전이 이르기를,

"미망인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실로 상제(上帝)의 영험이 있어서이다. 사군은 상제(上帝)께 배사(拜謝)하시오."

하였다. 이에 민성징(閔聖徵)이 아뢰기를,

"이런 거조를 하는 것은 몹시 미안한 일이라 감히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 어보를 전한 후 사군께서는 마땅히 밖으로 나가 흉당을 잡아 다스려서 민심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하고, 군신들이 모두 아뢰기를,

"사군이 즉위한 후 의당 종묘에 고유할 것이니, 어보를 전하는 것이 몹시 급합니다."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어보를 전하는 것은 큰일이니 초라하게 예를 행할 수 없다. 명일 서청(西廳)에서 예를 갖추어 행할 것이다. 또 중국 조정의 명이 없으니 어찌 정통성이 있겠는가. 우선 국사를 임시로 서리해야 한다."

하였다. 도승지 이덕형이 청대(請對)하여 아뢰기를,

"국가가 위태하여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사군께서 종묘 사직의 대계를 위해 몸소 갑주를 입고 이 대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인심이 이미 귀부하고 천명이 이미 정해졌는데, 어보를 전하는 일을 밤이 깊도록 결단하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만약 속히 국보를 전하여 위호를 바루지 않는다면 어떻게 난국을 진정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국보를 전하여 신민의 기대에 보답하소서."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어보를 받는 데는 절차가 있는 법이다. 어떻게 이처럼 늦은 밤에 급박히 전수하겠는가. 경들의 말이 이와 같으니 대신과 상의하리라. 그리고 어떤 어보를 전해야 하겠는가?"

하자, 이에 대신이 아뢰기를,

"소신보(昭信寶)와 수명보(受命寶)를 전하심이 마땅하겠으며, 유서보(宥書寶) 역시 전수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아뢰기를,

"신은 재덕(才德)이 없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왕실의 지친이며 신민이 추대하니 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군은 이로부터 성주(聖主)가 될 것이니 이는 실로 종사(宗社)의 큰 복이다."

하고, 곧 승전색(承傳色) 김천림(金天霖) 등에게 명하여 어보를 받들어 무릎꿇고 상에게 전하게 하였다. 상이 절하며 어보를 받자, 시신이 아뢰기를,

"이미 어보를 전해 받았으니 속히 정전(正殿)으로 나아가 대위(大位)를 바룸이 마땅합니다."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처음에는 예를 갖추어 조용히 전수하려 하였으나, 경들의 말을 어길 수 없어 이와 같이 행하였다."
하고, 이어 상에게 이르기를,
"역괴의 죄를 아시오? 내 덕이 박하여 모자의 도리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윤리와 기강이 무너지고 국가가 거의 망하게 되었었는데 사군의 효를 힘입어 위로는 종사를 안정시키고 아래로는 원한을 씻게 되었으니 그 감격스러움이 이어찌 끝이 있겠소."
하였다. 또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역괴의 부자를 지금 어디에 두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모두 궐하에 있습니다."
하였다. 자전이 이르기를,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이다. 참아 온 지 이미 오랜 터라 내가 친히 그들의 목을 잘라 망령(亡靈)에게 제사하고 싶다. 10여 년 동안 유폐되어 살면서 지금까지 죽지 않은 것은 오직 오늘날을 기다린 것이다. 쾌히 원수를 갚고 싶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폐출된 임금은 신자가 감히 형륙(刑戮)으로 의논하지 못하였습니다. 무도한 임금으로는 걸(桀)·주(紂) 만한 이가 없었으되 탕(湯)·무(武)는 이를 추방하였을 뿐입니다. 지금 내리신 하교는 신들이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고, 덕형은 아뢰기를,
"자성(慈聖)께서 폐군에 대하여는 천륜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아들이 비록 효도하지 않더라도 어머니로서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교는 차마 들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감히 받들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자전이 이르기를,
"내가 사군과 함께 정전으로 나아가면 나의 원한을 씻으리니, 지금 사군이 즉위하여 나의 마음을 본받아 나를 위해 복수하면 효라 이를 만하다."
하자, 상이 아뢰기를,
"백관들이 있으니 신이 어찌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사군은 이미 장성하였소. 어찌 백관들의 지휘를 받으려 하오."
하였다. 덕형이 아뢰기를,
"사군께서 궐내에 드시어 지금 날이 새어가는데, 아직까지 즉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사(將士)와 군민이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속히 밖으로 나가소서."
하였다. 자전이 이르기를,
"부모의 원수는 한 하늘 밑에 같이 살 수 없고 형제의 원수는 한 나라에 같이 살수 없다. 역괴가 스스로 모자의 도리를 끊었으니 나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갚아야 할 원한이 있고 용서해야 할 도리는 없다."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옛날에 중종께서 반정하시고 폐왕을 우대하여 천수를 마치게 하였으니 이것은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자, 자전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실로 옳다. 그러나 역괴는 부왕을 시해하고 형을 죽였으며, 부왕의 첩을 간통하고 그 서모를 죽였으며, 그 적모(嫡母)를 유폐하여 온갖 악행을 구비하였다. 어찌 연산(燕山)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니, 성징(聖徵)이 아뢰기를,
"지금 하교하신 사실은 외간에서 일찍이 듣지 못한 일입니다. 시해하였다는 말은 더욱 듣지 못한 사실입니다."
하였다. 자전이 이르기를,
"사람을 죽이는데 몽둥이로 하든 칼로 하든 무엇이 다르겠는가. 선왕께서 병들어 크게 위독하였는데 고의로 충격을 주어 끝내 돌아가시게 하였으니 이것이 시해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였다. 덕형이 아뢰기를,
"간역(奸逆)의 무리가 외방에 흩어져 있으니 뜻밖의 변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속히 즉위하여 교서를 반포하고 제때에 체포하여 군정(群情)을 진무해야 합니다."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별당은 선왕께서 일을 보시던 곳이라 이미 궁인으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하였다."
하였다. 상이 일어나 절하고 물러나와 별당에서 즉위하여 일을 보며 밤을 새웠는데, 시신 및 장사들이 칼을 차고 숙위하였다. 광해는 약방(藥房)에, 폐세자는 도총부(都摠府)에 안치하고 군사로 지키며 사옹원으로 하여금 음식을 공급하게 하였다. 영건(營建)·나례(儺禮)·화기(火器) 등 12개의 도감(都監)을 폐지하고 의금부와 전옥서를 열어 죄인들을 모두 방면하였다. 당시 이이첨의 무리 중에 도망쳐 숨은 자가 많아 군인을 풀어 수색해 체포하였다. 또 그 죄를 면제받을 마음으로 앞을 다투어 진알(進謁)하였는데 모두 결박하여 구속하였다. 도원수(都元帥) 한준겸(韓浚謙)에게 하유하여 평안 감사 박엽(朴燁)과 의주 부윤(義州府尹) 정준(鄭遵)을 경상(境上)에서 처형하게 하였으며, 또 여러 도(道)의 조도사(調度使) 김순(金純)·지응곤(池應鯤)·김충보(金忠輔)·왕명회(王明恢)·권충남(權忠男)·이문빈(李文賓) 등을 처형하라고 명하였다.

박엽은 성품이 혹독하고 처사가 패려하였다. 유덕신(柳德新)의 사위로서 궁중과 결탁하였다. 일찍이 수령이 되어 사사로이 헌상하여 아첨하였고, 평안 감사가 되어서는 영합하여 총애를 굳히기 위해 못하는 짓이 없었다. 기이한 완호품을 날로 궁중으로 실어들였으며, 의복과 음식을 법도에 지나치게 사치하게 하고 징세를 혹독하게 하며 사람 죽이기를 초개처럼 쉽게 하여 한 도가 텅 비게

	됨으로써 그 원한이 골수에 사무쳤다. 그가 효시되는 날에 이르러서는 한 도의 백성들로서 서로 경하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심지어 그의 관을 쪼개고 시신을 난도질하는 자가 있었다고 한다. 정준은 정조(鄭造)의 아우로서 그 위인이 흉험하고 간교하였다. 이이첨의 심복이 되어 흉역의 논의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급기야 본주(本州)에 건너뛰어 제수되어서는 오로지 뇌물을 바쳐 아첨하는 것을 일삼고 탐욕을 부리며 토색질하니 온 경내가 원망하고 괴로워하였다. 그리고 노적(奴賊)4) 과 사사로이 서로 내통함으로써 중국 조정의 의심을 샀었다. 이에 이르러 효시되자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김순은 본래 미천한 서얼인데 윤휘(尹暉)와 임취정(任就正)의 심복으로 궁중과 결탁하여 동지중추에 제수되기까지 하였다. 취정 등이 김순을 해서 조도(海西調度)에 차임하자, 그는 백성들의 고혈을 착취하고 사족을 능욕하는 등 못하는 짓이 없으므로 온 도내가 구란(寇亂)을 만난 것보다 더 쓸쓸하였다. 당시 감사였던 정립(鄭岦)이 사유를 갖추어 치계(馳啓)하였고, 영건 도청(營建都廳) 권첩(權怗)이 상소하여 극력 개진하였으나 광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조야가 모두 분개하였다. 급기야 금부(禁府)가 처형을 청하자 상이 본도에서 참할 것을 명하여 한 도내의 민심을 통쾌하게 하였다. 응곤 등의 죄악도 김순과 같으므로 함께 참형을 명하였다. 당시 제주 목사 양호(梁濩)가 흉당을 아첨하여 섬기면서 탐욕과 학정이 특히 심하여 한 섬의 백성들이 물과 불 속에 든 것 같았으므로 역시 잡아다가 처형할 것을 명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인조 1권, 1년(1623 계해 / 명 천계(天啓) 3년) 3월 13일(계묘) 1번째기사

No.	141
작성자	최우석
제목	**창의문 편액 찾다.**
이야기	“팔자기구한 창의문간판 수일전 시내 청운동에 있는 창의문의 간판을 어떤자가 떼여다가 서대문정 모영국 사람에게 가지고가서 이것은 조선 이조 오백년동안의 역사적 보물이니 당신이 사라고 권하나 사지 않음으로 그 근방 고물상에게다가 60전을 받고 판 것이 발각되어 18일 종로서에서는 즉시 간판을 압수하는 동시에 범인을 엄탐중이다. 그리고 그 간판은 넓이 여섯자 높이 석자나 되는 두터운 나무판에 창의문이라고 썼는데 년대가 매우 오랜것뿐아니라 글씨도 훌륭하야 참으로 상당한 가치를 가진 골동품이라고 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30년 1월 20일

No.	142	작성자	최우석
제목	**수구문에서 잡은 범인**		
이야기	“萬里鏡 서대문이 헐리고 또 남소문이 헐리여 탄탄대로가 되기는 되었으나 그리로 지나다니는 조선사람 처놓고는 참 이상스런 느낌의 생각이 저절로 나기를 마지 않는 터이나 요새 또 소문을 들은즉 수구문이 장차 헐리게 되는 모양이다. 조선사람 중에 벌서 삿다는 말이 있지 만은 그것은 확적한 말이라고 할 수 없으나 엇더튼지 수구문이 헐닐 것은 기정의 사실인 모양같다. 문중에 제일 나쁘다는 평판이 있는 수구문은 아마 얼마 안 있으면 경성부민의 낯익은 얼굴과 섭섭히 작별할 모양이야. 못된 바람은 수구문으로 나아간다는 항언이 있어오나 이 수구문도 우리 조선에는 오래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구문이다. 수구문은 헐지라도 좌우성벽은 남대문이나 동대문 성벽같이 들 모양인지. 당국자의 심산에 맞겨둘 수 밖에, 또한가지 그리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이왕에는 어쩌니 어쩌니 하였지만은 현 뒤에 단일적에 느껴운 생각은 시생기고 말 것이야.		
원천자료	『매일신보』 1921년 7월 24일		

No.	143	작성자	최우석
제목	**수구문 이야기**		
이야기	“임종 앞둔 늙은 성곽 수구문 풍상 오백년 역사의 지각생 넓어지는 길에 먹혀 곧 해체 서민의 애환과 함께 개명도 몇 번“ 속칭 시구문이라 불리우며 오백여년간 서울의 애환을 간직하여온 사소문 중의 하나인 광희문이 서울시의 계획도로공사로 인해 며칠안으로 헐려없어진다. 지금은 다락은 없어지고 아취만이 초라하게 남아있어 그래도 창의문과 더불어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소문 중의 하나로 꼽혀왔지만 이 문이야말로 이조 오백년동안 한성시민들의 밑바닥 생활과 직접 통하던 뒷골목 문이었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566년전 이태조가 서울에 도성을 갖추고 성을 쌓은 후 숭례문을 비롯해 성문 여덟 개를 마련했을 때 서울의 동남쪽에 세워진 이 문은 한강 상류에서 배로 오는 물품과 용인, 충주 및 광주등지에서 오는 물자를 성내로 들여오는 길목이었다. 그러나 제8대 예종 때 이 지방은 음풍이 불어오는 지방이라는 술자의 말에 따라 이 교통이 편리한 문을 폐쇄하였으며 그때까지 남소문이라 불려오던 이 문은 속칭 수구문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그 후 이 문은 시체가 나가는 장의문(장의문으로 통해 내려왔다. 문 안에서 생긴 시체가 성밖으로 나갈때는 서쪽으론 서소문(소의문)과 동쪽으론 이 광희문 만을 통해 장지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것도 서소문은 양반의 시체가 나가던 곳이고, 광희문은 상민의 시체가 나가던 곳이다. 성밖에 몰려살던 빈민들의 유일한 성내출입구로서 오백여년간 가난한 발길로 닳아온 이 문은 현대문명이 찾아든 근래에 와서는 그 옛날의 습성을 못버리고 빈근 그대로를 간직한채 부근에선 1905년 광무년때부터 화류가가 번창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보고 뜻있는 노인들이 “역시 고인이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술자의 말을 시인하는 탄식도 하였지만 이 일대는 현재 사창이 밀집해 있는 골치아픈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계획도로로 인해 광희시장 안 240여가구와 신당동 관내 130여가구(대부분이 판잣집)가 철거되며 이와 아울러 비록 아취만이 남았지만 5백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광희문과 성벽 30티머가 헐려나가게 된다. 그 자리에 폭 36미터라는 콘 도로가 끈덕지게 생명을 이어온 이 부근의 빈(貧)과 추(醜)를 아무 미련없이 덮어버리고 말 것이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2년 10월 10일		

No.	144	작성자	위가야
제목	**수구문에서 잡은 범인**		
이야기	장지항(張志恒)이 포도대장으로 있을 때에 한 아낙네가 찾아와 이렇게 하소연하였다. “제가 나이 오십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들을 하나 보았습니다. 지아비는 죽었고 아이는 지금 여섯 살인데 잃어버린 지 이틀이 되었습니다. 꿈에 아이가 나타나 말하기를 ‘저는 지금 죽었습니다. 사대문을 기찰해 보면 저를 죽인 흉적을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장지항이 즉시 포교(捕校)를 보내서 그의 말대로 기찰하게 하였더니, 과연 수구문(水口門)에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죽인 아이의 간을 보자기에 싸서 수구문으로 들어온 자는 어떤 노파였는데, 심문해 보니 바로 김양택(金陽澤)의 처가 돈을 주고 시킨 짓이었다. 김양택은 두 명의 첩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의 처가 이를 몹시 질투하여 아이의 간을 써서 저주하려 했던 것이다. 당시에 김양택의 권세가 대단하였으므로 장지항은 감히 발설하지 못하고 급히 그 노파를 곤장 쳐 죽게 하였으니, 누가 장지항이 용맹하다 하는가. 김양택의 집안은 이렇듯 나쁜 화가 쌓였으니, 김하재(金夏材)가 어찌 역적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겠는가.		
원천자료	성대중, 『청성잡기(靑城雜記)』 제4권 성언(醒言)		

한양도성의 산

No.	145	작성자	이승준
제목	**백악산의 표범을 추적하다**		
이야기	임금이 표범이 백악산(白岳山)에 있으면 비와 눈이 내린 뒤에는 반드시 그 자취가 있을 것이라 하여,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璶)과 행 상호군(行上護軍) 조득림(趙得琳)에게 명하여 추적(追跡)하게 하였다. 조득림이 아뢰기를, "신이 내불당(內佛堂) 북쪽에 이르니, 개고기가 땅에 버려진 옆에 표범이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제장(諸將)을 거느리고 연굴암(衍屈庵) 동쪽 고개에 행차하였다. 명하여 화포(火砲)를 쏘게 하니, 표범이 놀라서 밖으로 뛰쳐 나오므로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가 쏘아서 죽이었다. 구에게 내구마(內廐馬) 1필(匹), 녹비(鹿皮) 1장(張), 표피 좌자(豹皮坐子) 1좌(坐)를 내려 주고,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에게 말 1필(匹), 녹비(鹿皮) 1 장(張)를 내려주고, 이증(李璔)에게 말 1필(匹)을 내려 주었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세조 27권, 8년(1462 임오 / 명 천순(天順) 6년) 1월 24일(기미) 1번째기사		

No.	146	작성자	이승준
제목	**백악산에서 호랑이를 잡다**		
이야기	어떤 사람이 와서 호랑이가 백악산(白岳山)으로 들어갔다고 고(告)하니, 임금이 경복궁(景福宮) 북쪽에 거둥하여 말을 머물게 하고, 호종(扈從)한 종친(宗親)·재추(宰樞)를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겸사복(兼司僕) 이양생(李陽生)에게 명하여 호랑이의 자취를 찾게 하고, 환관(宦官) 박존수(朴存壽)가 남보다 체모(體貌)가 잔열(殘劣)하였으나 일찍이 과장(誇張)하여 말하기를, "내가 능히 손으로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 하였으므로, 임금이 박존수를 불러서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네가 호랑이를 잡을 때이다." 하니, 박존수가 돈수(頓首)하고 말하기를, "신(臣)이 다만 손으로는 능히 할 수 없으나, 만약 장창(長槍)이나 대검(大檢)을 가진다면 오히려 능히 할 수 있겠습니다. 청컨대 이양생(李陽生)과 함께 가게 하여 하여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크게 웃으면서 우인(虞人) 한복련(韓卜連)으로 하여금 박존수를 거느리고 호랑이를 찾게 하였으나, 이윽고 명령하여 이를 중지시키고, 임금이 우의정(右議政) 강순(康純)에게 이르기를, "경이 건주(建州)를 정벌할 때에 나무를 쪼개어서 흰 데다 글을 썼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강순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글에다가 무엇이라고 썼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조선 대장(朝鮮大將) 강순(康純)이 정병(精兵) 1만 명을 거느리고 건주(建州)를 공격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공격한다는 글자는 통쾌하지 못하니, 멸(滅)한다는 글자가 가장 좋았을 것이다." 하고, 임금이 백악산(白岳山)에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낭떠러지 골짜기에 숨었으므로 쏘아서 잡았다. 어가(御駕)가 돌아오는데, 어떤 한 사람이 길 옆에서 통곡하므로, 이를 물으니 말하기를, "청풍군노(淸風郡奴) 연금(延金)입니다. 선상노(選上奴)8137) 로서 군기감(軍器監)에 역사(役事)하는데, 지금 또 조지서(造紙署)에 옮겨서 역사(役事)시키니, 배고프고 추운 것을 이기지 못하여 이 때문에 통곡합니다." 하니, 즉시 유의(襦衣) 1령(領)을 내려 주고, 승전 환관(承傳宦官) 이득수(李得守)로 하여금 음식을 먹이게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군기시(軍器寺)의 관리와 청풍(淸風)의 경저인(京邸人) 등이 능히 존휼(存恤)하지 못한 죄(罪)를 핵문(核問)하게 하고, 드디어 그를 놓아서 돌려 보내어, 그 고을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존휼(存恤)하게 하였다. 어가(御駕)가 연창위 공주(延昌尉公主)의 집에 들어가서 문병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세조 44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11월 19일(신사) 2번째기사		

No.	147	작성자	최우석
제목	**남산의 변천**		
이야기	“한양공원 개원식 남대문 내에 신설한 한양공원 29일에 개원식을 거행하였다더라.” (『황성신문』, 1910년 5월 31일) “조선신사의 지진제 - 작 27일 오전 9시에 한양의 정기를 표한 종남산 아래가...을 잡어 조선신사를 창건게되어 27일 오전 9시부터 숭엄한 지진제를 거행하였는데 당일은 총독부로부터 수야(水野) 정무총감이 하각 고등관 기타 친칙 주임관 무관 등과 기타 각 사회대표자와 민간 유지들까지 다수히 참배하였는바 특별히 창덕궁로부터 어사로 한창수 남과 이강공전하 어사로 어담대좌와 이우공전하께서도 참배하셨고 귀족 대표로는 이완용 백이 참배하여 장엄하게 식을 종료하엿더라.“ (『매일신보』, 1920년 5월 28일) “조선신사 준공과 국사당 移安 - 장소는 미정 한양공원에 새로히 세우는 조선신사의 준공기는 9월경이겠는데 이 조선신사가 준공됨을 따라 문제 중에 있든 남산봉수에 있는 국사당은 어대로든지 옮겨가게 되리라더라.”(『매일신보』, 1925년 5월 31일) “남산신역에 우뚝 솟은 황국신민서사의 주. 전조선 백사십만생도의 의기를 표징. 금일 성대한 제막식을 거행 남산의 성역에 솟아있는 전반도학생, 생도, 아동의 적성을 다 한 황민의 서사 의주의 주, 장업한 제막식을 초동의 냉기를 극복하며 24일 오전 10시부터 동 주건설지에서 엄숙하고도 성대하게 집행되었다....” (『동아일보』 1939년 11월 25일)		
원천자료	「한양공원 개원식」, 『황성신문』, 1910년 5월 31일 「조선신사의 지진제」, 『매일신보』, 1920년 5월 28일 「조선신사 준공과 국사당 移安」, 『매일신보』, 1925년 5월 31일 「남산신역에 우뚝 솟은 황국신민서사의 주」, 『동아일보』 1939년 11월 25일		

No.	148	작성자	최우석
제목	**인왕산에 태극기**		
이야기	仁王山(인왕산)에太極旗(태극기) 행순순사가발견하고압수 재작십팔일오후두시경에시내 청운동(淸雲洞)에 잇는 인왕산(仁王山) 수룩에 태극긔(太極旗)를세운사람이 잇섯는대 마츰그부근으로 순회하든 경기도경찰부 기마순사가 이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내여 즉시 그 기를 압수하는 동시에 종로서와 협력하여 가지고 방금 범인의 자취를 수색중이라더라.		
원천자료	『동아일보』 1923년 3월 20일		

No.	149	작성자	최우석
제목	**인왕산 남묘에서 벌어진 미신적 행동**		
이야기	백일기도로 감긴 눈이 떳다고. 하루에 대초황률 일곱 개씩 먹고 기도한다고. 구가정부녀를 후려내는 노파. 재래로 여러 가지 미신을 가지고 내려온 우리 조선사회에는 아직도 아무 근거도 없고 사실도 없는 허무맹랑한 미신적 행동을 취하게 되며 이와 한가지로 수많은 세상사람의 순실한 마음을 현혹케 하는 일이 불소한 중, 이제 또한가지 새로운 사실을 듣건대 서대문밖 홍파동 8번지에 사는 홍순경(59)이라는 늙은 로파는 지난 19일부터 인왕산 상봉은성 아래 큰 바위 위에 앉아서 오는 25일까지 만7일동안을 날마다 대초와 황률 일곱 개 식을 먹어가면서 소위 남묘에서 잡혀왔다는 '성제'라는 귀신에게 기도를 드린다는데 밤에도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하며 그 여자는 지금으로부터 11년전에 두 눈이 멀었든바 남양군에서 서울로 올라와 길가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 남묘에 가서 그 귀신을 모시게 되어 적기 인왕산에 올라와서 백일기도를 하여 눈을 떳다하며 기도할 동안은 물론이요. 기도를 드리기 십여일 전부터 화식은 일절 먹지를 아니한다하며 허무한 소리를 하면서 일반세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함으로 말을 들은 일반 구가정의 부녀들은 험악한 산길도 돌아보지 않고 서로 다퉈 올라가서 공연히 바위 위에 십여분 씩 굴복을 하면 그 동안에 그 노파는 "천지지간만물지중 유인이 최귀 지성지극"이라는 말을 가장신이나서 몸을 으슥거리면서 외인다는데 일반은 그 여자를 가르켜 인왕산 제자라 한다하며 작지에 보도한 괴이한 시체라는 제목아래 쓰인 것은 실상 이런 허무맹랑한 계집인 것이라더라. "사진은 인왕산 바위 아래에서 기도하는 광경 X표는 남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괴이한 노파. 업드려 있는 이는 기도받는 여자. 바위 위는 구경꾼. 멀리보이는 것은 실같이 흐르는 한강!"		
원천자료	『동아일보』 1924년 6월 21일		

No.	150	작성자	최우석
제목	**인왕산에서 화투하다 잡혀**		
이야기	시내 누상동 29번지 김순명(49)과 동13번지 최성원(崔聖元(최성원))(三四(삼사))과 동륙십사번디 리용원(李容源(이용원))(四二(사이))이하 다섯명은 재작이십일 오후두시경 루상동(樓上洞(누상동))뒤 인왕산(仁王山(인왕산))에서 화투를 하다가 순사 3명에게 발각되어 전기 3명 만은 잡히고 나머지 2명은 어디로 달어낫다더라.		
원천자료	『동아일보』 1924년 8월 22일		

No.	151	작성자	위가야
제목	**성삼문의 신주 01**		
이야기	그 옛날 역성혁명 살펴보자면 / 觀古易姓 신하는 두 임금 섬기지 않네 / 臣不事二 백이 숙제 대의를 주창한 뒤로 / 夷齊首義 대대로 충렬 지사 있어 왔다네 / 代有烈士 황위가 바뀜에 이르러서도 / 至若革除 종묘와 사직이 그대로였네 / 社稷如故 그런데 마음이 변치 않았던 / 猶不二心 명나라의 방효유란 분이 있었지 / 明有孝孺 임금이 폐해지는 일이 생기자 / 當其有廢 모든 이들 새 임금 바라보았네 / 萬物覩聖 그 어찌 변할 줄 모를까마는 / 豈不知變 진실로 자신의 정도 지켰네 / 諒守吾正 아아, 우리 정절의 성 선생께선 / 嗟惟先生 만난 상황 진실로 이와 같았네 / 所遭實似 부자간이 나란히 목숨 바쳤고 / 父子並命 동료들과 더불어 죽어 갔다네 / 儕友偕死 제 몸보단 의리를 중시했기에 / 義重身輕 천리에 부합됐고 양심 다했네 / 理得心盡 애당초 바란 게 전혀 없으니 / 初無所爲 뒤에 무슨 원망이 있었겠는가 / 後有何怨 아아, 여기 홍주 노은동에는 / 噫玆魯洞 신이 세 번 물었던 구택이 있네 / 神問舊宅 아직도 우뚝이 그 집 남아서 / 有廬巋然 지나가는 자들이 경의 표하네 / 過者所式 제사를 지내자는 의논 있으나 / 尸祝有議 공사 간에 걸리는 게 적지 않았네 / 公私多諱 지금까지 답답하게 지내왔기에 / 迄用沈鬱 뜻있는 인사들 탄식하였네 / 志士爲欷 누가 그런 기미를 발하였는가 / 孰發其幾 나무로 된 신주가 절로 나왔네 / 木主自出 인심이 감동하여 흥이 났었고 / 人心感奮 천리를 막기가 어렵게 됐네 / 天理難遏 그래서 사림들이 계획을 하여 / 爰謀士林 사당을 세우게 된 것이라네 / 爰創精宇		

	우리 제기 받들어 진설을 하여 / 執我豆籩 이렇게 존모하는 마음 부치네 / 寓玆興慕 만세 충신 네 글자 세조의 말씀 / 四字玉音 성현의 법전처럼 분명하여라 / 炳如訓典 영령은 이곳에 왕림하시어 / 英靈陟降 아름다운 이 영광 받으시기를 / 膺此休顯 분명한 그 정기 길이 남아서 / 正氣長存 그 충렬 더욱더 찬란하리니 / 烈烈愈光 부디 우릴 깨우치고 인도하시어 / 尙惟啓迪 인륜 강상 부지되게 하시옵소서 / 永扶倫常
원천자료	윤증, 『명재유고』 제33권

No.	152	작성자	위가야
제목	**성삼문의 신주 02**		

이야기

홍주(洪州) 노은동(魯恩洞)에 성 선생(成先生)의 신주(神主)를 옮겨 봉안(奉安)한 기(記)

금상(今上) 임자년(1672, 현종13) 4월 모일에 서울의 유사(儒士) 남택하(南宅夏), 장시현(張始顯), 여필관(呂必貫) 세 사람이 편지를 보내오기를,

"모월 모일에 호조(戶曹) 서리(書吏) 엄의룡(嚴義龍)이 와서 '성모(成某 성삼문(成三問)을 말함)의 신주(神主)가 인왕산(仁王山)의 무너진 벼랑 사이에 있다.' 하였습니다. 생 등(生等)은 놀라고 또 이상하게 여기며 달려가 보니, 무너진 벼랑 밑 돌무더기 사이에 자기(磁器)가 있고 그 안에 신주 셋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과연 성 선생의 신주였습니다. 먼지를 털고 이끼를 닦아낸 다음 살펴보니, 바깥쪽에 성명(姓名) 세 글자와 나이는 무술생[年戊戌生]이라는 네 글자가 쓰여 있고 함중(陷中)에도 그와 같은데, 다만 생(生)이라는 한 글자가 적어서 안팎을 합친 글자가 열 셋이었습니다. 생 등은 송연(悚然)해지는 심신(心神)으로 절터에 예(禮)를 올렸습니다. 나머지 두 위는 곧 선생의 외손이었던 참찬(參贊) 박호(朴壕) 부부(夫婦)의 신주였고, 쓰여진 글자는 가례(家禮)의 서식(書式)과 똑같았습니다. 생 등은 어떻게 조처해야 할지를 몰라 하다가 본디 있던 곳에 도로 봉안(奉安)해 두었으나, 장차 어떻게 하면 마땅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슬피 탄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은 세조(世祖) 병자년(1456) 이후 수백 년이 지났다. 비록 그 당시에 높이 드러났던 일도 메아리가 끊기듯이 다 묻혀졌고, 그 귀신은 영검이 없게 되었다. 더구나 선생은 모진 형벌과 참혹한 화(禍)를 당한 터이라 어느 누가 이 신주를 만들었으며, 어느 누가 이 제사를 받들었으며, 또 누가 매안(埋安)했기에 지금에 이 신주가 나타났단 말인가. 예(禮)로써 말한다면 복친(服親)이 이미 끊어졌으니, 오래전에 조매(祧埋)했음이 마땅하였다. 그러나 선생의 큰 절개(節介)와 높은 의기(義氣)는 백세토록 향사함이 마땅한데, 지금 몇 해나 궐향(闕享)되었던가. 이번 일은 대개 하늘이 엄리(嚴吏 엄흥도(嚴興道)를 말함)의 충심을 유도해서 이런 기이한 다행이 있게 한 것이다. 대저 하늘이 이미 계시(啓示)했는데, 인간이 또 매안함은 어찌 차마 할 바이겠는가. 일찍이 감사(監司) 민유중(閔維重)을 통해 들으니, 선생의 옛집이 아직도 홍주 노은동에 있고, 당시 뜰에 섰던 나무들도 탈이 없다고 하였다. 우선 거기에 봉안한다면 예(禮)에 이른바 '신이 집으로 돌아온다.[神返室堂]'는 것이니, 비록 당초에는 못했으나 지금에 와서 거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답(答)하고 나서 시골 사우(士友)에게 알렸더니, 와서 남씨(南氏)와 여씨(呂氏) 등의 편지를 보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우들도 있었다. 얼마 후에 남씨와 여씨 등 여러 사람이 다행히도 나의 말이 이치에 어긋난다고 여기지 않고 곧 홍주에 있는 선생의 겨레붙이에게 통고하고는, 우선 신여(神轝)로 신주를 받들어 선생의 미생(彌甥) 엄찬(嚴纘)의 집에 봉안해 두었다. 그러자 진신(搢紳)·장보(章甫)가 다투어 와서 배례(拜禮)했는데, 전 장령(掌令) 조세환(趙世煥)도 외손(外孫)이고 유학(幼學) 김근(金瑾)은 선생이 그의 외족(外族)이었다. 홍주에서 함께 엄씨의 집으로 와서 신주를 모시고 남쪽으로 돌아가기를 의논했는데, 그때 병조 판서 민공 정중(閔公鼎重)이 관학(官學)의 제생(諸生)을 거느리고 한강 가에 와서 배송(拜送)하려다가 마침 공사(公事)가 있어서 하지 못하였다.

5월 계해일에 길을 떠났는데, 조세환과 김근이 수행(隨行)하였다. 이보다 앞서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우형(金宇亨)이 이들 일행이 지나가는 각 고을에 공문(公文)을 보내 호송(護送)토록 하였다. 진위 현령(振威縣令) 이집성(李集成)만이 병(病)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나머지는 정성을 다하였다. 그중에 수원 부사(水原府使) 성후설(成後卨)은 심지어 풍성하고 깨끗한 제수(祭羞)를 마련하여 동헌(東軒)에서 제향하고, 또 야외(野外)에도 공장(供帳)을 많이 설치해서 환영(歡迎)과 환송(歡送)을 모두 멀리까지 하였다. 고택(古宅)에 도착하기 5리쯤 앞서 선생의 황고(皇考) 총관공(摠管公)의 묘소(墓所)가 길 옆에 있는데, 역시 선생과 함께 순사(殉死)한 분이었다. 드디어 신주 모신 가마를 묘 앞에 멈추고 선생의 평소 효성스럽던 마음을 달래었다. 이날 온 고을 사람이 나와 맞이하는 행렬이 거리를 메웠다. 드디어 마루에 들어가 북쪽 벽 아래 남향으로 봉안하였다. 대개 민 감사가 일찍이 그 집 앞에 비석(碑石)을 세우려고 수리(修理)부터 먼저 하였다. 그러므로 들보와 기둥 따위는 갈아 넣지 않았으나 벽은 깨끗이 도배되어 있었으니, 이번 일이 있기를 기다린 듯도 하다. 이에 그날 정묘에 대제(大祭)를 지냈는데 본 고을 목사(牧使) 이후 섬(李侯暹)이 초헌(初獻)하고 면천 군수(沔川郡守) 민후 균(閔侯均) 또한 외손(外孫)으로서 아헌(亞獻)을 했으며, 종헌(終獻)은 장령 조세환이 하였다. 그 외 수령(守令)과 여러 유생(儒生)은 모두 제자리에서 부복(俯伏)하여 각자 슬픔과 정성을 다하였다.

아, 누가 시켜서 이렇게 되었는가. 사실 이렇기를 기약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된 것에 불과하다. 내가 여기에 대해 따로 느낀 바가 있다. 노릉(魯陵)이 영월(寧越)에서 변고(變故)를 당했을 적에 시신(屍身)이 길 옆에 버려져 있었으나 감히 거들떠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고을 아전이었던 엄흥도(嚴興道)가 홀로 가서 임곡(臨哭)하고 관(棺)을 가져다가 염습(殮襲)해서 장사하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임금의 무덤이라 이르면서 여러 대 임금이 제사를 올린 데가 곧 여기이다. 고(故) 음애(陰崖 이자(李耔)) 이 선생(李先生)이 기(記)하기를,

"예부터 충렬(忠烈)한 사람이 반드시 여러 대를 벼슬한 집과 빛나는 씨족(氏族)한테서만 꼭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당시에 임금을 팔아 이(利)를 구하면서 그 임금을 반드시 모진 화변에 넣은 다음에야 마음에 쾌하게 여긴 자를 엄군(嚴君)과 비교한다면, 어떻다고 하겠는가. 시골 부인(婦人)네와 마을 아이들이 지

금까지도 몹시 우울하게 여겨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곤 하니, 사람의 본성(本性)은 속이기 어려움을 과연 알겠다."
하였다. 내가 일찍이 연석(筵席)에서 어물을 포록(褒錄)하기를 청했지만, 이번에 선생의 신주를 또 엄의룡이 발견했고 또 임시로 엄씨의 집에 봉안했는데, 이들은 모두 영월이 본관(本貫)이었으니, 또한 이상한 일이다. 모르기는 하지마는 이는 노릉(魯陵) 군신(君臣)의 다행이요, 또한 여러 엄씨의 다행이다.
근래에 박 참찬의 종현손(從玄孫)으로서 이산(尼山)에 살고 있는 이의 말을 들으니,
"병자년(1456, 세조2) 화변이 일어나던 날 선생의 부인 김씨가 손수 쓴 선생의 신주를 안고 노속(奴屬 연좌죄로 남의 노비(奴婢)가 되는 것)되어 간 곳에서 제사하였는데, 부인이 죽은 후에는 그 신주가 참찬의 집으로 갔고, 참찬도 후사(後嗣)가 끊어지자 아울러 매안했다."
하였는데, 그 말이 모두 신빙할 만하였다. 부인의 묘는 지금 노은동에 있으나 향화(香火)가 끊어졌으니 아, 슬픈 일이다.
서울과 지방 여러 유생이 또 고택 옆에다가 사당을 지어서, 당시 선생의 동지(同志)였던 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이개(李塏)·유성원(柳誠源)·유응부(兪應孚) 등 다섯 선생을 아울러 향사하려고 한다. 대개 세조대왕이 일찍이 '성모(成某)는 만세 충신(萬世忠臣)이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하 선생의 사당을 선산(善山)에 세웠고, 박 선생의 비석을 회덕(懷德)에 세웠으나, 조정에서 금단(禁斷)하지 않았다. 민 감사가 마련했던 비석은 이미 고택 앞에 가져왔으나 미처 다듬어서 글을 새기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사당과 비석 두 가지 일을 고을 이 목사(李牧使)와 면천 민 군수(閔郡守)가 끝까지 경영할 것이라 한다.
이해 7월 일에 은진 송시열은 쓴다.

원천자료	송시열, 『송자대전(宋子大全)』 제142권

No.	153	작성자	위가야
제목	**성삼문의 신주 03**		

연산(連山) 성 선생(成先生) 유허비(遺墟碑)

선생의 휘는 삼문(三問)이요 자(字)는 근보(謹甫)로, 창녕인(昌寧人)이다. 황조(皇朝) 영락(永樂) 무술년에 홍주(洪州) 노은동(魯恩洞) 외가(外家)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에 공중에서 '아이를 낳았느냐.'고 세 번을 물었기 때문에 삼문이라 이름하였다. 정통(正統 명 영종(明英宗)의 연호) 을묘년에 문과(文科)에 급제(及第), 정묘년에 중시(重試)에 장원하였다. 우리 세종·문종(文宗)·노산(魯山) 삼조(三朝)를 역사(歷事)하였는데, 은총(恩寵)이 아주 특이하였다. 문종은 그와 더불어 포의(布衣)의 교우(交友)가 되었고, 벼슬은 승지(承旨)에 이르렀다. 경태(景泰 명 경종(明景宗)의 연호) 6년(1455, 단종3) 을해에 세조가 선위(禪位)를 받고 노산군이 별궁(別宮)에서 손위(遜位)하자, 선생이 아버지 총관공(摠管公) 승(勝) 및 박공 팽년(朴公彭年)과 이공 개(李公塏)·유공 성원(柳公誠源)·하공 위지(河公緯地)·유공 응부(兪公應孚) 여섯 선생과 함께 죽었다. 이윽고 세조가 말하기를,
"박팽년·성삼문 등은 당세의 난신(亂臣)이요, 후세의 충신(忠臣)이다."
하였으니, 성훈(聖訓)은 대체로 장차 천리(天理)를 밝혀서 민이(民彝)를 무궁한 데에 세우려는 것이었다. 한강(漢江) 남쪽 변두리에 네 무덤이 있는데, 각각 작은 돌에 성씨만이 쓰여져 있다. 세속에 전하기는, 바로 여섯 선생이라 하나 그 두 분은 없고, 그 성씨(成氏)라 한 것이 바로 선생이다. 또 은진(恩津) 땅에 한 무덤이 있고 장송(長松)이 그 곁에 있는데, 거민(居民)들이 그 장송을 가리켜 말하기를 '선생의 일지(一肢 사지(四肢) 중의 하나)가 순시(循示)차 현정(縣庭)에 이르렀으므로 인하여 여기에 묻었으나 봉분이 겨우 물이나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한다. 인종조(仁宗朝)에 연신(筵臣)이 육신(六臣)의 일을 진달함으로써 이때부터 연달아 그 절의를 포상하자고 청하는 이가 있었다. 선조(宣祖) 때에 박 선생(朴先生 박팽년(朴彭年)을 말함)의 민복(閔腹 유복(遺腹)과 같음) 손자가 마침내 녹용(錄用)의 명을 입었고, 효종조(孝宗朝)에서는 참찬 송공 준길(宋公浚吉)과 우의정(右議政) 이공 후원(李公厚源)이 사당을 세워 제향하자는 주청이 있었다. 그리고 금상 임자년(1672, 현종13)에 경중 사인(京中士人) 남택하(南宅夏) 등이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선생의 신주(神主)를 인왕산(仁王山)의 무너진 언덕에서 얻었는데, 이것은 선생의 부인(夫人)이 스스로 써서 선생의 제사를 받들던 것이라 한다.
홍주(洪州)에 있는 선생의 구택(舊宅)은 해가 오래되어 무너지고 기둥이 썩어 있는 것을 민공 유중(閔公維重)이 감사(監司)가 되어 숭정(崇禎 명 의종(明毅宗)의 연호) 무신년(1668, 현종9)에 수리하였고, 이때에 이르러 마침내 구택에

이야기

	봉안하였다. 그런데 홍주의 장보(章甫)들이, 관찰사(觀察使) 남공 이성(南公二星)·홍주 목사(洪州牧使) 이공 섬(李公暹)·면천 군수(沔川郡守) 민후 균(閔侯均)·전장령(前掌令) 조공 세환(趙公世煥)에게 호소하여 서로 그 고을에 사당을 세우고 또 비(碑)를 세워 그 일을 전하여, 공사간에 숭보(崇報)하는 의가 차례대로 유감없이 되었다. 오직 이 연산(連山)의 한양촌(漢陽村)은 선생 별장의 유지(遺址)이다. 그리고 그 동쪽 수리쯤에 고총(古塚)이 있는데, 예부터 고을 사람들이 가리켜 말하기를, "선생의 조상의 소장(所藏)이었는데 토지(土地)와 노비(奴婢)가 다 충훈부(忠勳府)에 적몰(籍沒)되어 한때 간신배들의 이용하는 바 되었으나, 그 노비 등이 옛 주인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해마다 가을이 되면 선생을 제향(祭享)하는 것이 풍속으로 되었다." 한다. 대개 이 고을은 사계(沙溪) 노선생(老先生)으로부터 삼세(三世)를 내려오면서 향리(鄕里)가 추로(鄒魯 추(鄒) 나라는 맹자를, 노(魯) 나라는 공자를 가리켜 말함)의 풍속이 성하였다. 그리하여 선생의 풍도(風度)와 의절(義節)을 더욱 깊이 사모하고 드디어 그 땅에 비석을 세웠으니, 대개 더욱 오래됨에 따라 인몰(湮沒)되어 증거가 없어질까 두려워서였다. 아, 인(仁)을 이루고 의를 취(取)하는 것은 공자와 맹자의 큰 교훈이며, 사계 노선생이 교육으로 삼았던 것도 여기에 있었으니, 지금 연산(連山) 선비들이 이 역사(役事)를 하는 것은 대개 전수받은 바가 있어서이고, 또한 성조(聖祖)의 밝은 훈계를 대양(對揚)하는 것이다. 우의정 이후원과 참찬 송준길은 다 노선생의 문인이고, 지금 비석의 일을 감독하는 이는 홍우주(洪友周)·김광로(金光老)·김만준(金萬埈)이다. 그리고 선생의 사실(事實)에 관한 전말(顚末)은 동토(童土) 윤공 순거(尹公舜擧)가 이미 노릉지(魯陵志 단종릉(端宗陵)의 지석문(誌石文)을 말함)에 상세히 갖추었으므로, 여기서는 다시 덧붙이지 않는다. 숭정 계축년(1673, 선조14) 4월 일에 쓴다.
원천자료	송시열, 『송자대전』 제171권

No.	154
작성자	이승준
제목	**양정이 인왕산에서 표범을 몰이하다**
이야기	양정(楊汀)이 여러 위(衛)의 군사와 동서반(東西班)의 품종(品從)을 거느리고 인왕산(仁王山)에서 몰이하니, 임금이 장의문(壯義門) 서쪽 고개에 거둥하여 행군(行軍)하는 모양을 보고 돌아와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 대가(大駕)를 따른 종친(宗親)·재추(宰樞)에게 명하여 시식(侍食)하게 하고, 인하여 관사(觀射)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세조 22권, 6년(1460 경진 / 명 천순(天順) 4년) 12월 6일(무인) 1번째기사

No.	155	작성자	이승준
제목	**취로정 연못가에서 발견된 호랑이의 발자욱을 추적하게 하다**		
이야기	취로정(翠露亭) 연못 가에 호랑이 발자취가 있었으므로, 밤에 입직(入直)한 여러 장수를 불러서 말하기를, "좌상(左廂)·우상(右廂)은 백악산(白岳山)·인왕산(仁王山) 등지를 몰이하라. 만약 살펴서 호랑이가 있는 곳을 알게 되면 내가 마땅히 친히 가겠다." 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세조 31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12월 9일(계사) 1번째기사		

No.	156	작성자	이승준
제목	**양전이 세자궁에 거동하다. 인왕산·백악산에서 몰이하여 호랑이를 잡다**		
이야기	양전(兩殿)이 세자궁(世子宮)에 거둥하였다. 임금이 중문(中門)에 나아가니 왕세자(王世子)가 모시었고,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거제정(巨濟正) 이철(李鐵)·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縣祖)·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심회(沈澮)·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석형(李石亨)·문산군(文山君) 유하(柳河)·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事) 김길통(金吉通)·청원군(淸原君) 한서귀(韓瑞龜)·결성군(結城君) 최윤(崔閏)이 입시(入侍)하니,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우승지(右承旨) 이파(李坡)에게 명하여 군사들에게 술을 먹이게 하였다. 또 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에게 명하여 술을 권(勸)하게 하니, 군사들이 모두 취(醉)하였다. 한참 있다가 상군(廂軍)에게 명하여 인왕산(仁王山)·백악산(白岳山) 두 산에서 몰이하게 하여 호랑이를 잡았다. 임금이 김길통에게 묻기를, "네가 전라도(全羅道)에 가서 포도(捕盜)와 군적(軍籍) 등의 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니, 김길통이 대답을 잘 못하였으므로, 임금이 관(冠)을 벗게 하여 술을 올리도록 하고, 명하기를, "포도(捕盜) 등의 일에 힘쓰고 힘쓰라." 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세조 34권, 10년(1464 갑신 / 명 천순(天順) 8년) 12월 6일(을유) 1번째기사		

No.	157	작성자	이승준
제목	**인왕산에 들어와 사람과 가축을 해치는 표범을 잡게 하다**		
이야기	표범이 있어 인왕산(仁王山)으로 들어와 사람과 가축(家畜)을 해치니, 이를 잡도록 명하였으나, 잡지 못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성종 293권, 25년(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8월 3일(기미) 1번째기사		

No.	158	작성자	이승준
제목	**호랑이를 잡을 때 임무를 소홀히 한 대장 김호를 파직하도록 하다**		
이야기	헌부가 아뢰기를, "인왕산(仁王山)에 사나운 호랑이가 나타나던 날, 여러 장수들이 모두 산에 올라가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장(大將) 김호(金瑚)가 산 위에서 공연히 술만 마시다가 날이 저물지도 않았는데 날이 저물었다고 핑계하고는, 군사들로 하여금 둘러싸게 한 다음 금산(禁山)의 소나무를 모조리 베어다가 성 위에 모닥불을 피워 놓게 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이는 보고 듣는 사람만 해괴하게 여기고 경악하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을 도망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호랑이가 바위 굴로 들어갔다.'는 거짓말로 아뢰면서 여러 날 수직(守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한 추위에 군사로 하여금 춥고 배고프게 하였으니, 그 죄가 큽니다. 성 안의 호랑이 한 마리 때문에도 군령(軍令)이 이처럼 엄정하지 못하니 다른날 도성 밖에 변란이 있게 되면, 또 어떻게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파직시켜 다른 사람을 징계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조종조(祖宗朝) 때도 자주 타위(打圍) 하였는데, 제장(諸將) 가운데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전전(殿前)에서 결죄(決罪)하기도 하고, 혹은 유사(有司)에게 내려 다스리기도 하였다. 때문에 군령이 엄명하였는데 이제 호랑이 한 마리를 잡는데 이처럼 해이되었으니, 과연 아뢴 바와 같다면 파직하라."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중종 72권, 26년(1531 신묘 / 명 가정(嘉靖) 10년) 12월 12일(신묘) 5번째기사		

No.	159	작성자	이승준
제목	**맹수의 일을 의논하다**		
이야기	병조에서 아뢰기를, "지난번 악수(惡獸)를 잡기 위해 함정을 설치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원유사(苑囿司)의 종사관(從事官)【이담손(李聃孫)임】이 어제 또 와서 '인왕산(仁王山) 골짜기에 악수가 있어 개를 잡아다 먹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함정을 설치했어도 악수를 잡는 데는 효과가 없습니다. 듣자니 광주(廣州)에 사는 어떤 사람이 활을 잘 쏘아 악수가 횡행할 때에도 한 해 동안 10여 마리의 악수를 잡았다고 합니다. 또 그곳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니 올라오게 하여 잡도록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중종 74권, 28년(1533 계사 / 명 가정(嘉靖) 12년) 3월 24일(정묘) 1번째기사		

No.	160	작성자	이승준
제목	**헌부가 맹수 사냥 정지를 아뢰니 전교하다**		
이야기	헌부가 아뢰기를, "듣자니 내일 경회루에 나아가 좌상(左廂)·우상(右廂)에 명하여 인왕산과 백악산 등지의 악수를 잡는다 합니다. 악수를 몰아내는 일은 장수에게 명하여 해도 됩니다. 상체가 이제 막 회복되었는데 경회루에 나가 계시면 전령(傳令)이 왕래하는 사이에 반드시 날이 저물 것이고 오랫동안 물가 차가운 곳에 계셔야 하니 미안할 듯합니다. 또 고례(古例)에 대해서는 미처 모르지만 궐내에서 융복으로 전좌(殿坐)하여 형명(刑名)까지 쓰기에는 그 적당한 장소가 아닌 듯합니다. 만약 오랫동안 열무(閱武)를 폐했다면 혹시 친열(親閱)하거나 장수를 명하여 하거나 간에 스스로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정지하기를 계청합니다." 하고, 정부는 아뢰기를, "이제 들으니 내일 아침 경연 후에 친히 호랑이를 잡는 것을 보시겠다 합니다. 근래에 오랫동안 친히 일을 보지 않았으니 두세 차례 신하들을 만나보신 후에 서서히 하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 달 미령하시다가 이제 처음 일을 보시는데 갑자기 융복을 입으시면 수고롭게 될 듯하니 심히 미안합니다." 하니, 답하였다. "아뢴 뜻이 옳다. 마땅히 장수에게 명하여 몰아내겠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중종 74권, 28년(1533 계사 / 명 가정(嘉靖) 12년) 4월 12일(갑신) 4번째기사		

No.	161	작성자	이승준
제목	**인왕산에서 표범을 잡아 바친 겸사복 조천손에게 상을 내리다**		
이야기	전교하였다. "겸사복(兼司僕) 조천손(趙千孫)이 인왕산(仁王山)【도성 안임.】에서 표범을 잡아 바쳤다. 이는 여느 짐승과는 다르다. 상을 주는 한편, 술을 내리고 그 표범은 사옹원(司饔院)으로 보내라."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중종 80권, 30년(1535 을미 / 명 가정(嘉靖) 14년) 11월 8일(을축) 1번째기사		

No.	162	작성자	이승준
제목	**인왕산 호랑이가 나타나다**		
이야기	인왕산(仁王山) 곡성(曲城) 밖에서 호랑이가 나무꾼을 잡아먹고 이어 인경궁(仁慶宮) 후원으로 넘어 들어왔는데 원유사 제조(苑囿司提調)와 도감 대장(都監大將)·총융 대장(摠戎大將)이 두 영(營)의 군병을 거느리고 뒤쫓아 잡았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인조 14권, 4년(1626 병인 / 명 천계(天啓) 6년) 12월 17일(을묘) 3번째기사		

No.	163	작성자	이승준
제목	**인왕산 밑에서 표범을 잡은 장졸들에게 시상하도록 하다**		
이야기	훈련 도감(訓鍊都監)에서, '인왕산(仁王山)에서 큰 표범 1두(頭)를 잡았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에서, '삼청동(三淸洞) 북창(北倉) 근처에 호환(虎患)이 있다고 하여 포수를 보내 잡아오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유시(酉時) 경에 인왕산(仁王山) 밑에서 작은 표범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삼가 이것을 봉진(奉進)합니다. 범을 잡은 장졸(將卒)들에게 각 해영(該營)에서 전례를 상고하여 시상(施賞)하고 이어 사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10월 4일(정미) 3번째기사 고종 20권, 20년(1883 계미 / 청 광서(光緖) 9년) 1월 2일(갑신) 1번째기사		

No.	164	작성자	이승준
제목	**행호군 이준생이 백악산에 표범이 나타난다 하여 군사를 풀었으나 잡지 못하다**		
이야기	행 호군(行護軍) 이준생(李俊生)이 아뢰기를, "신이 소격전(昭格殿)에서 재숙(齋宿)5515) 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골짜기 안에 표범이 있어서 저녁 무렵에 출몰(出沒)한다.' 하였습니다." 하니, 즉시 좌찬성(左贊成) 구치관(具致寬)을 주장(主將)으로,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극배(李克培)를 좌상 대장(左廂大將)으로, 예조 참판(禮曹參判) 조효문(曹孝文)을 우상 대장(右廂大將)으로 삼고, 임금이 광화문(光化門) 앞에 나와서 여러 군사를 지휘하였다. 일이 급하고 군사가 적은 것을 염려하여 제사(諸司)에 선전관(宣傳官)을 나누어 보내어 각각 구군(驅軍)5516) 을 거느리고 어가(御駕)를 따르게 하였다. 병조 참판(兵曹參判) 김국광(金國光) 등이 아뢰기를, "제사(諸司)의 관리들이 모두 청대(請臺)5517) 하여 출납(出納)하는데, 선전관(宣傳官)이 독촉하여 어가(御駕)를 따르게 한다면, 거두고 문을 닫을 때 간사하게 속이는 농간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어가(御駕)가 백악산(白岳山) 산허리에 이르러 여러 군사들이 몰이하였으나 끝내 표범을 잡지 못하고 해가 질 때에 환궁(還宮)하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세조 27권, 8년(1462 임오 / 명 천순(天順) 6년) 1월 22일(정사) 1번째기사		

No.	165	작성자	이승준
제목	**맹수 포획을 전교하다**		
이야기	병조가 아뢰기를, “신무문 밖에서 악수의 자취를 찾아 보았으나 나뭇잎이 많이 쌓여 악수의 자취가 있어도 추적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나무가 위는 울창하고 아래는 성글어서 만일 그 속에 무엇이 있을 경우 환희 볼 수 있으므로 악수가 여기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유사(苑囿司)의 종사관이 ‘지난밤에 악수가 인왕동(仁王洞)입구에서 나와 백악산(白岳山) 너머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곧 군사를 동원하여 잡게 해야 하는데 악수의 자취가 분명하지 않고 또 밖으로 향하여 갔으므로 소재를 정확하게 몰라서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악수가 성을 나간 자취가 있으니 갑자기 군사를 동원할 수 없다. 여러번 탐색했어도 끝내 잡지 못했는데, 함정을 만드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그래도 짐승을 잡는데는 효과가 있다. 지금이라도 속히 원유사의 종사관에게 여러곳에 함정을 설치하여 잡게 하라.”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중종 73권, 28년(1533 계사 / 명 가정(嘉靖) 12년) 2월 16일(기축) 2번째기사		

No.	166	작성자	이승준
제목	**원유사 종사관 이담손이 새끼 호랑이를 잡아 바치니 상을 내리다**		
이야기	원유사(苑囿司)의 종사관(從事官) 이담손(李聃孫)이 백악산(白岳山) 밑에 덫을 놓아 조그마한 호랑이를 잡아다가 올리니, 별조궁(別造弓) 한 벌을 하사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원유사 종사관(苑囿司從事官) 이담손(李聃孫)이 백악산(白岳山) 남쪽 밑【성(城) 안의 땅】에 함정을 파 표범을 잡아 바쳤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이 일이 비록 맡아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범을 잡으면 주는 상격(賞格)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다. 《대전》에 의하여 상을 준 뒤에야 그도 스스로 힘을 쓸 것이다. 이런 뜻을 병조에 말해주고, 또 이담손에게 술을 내리라.”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중종 73권, 27년(1532 임진 / 명 가정(嘉靖) 11년) 5월 10일(정사) 2번째기사 중종 74권, 28년(1533 계사 / 명 가정(嘉靖) 12년) 3월 15일(무오) 1번째기사		

No.	167	작성자	이승준
제목	**대사헌 홍언필 등이 이장과 맹수의 일로 상차하니 전교하다**		

이야기

사헌부 대사헌 홍언필(洪彦弼), 집의 조인규(趙仁奎), 장령 성윤(成倫)과 김기(金紀), 지평 허항(許沆)과 임붕(林鵬)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은사(恩赦)를 반포함은 그 뜻이 비록 죄과를 용서하는 데 있다 하더라도 죄가 국가에 관계되어 먼 변방으로 유배되어야 할 자들에게는 결코 바람작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남은 화액이 있어 임금의 마음을 동요시켜 화액의 문이 한번 열리게 되면 그 화는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번 성체(聖體)가 회복되어 은사의 혜택이 고루 내렸지만, 이른바 권간에게는 은사의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은 바로 위에서는 은혜를 편벽되게 내리는 잘못이 없고 아래로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끊어버린 것이니, 국법을 시행하고 공론을 붙들어 세운 것이 지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은사가 내리던 날 권간의 친속과 사동(使童)의 무리들이 여우나 요귀처럼 날뛰면서 서로 기뻐하기를 '은전이 우리에게도 미칠 것이다.' 하여 그 말을 사방에 퍼뜨려 널리 성세(聲勢)를 과장하므로 듣는 사람들이 매우 해괴하게 여겼습니다. 한 집안으로 말하자면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없을 수 없겠지만, 조정에 드러나도록 조금도 꺼림 없이 과장하여 사람들을 현혹시켰으니 어찌 믿는 데가 없이 그랬겠습니까. 마땅히 국법을 써서 공의를 쾌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적발하여 다스리는 일이 혹 지나치게 까다롭고 세밀할까 염려하여 은인자중하면서 탄핵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본 데가 없어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자세히 까닭을 생각해 보면 바로 황도(皇道)가 공평치 못하고 요행의 길이 매우 많아서 기회를 타고 틈을 엿봄으로 말미암아 온갖 화근(禍根)이 공격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미리 방지하지 않으면 뭇 소인들이 모두 화의 근원이 될까 두렵습니다. 전하께서는 성심(聖心)을 굳게 정하시어 번잡스러운 것을 막고 공도를 넓히시어 폐단을 제거하시면 나라를 위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차자에서 이른바 권간의 친속이라 한 것은 이항(李沆)의 처부(妻父) 영성 정(永城正)인데 이름은 수장(壽長)이다.】 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예문관 검열 이원손이 이준의 집에서 술을 마실때 이장이 부르는 노래를 오랫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전에 본부에서, 그 집에 누구누구가 모여 어떻게 비방하는 노래를 불렀는가에 대해 추고하기를 아뢸 때, 이원손은 사관(史官)으로서 붓을 들고 옆에 있었으니 즉시 대죄했어야 하는데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옥의 초사가 자기에게 언급된 다음에야 그런 사실을 실토했으니 사관에 합당치 않습니다. 체직시키소서.

또 듣자니, 근래 악수(惡獸)가 성안을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밑에 사는 인가에서는 무서워서 일찍 문을 닫고 들어간다 합니다. 마치 야외(野外)와 같은 성황이어서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번 악수의 발자국을 찾게 하였는데, 찾는 사람이 악수 잡을 일을 꺼려서 숨기고 곧바로 고하지 않는 등 병조에서 악수를 잡는 조처가 허술하니, 만약 사람을 해치게 되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병조를 추고하소서."

하니, 헌부에 답하였다.

"이제 올린 차자를 보니 '권간의 친속이 은사(恩赦)를 바라기를 기탄없이 하였다.' 하였으니 놀라운 일이다. 내가 마땅히 마음을 굳게 가져 요동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도 그렇게 한 다음에야 조정이 조용할 것이다. 내가 마음을 굳게 가진다 하더라도 지난번 대신【이행(李荇) 등을 가리킴.】처럼 조금만 요동하는 기색을 보이면 간인들이 조정의 일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소홀히 하겠는가? 이원손이 이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실 때 이장이 부르는 노래를 듣기는 했으나. 이원손은 먼저 가서 술을 마셨고 이장은 후에 와서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듣고는 놀라 즉시 나왔으니, 어찌 사관을 이것으로 체직해야 되겠는가? 더군다나 신진(新進)인 사람이 어찌 붓을 잡고 있다가 즉시 대죄할 줄을 알겠는가? 추고가 자기에게 미친 다음에야 말할 것이 당연하니 체직해서는 안 된다. 전에 병조가 '북문 밖에 악수의 발자국이 있다.'고 아뢰었기 때문에 발자국을 찾도록 했더니, 다시 아뢰기를 '이미 백악산(白岳山) 뒤로 갔다' 하였다. 그후에는 병조가 종사관이 악수의 유무를 확인하여 보고한 뒤에 아뢰려 한 것이다. 그러나 병조에서는 언제나 검속하여 조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추고하라."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중종 74권, 28년(1533 계사 / 명 가정(嘉靖) 12년) 3월 8일(신해) 1번째기사

한양도성의 마을

No.	168	작성자	최우석
제목	**편싸움(1)**		
이야기	21. 편싸홈 삼문밧(서대문 서소문 남대문밧)사람과 아현사람과의 편싸홈인데 룡산 삼개(麻浦)사람은 아현을 응원하여 주는 것이다. 싸홈터는 지금 양정고보 부근에 잇는 만리ㅅ재나 청패부근에 잇는 우수ㅅ재다. 삼문밧이 이기면 경긔도가 풍년들고 아현이 이기면 팔도가 풍년든다 하고 서로들 성벽을 내어 혹은 몽동이를 들고 혹은 돌맹이를 들고 나와 사우는데 고함을치고 겨르며 이마 깨지는 이 팔 부러지는 이 혹은 죽기까지 하는 이도 잇다.-그만둡시다-<19> (『별건곤』 제61호, 1933년 3월 1일.) 이에 조선의 야구는 어떠한가. 조선의 국기(國技)로 칭할많나 경기도 없었지만 그래도 억지로 있었다고 하면 편쌈(석전)이 전일에 연중행사하여 오던 것이 근년에 이르러서는 그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이 된후, 자세한 것은 불명이나 15~6년부터 조선에 비로소 축구가 수입되든하다 그후 2~3년이 지내서 야구도 수입되었다고 기억이 된다. (『동아일보』, 1928년 7월 6일.) 연전까지도 석전과 편쌈이 유행하니 정월이면 아동장년들이 교전할 때 두부를 난타하여 유혈이 낭자함을 일 유희로 쳤던 것이다. 이 습속을 볼진대 근본 조선인의 기풍은 굉장히 상무적이라 할 것이다. (『동아일보』, 1930년 4월 11일.)		
원천자료	李秉岐, 「朝鮮 古風俗과 習慣, 正初의 行事와 慣習의 續」, 『별건곤』 제61호, 1933년 3월 1일 「綠陰凉話(3) 映畵野球其他 <二>」. 『동아일보』, 1928년 7월 6일 「奇絶壯絶하든 朝鮮古代의 體育 (八)」, 『동아일보』, 1930년 4월 11일		

No.	169	작성자	최우석
제목	**편싸움(2)**		

편싸홈, 朝鮮의 正月노리
尹白

一

정월에 드러서서 사랑노리로 擲柶會戶외의 유희로선 大廣嬌川邊에 드놉흔 비게매고 연날리는 것이-물론 이것은 일부 外入庄이에 한햇섯지만-유수한 노리엿섯다.

그러치만 대중이 화제로 삼고 또 열광하는 큰 연중행사는 石戰이엿섯다. 그러나 京城의 그것은 석전이라는 말은 당치 안타. 의례히 말하는 사람이 이것을 편싸홈이라고 햇다.

「二」

南大門밧 굴ㅅ개(지금 京城驛과 蓬萊町 一圓)
東大門안 조산편싸홈
東大門밧 무당개울
西大門밧 녹개천(麻浦街道)

이야기

이 네군대가 나의 기억으로는 유수한 편쌈터엿섯다. 더잇대야 그것은 어린애들이 모허서 편쌈 흉내를 내든 터일것이다.

제법 편쌈다운 편쟁을 볼랴면 이 네군대밧게는 업섯다.

그 중에도 東大門안 造山便戰은 구경하는 대중에게는 정말 업는 흉늉한 자리엿다. 왜 그러냐하면 편전에 출전할 매질ㅅ군(撰手)들은 지금도 형체가 남어잇는 그 造山(芳山町 일대)우에서 싸우게 되는 까닭에 구경하는 이들은 조산밋 너른 밧헤서 마치 활동괜들이 스크린을 처다보듯이 매질ㅅ군의 一擧一動을 똑똑히 볼수가 잇는 까닭이다. 검은 테두른 벌벙거지 노라케 겨른 룍모방치 억개우에 들러메고 춤을 추며 나가면서 싸움을 청하는 광경이란 구경하는 이의 가슴을 뛰놀게 하기에 족하엿다. 더더구나 單騎끼리의 싸움인 만치 더욱 보기 조핫다. 거기에도 도의가 잇서서 업더진 놈은 매질을 아니 하는 법이엿다. 각금 그 도의와 불문율을 여지업시 짓밟어서 물의를 이르키는 것은 녹개천편전에 江帶사람들이엿다. 매년에 하나들씩의 죽엄이<60> 생기는 것도 불문율 蹂躪者의 소행이엿다.

三

어린애들의 石戰 그것이 족음커서 소청년의 석전 그것이 나종에서 일류 매질ㅅ군들의 편전이 된다. 그것이 편전장의 문전순서라고 할 수 잇섯다.

녹개천편전에는 잇다금 의외의 전사가 튀어나스는 일이 만핫다. 그것은 당시 平壤 侍衛隊兵士들이 구경을 나갓다가 신에 못 이겨서 돌팰매질을 각금 햇다. 예사 돌질 가튼면야 그리 사람의 눈에 띄울 까닭도 업지마는 평양병정들의 돌질은 그야말로 백발백중 어더맛고만 보면 한동안은 저승 구경을 갓다오기가 일ㅅ수 엿다.

몃해를 두고 편전구경에 빠지지 안튼덕에 별별 희비극을 다 보앗다.

어느때는 구경군 하나가 江帶가 몰려가는데에 신이나서 『자아-』하고 소리를 질으며 뒤를 몰아갓다. 그러나 돌(石)이란 불행히 눈이 업는지라 하필『자아-』하고 입을 딱 버린 사람의 목구녕을 향하고 들어갓다.

그이의 이는 몃개가 부러지고-대관절 숨을 맘대로 쉴수가 잇나요-편전구경은 어대가고 그 사람을 업고 西大門밧 병원으로 들어오는 대에 無慮 수천명이 뒤를 딸은 일도 잇섯다. 남의 불행에 무에 그리 조타고 그 중에는 껄껄대고 웃는 자도 잇섯다 .물론 나역시『픽』하고 웃고는 그날 저녁에 여러 동모에게 일부러 그 이야기를 전하러 다닌 일도 잇섯지만-

나는 부모의 눈을 기고 구경을 가긴가되 워낙 겁쟁이라 다른 곳에선 별다른 도리가 업섯지만 녹개천 편전구경에는 일상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경을 햇다. 구경하기에는 이보다 더 조흔 안전지대가 업섯다. 그러나 다만 한가지 遺憾은 매질ㅅ군의 키가 모도가 난쟁이처럼 보히는 것이엇다. 그런 유감은 잇섯지만 누구 모양으로 돌맹이 재갈을 먹기는 실흐니까 가기만하면 위선 소나무로.

四

헌코 방갓 붕어 보라족기-
고물상의 물건 명록으로 알지마라. 이것은 매질ㅅ군의 별명엿섯다.

그 중에는 남의 눈에 띄우기조케 일부러 나막신을 신고 나온 용사도 잇섯다. 城內 매질ㅅ군의 特長은 발ㅅ길질 잘하는 것과 몽치가 짜른 것이고 江帶 매질ㅅ군의 特長은 흰무명붕챠에 두루막 제처 입고 흰보드나무 몽치 더구나 서너자씩이나 되는 기은 몽치를 가진 것이엿섯다.

성내매질ㅅ군은 橫列散開로 단체적으로 몰아들어 오기가 일수엿다.

강대매질군은 미련하긴 해도 힘이 잇섯고 성내매질군은 약하긴 하나 날새고 꾀가 만핫다. 작전계획에 一日의 長이 잇섯다. 양편 본부에는 소위 謀士가 잇고 救護所가 잇섯다.<61> 구호소란 머리 터진놈에게 솜으로 지저주는 곳이엿다. 지극히 간단하고도 합리적이 엿섯다. 편전이 蠻風은 蠻風이겟지마는 보기에 壯快하기는 짝이 업섯다. 마치 큰 건물에 불이난 것이 결코 경사는 아니나 보기

에 일종의 장엄미가 잇는 것과 가티 그것도 나의 기억으로는 그때 정부에서 금지하지 안은 것은 안이엿섯다. 그러나 여간 巡檢깨로는 대중의 힘을 막을 수가 업서서 나종에는 병정을 보내서 금지하기를 시작햇다. 그러나 금지 당초에 平壤병정들을 내보냇다가 금지하러간 병정들이 매질군으로 변해버린 滑稽한 일까지 잇섯다. 그래서 나종에는 편전터 가운대에 총을 무덕이 무덕이 세워 노코야 겨우 금지한 일도 잇섯다.

五

그 어느 때이던가 역시 녹개천 편쌈터에서 이러난 일이 엿섯다.

어느 西洋人이 사진기를 가지고와서 다리를 버틔어 노코 편쌈광경을 박히고 잇섯다. 그러나 고의인지 우연이던지 돌하나가 날아와서 사진기를 때려 부섯다. 그러니까 西洋人은 아마 자기에게 고의로 가해하는 줄로만 오해햇던지 회중으로서 육혈포를 내서 덥허노코 쏘앗다.

부근에서 구경하던 어느 상인의 다리에 총알이 마젓다. 애매하게 다리를 마즌 사람은

『아이고 저놈 사람죽인다.』

하고 외치는 동시에 총성에 놀랜 구경꾼이 洋人을 바라보고 殺到햇다.

洋人은 겨우 혈로를 터가지고 서대문길을 향하야 도망을 하다가 정히 위급하니까 마츰 그때 역시 구경을 하고 잇던 어느 우편군사의(그것이 일인우편부이더란 말을 나종에 들엇다.) 自行車을 빼서타고 다라낫다. 대중은 그중에도 매질군들은 편싸움은 제쳐노코 洋人의 뒤를 쪼찻다.

『자아 자아 저놈 잡아라』

하는 소리에 그 洋人은 십년감수는 햇슬 것이다.

洋人은 모국 공사관으로 도망해 들어가고 그날 편전은 흐지부지가 되어버렷다.

어째던 편전에 나타나는 우리 조선사람들의 용기란 결코 웃습게 볼 용기가 안이 엇섯다. 다시는 볼수업는 편전 그것이 오늘 소위 문명한 권모술수의 싸움보다 간단하고 직접 행동인만큼 보는이의 피를 더욱 끌케하던 것이엿다.-(完)-

<60-62>

원천자료	尹白, 「편싸홈, 朝鮮의 正月노리」, 『별건곤』 26호, 1930년 2월 1일

No.	170	작성자	최우석
제목	**서계동 편쌈터**		
이야기	서계동 편쌈터 서계동에는 굴개라는 유명한 편쌈터가 있습니다. 편쌈터가 명물에 오르게 되었으니 편쌈이야기나 하겠습니다. 서울서 편쌈터로 유명하기는 이 남대문밖 굴개 이외에 서소문밖에 논개천이 있고 새문밖에 모회관이 있고 동대문 밖에 무당개울이 있고 공덕이도 있고 또 동대문안 조산도 있습니다. 종친구 개천가 편쌈터는 폐한지가 오래라 아는 사람도 지금은 드뭅니다. 인제는 유명한 편쌈꾼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허락맡은 지면이 얼마 못 되니 들은대로 성명이나 적겠습니다. 편쌈은 예전 전쟁실습이라. 이 아래 나오는 사람은 말하자면 명장감들입니다. 인사동 사람으로 이호보(李虎甫) 문성문(文聖汶)이, 김수동(金壽同)이, 사직골 사람으로 손개똥이, 서석길(徐石吉)이, 김만쇠, 윤수복(尹壽福)이, 관골 사람으로 이흥문(李興文)이 홍진홍(洪鎭興)이, 우대 사람으로 태곰보, 최명길(崔命吉)이, 윤희영(尹熙永)이, 송천만(宋千萬)이고, 강태진(姜泰鎭)이는 왕십리사람, 박산흥(朴山興)이는 남문 밖 사람이더랍니다. 하도일(河道一)이는 편쌈꾼 대접 잘 하기로 유명하였고 길한영(吉漢永)이는 편쌈부치기 잘하기로 유명하였답니다. 이 역시 편쌈 역사에 잊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원천자료	「내동리명물 西界洞(서계동) 편쌈터」, 『동아일보』, 1924년 8월 5일		

No.	171	작성자	최우석
제목	**편싸움(3)**		

이야기

편싸움(석전)

편싸움! 이름만은 배부르게 들었으되 보지는 못하였다. 그 경기방식에 있어서도 돌로서 팔매치다는 것, 돌에 맞아서 머리가 벌어지면 싸동여매고 덤빈다는 것, 편싸움을 하다가는 죽는다 하여도 법률에까지 아무일이 없다는 것, 이러한 단편적이었다.

그랬더니 이번에 춘원(이광수)께서

"세시풍속을 조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 이것저것 뒤저보다가 이 편싸움에 관한 기록을 처음 보았다.

그것은 도애 홍석모의 동국세시긔와 냉재 유득공의 경도잡지와 당서 고려전에서이다.

이제 이상에 열거한 세 책에서 본 것을 종합하여 말하면 이러하다.

신정이 되면 서울서는 편싸움이라는 풍속이 있다. 삼문 밖에 사는 사람들과 아현사는 사람들이 각기 한편씩 떼를 지어가지고 혹 방망이도 들고 혹 돌로 서서로 던지면 "악" "악" 소리를 지르고 아주 전쟁상태같아 열들을 내어서 싸운다.

그런데 대개 만리재(만리현)에서 접전이 되는 것이며 어느 편이든지 방망이와 돌탄환을 무서워하여 만리재에서 물러서는 편이 지는 것이다.

속설에 삼문밖이 이기면 경기도의 그해 농사가 잘 되고 애고개(아현)편이 이기면 외도(外道) 이를테면 평안 함경 경상 전라 등 농사가 풍년이 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용졸들이 몽치와 돌로다 서로 죽어라하고 싸움을 하는 판에 용산과 마포에 사는 악소년들이 수없이 결당을 하여 가지고 애고개편을 후원하였다. 한창 열중하여 싸울때는 고함치는 소리에 땅이 꺼지는 듯하다. 몽치나 돌에 맞아서 벌어진 머리를 싸동여매고 번개같이 서로치고 받으매 이마가 깨어지고 어깨가 떨어지며 팔과 다리가 부러지고 피를 물과 같이 올리면서도 악을 쓰고 덤빌 뿐만 아니라 비록 죽는다하여도 후회하지 아니하며 또한 죽거나 죽이거나 법률이 이 마당은 침범치 못하였다. 그러므로 행인들은 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피하였다.

이 싸움이 이렇듯 위험하매 당시의 사법기관에서는 이것을 막으려고 적지 않은 힘을 썼으되 원제 굿게든 병이오 뿌리깊은 습속이라. 완전한 치료를 못하게 되어 성안에 있는 아이들도 편싸움들을 즐겨 하였다.

종로거리와 피파정 근처이며 성 밖에 만리현 우수현 같은 곳은 편싸움의 진터로 이름이 높다.

그리고 안동(安東) 풍속에 매년 정월 16일이면 부내서 사는 인민들이 시내 좌우를 갈라서 돌을 던져 싸움의 승부를 질정하였고 또 평안 함경 양도에서도 정월 상원이면 돌싸움하는 풍속이 있느니라." 하였다.

전에 말한 당서 고려전에는 "매년초에 패수 위에서 모여 물을 뿌리고 돌을 던져달리고 쫓기를 두세번 안에는 끄치지 않으니 이것이 동국 석전하는 풍속의 시초이다"

한 것이 있다. 그러면 편싸움이 시작된 세월의 오랜 것과 또 고려 때에부터 있었음은 윗글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돌팔매 편싸움이 그보다도 더 오랜 역사를 가졌으리라고 본다. 대개 태고 사람들의 일용하는 연장이 돌로서 자료를 삼았던 터인즉 부락과 부락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 무기란 필경 돌이었을 것이다. 돌로 활촉을 만들기 전에 생명과 살림을 보호하려는 전쟁이 시작되면 코와 코가 서로 맛닷기까지는 응당코 돌팔매로서 시방 사람들의 총같이 사용하지 아니하얐겠느냐? 그런데 이 돌싸움이 남방은 이름조차 전하지 아니하고 옛날 무용으로써 천하에 횡행하든 고구려 고지역인 북방에서 시작되었다하는 그 기록이 더욱 우리의 흥미를 끄는 바이다. 아마도 편싸움 즉 돌팔매는 석기시대의 유풍인가?한다.

이러튼 저러튼 영남의 씨름과 서북의 편싸움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상무적 남은 풍속인가 한다.

원천자료	「세시 이아기(十三)」, 『동아일보』, 1932년 2월 20일

No.	172	작성자	최우석
제목	**석전소동**		
이야기	石戰騷動 시외 창전리에서, 일시는 형세 험악 2일 오후 5시경에 고양군 용강면 창전리 벌판에 장정과 아해들이 백여명이 모히어 피차에 석전질이 나서 일시는 매우 위험하였는데 소관 주재소에서는 수명의 경관이 출장하여 진정시키고 이어서 경계중이라더라. 차후로는 엄금, 경찰부 명령으로 해마다 음력 정초가 되면 경성부근 각 부락에서는 동리끼리 서로 편을 짜가지고 돌팔매로 싸우는 일이 있음으로 다수한 부상자가 생기고 이 때문에 이웃동리간에 아주 격이 지게 되는 일이 있음으로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에서는 관내 각 경찰서에 통첩하여 금년 정초에는 석전을 일절 엄금하도록 하엿다더라. (『동아일보』, 1923년 2월 4일.)		
원천자료	「石戰騷動」, 『동아일보』, 1923년 2월 4일		

No.	173	작성자	최우석
제목	**내동리 명물 - 동숭동 낙산**		
이야기	東崇洞駱山(동숭동낙산) 】 正解者(정해자)【東崇洞(동숭동) 駱山下人(낙산하인)) 要報番地姓名(요보번지성명) ◇이 산은 모다락산이라고 부르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락타(駱駝(낙타))산이라고 하엿습니다 락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동물원에서 약대를 보셧지요. 약대는 이름이 오락타는 자랍니다. 이산이 중툭이 움쓱하여 약대등같기 때문에 락타산이라 한 것 같습니다. 혹 거꾸로 부쳐서 타락산이라고도 하나, 아마 락타산이 원이름이겠지요. 글씨 잘 쓰고 글 잘하고 그림까지 그리던 강표암선생이 이 근처에서 살았었드랍니다. 근세로 말하면 보재 이상설씨의 별장이 있었지요. 을사년 조약 된 뒤에 어느날 밤인지 달이 낫같이 밝은데 이 별장에서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표연히 밖으로 나아가서 고만 자취를 감추었답니다. 이십년동안 유리표박하면서 괴로운 마음이 귀신을 울릴만한 기적을 생각하시면 첫걸음을 내여놓은 이산 및 동구도 길게 강개한 기렴이 될 것이다. 이 잔디에 표암의 지팡이 자국이야 있겠습니까마는 이솔나무의 풀은 그늘은 보재의 걸음을 여러번 멈추었을 것이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24년 7월 16일		

No.	174	작성자	최우석
제목	**내동리명물 - 청운동 청풍계**		
이야기	청운동 2번지 박봉대 효자동 큰길로 한참 올라가면 맑은 냇물이 시원한 소리를 내이고 북산으로부터 부러내려오는 바람이 흐르는 물과 같이 맑습니다. 청풍계라는 이름이 참으로 부끄럽지 않지요. 그러나 맑은 바람 맑은 물이야 그리 귀할 것 있습니까. 청풍계가 명물되기는 물이나 바람보다도 내 위에 있는 옛집 하나 까닭에 명물이랍니다. 옛집인들 다 명물이겠습니까. 이 집은 정축년 강화난리에 절사한 선원 김상용씨 구택입니다. 이 집이야 명물에 빠질수 있습니까. 농암의 "청풍로수금상재"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롱암이 이 집에 오면 과거하는 로인수씨가 술을 내보내드랍니다. 혈혈한 부인 한 분이라도 이 집을 지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던 것을 보면 고금의 느낌이 자연히 일어납니다. 이 집이 지금은 일본사람의 집이랍니다. 태황제 계실 때 이 집이 궁중소속이 되게 된 것을 특별히 도로내여주섯섯지요. 그 뒤 일이야 말할 것 있습니까. 맑은 바람 맑은 물까지도 고금이 달렸으면 오히려 우리의 느낌이 덜할 것 같습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24년 7월 19일.		

No.	175	작성자	최우석
제목	**내동리 명물 - 혜화동 풍차**		
이야기	동소문 안 혜화동에 덕국사람들 사는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 공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기숙사가 있고 나물밭이 있고 가진각색 것이 다 있고 교당까지 있습니다. 덕국사람의 촌입니다. 아니올시다. 덕국을 줄여다 놓은 것입니다. 물산장려를 주창하고 자작자급을 말슴하는 이들이 본떠올만합니다. 덕국 남부 '뮌일'에 있는 라마구교 "쌍오텔리"라는 본부에서 사람과 돈을 보내여 이것을 경영한답니다. 대전쟁 중에는 미국있는 라마구교에서 돈을 대주었답니다. 라마법황에게서 이것은 법국 사람을 주고 원산가서 다시 기초를 닦으라는 명령이 있었다하니 이 덕국촌이 얼마 안 가서 법국촌이 될듯합니다. 아즉은 덕국사람의 촌으로 있는 이곳에 괴상야릇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풍차 인줄 아는 사람은 더러 있으나 무엇에 쓰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드문 모양입니다. 아는 사람의 말을 들으니 이것이 무자위랍니다. 바람힘을 이용해서 깊은 우물에서 물을 자아올리는 신식두레박이랍니다. 세포사람은 눈이 시도록 보는 것이지만 서울서는 이 혜화동 것이 희귀한 명물노릇을 한답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24년 7월 24일		

No.	176	작성자	최우석
제목	**내동리 명물 - 정동 서양인촌**		
이야기	처음 서양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는 썩오래전 일입니다. 라마구교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들어온 것이 그 시초라고 합니다. 선교사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와서 몰래몰래 선교하다가 대원군 때 와서 한번 몹시 서리를 맞았습니다. 그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이 변하야 은자국 별명을 듣던 우리나라가 외국과 통상조약을 맺게 되어 서양사람이 우리나라 안에서 맘 턱 놓고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에 영환지략이란 책과 곤여전도라는 지도나마 본 사람이 많지 못하였을때 우리 사이에 서양사람에 대한 별우수운 이야기가 돌아다녔답니다. 추어말하면 "양대인" 나삐 말하면 "생국놈"들은 꽁지가 있다고도 하고 연어새끼가 사람된 것이라고도 하였었더랍니다. 별별 이야기가 다 많으나 지금 생각나는 것은 모두 길어서 손을 대지 못하고 내버립니다. 서양사람이 많이 모여사는데가 서울 안에는 정동입니다. 정동거리를 지나자면 유리창 열린 곳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고 뜰나무 벌어선 사이에 사(紗) 옷자락이 날립니다. 이것은 참 서양사람의 촌이구나 하고 누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24년 7월 30일		

No.	177	작성자	최우석
제목	**내동리 명물 - 충신동 배추밭**		
이야기	충신동 53 김형택 '배채' 변명으로 '배추'는 원래 중국 북방에서 나던 물건인데 우리 조선으로 들어오고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 오늘날같이 동양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이랍니다. 중국땅에서 나는 종류로는 산동 배추 지부배추 만주배추 금주배추 같은 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산동배추가 가장 유명하고 우리 조선것으로는 송도배추 일본것으로는 장기배추가 각기 제일간답니다. 배추는 채소 중에 제일 좋은 것인데 그것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성분이 아래와 같답니다. 수분이 백분에 구십오콤마팔십구요. 추한단백질이 일콤마이십륙이요. 추한지방질이 공콤마공팔이요. 녹을만한 무질소물이 역시 공콤마공팔이요. 회분이 공콤마오십구랍니다. 되지못한줏들은 과학지식을 내놓다가 수분이니 회분이니 일콤마니 공콤마니 적기가 성가시었습니다. 서울안 배추밭이야기나 적겠습니다. 그전 서울안 배추밭으로는 방아다리와 훈련원 안이 유명한 곳입니다. 훈련원 밭은 지금 거의 없어지다시피되고 방아다리만 남은 모양인데 방아다리 배추밭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이 충신동 명물입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24년 8월 6일		

No.	178	작성자	최우석
제목	**내동리 명물 - 의주통 독갑이골**		
이야기	의주통 1정목 2번지 조중립 우리나라에 떠도는 독갑이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독갑이를 본 사람이 흔치 않은 까닭으로 독갑이는 업는 것이라고 되지 못한 과학지식을 내세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주려면 언제 심령학이 발달하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의주통 독갑이 골로나 다리고 가보지요. 구진비는 부실부실 뿌리고 밤은 들어 사방이고 요한때 독갑이골을 들어서면 난데없는 키다리 장승이 웃둑웃둑 앞에 서서 가는 길을 막는답니다. 이런 때는 섣부른 과학지식이 다 날라가고 등에 소름이 쪽쪽 끼치며 이마에 찬 땀이 솟을 것입니다. 어둔 밤에 귀신이야기마라. 귀신이야기하면 귀신이 온다는 옛사람의 말을 옳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사람들이 몰려와서 살기 시작한 뒤로 독갑이골 독갑이도 잘 나서지를 않는다니 일껀 데리고까지 갔다가 허행할까 보아 걱정이 됩니다. 독갑이 있을만한 데를 갈때는 왼손바닥에 주사로 채(蠆)짜를 쓰고 주먹쥐고 가다가 독갑이를 보고 그 주먹을 펴면 독갑이가 내뺀답니다. 귀신이 죽으면 채가 되는 법이라 사람이 귀신 무서워하는 것처럼 귀신이 채를 무서워한답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24년 8월 9일		

No.	179	작성자	최우석
제목	**내동리 명물 - 광희정 파리**		
이야기	광희정2정목 202번지 윤기병 광희정 사람 말이 내동리명물은 파리라. 어느 집을 가보든지 사람의 집이라는 이보담 파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할만큼 파리가 숱하게 많다고 합니다. 파리는 추한 곳에 많이 꾀이는 물건이니 파리를 명물로 내세우는 것은 동리가 추하다고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못된 바람부는 곳에 무슨 좋은 명물이 찾아가겠습니까. 파리가 늦은 가을에 알을 배고 그대로 과동을 한답니다. 봄새날이 따뜻하여지면 일백사 오십개 새끼 파리를 낫는데 그 새끼가 얼마동안만 지내면 또 알을 배게 된답니다. 그래서 봄에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암파리 한 마리가 가을까지 가면 칠십구억4천백이십칠만가량되는 파리의 조상 할미가 된답니다. 이 파리가 만일 잡히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몇해동안만 지내면 이 세상은 파리의 물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파리많기로 제일 갈만한 곳은 아마 압록강 건너 안동현인가 합니다. 안동현 거리를 지내가자면 거리의 먼지가 떼를 지어날라갑니다. 이 먼지는 참말 먼지가 아니요. 파리가 먼지를 뒤여쓴 것입니다. 광희정 파리쯤은 아마 명함도 못들일 줄 압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24년 8월 11일		

No.	180	작성자	최우석
제목	**내동리 명물 - 관동 독립관**		
이야기	館洞 독립관 관동 평의원 김광현 이 독립관은 옛적 모화관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하면 무엇합니까. 서늘한 저녁에 재미있게 보시다가 옜부끄러움과 새서름이 함께 쏘다지시게요. 다른말할 것없이 '독깨비'이야기나 하겠습니다. '모화관'독깨비라면 서투르실는지도 모릅니다만은 '무아관'독깨비라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무아간이 모화관이랍니다. 옛날에 소년 몃 사람이 이 대청에서 자는데 독깨비들이 나오더니 에끄 무슨 판서대감 무슨 정승대감이시로구나 드랍니다. 그 말을 듣고 담력세인 소년 하나가 자기는 무엇을 할가하고 밤중에 모화관을 갔더니 독깨비가 굉장히 모여서 드리지 안트랍니다. 주먹으로 두드리며 들어가닜가 여러 독깨비들이 억지대감드러오신다 하드랍니다. 그 뒤에 그가 대감은 되었지만 간신히 되었다합니다. 독깨비가 지금껏 있으면 물어볼 일이 많치요. 첫째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마도 생각하리다. 그런데 사람 독깨비 등살에 귀신독깨비는 어대로 밀려갔나봅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24년 7월 15일		

No.	181	작성자	최우석
제목	**내동리 명물 - 교복동 독립문**		
이야기	교복동 큰 길가에 독립문이 있습니다. 모양으로만 보면 불란서 파리에 있는 개선문과 비슷합니다. 이 문은 독립협회가 일어났을 때 서재필이란 이가 주창하여 세우게 된 것이랍니다. 그 위에 새겨있는 '독립문'이란 세 글자는 이완용이가 쓴 것이랍니다. 이완용이라는 다른 이완용이가 아니라 조선귀족 영수 후작 각하올시다. 이 독립문께는 그 전에 대국측사라는 것이 왕래할 때 연조문이란 홍살문이 있어더랍니다. 영조문이 영은문으로 개명된 지가 벌서 오래건만 속명으로는 근년까지 연주문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주문 석주는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전에는 돌려매였든 쇠사슬이 있었는데 독립문이 선 뒤에 누가 끊어버렸답니다. 속박당하든 것이 해방되었으니 쇠사슬이 끊어진 것입니다. 몇 년전 삼일운동 때 독립문 위에 태극기가 뚜렷이 솟아나서 경찰서에서 씻어버리려고 "펌프"질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론 그리지 못할 곳이라 독갑이짓이라고 그 당시 떠들었습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24년 7월 15일		

한양도성의 시장

No.	182	작성자	서준석
제목	**남대문에 자유시장**		
이야기	“남대문에 자유시장” 서울시민에 일상생활품을 공급하려는 뜻에서 남대문ㅁ전 청목당(青木堂)옆 빈터에 자유시장이 신설된다. 총경비 九백만원을 드려 시장건설 중 이달 안으로 제一기 공사가 끗나는 것을 기다려 六월부터 종합시장으로 개장하게 된 것이다. “남대문자유시장” 시내 남대문통 三정목에 건설 중에 있든 자유시장은 요지음 준공을 보아 八월 八일 상오 十시부터 개장식을 거행하기로 되엇다. 그런데 시장에 새로히 점포를 버리게 된 상점은 八十二호에 달한다. “자유시장 不遠 개장” 시내 남대문통 三정목 욱정입구(저축은행 건너편)에 지난번 대화재로 인하야 폐허가 되었던 자리에 건축의 모양도 아담하게 신설된 자유시장은 근근 개장될 터인데 지난 이십사일 업자총회를 개최하고 자유시장업자조합을 창립하였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46년 5월 9일 『동아일보』 1946년 8월 1일 『동아일보』 1946년 8월 27일		

No.	183	작성자	서준석
제목	**남대문시장 관리권으로**		
이야기	“남대문시장관리권으로” 시장연합회에서 진정서제출 남대문시장은 적산이라는 이유로 축출당한 해방전부터 운영자측과 현재의 관리인 임병연(林炳璉)씨 사이에 일어난 분규는 원만한 해결을 못짓고 오던중 二十六일 동 시장상인연합회와 상인 일동은 安 민정장관에게 적산이 아님을 지적하여 요지 다음과 같은 진정서를 내었다 한다. ‘시장을 운영하는 중앙물산주식회사의 총 주(株) 수 중 八할 이상은 해방전부터할 조선인소유이다. 동 시장과는 하등의 연고도 없는 임병연이 자기의 친지가 적산관리처에 있음을 배경으로 적산회사로 주장하고 관리인이 되어 지난 一월 六일 돌연 모 청년단체원 六十여 명을 대동하고 강압적으로 종래의 중역 전부를 축출하였다. 해방전부터 八할 이상의 주주가 조선인임은 적산아님을 증명하고 남음이 있다. 만일 적산이라 치드라도 동 시장과 연고깊은 동 상인연합회원 중에서 적재를 선출함이 일반상인을 위한 현책일 것이다.’ “적산은 부당, 南門商人 陳情” 오랜동안 만호장안의 주방을 마터보는 남대문시장이 적산물로 취급을 받고 있으니 이것이 웬말이냐고 남대문시장연합회와 시장상인 二百六十여 명은 二十六일 연서하야 적산이 아니라는 것과 적산취급을 밧게 된 흑막을 밝히어 안(安在鴻) 민정장관에게 진정한바 있었는데 백이십만 시민과는 그 이해관계가 절대 불가결한 이 시장인만큼 앞으로의 귀추가 매우 주목된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47년 6월 28일 『동아일보』 1947년 8월 28일		

No.	184	작성자	서준석
제목	**악마의 소굴 자유시장**		
이야기	“악마의 소굴 자유시장” 三冬을 지낼 준비로 남대문 자유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 의류, 집기 등속을 염치불고하고 들고 나와 팔려는 가난한 부녀자들의 모습이 요즈음 버쩍 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노려 한목보려는 악질 ‘뿌로-커’들의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한다. 즉 시장에 본거를 둔 수십여 명의 ‘뿌로-커’들은 시장 부근에서 팔 물건을 싼 보재기를 들고 나온 가난한 부녀자들을 보기만 하면 한꺼번에 四五명씩 달려들어 물건을 빼앗아가지고는 이리저리로 헤매다가 이 물건은 아무대도 쓰지 못할 물건이라하여 싯가의 절반 혹은 그 이하의 금액을 주고는 뺑손이치는 공공연한 강탈절도사건이 남대문자유시장만 하더라도 하루에 수십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에서 내 물건을 도로 내어 놓으라고 말 한마디라도 걸어보면 ‘돈주었으니 내물건이다’라고 외치고는 시침이를 따고 심지어는 구타, 유혈, 창상까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불의의 봉변을 당하고도 그 떼거리의 복수가 무서워서 경찰에 고발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수가 많다고 한다. 이렇게 언어도단한 야만행위가 백주 장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에 비추어 서울시경찰국에서는 앞으로 이들 악질 ‘뿌로-커’ 도배들은 발견 되는대로 용서없이 철퇴를 가하여 이런 종류의 범죄의 근멸을 기하기로 되었다 한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김 경찰국장은 이와 같은 악질 도배들을 앞으로 철저히 단속할 작정이니 일반의 협력을 바란다고 二十三일 다음과 같은 강경방침을 천명하였다. ‘자유시장의 이러한 악질분자단속은 앞서부터 계획중에 있었으며 이미 손을 대기시작하였다. 금후 일반시민은 그러한 악질분자들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거나 또한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경찰에 연락해주기 바란다. 경찰에서는 금후 이런 도배들의 무법행동이 없도록 항시 엄중감시하는 한편 적발시에는 가차없이 엄벌에 처할 작정이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49년 11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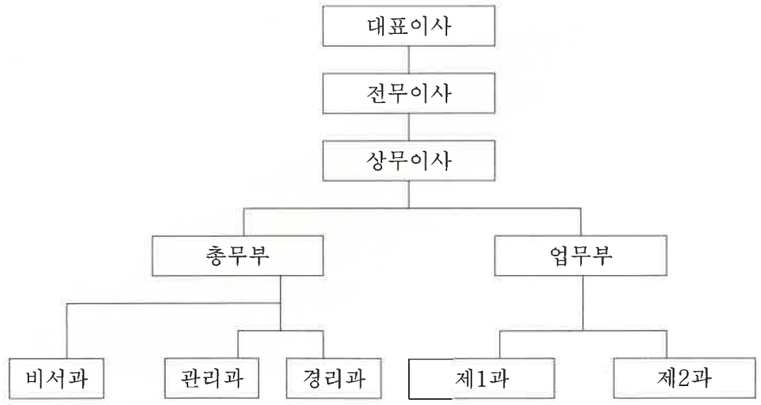
No.	185	작성자	서준석
제목	**서울! 그리운 수도의** 現貌		
이야기	“서울! 그리운 수도의 現貌” 그리운 서울! 우리의 수도 1년여에 걸쳐 전화에 시달린 모습은 그야말로 야월대로 야위고 이제 보는 수도 서울은 너무나 쓸쓸한 것이다. 기자가 본 작금의 도시□면비를 그려보면 대략 다음과 갓다.(중략) ▲상가=남대문과 동대문시장에는 곡식외는 전부가 시민의 가옥에서 나오는 고물품들이다. 식기, 의류, 책, 골훈품 등이 즐비하게 느러저 잇는때 한때 벼락돈을 버럿던 이들 고물장사치들은 윤(尹宇景) 경찰국장 신임과 아울러 시민의 가호에서 흘러나오는 물건은 발각 되는대로 구관(舊官)에게 압수내지 의관(依管)을 당하고 잇슴으로 그들의 경기는 말할 수 업시 폭락되고 말엇다. 경찰국장실에 드러가니 고화가 무폭(幅) 걸려 잇섯는데 이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려진 국보적 그림으로 국립박물관에서 보관해 왓든 것인바 이번 서울의 도적횡행시에 자취는 감추고 마랏다 한다. 그런데 시장을 검색하는 時에 우연히 발견되어 동류 도합 十六幅의 고화를 압수하엿는데 가소로운 것은 상인들이 이 그림을 한 장에 오천원내지 만원에 호가하고 잇섯다고 하며 이 그림이 정당히 매매가 되며는 한 폭에 수십만원의 가치를 가진 보물인 것이다. 이와 가튼 사건이 비일비재임은 물론이고 따라서 당국에서 시외로 나가는 일절 물품에 대해서 반출금지령을 내리고 잇다. 쌀갑은 한말(小斗) 일만사천원대를 오르나르고 잇고 보리는 팔천원대에 달하고 잇다. 그리고 시내 곳곳에서는 빵집, 다방, 책점, 고물상 등이 군데군데 열리고 잇스나 드러가는 손님을 별로 목격할 수 업섯다.(하략) 金俊喆(김준철) 記(본사특파원)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1년 7월 30일		

No.	186	작성자	서준석
제목	**남대문시장 상인연합회**		
이야기	“남대문시장 상인연합회” 6 · 25사변 이후 수차의 고난을 격는 중 집단적 피난을 하며 대전에서 대기하였든 남대문시장상인연합회 직당단원이 소리처 부르는 나의 향토인 서울로 20여 명의 선발대가 비장한 결심으로써 입경한 것은 4284년 6월 5일이며 동 6월 15일부터는 시장을 營爲 시작하였다 한다. 복귀 입경 당시 선발대원들이 직장지 남대문시장을 찾으니 의외에도 시장 일대에는 철조망으로 굳게 무장되여 있었고 더욱이 시장 인근에는 잔류시민이 救命圖生으로 시경찰국 후방 북창동 폐허지에 100여 노점이 나열되여 미약한 상거래가 이루워저 있었다. 이 실정을 본 선발대원은 전통있고 역사있는 남대문시장을 복구하자는 견지에서 이들 상인들만이라도 시장에 수용하여 장내 번영과 발전을 기하고저 상인들과 수차 타합하였으나 시장 舊점주가 수복되면 힘써 假建한 점포가 前연고자에게 返濟된다는 이유로 차라리 이곳에서 살겠다는 심리를 전제로 하여 이들 상인이 응낙치 않이함을 남대문시장은 유허가시장인 동시에 만일 전 사용자가 수복되여도 일 년 간은 묵인 사용케 한다는 조건과 또는 1년 후에 연고자에게 반환하여도 수용할 후보지가 있다는 조건으로 당국의 협조를 얻어 물고이고 맹꽁이 우는 지하실 우에 판자 혹은 천막 쪼각으로서 하나하나 몽인 것이 금일의 현황을 이루운 것이라 하며 其後 동 11월에는 300의 露店舖가 증설되였고 전통있는 남대문시장상인연합회 간판도 다시금 걸게 되여 총회도 개최하였다 한다. 이후 상인들은 일치단결하야 상호협조하며 薄利多賣 또는 친절을 주로 시장발전에 猛進한 결실이 금일에 至하여 점포 150, 노점 500을 헤아릴 수 있는 현황이며 업종순서로 보면 야채, 과실, 해산물을 주로 특히 타시장보다 능가하고 있는 것은 야채와 과실이라 한다. 사변으로 인한 피해상황은 불행히 인명피해 7명에 납치 15명이고 200점포가 소실되였으니 상품의 손실과 더부러 其 피해액은 놀나운 數字에 達하고 있으며 1 · 4후퇴 시에는 동 시장을 중공군이 야전병원 又는 주둔지로 사용하였고 시장은 물론 근처 일반인을 강제 퇴거시켰으며 더욱 피해가 막심하게 되였다 한다.		
원천자료	박운봉, 『서울재건상』, 시사통신사 출판국, 1953, 297-298쪽.		

No.	187	작성자	서준석
제목	**남대문시장의 역사**		
이야기	과거 남대문시장은 전국에서 屈指하는 도매시장으로서 상당한 발전과 번영을 이루웟으나 동란 이후 특히 지역적으로 중앙에 置하고 지방관문인 한강 도강이 자유롭지 못한 관계로 이로 인한 타격이 큰 바 있으나 그러나 앞으로 6·25 前 이상의 대시장을 건설키 위하여 현재 폐허지 만여 평을 점포로 확장계획이고 과거에는 塵芥가 산적하여 위생상 무한한 苦心을 하였으나 현재는 청소전용차를 사용 중에 있어 시장미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다. 과거 남대문시장은 선혜청이라 하였으니 즉 政府米를 저장하는 창고였는데 부근에 수백 노점상인이 나열된 것을 이 선혜창에 수용하고 시장이 이루워진 것이 檀紀4200년이였고 4259년에 중앙물산주식회사가 창립되여 시장 내 점포를 관리하게 되였으며 4265년에 상인연합회가 창설되여 각 부문을 통할하고 상인도덕과 친절주의로 시장을 營爲하게 되여 현재에 이르렀다 한다. 동 회장 엄복만(嚴福萬)씨는 용인 출생인 당년 30才로 京畿高普를 졸업 후 동일상사 自營, 중앙물산주식회사 관리인을 역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시장연합회 이사장, 한청(대한청년단-필자 註) 중구단장, 방공단 중구부단장, 자유당 중구 총무부장의 요직에 있어 활약하고 있는 실천가이며 동 회 간부는 다음과 같다. 회장 嚴福萬 / 총무부장 겸 이사 李德龍 부회장 李周永 / 미곡부장 겸 이사 金형奎 부회장 피奇鳳 / 과물부장 겸 이사 李柱成 재무 尹万榮 / 蔬菜부장 겸 이사 李容周 감사 孫完榮 / 해산물부장 겸 이사 朴계得 감사 張振奎 / 잡화부장 겸 이사 金敬植 상무이사 劉成錄 / 과자부장 겸 이사 鄭雲祥 서무 金道成 / 잡종부장 겸 이사 魯鳳燮		
원천자료	박운봉, 『서울재건상』, 시사통신사 출판국, 1953, 297-298쪽.		

No.	188	작성자	서준석
제목	**배오개장 상인연합회 결성**		
이야기	"배오개장 상인연합회 결성" 배오개장(梨峴市場)이 부활되엇다. 구한국시대 말년부터 오랫동안 조선의 큰 시장으로 이름잇든 남대문시장과 배오개장은 소위 일인의 대동아전쟁덕분에 시장안의 상권의 거의 전부를 중앙시장에 빼앗기어 해방전까지 한산하엿섯는데 이번에 다시 조선인들로서 조선의 복리증진을 위하야 양대시장은 단연히 부활하야 자유시장으로서의 특장을 발휘하고 잇다. 이중 배오개장에서는 기왕의 동대문시장상인연합회를 재조직하야 이백업자가 새로운 의기를 가지고 물자교류와 수급조정에 힘쓰기로 되어 오는 십일일 정오 시장 안 광장(廣藏)주식회사 안에서 동 상인연합회를 결성하기로 되엇다. "동대문시장 복구" 지난 겨울에 화재로 말미암아 영업을 중지하고 있던 서울 동대문시장은 그동안 복구공사가 진행되어 전 점포는 이십이일부터 종전대로 개업하였다 한다. "謹告" 去번 화재로 인하야 시장회원 일동이 불행이도 점포와 상품을 소실하고 영업을 停頓中이든바 其同限 여러분의 敦篤하신 聲援을 拜賜하와 불과 旬日에 종전과 如히 복구 일신케 되였음에 對하야난 感銘不已이옵나이다. 兼하야 倍前의 愛護와 鞭韃을 懇切이 伏望하옵고 罪悚하오나 紙上으로 謝意를 표하옵나이다. 단기 四二八0年 四月 日 서울동대문시장상인연합회 회장 全碩鎭(전석진) 총무 宋秉彝(송병이)		
원천자료	『동아일보』 1946년 1월 7일 『경향신문』 1947년 4월 29일 『경향신문』 1947년 5월 1일		

No.	189	작성자	서준석
제목	**동대문시장의 연혁**		
이야기	"동대문시장의 연혁" 동대문시장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종로4가에서 5가 및 동대문 사이를 동대문시장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배오개시장이라 하면 여기를 두고 이름을 불렀으며 청계천을 따라 일제시대부터 발전해 내려오다가 오늘날 청계천의 복개공사와 고가도로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더욱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말하는 동대문시장이란 시장법에 의해서 허가를 얻은 동대문시장 경영자, 廣藏주식회사의 건물 내의 시장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중략)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동대문시장은 약 65년 전 3,000평의 대지를 모체로 출발하여 처음에는 주식과 부식 및 일용 식료품 판매시장으로 발족하였으며 상인들도 일정한 처소를 가지고 있는 예가 별로 없이 각자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약 34년 전 업종별 조합체가 구성되고부터 처음으로 청과 · 소채위탁조합을 비롯하여 곡물조합, 해산물조합 등에 이어 식료품부, 과자부(유과 포함), 잡화부, 수육부 등이 각각 조합을 구성하여 발전해온 것이다. 이 7개 조합의 목적은 상인들 상호간의 친목과 시장의 번영 및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조직된 것이었는데 일제 말기에 마비상태에 있다가 1945년 12월 초 시장 상권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각 조합을 통합하여 동대문시장 상인연합회를 구성했다. 다시 1947년에 포목부, 주류부를 포함하여 모두 9개 부의 업종별 조합을 가진 상인연합회를 형성하였다. 6 · 25사변으로 인하여 시장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9 · 28수복 이후 당국으로부터 假建築許可를 얻어 폐허의 터전을 다지던 중 또 다시 1 · 4후퇴로 뿔뿔이 흩어져 이때가 가장 수난의 시절이었다. 1953년 8월에 동대문시장 재건위원회가 조직되어 광장주식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시장의 재건을 서둘러 그 당시 상인측에서는 보증금으로써 3차에 걸쳐 평당 6,000환, 10,000환, 13,000환의 돈을 지불하였다.		
원천자료	이동수, 「동대문시장의 근대화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0		

No.	190	작성자	서준석
제목	**장주식회사 및 시장 내 번영회의 조직과 업무분석**		
이야기	"광장주식회사 및 시장 내 번영회의 조직과 업무분석" 1. 광장주식회사 (전략) 광장주식회사의 경영조직은 간단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시장주식회사의 업무는 임대료의 징수와 건물의 관리에 그치는데 광장주식회사도 예외일 수는 없다. 업무분담을 살펴본다면 총무부에 속하는 관리과에서는 건물 자체의 관리를, 경리과에서는 회계사항을 맡고 있으며 업무부에 소속된 제1과에서는 하층의 임대료의 징수를, 제2과에서는 2층의 점포임대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별다른 업무는 없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의 업무는 건물관리와 점포임대 및 화재의 관리가 주요 업무라고 말할 수 있다.  (광장주식회사 조직도)		
원천자료	이동수, 「동대문시장의 근대화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0		

No.	191	작성자	서준석
제목	**장주식회사 및 시장 내 번영회의 조직과 업무분석(2)**		
이야기	"광장주식회사 및 시장 내 번영회의 조직과 업무분석" 2. 상인연합회 및 번영회 (1) 동대문시장상인연합회 1945년 12월 초에 발족되어 그 목적은 "시장상인 상호간의 친목을 敦厚히 하는 동시에 시장의 건전한 발전 번영과 상인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또한 국가정책에 순응하며 商道義昂揚을 期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며 시장 내 공공위생의 만전을 기하며 시장 전역에 亘한 청소미화작업을 실시하며 시장 내 질서의 유지와 公安의 확립을 기하며 각종 범죄와 화재의 미연 방지를 기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합회의 임원을 본다면 고문(약간명), 상담역(약간명), 회장(1), 부회장(2), 상무이사(1), 이사(20), 감사(2), 대의원(45명 이상)으로 구성되었다. 상인연합회의 관리지역은 건물의 1층 전체의 점포 및 노점이며 정회원은 총 267명(1970. 5. 20현재)이다. 그러나 1963년의 상인연합회의 회원을 본다면 점포상인 297명, 위탁상 내 소매상인 300명, 정착노점 298명, 합계 895명이 정회원이었다. (2) 포목부(직물부) 번영회 포목부 번영회는 동대문시장에서 가장 전망이 밝으며 우리나라 포목계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의 친목단체이다. 이 번영회는 1957년 10월 1일에 발족되어 회원은 약 500명에 이르고, 개점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까지이며 휴일은 매월 제1주와 제3주의 일요일이다. 포목부의 점포는 동대문시장의 2층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매상은 3층이며, 2층에서 都散賣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대부분이다. 도매점포는 약 50여 개이며 이들은 대개 직물창고를 가지고 있다.		
원천자료	이동수, 「동대문시장의 근대화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0 **※ 인용된 논문의 저자가 동대문시장을 조사한 시기는 1970년 4월 20일에서 동년 5월 20일까지이다.**		

No.	192	작성자	서준석
제목	**광장주식회사 및 시장 내 번영회의 조직과 업무분석(3)**		
이야기	"광장주식회사 및 시장 내 번영회의 조직과 업무분석(3) (3) 광장연쇄 번영회 광장연쇄부 번영회는 1959년 9월에 발족되어 130여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개점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까지다. 휴일은 제1주와 제3주의 일요일이다. 이름만 연쇄부이지 실제로 연쇄점의 역할은 하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인과 시장주식회사와의 직접 임대계약을 맺고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는 약 90명이며 나머지 40여 명이 남이 계약한 점포를 또 그 사람과 계약을 하여, 다시 말하면 전세 내지 월세를 들어 영업을 하고 있다. 위치는 2층의 서쪽이다. (4) 중앙양품 번영회 중앙양품부 번영회는 중앙부의 2층에 위치하고 있다. 양품이란 어떤 것인가? 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되어 있는 정의가 없다. 그러나 대략 양품이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의복을 빼놓고 나머지 서양에서 들어온 의복의 종류를 말하고 있다. 중앙양품부 번영회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은 111명이며 30여 명이 이곳에서 양품 이외의 점포를 경영하고 있으며, 개점시간은 8:30~20시까지다. 임대상황을 살펴보면 30여 점포가 직접 광장주식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세를 들어 있는 실정이다. (5) 광장양품 번영회 광장양품부 번영회는 동대문시장 동쪽 2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1959년 3월 중순에 발족되어 회원의 수는 120여 명이다. 개점은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까지며, 휴일은 다른 번영회와 같다. 이곳에도 20여 점포가 양품을 취급하지 않고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여 명의 영업자가 광장주식회사와 직접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부내 경비는 4명이 2명씩 교대하며 보고 있다.		
원천자료	이동수, 「동대문시장의 근대화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0		

No.	193	작성자	서준석
제목	**광장주식회사 및 시장 내 번영회의 조직과 업무분석(4)**		
이야기	“광장주식회사 및 시장 내 번영회의 조직과 업무분석” (6) 식품부 번영회 식품부 번영회는 지금부터 12-13년 전 발족되었으며 회원수는 181명이다. 위치는 2층의 남동쪽에 있으며 개점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며 휴일은 제1주, 제3주의 일요일이다. 현재 영업자의 동태를 본다면 100여 개의 점포가 식료품을 취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상품을 팔고 있다. 임대상황을 본다면 광장주식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상인이 170명, 나머지 10명은 세들어 있는 형편이다. 이상의 6개 번영회는 상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도난, 화재예방 내지 상거래 질서를 위해서 각 번영회에서는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략)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대문시장은 광장주식회사와 각부 번영회의 2원적 조직으로 시장을 운영 관리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상인들은 임대료는 광장주식회사에 납입하지만 청소비, 방범비 등의 각부 번영회의 경비는 상인들이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면서 회비를 내어 각부의 번영회 운영과 시장의 경비, 방범, 방화를 맡고 있다.		
원천자료	이동수, 「동대문시장의 근대화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0		

No.	194	작성자	서준석
제목	**시경 밀수상가를 급습**		
이야기	“시경 밀수상가를 급습” 수일전 일본으로부터 대대적인 밀수품이 시장에 진출한다는 정보에 접한 시경찰국 수사과에서는 李起榮 수사과장 직접 지휘 아래 韓 물자계장에게 엄중히 수사할 것을 시달한 바 있었는데 드디어 밀수입 암거래 소굴이 적발되었다. 즉 지난 十九일 오후 六시경 시내 종로 동대문시장 부근 모처에 일본제품 양복지 518마를 교묘한 수단으로 밀수입해다 은닉하였다는 정보에 접한 시경 물자계 박 주임을 수반으로 한 형사대가 20일 충신동 趙景格(28, 동대문시장 포목상) 집을 급습하여 전기 밀수 양복지를 압수하는 한편 공범자 李貞숙(42, 여자)도 구속 문초 중에 있는데 압수된 물품을 보면 양복지 외에도 사치품에 속한 물품(포목) 등 현 시가로 환산하자면 최소한도 5천만원 이상이나 된다고 하는바 취조 여하에 따라서는 여죄도 상당하리라고 한다. 그런데 尹明運 경찰국장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동대문, 남대문 등 시내 중요시장에는 日製의류, 화장품, 장신구, 완구 등등의 사치품이 범람되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경제침략을 의미하는 무언의 증거이다. 친애하는 상인 제위여 국가와 민족의 해독이 되는 여사한 밀수사치품의 거래를 단념하여 줄 것이며 시민 각위는 동 물품의 사용을 영예로 과시할 것이 아니라 싸우는 국민의 수치임을 각성하고 맹성하여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금후 본관은 경찰 총력을 경주하여 밀수품에 대한 사범은 가석없이 철추를 가할 결심이오니 백만 시민의 적극 협력을 무망한다.“ 한편 동 사건을 직접 담당한 이 수사과장은 동 문제에 대하여 전기 피의자 양인은 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할 것은 물론 끝까지 여죄를 추궁하여 밀수입 장본인을 백일하에 규탄할 방침이라고 부언하였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3년 1월 22일		

No.	195	작성자	서준석
제목	**반공석방자 환영시민대회**		
이야기	"반공석방자 환영시민대회" (1953년 6월-필자 주)반공석방자 일행을 환영하는 시내 북부산 주민들의 환영시민대회는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진 역전 광장에서 수만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중략) 애국동포를 환영하는 궐기대회는 연일 계속되고 있거니와 22일에는 동대문구 청계상우회 회원 일동이 또다시 총궐기하였다. 이날 상오 11시부터 남녀 약 1천여 명에 달하는 동 회원들은 동대문시장 내에 집결하여 오직 우리의 힘으로 북진통일을 완수하며 또 조국의 따뜻한 품안으로 돌아온 석방된 반공포로를 정성껏 보호하자고 절규하면서 일대 시위를 행하였다. "옛 주인 맞이하는 작금의 서울" (전략) 상가 파괴된 거리에 점포가 즐비하게 건축되어 그 수는 6 · 25 전 16,000여의 약 7,8할은 점할 것이라 하며 물품도 풍부하나 매매는 부진이라 한다. 남대문을 비롯한 시장도 6 · 25 전의 번성하던 옛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 수는 공설 12개 공인 30, 합계 42개소이며 이외에 무허가시장이 7개소로 이는 6 · 25 전보다 1개소 증가된 것이며 이상 각 시장 내의 점포수는 무려 4,500여 개(노점 제외)에 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제반 산업기관의 부흥부진으로 인한 실업자의 궁여지책으로 시장에 진출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그리고 물자는 정부 환도 전과 별 차이가 없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3년 6월 24일 『동아일보』 1953년 7월 17일		

No.	196	작성자	서준석
제목	**하루하루 올라가는 작금 물가**		
이야기	"하루하루 올라가는 작금 물가" 정부 각 기관과 각종 산하단체를 비롯하여 은행, 무역회사 등 국내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 부산으로부터 '서울'로 완전히 옮겨져 버린 요지음 소비도시 서울의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어,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서울에 돌아오고 있는 '피난갔던 시민'들의 새살림을 위협하고 있어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하는 급격한 물가폭등과 주택가격 폭등에 무슨 신통한 긴급대책이 없을지 시민들은 당국만을 바라보고 대책 강구를 애원하고 있다. (중략) 이러한 물가폭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봄까지 매간(間)에 최고 1만환으로 매매되고 있던 집값이 5월경에는 2만환, 6월경에는 3만환, 7월에 4만환, 요즘 8월 말에 와서는 교외에 있는 최하급이 4만환이고, 도심지나 계동, 가회동 등 소위 이름난 주택지에서는 매간에 6만환, 또는 최고 7만5천환까지에 주택이 매매되고 있으며, 상점은 동대문시장 판자집 권리금만이 15만환~20만환, 시내에서는 최하 50만환 이상으로 그나마 구하려는 사람은 많고 내놓는 상점은 없어 앞으로의 시세는 예측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한다. 한편 일반 생필품 가격 역시 안오르고 있는 것은 '쌀'값만이며 기타는 전반적인 폭등을 계속하고 있어 특히 '양은솥' 한 개에 6,700환, '세수대야' 250환, '양은남비' 5-600환, '주전자' 700환 등등 새로 살림을 시작하는데 꼭 필요한 생필품이면 그럴수록 더욱 폭등하고 있어 모두 다 피난지에 버리고 온 살림살이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는 이유로서는 주택은 더 말할 것도 없이 6,70만으로부터 100만을 훨씬 넘고 있는 서울시의 급격한 인구팽창에 따르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하며 기타 생필품 가격은 종래에 서울시에는 매매가 활발치 않았던 관계로 재고품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데다가 한꺼번에 시민들이 모여 들어 수요량이 급증한데 반하여 이들 생필품을 만드는 공장은 그 대부분이 부산이나 대구, 대전 등지에 있어 보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3년 8월 26일		

No.	197	작성자	서준석
제목	**서울에 근대식 3대 시장, 明春까지 완성**		
이야기	"서울에 근대식 3대 시장, 明春까지 완성" 수도 서울의 웅대한 도시계획이 3대 시장의 건설로부터 시작될 것이라 함은 기보한 바와 같거니와 동 3대 시장의 완성은 明春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에 착수중에 있다 한다. 즉 시 당국자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오장동(충무로 5가)시장 등의 3대 시장을 도시계획의 제1차적인 공사로 방금 추진 중에 있는데 남대문시장이 제1착으로 건축설계에서 구체적인 착공 사업이 시작하게 되었고, 동대문시장 관계자는 건축관계자들이 부산의 국제시장의 실태를 조사차 하부(下釜)하고 있어 동 조사가 끝난 후 곧 착공할 것이며, 오장동시장도 유능한 사업가를 전형중에 있다 한다. 그런데 동 시장들은 명춘이면 다 완료되어 콩크리트 2층 건물로 된 훌륭한 시장을 시민에게 보이게 될 것이라 한다. 동 시장들은 모두 근대식 시장으로 일찍이 보지 못했던 대규모의 시장으로서 도로를 6m 내지 8m의 넓이로 하고 상수도, 하수도, 주차장 등 완비된 시장이 될 것이라 한다. 각 시장의 넓이는 약 3천평이라 하며 시장 건립 자본금은 한 시장에 약 3억 환을 예산하고 있다 한다. 그런데 李益興 부시장은 전기 3시장 외에는 시장허가한 바 없으니 일반 시민은 시장예정지이라고 허위매매 종용하려는 간상배에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3년 11월 4일		

No.	198	작성자	서준석
제목	**미 군표 돌연 경신**		
이야기	"미 군표 돌연 경신" 미 국무성은 (1954년 5월 -필자주) 25일 전세계에 걸쳐서 미 군표를 변경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 같이 갑작스러운 군표 청신은 일본에 있어서의 위조군표 제조망(위폐망)의 행동을 분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하여 지고 있는데 일본 내의 위조군표 인쇄는 수개월 전에 확인된 것이라 한다. 미 군표 갱신명령은 25일 하오 12시 30분(한국시간)에 효과를 발생하였으며 동 교환기한은 25일 하우 7시 30분이라고 선언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에서는 동일 아침까지도 10불 당 3,700환에 매매되던 군표의 매매가 중단되고 암시장의 딸라 여상인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한편 미군 MP는 미 군표 소지자 적발을 강행하고 있었으며 미군 PX는 군표 개혁으로 종일토록 폐점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의 미 군표 개혁은 1951년 이래 금번이 두 번째이다. 그런데 극동군 사령부 소식통은 군표 변경령이 발표된 현재 극동지구에 유통되고 있는 미 군표 총액은 약 1억 1만불로 추산된다고 한다. ▲서울시경 측의 추산액 = 미 군표의 민간인 소유는 불법이므로 상인들 간에도 비밀에 붙이고 있느니만치 추산하기 곤란하나 시내 PX를 중심한 자유시장 일대와 동대문 · 방산시장, 청량리 · 영등포시장에 있는 암딸라 거래 상인들 수는 약 1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상인 1인당 300불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서울시내에 암류되던 미 군표는 약 30여 만 불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4년 5월 27일		

No.	199	작성자	서준석
제목	**남대문시장 대화재**		
이야기	"남대문시장 대화재" (1954년 6월 - 필자 주) 23일 하오 7시 40분경 돌연 남대문시장에서 발화한 화재는 때마침 부는 바람과 함께 불길은 충천하여 순식간에 동 시장 일대의 건물 390호(본 · 가건물 포함) 1만평을 전소시키고 동 10시 40분경 완전 진화되었는데 손해액은 물품 소실이 2,757만 환, 건물 소실 4,120만 환으로서 도합 6,877만 환이라고 한다. 화인은 남창동 67번지 협동양복점 주인 咸基翼(38)씨가 '휘발유람푸'에 휘발유를 치다가 폭발 인화되었다고 하는데 전기 함씨는 동 화재로 인하여 약 40여 일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어 방금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가료 중에 있다. "이재민은 백명 내외" 남대문시장 화재이재민들 중 구호대상자는 극소수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 당국자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동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대부분 이 시장 내에 점포만을 가지고 있고 거주를 딴 장소에서 하고 있는 관계로 주택 문제는 우려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동수용소 같은 것조차 건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시 당국자는 그 예로서 화재이재민을 수용한 남대문국민학교에서 화재 첫날밤인 23일 저녁에 수용된 이재민은 약 5백명이 되었던 것이 24일 아침에 식사제공을 받은 이재민은 불과 백 명 내외밖에 없었고 제각기 연고자를 찾아서 분산되고 있는 것이라 한다. "영업행위 일절 금지" 서울시에서는 남대문시장 화재사건에 대한 사후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24일 상오 10시부터 시장실에서 관계국 과장 및 CAC본부 미군서울기지사령부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동 회의에서는 화재 지역 정리 문제와 정리된 화재 지역에 상인들이 상행위를 현대식 시장 본 건물이 건축될 때까지 일체 허락하지 않고 동 지역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은 동대문을 위시한 시내 각 시장에 분산배치키로 되었다 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4년 6월 25일		

No.	200	작성자	서준석
제목	**남대문시장 대화재(2)**		
이야기	그리고 화재정리는 점포를 가졌던 상인들이 가재 잔해를 27일까지 완전히 반출한 후 28일부터 미군서울기지사령부 공병대에서 "부로듀사"를 총동원하여 정리하게 되었는데 현대식 시장계획에 의하면 동 지역은 2층 이상 7층까지 철재 '세멘트' 건물을 건축할 뿐 아니라 극장, 주차장까지도 설계되어 있는 것이며 착공이 개시되면 1년 내에 완성할 것이라 한다. "23일 밤 남대문시장에 희유의 大火"(경향신문) 23일 오후 7시 25분 남대문시장 내 남창동 80 협동양복점에서 발화한 화재로 때마침 불어오는 동북풍을 타고 주변 시장 일대를 휩쓸고 동일 하오 9시 50분 한미합동소방대의 활약으로 진화되었는데, 화재 원인은 전기 협동양복점에 거주하는 咸基翼(37)씨가 '깨소린'램푸를 만지다가 이것이 폭발되어 건물에 인화된 것이라 한다. 그런데 24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및 기타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총액 = 6,877만 환** **(나) 인명피해 = 발화자 함기익(37)씨 안면화상(대학병원에 입원 가료중)** **(다) 건물소실 = 약 4,200만 환** **(1) 시장 본 건물(주택 겸 점포) 25호** **(2) 가점포 250호** **(3) 노점(좌판) 400개** **(4) 가건물(무허가 등) 100호** **(5) 교통부 관사(2동) 15호** **(6) 법무부 관사(1동) 1호** **(라) 물품피해 = (1)청과물=약280만환 (2)해산물=약1,500만환** **(3)잡화=약500만환 (4)과자류=약50만환 (5)미곡류=약120만환** **(6)육류=약7만환 (7)철물및잡종商=약60만환 (8)주류=240만환** **(마) 소실대지 = 1만 평** 그런데 이재민 총수는 아직 명확한 숫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인원을 파악하기도 곤란하다. 약 3,500명으로 추산되고 있는가하면 이들은 대부분 제각기 연고자를 찾아가고 갈 곳 없는 이재민 중 우선 250명만이 남대문국민학교에 수용 보호 중에 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4년 6월 25일 『경향신문』 1954년 6월 25일		

No.	201	작성자	서준석
제목	**천막까지도 철거, 상가는 북창동에 이동**		
이야기	"천막까지도 철거, 상가는 북창동에 이동" 전소가 된 남대문 시장 일대에는 25일에도 재지(災地)정리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반 건축을 금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시장 내에 배치되어 간간히 세워지는 천막까지도 철거를 시키고 있다. 이틈을 타서 눈치빠른 상인들은 남대문시장 맞은편에 있는 북창동 시장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북창동 시장 뒷길의 공지에는 양키시장 노점상인들이 아침부터 자리를 잡고 있어 북창동 시장이 때아닌 번잡을 이루고 있다. 한편 남대문초등학교 강당에 수용되어 있던 550명의 이재민은 점차 감소되어 동일 아침은 391명의 이재민이 침식의 구호를 받고 있는데 오후부터는 분산 수용이 되어 상동, 창동, 서울 등 각 예배당에 재수용하고 있다. (하략) "남대문시장 화재지 정리작업 개시" 서울 남대문시장에 대화재가 발생한지 일주일 후인 28일 재떠미로 변한 1만여 평의 장터에는 '부루도-자' 10대와 트럭 20대가 동원되어 근대식 시장으로의 재건을 위한 재지정리에 착수하였다. 약 1주일간에 걸쳐 재지정리가 끝나면 시에서는 시경찰국 앞에서 남산을 향하는 길을 10m 넓이로 하고 그밖에 가로놓이는 여러 갈래의 길을 8m 폭으로 구획을 정리한 다음 시장건물에 착공하리라는 것이다. 한편 시장 변두리 길가에는 북창동 방면으로 장터를 옮기었던 딸라상을 비롯한 양품상, 잡화상들이 다시 몰려들어 불타기 전에 못지 않게 흥청거리는 상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4년 6월 26일 『경향신문』 1954년 6월 29일		

No.	202	작성자	서준석
제목	**동대문시장의 빠락, 강제철거 방침(1)**		
이야기	"동대문시장의 빠락, 강제철거 방침"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구역정리의 일부로서 과반 동대문시장 내의 해당 점포에 대하여 철거 영장을 발부한 바 있었으나 점포 상인들의 진정에 의하여 4주일간씩 연기하여 점포철거에 대한 여유를 준 바 있었는데 금번 동 시장점포상인들은 또다시 4주일간의 연기기간을 이용하여 앞으로 6개월 간 더 철거를 보류하여 줄 것을 획책하고 있다 한다. 그런데 시 당국에서는 동 시장 내 해당 상인들의 이러한 획책은 시 당국에서 자진철거기간으로 4주일간이나 연기하여 준 뜻을 역용하는 것으로써 시 당국으로서는 허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최근 남대문시장의 화재를 생각하여서라도 해당 점포주들의 이러한 철거 연기 책동은 시민이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자기 자신들의 이익만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폭로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동대문시장 무허가건축 철거 단행" 서울특별시 김 시장은 2일 기자와의 회견 석상에서 '무허가건축은 서울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철저히 철거시키겠다' 등의 당면한 문제에 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동대문시장 무허가건축=6개월간 철거를 연기한다는 말은 뜬소문이며 약속대로 1개월간 연기하였으니 철거를 단행하겠다. ▲남대문시장 건설문제=건설함에 있어서 구패로 갈리어 말썽이 많다고 하나 시에서는 남대문시장 주식회사를 인정할 뿐 딴 단체의 건설계획을 시로서는 모른다. (하략) "동대문시장 철거에 국회에서 3개월간 보류 결의" 국회에서는 16일 본회의에서 구역 정리에 의한 동대문시장 일부 점포 철거를 3개월간 더 연기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가결하였다. 그런데 동대문시장의 구역정리는 서울시 당국에 의하여 구역정리가 약 1개월 전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지역 상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4주일간 연기되었고 최근 상인들은 또다시 6개월간 철거를 보류하여 줄 것을 관계당국에 신청하였는데,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4년 7월 1일 『경향신문』 1954년 7월 3일 『동아일보』 1954년 7월 16일		

No.	203	작성자	서준석
제목	**동대문시장의 빠락, 강제철거 방침(2)**		
이야기	시 자체로서는 어떤 애로가 있더라도 오는 29일부터는 철거령을 단행할 것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종로 을구에서 당선된 김두한 의원은 6개월간을 보류할 것을 주장하고 홍일점인 김철안(金철安)의원은 5개월간을 연장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내무위원회 안인 3개월 안이 채택된 것인데 앞으로 시 당국의 태도가 주목을 끌고 있다. "동대문시장 무허가건축 철거 다시 한 달 연기" (1954년 8월) 6일 김 서울시장은 기자회견 석상에 당면한 시정 문제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동대문시장 무허가건물 철거문제=이는 지난 7월 20일까지 철거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나 주민의 진정으로 과반 국회에서 이를 연기할 것을 결의한 바 있어 오는 20일까지 철거할 것으로 하고 한 달을 연기하였다. "동대문시장 철거 일주일을 또 연기" 시내 동대문시장의 '바라크' 철거는 (1954년 8월) 23일에 단행할 예정이었으나 제반사정으로 일주일 연기하게 되었다는데 시에서는 이날 철거대상인들에게 구두로서 철거 준비를 재차 요청하였다 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4년 7월 16일 『경향신문』 1954년 8월 7일 『경향신문』 1954년 8월 24일		

No.	204	작성자	서준석
제목	**남대문시장 건설권 쟁탈전**		
이야기	"남대문시장 건설권 쟁탈전" 대화재 후의 남대문시장재건계획은 서울시 당국에서 법인체로 인정한 남대문시장 주식회사와 화재 후 조직된 남대문시장재건위원회와의 사이에 건설권리를 장악하려는 책동이 벌어짐으로 시장 재건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한다. 시 당국자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동 시장 건설계획을 위요하고 이와 같은 분쟁을 일으키게 한 원인으로서는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사장인 엄모씨가 모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을 한 것을 이용하여 남대문시장재건위원회가 모 당을 배경하여 가지고 구성됨으로서 발단된 것인데 서울시로서는 남대문시장주식회사에게 시장재건권을 법적으로 승인하여 준 만큼 동 회사만을 법인체로 상대하고 만약에 재건위원회가 모 당을 배경으로 끝끝내 분쟁을 계속하여 온다면 단호한 대책을 강구할 뿐 아니라 남대문시장 재건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것이라는바 앞으로 동 시장의 건설계획은 주목을 끌고 있다. "건설권 분쟁 종식" 대화재 후 그 건설권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가 인정한 법인체인 남대문시장 주식회사와 모 당을 배경으로 하는 재건위원회 간에 정치적인 압력이 전개되고 있던바 서울시 당국의 강력한 조치로 남대문시장 주식회사가 8월 초를 기하여 본격적인 근대식시장 건설에 착수하게 되었다 한다. 그런데 새로 건설될 동 시장은 방화에 주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차로공원까지도 설치하게 되었는데 총 공사에는 5억환이고 착공완료는 2개년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시장건설권문제로 벌어진 알력도 이로써 완전히 해소된 것이라 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4년 7월 4일 『동아일보』 1954년 7월 25일		

No.	205	작성자	서준석
제목	**심각한 재건쟁탈**		
이야기	“심각한 재건쟁탈” 국제적인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근대식 건축으로 신설하려던 남대문시장은 대화재를 겪은 후 동 시장의 개설권 및 운영권을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져 적지 않은 재건설 작업에 암영을 던지고 있다. 즉 동 남대문시장의 근대식 건축은 작년부터 서울시와 남대문시장 주식회사 간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설계도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꾸며 오던 중 객월 불의의 화재를 당하게 되었는데 화재 후 곧 재건부흥위원회, 이재민상인연합회, 지주회, 화재대책위원회 등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 개설권 및 운영권에 관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재건부흥회에서는 화재상인들의 ○○을 위해 싸우겠다는 호소문이 당국에 전달된 바 있었고, 지주회에서도 지주들의 승인없이 남대문시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것이라고 완강히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시 당국자 말에 의하면 현재 동 지구는 整地작업을 마치고 예비측량을 하고 있다 하는데 3일경에는 우선 기존 시장터 약 3천 평 위의 시장건설계획이 완료되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현재 각 단체에서 개설권 쟁탈을 하고 있는 주변지대(기존 시장터가 아닌) 약 1천 평에 대한 시장건설을 재건부흥위원회 및 지주회의 양해밑에서만 건립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대체로 합의를 보았다는 설도 떠돌고 있다. 시에서는 종전에 언명한 바와 같이 작년부터 신청중이었던 공인시장체인 남대문시장 주식회사 이외에는 개설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언명하고 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4년 8월 1일		

No.	206	작성자	서준석
제목	**삼파전의 남대문시장 건설권**		
이야기	“삼파전의 남대문시장 건설권” 정당을 배경으로 하는 시장재건위원회가 개입함으로써 시장 재건이 지연되고 있던 남대문시장 건설권문제는 시장 내에 있던 귀속사업체인 중앙물산의 관리권을 현재 서울시가 인정하고 있는 남대문시장 주식회사측에 줄 수 없다는 관재청의 조치로 또 다시 동 시장 건설권 문제는 3파전으로 분리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소위 근대식시장을 건설하려는 계획도 자연히 지연되고 있다 한다. 원래 동 시장은 화재발생 전에도 서울시 당국이 근대식시장 건설을 위하여 남대문시장 주식회사를 유일한 법인체로 인정하고 건설계획을 추진하여 오다 마침내 대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화재 발생 후 급조로 조직된 시장재건위원회가 모 당을 배경으로 남대문시장 주식회사로부터 시장건설권을 쟁취하려고 하였으나 시 자체가 동 재건위원회를 상대로 하지 않게 되자 이번에는 관재청을 통하여 물산의 관리권 문제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라는 바 시 당국자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시로서는 앞으로도 시장 건설에 어떠한 세력이 개입한다 하더라도 시 자체의 기정 방침은 변경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금후 남대문시장 건설권을 둘러싼 3파전의 결과가 큰 주목거리가 되고 있다. “남대문시장 건설문제, 분립공사키로” 시 당국자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화재 후 건설권 문제로 가장 물의를 일으키고 있던 남대문시장의 현대적인 대시장 건설문제는 귀속대지인 동 시장 내 중앙물산 대지 2천여 평을 제외하고 대지주친목회 분은 동 친목회가(1,180평), 남대문시장 주식회사분은 동 회사가 각각 분립 건설케함으로 점차 해결되어가고 있다 한다. 그러나 중앙물산 대지(귀재) 2천여 평은 아직껏 관재청 당국이 서울시가 요청한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관계로 동 문제는 부득이 서울시 관재위원회에 회부케 되었다는데 관재청 당국이 시장건설권문제와 귀속대지관리인 문제를 혼돈하고 시 당국의 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일뿐 아니라 하루 속히 건설되어야 할 남대문시장의 전체적인 건설을 필연적으로 지연시키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 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4년 8월 6일 『동아일보』 1954년 8월 12일		

No.	207	작성자	서준석
제목	**남대문시장 건설문제, 각기 분리건축으로 낙착**		
이야기	"남대문시장 건설문제, 각기 분리건축으로 낙착" 오랫동안 말썽을 일으키고 있던 남대문시장 건설권문제는 재작 25일 개최된 서울관재위원회 회의에서 동 시장 내에 있는 중앙물산소유대지와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소유대지 및 일반 개인 소유대지를 각각 분리하여 시장을 건축하도록 합의를 보아 일단락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동 시장 건설권 허가는 3개 구역별로 나누어 질 것이나 동 시장 종전의 현대식 설계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 한다. "남대문시장 재건 관리권 종전대로" 화재 이후 시장재건을 위요하고 분규를 거듭하여 온 남대문시장 문제에 대하여 김 시장이 언명한 바에 의하면 시장 공인관리권은 종전대로 남대문시장주식회사에 있으며 5천여 평에 달하는 대지 중 950평은 남대문시장회사에서 그리고 개인소유 1,200평은 개인별로 남대문시장회사의 감독아래 건축하기로 되었다 한다. 그런데 나머지 2,663평을 소유하고 있는 귀속재산 중앙물산은 앞으로의 관리인 임명을 본 후에 본격적으로 건축에 착수하게 된다고 하는데 관리인이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다시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4년 8월 27일 『경향신문』 1954년 8월 29일		

No.	208	작성자	서준석
제목	**서울시, 동대문시장 무허가건축물 철거 보류**		
이야기	"서울시, 동대문시장 무허가건축물 철거 보류" 청계천변의 무허가건축 강제철거는 예정일인 1일 12시 30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당국자가 말한 바에 의하면 집행예정일인 1일 하루 앞서 철거대상인들이 경무대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어 상부지시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도시계획에 의하면 동 지구의 철거가 단행하게 될는지 그 여부도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집행할 경찰당국에서도 서울시의 지시만을 대기중에 있다고 말하였다. "이승만 대통령, 동대문시장 판자집 철거에 관하여 유시" 이 대통령은 재작 1일 동대문시장 내의 구역정리를 위한 '판자집 철거' 문제에 대하여 그곳 주민들은 '판자집철거는 공동이익에 관한 것인 만큼 양해하고 협동해 주기 바란다'는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약 1주일 후에 동 지역의 구역 정리를 단행하고 따라서 해당 지역 내의 '판자집'을 철거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 동대문시장 무허가건물 철수 협조하라" 이 대통령은 1일 공보처를 통해 '동대문시장 철거는 공동이익을 위해 사사편의를 버리고 양해와 협동으로 사업을 성취하라'는 요지의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동 담화에서 이 대통령은 철거대상인들은 판자를 뜯어 다른 데로 옮겨야 할 것이니 공지가 있으면 얻어주고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으며 준비기한을 내주겠다고 부언하였다. 그런데 동 철거보류의 기한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들이 옮겨질 터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4년 9월 2일 『동아일보』 1954년 9월 3일 『경향신문』 1954년 9월 3일		

No.	209	작성자	서준석
제목	**동대문시장서 300세대 철거 개시**		
이야기	"동대문시장서 300세대 철거 개시" 동대문시장 부근의 도시계획선 저촉 건물의 철거 문제는 누차에 걸친 강제철거 연기 끝에 대통령 유시까지 나와 추석 경기를 고려하여 또 다시 (9월) 15일까지 연기된 바 있었는데 15일 상오 7시 30분을 기하여 예정대로 경찰관의 동원을 얻어 강제철거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동 철거는 약 3일 간에 걸쳐 실시될 것이라 한다. 그런데 철거대상자 세대는 약 300세대에 달한다고 한다. "휴지통" ▲경찰을 동원하여 가면서 모처럼 구역정리를 한 동대문시장에 철거 구역내 노점상이 대성황을 이룸으로써 구역정리를 한 것은 결국 헛수고-. ▲제대로 노점을 벌이는 친구들은 조금도 어색한 기색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노점 허가를 맡았다고 의기가 양양하다니! ▲철거는 누가하고 노점허가는 누가하는 것이냐? ▲구역정리를 한다고 하여 '판자집'을 헐고 노점을 맨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확실히 선정이라기보다 악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 ▲관의 위신을 위하여서라도 그 결과를 명백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4년 9월 16일 『동아일보』 1954년 9월 22일		

No.	210	작성자	서준석
제목	**남대문시장 관리권 쟁탈**		
이야기	"남대문시장 관리권 쟁탈" 근대식 국제시장을 목표로 작년 가을부터 설계 구상 중에 있던 남대문공설시장은 대화재를 치르고 난 뒤 미군의 협조까지 얻어 깨끗이 3천여 평에 해당하는 넓은 화재지를 整地한 바 있었는데 정지 후 약 1개월여나 지난 오늘까지 동 시장의 운영권과 관리권의 쟁탈문제로 시장재건은 이렇다 할 진전을 못할뿐더러 가건축과 노점상인으로 예전같이 혼란된 표정이 범람하여 근대식 시장의 남대문시장 구상은 어찌됐나 일반의 의아를 사고 있다. "남대문시장 분규 재연, 동일한 설계에 건축비는 현격" 오랫동안 건설문제를 위요하고 분쟁을 거듭하던 남대문시장 건설에 있어서 이번에는 동일한 설계에 의한 건축비가 공개입찰에도 불구하고 남대문시장 주식회사분과 지주대표들분과의 사이에 평당 1만 환이라는 차액이 생김으로서 또 다시 문제화되고 있다. 즉, 남대문주식회사에서 건축하는 시장 건물은 매 평 당 6만 3천환인데 비하여 지주대표들 분은 평당 7만 3천환으로 현재 공사중이라는 것인데 두 개의 건축건물이 동일한 설계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주들분이 평당 1만 환씩 고가라는데 대하여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더욱 지주들의 건평 1,400평 건물 2층을 환산하면 근 3천만환이라는 차액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주들의 건축비가 이와 같이 고가인 이면에는 건축업자들로부터 입찰 보증금 3천만 환을 받고 있는 반면에 시장주식회사에서는 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금번 문제화된 동 시장 건축비 문제에 관하여 서울시 당국자 및 지주대표及남대문시장주식회사 대표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서울시 당국자 談=시 자체로서는 공개입찰에 의한 것인 만큼 간섭할 문제가 아니며 지주자체들이 해결할 문제이다. ▲지주대표 談=우리 지주들이 건축하는 건물은 지붕을 만드는데 국내자재를 쓰지 않고 외국 자재를 쓰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게 된 것이다. ▲嚴 남대문시장주식회사 대표 談=우리는 될 수 있으면 시장상인들이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하여 공사비도 절약하였다. 지주대표들분이 평당 1만 환씩 비싼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알 바가 못된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4년 10월 2일 『동아일보』 1954년 10월 18일		

No.	211	작성자	서준석
제목	**남대문시장 귀속대지분 말썽**		
이야기	"남대문시장 귀속대지분 말썽" 남대문시장 건설권이 대지주친목회와 남대문시장주식회사 및 귀속재산인 중앙물산 등 3개 단체에 분리되어 현재 남대문시장주식회사분과 대지주친목회분은 공사가 완성도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인 중앙물산분만은 아직도 그 공사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어 중앙물산관성대지임대상인 친목회 270 상인들은 국회와 서울시에 연서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동 상인들에게 시장건설권을 넘겨줄 것을 주장하는 한편 1, 상인의 사재로서 건축한 점포를 관리인의 소유화하려는 음모를 배격한다. 2, 상인의 자재로써 건축한 점포를 귀속재산화하여 불하받으려는 모리배 관리인의 흉계를 반대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건의 고동 남대문시장" 우리의 기억에서 아직도 생생한 작년 여름의 대화재로 말미암아 재떠미로 화한 남대문시장은 지금 재건에 한창이다.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새로이 건립되는 동 시장은 건평이 9천평이며 점포수가 무려 1천이 넘는 우리나라 최대시장의 하나가 될 것이다. 엄동설한을 무릅쓰고 주야로 무거운 망치를 두드리며 혹은 대패질하는 목수와 인부들의 노력은 동 재건공사를 이달 안으로 준공하리라 하는데 이 재건될 새 남대문시장은 화재 염려가 전혀 없는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며 건물 수명은 300년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4년 12월 28일 『동아일보』 1955년 1월 8일		

No.	212	작성자	서준석
제목	**남대문시장 위요 건축대지로 분쟁**		
이야기	"남대문시장 위요 건축대지로 분쟁" 남대문시장(2천여 평)의 새로운 건축이 거의 완성되어 감에 따라 그중 광업진흥회사 대지상에 건축된 600여 평(상층과 하층)의 건물에 대하여 화재 전의 연고상인들과 현 건국자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작년 6월 남대문시장 화재 당시 광진대지 상에는 108명의 상인들이 있었는데 화재 후 시장이 재건됨으로써 시장주식회사에서는 상인들로부터 매인당 10만 환씩의 신입금을 받고 공사를 진행시켰으며 광진에서는 대지를 시장회사에 불하, 입찰한 바 있는데 광진대지의 상인들은 이를 배격하고 상인 자신이 직접 건물과 대지를 매수할 것을 27일 결의하고 동 문제의 관철을 광진 및 시장회사에 요청하고 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5년 1월 31일		

No.	213	작성자	서준석
제목	**동대문시장 2층에 주차장**		
이야기	"동대문시장 2층에 주차장" 시내 3대 시장에 하나인 동대문시장의 근대식 시장건설계획이 본 궤도에 올라 15일 당국에 정식으로 건설허가가 제출되었다. 동대문시장의 근대식 건설계획에 의하면 약 7억환의 예산으로 철근콘크리트 2층 시장건물을 약 5천평의 대지에 건설하려는 것인데 동 시장의 특징으로서는 자동차의 시장내의 왕래를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자동차주차장을 2층 옥상에 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선 1차 계획의 예산은 3억환이며, 동 시장의 명칭은 광장시장 주식회사라고 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5년 1월 17일		

No.	214	작성자	서준석
제목	**남대문시장 대지주친목회 사건(1)**		
이야기	"남대문시장 대지주친목회 사건" 1) 현재 서울변호사협회 회원(변호사)이며 남대문시장 대지주친목회 회장인 明順謙씨는 18일 하오 5시 30분 권리행사 방해, 업무횡령, 배임 혐의로 지검 金翊寶 검사에 의해 긴급구속되었다. 동 구속이유는 전기 명씨가 관계하고 있는 남대문시장 대지주친목회의 3천평 대지에서 각기 회원들로부터 거출된 회비를 접대비니 교제비니 하여 무려 450만 환에 달하는 금액을 불법유용한 혐의라고 한다. 그런데 동 사건을 수사 중에 있는 김 검사는 19일 상오 명 피의자의 가택수색을 한 결과 많은 장부를 압수하였다고 하며 계속 수사를 진행하리라는바 동 검사가 이날 시사한 바에 의하면 동 친목회 간부 吳明川, 咸德山, 金泰烈, 羅鍾夏 씨 등도 수사대상자로 등장될 것이라 한다. 2)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지검 金翊寶 검사의 문초를 받고 있는 明順謙(남대문시장 대지주친목회장) 피의자는 자기가 피소당한 제반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한다. 심지어 동 피의자는 자기 자신이 직인까지 찍은 '소각대지 할당고지서'의 발부사실도 부인하는 한편 "그것은 모두 총무과장이 한 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하며 금품의 횡령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한다. 그러나 동 사건의 증인과 대지주(垈地主)들은 모든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있다하며 지금까지 10여 명에 달하는 증인들과 피의자와의 상반된 진술로 일관되어 있다 한다. 이에 대하여 담당검사는 확고한 증거를 잡기 위하여 치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하며 지금까지 상당한 혐의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하는 한편 단연 기소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3) 남대문시장 대지주친목회사건은 17일로써 약 90퍼센트의 수사를 진척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기소여부는 대검의 지시를 기다려 금명간 결정하리라고 수사관계자는 언명하였다. 동 언명으로 보아 동 사건은 거의 완결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배임, 횡령,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문초받고 있던 동 대지회회장 명순겸씨는 취조 진행에 따라 전기 혐의 이외에 병역법 위반, 위증 등 5개 혐의가 새로이 드러났다고 하며 지금까지 동 피의자에 대해서는 8가지의 형사 혐의가 밝혀지는 한편 100여 만환의 횡령사실이 명백히 되었다 한다. 17일 담당검사는 단연 기소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 동 결정은 멀지 않아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5년 2월 20일 『경향신문』 1955년 3월 3일 『경향신문』 1955년 3월 18일		

No.	215	작성자	서준석
제목	**남대문시장 대지주친목회사건(2)**		
이야기	"남대문시장 대지주친목회사건" 검찰청과 법원에서 오랫동안 옥신각신 하여 오던 남대문시장의 운영주도권 쟁탈전은 21일 서울지방법원 洪一源 재판장의 가처분 결정으로 그 해결책에 서광을 던지고 있다. 과거 이 사건이 싸오고 있던 골자는 남대문시장에 '남문시장 대지주친목회'가 두 개 있어 그 회장에는 명순겸씨와 朴南洙씨가 서로 내가 정통파라고 다투고 있던 것을 이번에 법원에서는 이 두 개의 단체를 해체하고 이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崔日洵 변호사를 새로운 회장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5년 4월 24일		

No.	216	작성자	서준석
제목	**미군물자 불하에 거액탈세자 적발**		
이야기	"미군물자 불하에 거액탈세자 적발" 방대한 미군물자를 불하받고 세관에는 통고도 없이 매각, 탈세한 상인이 시경 수사과에 적발되었다. 즉 동대문시장 내에서 포목상을 경영하는 洪思永씨는 지난 20일 일천에 있는 모 미군부대로부터 맥주 1,250상자, 코카코라(음료) 1,250상자, 도합 2,500상자를 3백만환으로 불하받고도 이를 세관에는 통고도 없이 매각함으로써 거액의 탈세를 하였다고 하는데 탈세액에 대해서는 홍씨가 주장하는 매각금액이 시가와 상이되고 있어 아직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있으나 동 사건은 불일내로 세관에 이첩하여 세관의 사정기준에 의하여 액수가 사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5년 4월 1일		

No.	217	작성자	서준석
제목	**근대식 남대문시장 3월말부터 개점**		
이야기	"근대식 남대문시장 3월말부터 개점" 근대식 건축을 자랑하는 남대문시장이 이달 하순에 문을 열게 된다. 4,944평이란 넓은 땅 위에 약 6억환 예산으로 호화롭게 단장한 동 시장은 우선 남대문주식회사(1,023평)와 대지주친목회(1,729평) 몫이 준공을 보게 되어 3월 말 봄과 더불어 개점할 것이라 한다. 그런데 중앙물산 몫인 2,191평에 대한 시장건축만이 아직 착공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4월에는 착공될 것이라 한다. "최초의 지하주차장" 서울시내에 최초의 지하주차장이 생기게 된다. 즉 서울시에서 19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 국제시장을 자랑하는 대규모의 근대식 남대문시장에 약 30여 대의 화물자동차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큰 규모의 지하주차장의 공사가 지난 8일부터 착공되었다 한다. 그런데 동 주차장은 번잡한 시장에서 화물을 차로 손쉽게 들여오기도 하고 내가기도 할 수 있는 것이라 하는데 370평의 주차장이 될 것이라 한다. 동 공사는 남대문주식회사에서 약 5천만환 예산으로 시작했다 하는데 동 관리는 서울특별시에서 하게 되고 일반 차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주차장 부지 전용" (전략)88년(1955년-필자 주) 1월 27일 남대문시장 주식회사와 시장(市長)간에 체결된 3천 평 시유지 임대차 계약도 동 회사가 그 땅에 주차장을 짓기로 한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현재 점포를 지어 부정이득을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당국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다. (하략)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5년 3월 13일 『경향신문』 1955년 4월 20일 『동아일보』 1956년 11월 29일		

No.	218	작성자	서준석
제목	**삼대시장의** 假店鋪**, 강제철거키로**		
이야기	"삼대시장의 假店鋪, 강제철거키로" 10일 김 서울시장이 언명한 바에 의하면 시내 남대문, 동대문, 오장동(을지로 4가) 등 3대 시장 주변의 가건축물들은 현재 착착 진척 중에 있는 본 건물이 완성 되는대로 강제철거를 단행하리라고 언명하였다. "노점 철거로 상인들과 경찰이 충돌" 15일 오전 8시경 남대문시장 서쪽에 있는 노점시장에서는 노점 등을 철거 후 철조망을 치려는 경찰관과 노점 상인들 간에 옥신각신이 벌어졌으며 종래는 상인들 수명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중부서에서는 지난 달 하순 서울 중심지의 입구인 바로 남대문 옆에 위치한 노점, 음식점 등의 천막 등을 철거시킨 후 그 근처에 철조망을 쳐 놓았던 바 상인들은 이를 밤 사이에 무단 철거해버림으로써 경찰에서는 재차 철조망을 쳐 놓았었는데 15일 아침 남대문파출소 근무 김, 이 양 순경이 현장에 가보니 또 다시 철조망이 철거되어 있어 상인들을 꾸짖으며 철조망을 원상태로 해놓고자 하였는데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들며 수명이 양 순경에게 폭행까지 가했다는 것이다. 동 사고와 더불어 경찰에서는 양 순경에게 폭행을 가한 白順德(40, 신공덕동 137), 權重用(56, 후암동 산1) 양씨 외 3명을 치안재판에 회부하는 한편, 주동자로 지목된 金季淑(36, 여)씨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 구속하였다고 한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5년 6월 11일 『경향신문』 1955년 6월 17일		

No.	219	작성자	서준석
제목	**공갈장 받은 김두한 의원**		
이야기	"공갈장 받은 김두한 의원" (전략)김(두한 - 필자) 의원은 판자집 철거문제로 내무장관과 단독거래를 하여 동대문시장 일대의 판자집 철거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합의(?)를 보았다는데 일부 원주민은 商略 상 판자집의 철거를 희망하는 측도 있어 김의원에게 공갈장을 보내서 말하기를 "네가 판자집철거를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요다음에 너에게 표를 안넣겠다. 알았니?" 하는 식이라고-. 우락부탁 머리를 긁으며 난처한 표정을 하는 김 의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나는 내무장관과 어느 정도의 타협을 보았는데 말이야. 민관식이가 자꾸만 같이 발언을 하자니 이거 야단났는데-"하며 어깨를 들썩-. (하략) "동대문시장의 가건축도 철거" 김 치안국장은 昨 12일 판자집 및 무허가건축물 철거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날 김 국장이 명백히 한 바에 의하면 요즘 갱신허가 여부로 문제시되고 있는 청계천변 하천부지에 설치된 동대문시장 가건축물도 제1차 철거대상에 들어있다고 하며 산꼭대기나 산허리에 지은 판자집이나 가건축물은 국책에 의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거에서는 제외되고 있다고 한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5년 6월 30일 『동아일보』 1955년 7월 13일		

No.	220	작성자	서준석
제목	**시위대, 남대문시장 습격하여 상품 등 파괴**		
이야기	"시위대, 남대문시장 습격하여 상품 등 파괴" 지난 1일 하오 2시 30분경 대한노총 서울지구 연맹원 200여 명이 동원되어 서울역전부터 '국산품을 애용', '외래사치품을 배격하여 자주경제수립을 기하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남대문을 향하여 일대 데모를 행한 바 있었는데 동 데모대는 돌연 자유시장 일대를 급습하고 약 30분간에 걸쳐서 화장품상 鄭英子(22, 중구 회현동1가 190) 외 31명의 점포와 상품을 파괴하였다. 이와 같은 소동정보에 접한 경찰당국에서는 즉시 무장경찰관을 출동시켜 전기 데모대를 해산시켰는데, 동 데모대의 급습을 받아 파괴된 피해액은 약 3백여만 환에 달한다고 한다. 한편 경찰에서는 파괴행동의 주모자 鄭모씨 외 2명을 긴급구속하고 문초중에 있다 한다. "시내 일대의 밀수사치품 압수선풍 계속" 지난 16일부터 시경수사과에서는 시내 일원에 걸쳐 밀수사치품 일제 취체를 단행 중에 있거니와 18일에도 계속하여 남대문자유시장, 동대문시장, 천일백화점 등을 수색하고 밀수사치품 31건 996점을 적발, 압수하였다고 하는데 총 액수는 163만 9천여 환에 달한다. 압수된 물품은 세관에 인계하였다 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5년 8월 3일 『동아일보』 1955년 8월 20일		

No.	221	작성자	서준석
제목	**우리에게 재건 맡기라**		
이야기	"우리에게 재건 맡기라" 서울 남대문시장 내에 있는 중앙물산 관리의 대지연고상인 230여 명은 19일 오전 9시 30분 시청 앞 광장에 몰려와 '남대문시장 재건은 연고상인에게 맡기라'는 데모를 전개하였는데 경찰들의 저지로 옥신각신 끝에 10시 30분 해산하였다. 동 대표 金世煥씨 외 3명은 시장 비서실에 나타나 시장의 면회를 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남대문시장에서 撤市까지 하고 온 동 데모대들은 '무능한 관리인에게 재건을 맡겼기 때문에 5백년동안 뿌리박고 있는 이 고장의 상인들은 집 하나 없는 텐트 속에서 사활문제에 봉착하였다'고 호소하였다. 이들 대표가 준비하고 있는 호소문에 의하면 '작년 6월 23일 화재 발생 이후 동 시장 주변 일대에는 상인들의 힘으로 수천 평의 대지 위에 근대식 대점포가 건설되었으나 중앙물산 주식회사 관리대지인 2,600여 평에 한해서만 천막 그대로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시에서 발령한 새 관리인 咸정熙씨 등이 사리에만 급급한 탓이라'고 전제한 다음 '당국에서 천막철거를 하겠다니 하루바삐 우리 손으로라도 집을 짓고 장사를 해야겠다'고 호소한 것이다. 그런데 새 관리인들이 시와 약속한 바는 5천만 환 보증금으로 작년 12월 말까지 재건할 예정이었으나 금년 3월로 연기했다가 또 다시 6월까지 재건할 것을 확약한 후 오늘까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대지연고자 상인들이 '우리 손으로라도 집을 짓게 해달라'는 호소에 대해 서울시장은 '새 관리인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을 것이다'라고만 말하였는데 상인들은 '2중 3중으로 피해만 입을 뿐이라'고 말하고들 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5년 8월 20일		

No.	222	작성자	서준석
제목	**남대문시장 건설청부업자가 2천여만 환 횡령?**		
이야기	"남대문시장 건설청부업자가 2천여만 환 횡령?" 남대문시장 신축을 위요하고 대지주 측과 상인들 간에 대립을 일으켜 앞서 쌍방 간 소송사건까지 일으킨 바 있었거니와 이번에는 동 시장 신축공사 청부를 맡았던 극동건설주식회사 사장 金用山 씨를 상대로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측에서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시경에 고소를 제기-. 시경에서는 이에 따라 수일 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았는데 김씨는 방금 행방을 감추고 있어 동 영장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 한다. 그런데 고소내용에 의하면 전기 김씨는 동 공사에 있어 약 2,500만 환을 횡령, 착복한 혐의라고 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5년 9월 7일		

No.	223	작성자	서준석
제목	**시 당국 처사에 남대문시장 연고상인들이 비난**		
이야기	"시 당국 처사에 남대문시장 연고상인들이 비난" 작년 6월의 대화재 이래 아직껏 재건을 보지 못하고 있는 남대문시장 내 적산대지 중앙물산 소속 2,600평의 관리인 7명에 대하여 이번에는 서울시 당국에서 돌연 관리인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개별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케 해줌으로써 동 대지연고상인 250여 명의 맹렬한 비난에 봉착, 분쟁에 1년여를 끌어 오던 남대문시장 재건은 다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전기 문제의 대지연고상인들은 관리인으로서 1년여를 두고도 시장재건을 하지 못한 전기 7명이 동 대지와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이번 다시 임차인으로 결정된 데 대하여 급작스런 서울시 당국의 처사를 의아하는 한편 전기 임차인들이 시장재건에 한 푼의 투자도 없이 시장재건비로 상인들에게 평당 8만 환씩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더욱 연고상인들은 앞서 번에는 데모까지 단행하면서 조속한 시장재건을 자기들 속에 맡겨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남대문시장 분규 종식" 분규를 거듭해오던 남대문시장 대지 연고권 쟁탈전은 지난달 28일자로 관재소정심의위원회에서 연고상인들에게 분할 임차하기로 재결이 내림으로써 마침내 종식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동 대지는 '중앙물산' 명의로 관리인 허가가 내린 후 시장재건이 지연된 채 다시 동 회사 7명의 개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연고상인들과의 사이에 1년 유예를 두고 분규를 거듭해 왔는데 이번 연고상인들에게 분할계약됨으로써 지연되어 오던 시장재건은 급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상인에게 연고권 분여"(위 내용과 같음) 그동안 연고권 문제로 옥신각신 중이던 남대문시장 내 중앙물산회사 관리대지 상의 점포재건 문제는 연고권을 가진 상인에게 분할임차키로 일단락을 보게 되었다 한다. 즉 근 1년동안을 두고 중앙물산측과 동 대지상의 연고상인들인 임차상인친목회와는 연고권 쟁탈전을 계속해 왔었는데 지난 9월 28일자로 관재소청심의위원회에서 오랜 동안의 연고권을 가진 상인에게 분할임차하기로 재결이 내렸다고 하며 앞으로 동 연고상인친목회에서 공동으로 시장 건물을 건립할 것이라 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5년 9월 13일 『동아일보』 1955년 10월 5일, 『경향신문』 1955년 10월 7일		

No.	224	작성자	서준석
제목	**동대문상인, 내무부 앞에서 노점철거 보류 요청**		
이야기	"동대문상인, 내무부 앞에서 노점철거 보류 요청" 13일 상오 10시경 내무부 정문 앞에는 동대문시장 노점상인 약 200명(대부분이 여자) 몰려들어 '장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울부짖어 한때 혼잡을 이루었다. 이날 시위를 하기 위하여 몰려든 노점상인들은 '자유를 찾아 남한에 피난해 온 피난민들이 그날그날 벌어먹기 위해 노점을 벌리고 있는데 소관 동대문경찰서(서장 金己相)에서는 상인들을 구타 혹은 상인을 붙잡아 들여 간 다음 치재(치안재판-필자)에 넘겨 일주일씩 구류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리를 쳤다. 그런데 이들은 내년 3월까지 월동기간만 철거를 보류해달라는 요구인데 동 요구는 앞서 내무부 지시에 의해 그때까지 보류해줄 것을 소관 경찰서에 통첩되었던 것이 다시 소관 경찰에서는 철거하라고 동원시킨데 이날 데모의 발단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에 접한 내무부와 치안국에서는 즉시 시경찰국장에게 '벌써 보류해 줄 것을 통첩하였는데 또 사태가 악화되었느냐'고 힐책하면서 '명년 3월까지 보류해주라'고 지시하였다. 동 데모대는 이상과 같은 당국자 말을 듣자 11시 20분경 해산하고 시장으로 돌아갔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5년 12월 14일		

No.	225	작성자	서준석
제목	**동대문시장서 위조한 미군표 10달러권 출현**		
이야기	"동대문시장서 위조한 미군표 10달러권 출현" (1956년 1월) 3일 동대문시장에 위조 미 군표 10불권이 출현하였다. 수복지구 연천군 전곡면 朴鍾女(29)씨는 3일 오전 11시경 동대문시장 내에서 미 군표 10불권 20매를 암매하다가 위조라는 것이 발각되어 동대문서원에게 체포되었다. 그런데 박씨 진술에 의하면 박씨도 지난 1일 전곡읍에서 25, 6세가량 되는 남자로부터 10불 당 5,600환씩에 사가지고 상경한 것이라고 하는데 동대문서에서는 동 군표 위조범을 체포하기 위하여 수사를 계속중에 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6년 1월 5일		

No.	226	작성자	서준석
제목	**동대문시장 상인들, 이승만 대통령 재출마 요구 시위**		
이야기	"동대문시장 상인들, 이승만 대통령 재출마 요구 시위" (1956년 3월) 昨 7일 시내 동대문시장에서도 李 박사의 대통령 재출마를 요청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李 박사에게 전하는 호소문 등을 결의 채택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청계상우회 회원과 동대문상인연합회 회원 약 3천명이 모였었는데 이들은 대회를 마치자 10여 대의 추럭에 분승, '북진통일을 이루기 위하여는 李박사가 대통령에 삼선되어야 된다'고 외치면서 종로, 세종로와 경무대 앞 등의 거리를 데모하였다. "자유당 남대문 선거추진위, 선거선전용 스피커 도난" 남대문시장 C,D동 2층에 있는 자유당 남대문시장 선거추진위원회(위원장 徐延國)에서는 29일 밤 8시 20분경 동 건물 밖에 비치한 선전방송용 스피커 1개를 도난당하였다고 30일 상오 소활 중부서에 신고하였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6년 3월 8일 『경향신문』 1956년 5월 2일		

No.	227	작성자	서준석
제목	**폭력으로 노점상인 축출**		
이야기	"폭력으로 노점상인 축출" 30일 상오 서울시내 남대문시장 한복판에서는 시장주식회사 측에서 동원된 10여 명의 폭력배들에 의하여 500여 노점상인들이 강제철거를 당하여 이에 반항하던 임신 3개월의 여자 상인이 구타를 당한 끝에 중상을 입는 등 이날 무려 3시간여에 걸쳐 남대문시장을 폭력배와 상인들 간의 충돌로 일대 수라장화하였다. 시장회사측에서 폭력배들을 동원하면서까지 강제철거를 단행하려는 것은 '관계당국의 시달과 아울러 시장측의 방침에 의하여 시장 내의 중요 간선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상인들은 '지난 6월 초순경 시장회사측에서는 시장질서의 확보를 구실로 1,700환씩 거출하여 판대기를 팔아 시장 안에 깔도록 한 일이 있는데 이제와서 이토록 야만적인 철거를 강행하는 것은 천만부당하다'고 분개하고 있다. 상인들은 주로 구호물자를 취급하는 소상인들이며 대부분 북한에서 내려온 이재민들로 '철거당하면 당장 끼니를 굶게 된다'고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폭력배들한테 구타를 당한 鄭完玉씨(36, 임신 3개월)는 방금 적십자병원에 입원, 가료중에 있는데 이밖에도 다수의 상인들이 구타를 당하고 상업도구도 파손당하였다고 한다. 시장회사 姜씨 談=시장의 번영을 위하여서는 부득이 노점을 철거해야 되며 미리 상인들에게도 통지했었는데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6년 9월 1일		

No.	228	작성자	서준석
제목	**밀수사치품 단속, 압수품은 600여 점**		
이야기	"밀수사치품 단속, 압수품은 600여 점" 昨報=4일 세관당국에서는 갑자기 서울시내 주요 백화점, 번화한 시장들을 급습, 밀수 사치품 취체를 하는 바람에 각 시장, 백화점에서는 일시 소란을 일으켰다. 이날 세관당국의 취체에는 서울세관, 인천세관 등 직원이 총동원되었으며 취체한 서울시내 4대 백화점(新新, 東和, 美都波, 和信) 등과 2대 시장(남대문, 자유)에서는 총 3,500만 환에 달하는 밀수품이 압수되었다고 한다. 세관당국에서는 이날의 취체결과를 말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 실시했던 일제 취체 때에 걷었던 성과(압수액 4백만 환)보다 많다는 뜻으로 보인다. 4일 취체에서 적발된 물품을 보면 시계와 카메라가 최고로 각 300여 종, 그 다음이 양복지로 400여 碼 그리고 녹음기, 촬영기 약간과 그 외 사치품이 20여 종이 된다고 한다. 이날 취체는 상오 11시부터 시작 약 4,5시간 계속되었는데 업자들은 사전에 눈치를 채었던지 세관취체원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하는 등 광경도 보였다. "가짜 CID 대원 체포" 육군 보도실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시내 남대문시장을 무대로 일반 상인들과 일선 장병들을 괴롭히던 假 CID 대원 金喜仲(27)이 지난 20일 하오 7시경 시내 남대문시장에서 순찰중인 헌병에 의해서 체포되었다 한다. 金은 불심검문 운운하면서 휴가장병으로부터 8,800환을 갈취 도주하였던 것이라 하며 헌병감실에서는 군 수사기관(CID 헌병)이 검문 또는 수사에 임할 때는 반드시 소정의 신분증명서를 사전에 제시할 것으로 재삼 강조하였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6년 9월 6일 『동아일보』 1957년 1월 24일		

No.	229	작성자	서준석
제목	**또다시 철거소동**		
이야기	"또다시 철거소동" 한동안 잠잠하던 강제철거가 또다시 서울시내 남대문시장 한복판에서 일어나 시장상인들과 경찰관 사이에 일시 험악한 공기까지 감돌게 하였다. 9일 하오 정, 사복경찰 10여 명과 인부 20여 명이 돌연 남대문시장 안에 있는 음식점, 주류도매 점포 약 20여 호를 헐기 시작하여 이를 제지하는 상인들과 언쟁이 벌어지는 등 한때 수라장을 이루었는데 상인들의 결사적인 항거로 철거는 일단 중지되었으나 이 소동으로 상인 李學成씨(가명) 외 1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고 한다. 상인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동 점포는 땅주인(尹錫憲, 金敎英 양씨)과의 합의 아래 명년 4월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얼마전 중부서장도 이를 인정한 바 있었는데 이번 갑자기 철거를 당하게 되어 '아무런 사전 통지도 없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호소하고 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6년 11월 11일		

No.	230	작성자	서준석
제목	**양담배 단속의 실정**		
이야기	"양담배 단속의 실정" 본인은 근 4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모처럼 제대는 하였으나 어지러운 사회 세파에서 허덕이던 나머지 생각다 못하여 日收 겨우 300-400원을 바라보고 서울시내 모 다방 앞에서 양담배장사를 하는 몸입니다. 이것이 국가가 금지하는 장사인 것을 모르는 배 아니나 눈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에서 돈 주고 사다 돈 받고 파는데 무슨 큰 잘못이랴 하는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 16일 아침 남대문시장 입구에 막 들어서자마자 전매서 아저씨에게 걸려들고 말았읍니다. 3인조로 된 전매서 아저씨들은 연초를 싼 보따리를 들더니 '갑시다' 하길래 '이크 또 경찰서가 보다' 했드니 조그마한 하꼬방으로 몰고 가서 하는 말이 '압수하겠읍니다' 그때는 할 줄 모르는 말이나마 다음부터 않겠으니 한 번 만 용서해달라느니 잘못했다는 등등의 말로 애원을 했읍니다. 무슨 큰 범인이나 잡은 듯이 '안됩니다'가 연발되었지요. 그래도 애원을 계속하자 3인 중 한사람이 약에 감초같이 튀어들드니 '당신의 사정이 대단히 딱한 듯하니 한국담배 두보루만 사오시오'한다. 나는 호주머니 돈 300환을 내보이면서 '요것 밖에 없으니 이것으로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한참동안 흥정은 계속 되었읍니다. 그러자 其中 한 사람이 고개를 기웃기웃하드니 '그럼 한 보루만 갖고 오시오' 나는 모든 골이 보기가 싫어 없는 돈 1,300원을 털어서 화랑 한 보루를 사다 바쳤읍니다. 이것을 받고 하는 말이 또한 걸작이다. '그런 장사를 앞으로는 그만 두라'는 말은 없고 '고맙습니다', '안됐읍니다'…. 단속을 하려거든 제일 큰 구멍부터 하나 하나 막아내려와야 할 것인데 도매군은 그냥 두고 제일 죽어가는 소매상부터 거꾸로 올라가니 요새 사회를 본받은 셈인지? 원컨대 외국담배를 없애려거든 철저히 갖고 다니지도 못하게 하여 주기 바란다. 이따금 단속을 합네하고 공무원의 부수입거리로 불쌍한 사람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 (시내 K生)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7년 5월 30일		

No.	231	작성자	서준석
제목	**동대문시장 상인들, 국회 앞에서 엉터리 밀수품 단속에 대해 시위**		
이야기	"동대문시장 상인들, 국회 앞에서 엉터리 밀수품 단속에 대해 시위" (전략)31일 아침 국회의사당 앞에는 동대문시장 상인 300명을 대표한 수십 명의 여성이 나타나 국회의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下回를 기다리면서 모여든 군중들에게 억울한 실정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 "세관과 경찰이 동원되어 동대문시장에서 밀수품이란 구실로 '나이롱', 양단 등속을 모조리 압수하는데 세관 경매품을 산 것도 鉛玉이 없다하여 압수하고 정식으로 통관된 물품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百碼에 1개씩 붙는 鉛玉이 여러 사람이 分買했기 때문에 없는 것도 덮어놓고 밀수품이라고 압수해버려 소자본으로 생을 영위하던 수백명 상인은 일시에 밑천마저 빼앗기게 되었으니 밀수품이 부산을 거쳐 서울로 올라올 때까지 방치해둔 것은 누구고 불쌍하고 힘없는 소상인들을 이렇게 못살게 구는 것은 도대체 누구냐"고 호소하면서 "이는 冠을 쓴 도둑놈들이라"고까지 극언-. 길가에서 양담배 압수해가는 전매청 직원이나 꼭 같은 나리님들이라 심심하면 이 모양이니 도대체 이것이 정책입니까? 돈 버립니까? 그리고 수십 명이나 모여왔는데 집회허가는 맡아가지고 오셨소?(후략) "동대문시장 상인들, 국회 앞에서 시위" 동대문시장 내 부녀상인 100여 명은 31일 오전 8시 30분부터 국회의사당 앞으로 몰려들어 "당국에서 '나이론' 등 외래품을 압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국회에 호소하였다. 전기 상인들 말에 의하면 시경과 세관 당국에서는 지난 26, 7 양일 간에 걸쳐 동대문시장에 출동하여 정부에서 정식으로 수입하여 소매상인들에게 판매한 '흑망사', '안망사' 등 도합 약 5천 마에 달하는 외래품을 압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동 상인들은 "만일 정부의 시책에 의거하여 전기 외래품을 압수한 것이라면 상인들 입회 아래 소각해 달라"고 강경히 주장하면서 "외래품의 수요 대상은 고관부인들이다"라고 비난하였다. 한편 경찰당국에서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이들의 해산을 종용했으니 전기 상인들은 12시 현재 해산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7년 8월 1일 『경향신문』 1957년 8월 1일		

No.	232	작성자	서준석
제목	**기습적인 철거 소동**		
이야기	"기습적인 철거 소동" 진눈깨비가 내린 12일 새벽 서울시내 남대문시장 내 구호물품취급시장에서는 돌연 경찰과 인부 등이 동원되어 주인도 없는 점포 50여 개를 갈퀴로 자빠뜨리고 몽둥이로 쳐서 부수는 등 일대 기습적 철거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상오 7시경 시내 중부경찰서 경관 4,5명과 인부 수명은 시내 남창동 100번지와 96번지 일대에 있는 구호물품취급시장에 나타나 그곳에 있는 56개 점포를 모두 헐어버렸다. 목격자 말에 의하면 전기 경관들은 몽둥이, 갈퀴 등의 연장을 가지고 동 시장 점포를 부셨으며 기왕 자빠진 점포는 다시 기둥(가느다란 각목)을 몽둥이로 내려쳤다고 한다. 더욱이 이 철거는 그 점포 주인들이 미처 나오기도 전에 단행되었던 것으로 그후 점포에 나온 점포주인들은 그들의 점포가 모두 부서진 것을 발견하고 소동을 일으켰다. 이 철거소동에 대하여 중부서 보안계 관계직원들은 "그 시장의 소재지인 남창동 100번지와 96번지는 동 시장의 대지주친목회의 소유대지로서 이미 오래전에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가 나왔고 그 대지주가 누차 점포 주인들에게 명도를 요구해왔으나 응하지 않으므로 이날 아침 철거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편 점포 주인들은 우리는 "그 대지를 사용함으로써 매월 임대료(2,400환)를 물고 있으며 또 어제(11일) 경찰서에서 13일까지 여유를 주었던 것인데 오늘 아침 별안간 점포를 때려부셔 놓았으니 이런 법이 어디있느냐"고 펄펄 뛰고 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8년 1월 13일		

No.	233	작성자	서준석
제목	**시장 무허가건축 철거와 대통령 유시**		
이야기	"시장 무허가건축 철거와 대통령 유시" (전략) 하여간 대통령의 원기가 왕성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이 요새 간판 장수들이 대환영하고 있는 '간판한글화' 문제도 그분이 서울의 거리를 시찰하고서 '중국시가' 같다고 혹평한 것을 들은 내무당국의 당황한 긴급조치로써 되었다는 것이며, 남대문 안 가점포를 2일 이내에 철거하라고 긴급계고가 시경국장과 중구청장 연명으로 내리게 된 것도 그 어른이 지나다가 당장 헐어 없애라고 말씀하신 까닭이라 한다. 도시미화라고 해서 서울역에서 북으로 들어오는 연변에 근대건축을 林立케 하라는 유시는 2년 전부터 있는 것인데, 在下者들이 차일피일하다가 지금 와서 허둥지둥 2일 이내 강제철거령을 내리고 있은 즉 골탕먹는 것은 자리잡고 장사하던 상인들뿐. 장관이나 시장이 못하겠으면 당장 공병감을 시켜 뜯어버린다는 것인데, 이쯤 되면 선결조건으로 관계고관들은 억울한 시민에게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감이 도의에 合하지 않을지. 위에 대해서는 至當千萬으로 일언의 간언을 못하고 밑의 백성들만 괴롭히는 그들의 처세술은 침 뱉어도 할 말 없을 것. (하략)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8년 8월 6일		

No.	234	작성자	서준석
제목	**허정 서울시장, 경찰 협력 얻어 무허가 판자집 전부 철거**		
이야기	"허정 서울시장, 경찰 협력 얻어 무허가 판자집 전부 철거" 1일 許 서울시장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문제에 언급하여 각 시장 내와 남산공원 등에 산재해 있는 무허가 판자집을 불일내에 모두 철거할 작정이며 동 철거는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단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許 시장의 설명에 의하면 남산 국회의사당 건축예정지에 350여 호의 무허가 판자집이 있으며 이 밖에도 동대문시장, 화원시장 등 여러 시장에 무허가 점포가 산재하고 있다는 것인데 시 당국의 이번 무허가건물 철거 결정은 지난 28일 시내 평화시장에서 100여 동의 무허가점포가 세워진데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許 시장은 "이와 같은 시장 내의 무허가점포 철거로 시장 상인들이 갈 곳이 없다면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시장 신설 허가도 내줄 작정이라"고 말하였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9년 5월 1일		

No.	235	작성자	서준석
제목	**일그러진 서울의 지붕 밑(1)**		
이야기	“일그러진 서울의 지붕 밑”(1) 서울의 표정은 서울의 지붕 밑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겠다. 독재정권이 물러가고 새 공화국이 세워졌어도 수도 서울의 지붕 밑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4.19 전보다 더 일그러진 표정으로 변모하여 가고 있는 것만 같다. 도리어 일그러져 가는 표정 - 이는 오늘날의 사회실정과 국민경제를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시장도 아닌 대로변에는 온갖 사설시장이 즐비하고 골목길에서는 도박이 성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어느 누가 이를 취체 단속하는 것도 아니다. 낮은 낮대로 날치기, 들치기가 날뛰고 밤은 밤대로 권총, 식도 등 흉기 강도가 여봐라는 듯이 발호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은 불안과 빈곤, 무질서의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서울의 지붕 밑은 너무나 어둡기만 하다. 4.19의 양지의 혜택이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태양 밑의 우울한 서울표정의 구성요소는 과연 무엇인지? 서울의 시장은 공설시장과 사설시장으로 구분된다고 하면 교통이 폭주하는 대로변은 사람이 보행하면 步道이고 물품거래를 하면 시장이기도 하다. 참말로 말하여 서울의 보도는 사설시장의 장터이기도 하다.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에서부터 남대문, 종로, 을지로 할 것 없이 모두가 사설시장의 좌판으로 메워지다시피 되어 있다. 더욱 수도의 가장 번화가인 명동 역시 그렇다. 그래도 대로변들은 또 좀 나은 편이다. 종로4가에서 을지로4가로 통하는 길, 즉 동대문시장이 시작되는 전차도로가 있는 곳은 도로가 아니라 당당한(?) 공설시장이다. 전차, 자동차 등은 이곳에서는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미안할 정도이다. 이 길가에는 없는 물건이 없다는 듯이 만물상을 이루고 있다. 심지어는 생선장사까지 장을 펴고 있다. 전차나 자동차가 牛步를 하는 것조차 보기에 아슬아슬한 판국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도가 좁다는 듯이 즐비하고 있는 사설시장은 온갖 장사로 이루어져 있다. 양담배 장사, 군밤 장사, 넥타이상, 양말, 수건 그리고 빤쯔, 슈미즈를 비롯하여 과실, 혁대, 장갑, 양품, 책, 과자상 등속이다. 이들 각종 상인들은 서울의 큰 거리나 골목길이나 할 것 없이 어디로 가든지 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0년 12월 4일		

No.	236	작성자	서준석
제목	**일그러진 서울의 지붕 밑(2)**		
이야기	“일그러진 서울의 지붕 밑”(2) 한편 생각하면 수요자들에게는 지극히 편리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들은 적게는 기 천환, 많은 것은 기십 만환의 자본을 갖고 장사를 하고 있다. 규모가 크면 이동에 편리한 리야카를 토대로 한 판자조각 점포를 만들기도 하지만 불과 기 천환 밑천으로 하는 군밤장수는 밤 몇 되와 풍로 하나만 준비하면 되고 양담배장사는 호주머니에 담배 몇 갑만 준비하면 거뜬히 장사가 되는 것이다. 이들 사설시장 물품은 공설시장보다 다소 비싸고 백화점이나 공인(?) 양품점보다는 훨씬 싸다는 것이다. 물론 품질은 원래가 싸구려이지만 일제품을 가장한 국산품들이 있다. 그리고 좀 색다른 장사로는 犬, 염소, 고양이 상이라 하겠다. 미도파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곳과 남대문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개의 종류도 각가지이다. 상인들은 족보가 있는 명문(?)의 것이라고는 하지만 대개 엉터리 상술인데 세파트, 진도견이 있는가 하면 포인타 때로는 뿔독, 도벨만 등도 있다. 간혹 이중에는 도둑품도 있기도 하다. 아마 이런 것을 보고 족보가 있는 명문의 개라고 하는지도 모른다. 이외에도 단 2,30분이면 완성되는 속성도장방도 있고 문패상도 있으며 라이타, 만년필상도 있다. 이들은 수선도 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파이프 상도 있다. 간혹 상아 파이프와 같은 고급품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여름이면 시원한 냉차, 겨울이면 뜨거운 커피니 단팥죽이니 하는 음료를 파는 소위 리야카 다방도 찾아볼 수 있고 금붕어, 꽃장수도 있다. 각종 상인들로 꽉 차 있는 보도에는 걸인도 한 몫 끼어 있다. 걸인의 구걸술도 각가지이다. ‘아주머니 아저씨 한 푼만’하고 신사숙녀의 치맛자락이나 코트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가 하면 어느새 신사숙녀의 소지품을 슬쩍 실례하군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구걸에 불응하면 옷에다 침을 뱉거나 쌍스러운 욕지거리를 퍼붓기도 한다. 이와 같은 왈가닥 패가 있는가 하며는 5,6세 되는 어린것들이 보도 위에 누워 그 가는 손의 동정만 바란다는 듯이 머리맡에 양재기를 놓고 있기도 하고 육순 노인이 묵묵히 지팡이에 의지하여 손만 또는 양재기 같은 것만 내밀고 땅만 바라보고 있기도 하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0년 12월 4일		

No.	237	작성자	서준석
제목	**일그러진 서울의 지붕 밑(2)**		
이야기	"일그러진 서울의 지붕 밑"(3) 한국의 슈사인보이에서 한국의 서글픈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대개가 전쟁고아이거나 사생아들이라고 한다. 국민학교나 중학교에서 한창 천진하게 자랄 그들은 구두닦이로 그날그날을 연명하여 가고 있다. 길가에서 어디서든지 구두발만 불숙 내밀기만 하면 구두닦이 아이가 벌써 발 밑에 주저앉아 구두 닦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대문에서 남산공원으로 가는 언덕길이나 파고다공원뿐만이 아니고 서울의 거리에는 도처에 관상쟁이나 사주팔자를 보는 역학자라든가 성명해명학자(?) 등 가두의 미신학자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4.19 전에는 3.15부정선거 원흉들의 성명이나 관상을 가리켜 그들의 실력을 자랑삼고 있었는데 4.19 후에는 원흉들의 성명이나 관상이 원흉이 될 바탕과 허울을 가졌다고 풀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이 가두미신철학자들을 찾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약장사를 보면 가올, 인단상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시멘트 포지를 펴놓고 근 열 마리에 가까운 쥐를 잡아놓고 쥐약을 팔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기분을 잡치는 광경이다. 또 질겁을 먹게 하는 것은 각종 뱀을 목에 걸고 생사탕 소개를 하는 상인들이다. 이 모든 어둡기 만한 서울의 표정은 4월 혁명이 있은 지 반년이 되어도 가셔질 줄 모르고 도리어 너무나 어두워만 가고 있는 것이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0년 12월 4일		

No.	238	작성자	서준석
제목	**남대문시장의 줄어든 사치족속**		
이야기	"남대문시장의 줄어든 사치족속" ○양키시장=미군 PX에서 흘러나온 물건을 파는 이곳 상인들은 어느 곳보다도 이번 크리스마스에 한 몫 보려 벼르고 있었는데 요즘은 김장이다 구공탄이다 하여 가정에 돈이 마른 탓인지 매상이 오르지 않고 있다고 비명. 심심치 않게 나가던 커피나 위스키 등속도 요즈음엔 잘 안 나가고 깡통이나 껌, 어린이 옷이 약간 팔릴 뿐이라고-. ○포목점="작년 이때쯤이면 하루 매상이 평균 5만환은 되었던 것이 요즈음은 하루 5천환을 못 파는 날이 있다"고 화롯불 앞에 웅크리고 앉은 포목상 아주머니가 긴 한숨을 쉰다. 특히 양단, 나일론 등 고급품은 전연 안 팔리고 광목, 옥양목, 인조견 등만이 조금씩 팔리는데 장사 밑천(자본)의 금리는 고사하고 세금낼 돈도 남지 않을 지경이라니 사치족들이 많이 없어진 모양-. 이들은 연말에도 안 팔릴 것이고 돈이 좀 흔해져야 팔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화장품상=밀수품이 산적해 있는 화장품 가게에 들르니 연말이 아니라도 겨울철이 되면 제법 팔리던 크림도 잘 안 나간다는 것. 그러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아무래도 일제 우데나 크림 등속이 많이 팔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이 준비해 놓았다고-. 글쎄-, 한 통에 700원이나 하는 일제 크림이 잘 팔릴까?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0년 12월 18일		

No.	239	작성자	서준석
제목	**3.15부정선거 가담 혐의로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사장 구속**		
이야기	"3.15부정선거 가담 혐의로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사장 구속" 특별검찰부는 공소시효만료일을 8일 앞둔 (1961년 2월) 20일 하오 수사에 박차를 가하여 3.15 부정선거 당시의 京電 사장 高在鳳씨를 비롯한 丁大天 전 경전노조위원회 위원장, 李周永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사장 등 3명을 구속했다. (중략) 이들은 3.15 부정선거 당시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자유당 정부통령 입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산하 직원들에게 부정선거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제4조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혐의내용은 다음과 같다.(중략) ▲ 李周永(구속,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사장)=3.15부정선거 당시 남대문시장 상인들에게 부정선거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혐의. (하략)		
원천자료	『경향신문』 1961년 2월 21일		

No.	240	작성자	서준석
제목	**남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1-1)**		
이야기	"남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1)" (전략)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곳은 뭐니뭐니 해도 남대문시장이다. 240여 년 전인 李朝 英祖시대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올라오는 歲貢穀物을 보관하는 南別營(창고)이 있어 지방 관속들이 출입이 잦았던 것이 오늘날 총면적 2만평에 3천여 개의 점포가 들어서게 된 싹. 일정때 일본인들만으로 조직된 중앙물산주식회사가 시장의 운영을 독점해오다 광복으로 활기를 되찾았으나 6·25와 54년 6월의 큰 불은 이 시장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다. 서울 남대문시장주식회사(대표 李根澤)가 설립된 것은 큰 불이 나기 바로 전인 54년 2월. 5·16 후 상인들이 연합번영회를 구성, 63년 4월 명의만 남아오던 시장회사를 인수해 오늘날의 시장회사로 체제를 갖추었다. 68년 11월 23일 또 다시 이 시장에 불이나 불탄 자리에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 오늘의 남대문시장은 재래식 건물과 현대식 건물이 공존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남대문시장에 14살 때 발을 들여 놓았다는 야채상 D상회의 주인인 林聖男씨(55)는 "남대문시장이라면 건어물, 진어물상에다 야채상, 미곡상이 판을 쳤지요. 모두들 巨商들이었죠. 여하튼 한창 때는 대소화물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만주에서까지 열차편으로 경성역에 쏟아지던 판이라 흥청거렸지요"라고 옛날이 자랑이다. 해방 직후만 해도 동대문시장은 배우개 시장이라고 해서 별 것 없었는데 요즈음은 야채하면 중앙시장이요, 복지·건어물하면 동대문, 중부시장이라며 시장의 판도가 바뀐 것을 안타까와 한다. 시장주식회사의 관리과장인 金學鉉씨(47)도 "이제 남대문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 별로 자랑스러운 것이 없다"면서 남대문시장의 성쇠를 이렇게 풀이한다. 시장의 주종은 역시 건·진어물과 야채인데 50년대 말기까지 수백평의 건물을 가지고 서울시내 모든 상인들에게 물건을 도매로 넘기던 거상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모두 동대문, 중부시장 등으로 떠나 버렸다. 그래도 자유당 말기에는 엽관이 성하던 때라 많은 선사품들이 나가 청과시장 등이 번창했고 4-5년 전만해도 부동산의 매기가 좋아 돈이 많이 오간데다 자금 유통이 잘 되어 요리집이 성시를 이루고 상대적으로 시장도 호경기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뒤로 남대문시장이 음양으로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어진 것은 도심지에 자리 잡은 그 위치 때문.		
원천자료	『경향신문』 1971년 11월 10일		

No.	241	작성자	서준석
제목	**남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1-2)**		
이야기	"남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2" 서울이 계속 넓어지면서 인구분산이 심해지고 변두리 곳곳에 시장이 들어선 반면 대형화물차의 도심지 운행이 통제되어 화물은 리어카 등을 이용하다보니 운반비가 2-3중으로 불어나 채산이 맞아 떨어질 수가 없게 됐다. 더욱이 이 시장에 결정타를 입힌 것은 시장 입구 등에 늘어서 있던 1,700여 개의 노점을 시장현대화란 명분으로 철거(70년 4월)한 것. 아직까지도 많은 고객들은 종합상가, 백화점, 아케이드 등에서 물건 사는 것을 기피, 에누리도 통하고 손쉽게 흥정도 할 수 있는 이 노점들을 즐겨 이용해 남대문시장 전체의 규모로 본다면 이 노점상들은 시장 안으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좋은 중매장이 구실을 해왔다는 것이다. 노점의 철거는 하루 15만 명 선이나 되던 이 시장의 손님을 반 이하로 떨어뜨렸다는게 상인들의 계산이다. 이들 영세 노점상들은 대부분 시장 안에 새로 세워진 대도마킷의 지하상가에 들어갔지만 근년에는 특정 외래품상으로 변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을 헤치고 남대문시장은 새로운 시장 현대화계획 아래 활기를 지키고 있다. 시장 복판에 들어선 현대식 건물의 중소기업 직매장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있으며 청과물, 의복류 상들은 수요자를 직접 상대하기도 하는 한편 지방이나 다른 시장 등에 대량공급해 온 지금까지의 관록을 여전히 지켜주고 있다. (朴康之 기자)		
원천자료	『경향신문』 1971년 11월 10일		

No.	242	작성자	서준석
제목	**남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2-1)**		
이야기	"남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2)" 서울 남대문시장은 노점의 철거로 그 많은 우리나라 시장 중에서도 노점이 전혀 없는 유일한 시장이 됐고 이러한 당국의 조치는 수백년의 전통을 가진 이 시장에 현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시장 복판에 세워진 중앙동 상가 철근콘크리트 3층에 상행선 에스컬레이터가 3층까지 쉬지 않고 운행되는 이 상가는 여느 백화점처럼 안내양들의 친절한 말까지 들을 수 있고 난방도 완비된 현대식 시장이다. 이 상가 3층에 자리 잡은 중소기업제품 직매장은 지난 3월 6일 개장, 8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손님을 끌어들여 상권을 다른 시장에 빼앗기기 쉬운 이 시장의 색다른 특색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이 직매장은 서울시가 유통체제를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의 2중 효과를 노려 개장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간 도매상을 없애 버렸기 때문에 물건값이 싸고 서울시와 각 제품협동조합이 품질까지 보증해주고 있어 손님들이 몰리게 마련. 소비자는 시중보다 싼 값으로 물건을 살 수 있고 제품회사는 제품의 판로를 넓힐 수 있는 시범시장인데다가 중소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터이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이 직매장에 참가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수는 모두 13개로 품종별로는 130개에 달한다. 대표적인 품종들을 보면 각종 스테인리스 제품, 가구류, 공예품, 쉐터류, 내의 및 양말 메리야스류, 가방 및 등산기구, 운동구 및 운동복, 면사류, 피복류, 화장품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필수품이 망라돼 있다. 이곳의 물건 값은 시중시세보다 평균 25%가 싸다. 물건에 따라서는 거의 반값에 가까운 45%나 싼 것도 있다. 시중에서 1,500원짜리 겨울 쉐터를 이곳에서 사려면 1,125원이면 된다. 375원이 싼 셈이다. 일제 세이코 벽시계 T505호 중형은 일반 시계점에서는 8,500원에서 9,000원은 주어야 사는데 이 직매장에서는 6,500원을 주면 된다. 직매장에 들어서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이 가격표시이다. 어떤 직매장 점포에는 "이곳에서는 에누리를 할 수 없다"는 설명표지판을 걸어 놓기도 하고 있는데 이미 25%나 에누리된 것이니 더 이상 에누리를 하지 않아도 손님들은 싸게 사고 있는 것을 알아달라는 뜻도 된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71년 11월 13일		

No.	243	작성자	서준석
제목	**남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2-2)**		
이야기	"남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2)" 모든 판매원들은 자기의 이름이 적힌 판매원증을 가슴에 달아 손님들로 하여금 상거래의 신빙도를 더욱 높여주려 애쓰고 있으며 백화점처럼 야단스럽게 손님들을 불러들이는 등 강제유객행위를 하지 않아 분위기가 한결 부드럽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흔히 생각하는대로 "값싼 것은 불량 또는 가짜 상품이 아니냐"는 선입감 때문에 간혹 손님들이 "그러면 가짜가 아니냐"고 묻는 데는 딱 질색이라고 판매원들은 원망하는 투다. 이곳 제품은 품질을 각 제품협동조합에서 엄선해서 내놓은 것인데다 규격 표시까지 붙여 놓고 가격도 가격사정위원회(위원장 金法洙씨, 53)가 있어 한 마디로 손님을 속일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도 이처럼 믿으려 들지 않는 것은 타락된 상도덕의 일면을 드러내는 것. 아직 개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이곳 직매장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는 품종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 이것은 앞으로 C,D동(모두 600평, 226점포)이 완전히 개장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관리위 측은 말하고 있다. 둘째로는 소비자들이 직매장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직매장에 참가한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 ▲서울시가구공업협동조합 ▲서울시공예공업협동조합 ▲서울시쉐터공업협동조합 ▲서울시메리야스공업협동조합 ▲한국제낭협동조합 ▲한국운동기구공업협동조합 ▲한국면사공업협동조합		
원천자료	『경향신문』 1971년 11월 13일		

No.	244	작성자	서준석
제목	**남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3-1)**		
이야기	"남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3)" 50년대 초의 여름철 남대문 청과시장에는 1일 최고 20만짝의 복숭아, 토마토, 살구, 자두 등이 입하되었는데 이 입하량은 서울 총입하량의 4/5 정도였다. 이것은 다시 동대문, 불광, 청량리시장 등에 도매로 넘겨졌다. 이처럼 서울의 청과시장을 주름잡았던 남대문청과시장에는 요즘 서울 총입하량의 1/10 정도만 들어오고 있다. 지난 11년간 이곳 D상회에서 청과물만 팔아왔다는 金洙敦씨(46, 남대문시장청과거래인친목회장, 회원 53명)는 청과시장이 이처럼 위축된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의 현대화 바람에 청과물의 거상들이 자리를 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다른 상품보다도 관리하기가 어려운데다 이윤까지 박하고 어떤 변화에도 민감한 반사작용을 일으키는 청과상들의 보수성이 크게 작용했으리라는 풀이이다. 그렇다고 남대문청과시장의 오랜 전통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창고 안에는 수백수천 궤짝의 청과물이 쌓여 있고 어른들의 주먹크기만 한 감, 보통 것보다 2,3배나 되는 크기의 별종 사과들이 진열대에 꽉 차있는가 하면 삼륜차는 궤짝들을 내리고 올려 신느라 분주하다. 이곳의 청과는 품질이 보장된다는 것이 특징. 지방산지에서도 옛날부터 이곳에는 불량상품을 보내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따라서 고객이나 품질이나 모두가 고급이라는 자랑이다. 이러한 특징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손님들의 기호에 맞추어 세워진 전통이고 또 고객들도 고정돼 있어 다른 시장이 감히 침범하기 어려운 권위가 갖추어진 셈이다. 청과시장 앞의 노점들이 사라진 자리는 큰 길에서 곧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자 주차장으로 변해 자가용차가 빈번히 드나드는 것이 이러한 고급손님을 놓치지 않는 장점의 하나로도 꼽히고 있다. 청과시장처럼 오랜 전통으로 그런 대로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진, 건어물시장이다. 5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어물시장에 들어서면 팔딱팔딱 뛰는 생선들을 쉽게 볼 수 있었고 건어물 같은 것은 1-200평의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 시절에 있던 건·진어물상들은 거상이라는 이름을 들었었는데 이들이 60년대 초에 중앙, 동대문시장 등으로 자릴 옮겨가면서 남대문시장의 진·건어물상은 많이 줄어들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71년 11월 15일		

No.	245	작성자	서준석
제목	**남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3-2)**		
이야기	"남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3)" 그러나 이곳에서 어물을 15년간 팔아왔다는 어느 어물상은 "그래도 손님들은 끊기지 않았다"고 장담한다. 단골손님들의 경우 믿고 살 수 있는 시장은 남대문이라는 고정관념이 쉽사리 변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곳 야채시장의 모 상회는 약 70%의 시내 주요 호텔, 병원, 요식업자 등에 야채를 납품하는 豪商으로 건재하고 있고 현대식 건물 속에 자리 잡은 대도마킷 같은 곳에서는 시내 S백화점, M백화점 등에 쉐터 등 옷가지와 양품을 무더기로 공급해주고 있으며 지방 상인들과의 거래도 대단해 전통의 상혼을 자랑하고 있다. 상인들은 세금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게 마련이지만 K상회를 관리하는 李英雨씨(34)는 "물건이 잘 팔릴 때에는 세금이 많이 나와도 참을 수 있었지만 요즘같이 장사가 잘 되지 않을 때의 세금은 더 할 수 없는 괴로움"이라고. 얼마전 평화시장에서 있었던 조세저항의 움직임은 심각했던 것이라는 게 모든 상인들의 공통된 이야기로 이들은 한결같이 당국의 정책적인 배려를 아쉬워하고 있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71년 11월 15일		

No.	246	작성자	서준석
제목	**동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1-1)**		
이야기	"동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1)" 서울 동대문에서 종로4가에 이르는 동대문시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 시장이 펼쳐진 면적에서부터 상품의 양과 종류가 가장 많고 다양하다는 데서도 최대의 칭호를 받고 있는 이곳은 여느 시장처럼 외래품이면 외래품, 어물이나 소채류면 어물이나 소채류 등 그 시장을 대표할 만한 특정상품에 편중되는 일이 없다는 데서 자칫 특색없는 시장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동대문시장에서 살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곳 상인들의 자부처럼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면 온갖 상품이 골고루 갖추어져 국내 최대의 소비품 시장이라는 이 시장의 특색이자 간판을 실감케 한다. 동대문시장의 점포주 수는 4천여. 동대문시장상인연합회(회장 金宗洙, 49)와 직물, 미곡, 어류, 양품, 청과 등 16개의 상인친목단체인 번영회가 구성되어 회원의 권익 보호와 발전, 운영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시장 내부가 분류되기도 한다. 종로4가 쪽이 직물류, 5가 쪽이 일용상품과 양품류, 그 중간 부분이 식품, 미곡, 청과, 어류, 소채류 그리고 5가의 길을 건너 동대문쪽에 철물이나 농기구, 가구 등이 특징적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으며 종로쪽 대로변으로 한약 건재상이 줄을 지어 늘어섰고 청계천 쪽으로는 기성복류가, 동대문-종로6가쪽에는 만화도매상들이 시장 주변을 둘러친 외곽을 이루고 있다.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이곳을 찾는 고객 수는 줄잡아도 하루 20만 명이 넘는다니 다른 시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숫자이다. 하루 중 가장 붐비는 시간은 주부들이 저녁 찬거리를 사러나올 시간인 하오 3시쯤에서 5시 사이로 이 시간에는 동대문시장의 서쪽 입구가 되는 종로4가와 청계천을 잇는 길, 종로5가 쪽에는 늘어선 자가용 등으로 서울에서 가장 교통이 붐비는 곳이 되기도 한다. 고객들은 주로 서민층이라는 게 이곳 상인들의 분석. 이곳까지 오는 교통비만을 접어둔다면 어느 곳보다도 물건 값이 싸고 일용상품과 생필품이 가장 많이 갖추어져 있다는 평범한 이유로 서민 가정의 인기를 모아 이만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71년 11월 22일		

No.	247	작성자	서준석
제목	**동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1-2)**		
이야기	"동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1)" 동대문시장이 이곳에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은 일제 말엽. 소규모의 직물상과 미곡상 정도가 번창하던 당시는 배우개시장으로 통했다.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조시대 성곽의 동쪽문이 있던 이곳은 한양을 찾아드는 상인들의 첫발이 닿는 곳이기에 자연발생적으로 태어난 것이겠지만 동대문시장의 모태는 역시 일제 말엽의 배우개시장. 해방과 6·25동란을 치르고 월남한 이북 출신들이 남쪽에서의 생활 근거를 마련키 위한 무대가 되면서부터 배우개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 1950년대에 동대문시장을 휘잡던 정치깡패 이정재의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오늘의 동대문시장은 기반을 닦아 왔다. 李(이정재)는 배우개시장을 동대문시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동대문시장협회회장 자격으로 군림, 주먹과 금전을 동원해 모든 상인들을 자기 휘하에 집어넣었다. 점포마다 자기 심복을 집어넣었고 말을 듣지 않는 상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세력이 비대해지자 정치적인 배경까지 굳어져 경찰 등 행정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세금이나 점포대도 내지 않고 동대문시장은 한때 그의 왕국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4·19와 5·16을 거치는 동안 李의 잔재가 치워지고 시장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자 새로운 동대문시장연합회가 발족,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제 자유롭게 점포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드센 시장의 텃세 때문인지 신구상인의 교체가 쉽지 않아 지금 상인의 대부분은 이북출신들이고 나머지가 서울토박이라는 상인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동대문시장은 다른 특수시장과는 달리 계절적인 경기 변화가 크지 않지만 추석이나 연말연시 등 전체의 명절 때가 매기의 피크를 이루고 한 달 중에는 봉급일을 전후한 25일경이라는 게 상인들의 이야기로 일반 서민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시장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적인 시장으로서의 청사진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으나 좁은 장소 때문에 소방로마저 제대로 나지 않은 이곳은 기존 시설에 보수만이 이루어지는 정도로 별다른 새 시설이 없다. (李朝淵 기자)		
원천자료	『경향신문』 1971년 11월 22일		

No.	248	작성자	서준석
제목	**동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2-1)**		
이야기	"동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2)" 없는 것이 없는 대신 특출한 상품도 없다는 동대문시장에서 복지만은 대표적인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다. 갖가지 복지를 이처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팔고 있기는 우리나라에서 이곳이 유일한 곳으로 이 복지시장은 같은 동대문시장 안에서도 종로4가 쪽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광장시장과 동도백화점, 대한직물 등을 주축으로 이 일대에 널린 군소시장에서는 주단, 포목, 각종 양복지, 양장지 등이 집중적으로 팔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광장시장으로 불리는 2층 건물의 시장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광장시장은 2층에 주단·포목이, 아래층에 양복, 양장지들이 구분되어 매매되는데 입구에서부터 불과 5-6평씩인 작은 규모의 점포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다. 번호로 점포가 구분되어 있으나 처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곧잘 길을 잃을 만큼 밀집된 이 점포들 중에는 겉모습과는 달리 천만원 대의 비싼 비단류를 산적해 놓은 점포가 상당수에 이른다. 이런 비싼 비단류 등 직물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화기는 절대 금물로 되어 있다. 한동안은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물난로만이 유일한 난방도구로 겨울을 지내기도 했다. 화재에 민감해 불이 나기만 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이기 때문에 당면한 자구책이기는 하지만 엄동설한을 그냥 나기가 힘이 들어 최근에는 일정한 장소에 작은 난로가 허용되고 있다. 이곳 상인들에게 불 다음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포르말린 냄새. 나일론 등 화학섬유의 제작과정에서 들어가는 포르말린이 상품에 그대로 묻어 있어 상인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고객들이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심한 것이 이곳 실정. 이 광장시장이 처음 생겨난 것은 9·28 수복 직후인 1950년. 처음에는 복지시장이 아닌 일용품을 주로 파는 시장으로서 출발했다. 동대문시장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형태를 갖추긴 했지만 현재의 연건평 6천여 평의 2층 건물을 지은 것은 수복 직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서울에 3개 국제시장을 지으라는 지시로 남대문시장과 지금은 없어진 오장동 시장과 함께 지어진 것. 건물이 지어지자 주로 일용품점포들이 들어섰지만 6·25전란으로 피난지인 부산 등지에서 구호품 등으로 나온 복지 등을 팔던 상인들이 차차 2층에 들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복지시장으로 그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71년 11월 23일		

No.	249	작성자	서준석
제목	**동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2-2)**		
이야기	"동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2)" 전란으로 황폐된 서울에서는 이런 옷가지가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되어 복지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지금은 총 1,700개의 점포 중 약 1/3인 600여 개가 복지상으로 상인 수만도 2천 명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지시장이 된 것. 현재는 광장주식회사(사장 金肯桓, 67)를 이루어 각 점포들이 임대형식이 돼 있는데 최근에는 국내 우수한 복지 메이커들이 이곳에 직매점을 설치하고 있어 재래의 영세상들은 타격을 받고 있다. 이곳은 독립적 점포들이 횡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명랑한 분위기를 위해 회사에서 많은 통제를 가하기도 한다. 이 시장 안에는 곳곳에 20여 개의 특수 벨 장치가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상인이 불친절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요구할 때는 "벨을 누르시오. 벨이 울리면 즉시 나가 해결해드립니다"라는 안내표지가 붙어 있다. 벨이 울리면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한 경우는 폐문 조치에서부터 시말서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곳에는 양복을 양복점에 맡기면 비싸니 복지를 사서 가까운 양복점에 맡기면 싸게 지을 수 있다는 서민층의 고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 이를 노린 양복 단추, 지퍼 등 양복 부속상들도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 앉아 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71년 11월 23일		

No.	250	작성자	서준석
제목	**동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3-1)**		
이야기	"동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3)" 동대문시장은 다른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두 개의 독특한 코너를 가지고 있다. 종로6가 쪽에 있는 30여 개의 어린이용 만화도매상과 종로변으로 늘어선 70여 개의 한약방들이 그것. "같은 상품은 한 곳에 모이는 게 유리하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한 곳에 몰려든 것이겠지만 이제는 그런대로 특수영역을 이루었고 제 나름의 발전을 꾀하고 있어 동대문시장의 새로운 명물로 등장하고 있다. 동대문시장의 동쪽 끝에 모여 있는 만화도매상들은 서울의 골목마다 들어차 꼬마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만화가게의 총본산. 현재 우리나라에는 두 개밖에 없다는 어린이용 만화출판사에서 나와 일단 중심지 만화가게로 나갔던 만화책들을 2-3일 후에 다시 사들여 변두리 만화가게에 파는 것이 이곳 상인들의 일이다. 매일 18권씩 나오게 되어 있는 이 만화책의 가격은 권당 80원. 이것이 어린이들에게 대본형식으로 읽히고 2-3일이 지나면 반값도 안 되는 30원씩에 덤핑되는데 이곳 상인들은 이것을 사서 35원씩에 변두리 만화가게로 팔아넘기고 있다. 책마다 발행일자가 명시되고 속편을 기다리는 어린이들은 하루가 멀다고 기다리는 바람에 시간마다 가격의 변동이 있는 특수시장 때문에 장사가 되는 것. 불과 5-6평의 점포에 1만여 권의 만화가 빽빽이 들어찬 이곳에 하루 평균 이렇게 드나드는 책 수는 5-6백권. 임대료를 뺀 시설비만은 1만원 남짓이면 족하다니 영세자본가들에게는 구미가 당기는 업종인지도 모른다. 이들 만화상들이 이곳에 몰려든 것은 그런대로 1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고서적상으로 출발했지만 독서불황의 세태 속에서 찬서리를 맞았으나 그래도 어린이 만화책만은 팔린다는데서 힌트를 얻어 재기한 것이다. 이들은 책의 판매와 함께 2권에 1전 비율로 교환도 해주면서 호경기라는 겨울철을 기다리고 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71년 11월 24일		

No.	251	작성자	서준석
제목	**동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3-2)**		
이야기	"동대문시장의 어제와 오늘(3)" 종로변에 늘어선 한약상들은 엄밀히 따질 때 동대문시장에 소속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시장의 외곽을 이루고 있다는 데서 아무래도 이 시장과 고객을 공유하게 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약상을 찾고 있어 이곳은 외국인을 동대문시장에 유치하는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현재 70여 개의 한약상이 들어서 있는데 업종별로 구분해보면 한의의 처방에 따라 약만을 지어주거나 약재를 도산매하는 한약종상이 20여 군데, 한의가 진찰을 하는 한의원이 30여 군데, 그리고 두 가지를 겸하는 곳이 10여 곳. 그리고 인삼만을 따로 취급하는 곳이 서너 곳 있다. 이곳 상인들은 종래의 판매 방법을 탈피, 포장이나 판매 양식 등을 서구적으로 변형해 제철을 만나면 한 달에 2-300만원의 매상을 올리는 대기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곳은 한약상들이 몰려 있기 때문인지 철따라 약초를 캐 바구니에 담아 오는 시골 아주머니들이 골목마다 진을 치고 있어 한약 특유의 향내와 함께 독특한 시장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 일대에 한약상들이 자리를 잡은 것은 한약계가 한창 기업으로 자랄 무렵인 1910년대이니, 동대문시장과 비슷한 연륜을 자랑하는 셈이다. 당시 서울의 약업 중심지는 지금 을지로 입구인 구리개 부근이었으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차 이곳으로 옮겨진 것. 경쟁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약재를 누가 먼저 잡느냐는 데서 승부가 났다는데 약초의 명산지인 강원도나 관북지방에서 서울에 오자면 첫발이 동대문에 닿게 되어 자연히 이곳 상인들이 번창하게 됐다는 것이 유래로 전해지고 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71년 11월 24일		

No.	252	작성자	서준석
제목	**서울의 깡패 생태**		
이야기	"서울의 깡패 생태" 지난 13일 밤 8시경 시내 종로구에 있는 '땐스홀' 백운장 앞에 정체불명의 괴한 15 · 6명이 나타났다. 이들은 김모 '땐서-'를 찾아달라고 종업원 金忠盛(25)씨와 시비 끝에 들고 있던 쇠망치와 단도로 때리고 찌르고 하여 중상을 입히고 사라졌다. 바로 그 다음날인 14일 밤 시내 충정로 3가 39 앞 노상에 이번에는 '찝'차에 분승한 30여 명의 괴한들이 미제 도끼와 단도를 휘두르며 "죽인다"고 고함 끝에 黃모씨를 때려눕히고 사라졌다. 두 가지 사건에 접한 경찰은 깡패들의 패싸움으로 단정하고 검거에 착수하였다. 조직력을 가진 직업직 깡패들의 소위 '나와바리' 다툼이라고 수사당국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서울의 깡패는 어떠한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었나? 일부 수사당국자와 깡패세계에 정통한 모 소식통에서 얻은 사실을 적어보기로 한다.(孝) 이야기는 지난 5월 어느 날 저녁 백운장에서 모 단체(문화단체)의 모임이 있었던 때부터 시작된다. 이날 백운장에는 소위 명동파의 두목으로 알려지고 있는 李華龍(44)도 있었다. 주연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무렵 종로파의 두목이라는 沈鍾鉉(36=별칭 아오마쓰)이가 백운장에 나타났다. 그는 전기 모 단체의 모씨를 만난 다음 그 사람을 통하여 이화룡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그들은 한참동안 얘기한 다음 굳은 악수를 주고 받았다. 서로 협력할 것에 의견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종로파와 명동파가 합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9월 초의 어느날 시내 효자동 모처에서 화랑동지회(삼우회의 前身)의 모임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소위 동대문파의 柳志光을 비롯해서 서대문파의 최창수 그리고 종로파인 심종현(아오마쓰) 등과 그의 부하들 수십 명이 모였다. 유지광이 출옥한 후의 일이다. 그러자 이화룡(명동파)이 화제에 오르게 되고 동대문파, 서대문파 등은 李의 타도를 부르짖게 되었다. 그러나 아오마쓰는 그런 싸움에 자기는 가담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그런지 약 10일이 지난 13일 백운장 사건이 터져 나온 것이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8년 9월 21일		

No.	253	작성자	서준석
제목	**서울의 깡패 생태- 이정재와 동대문시장(1)**		
이야기	“서울의 깡패 생태” 화랑동지회 측에서는 가장 믿었던 동지의 배반에 분격하여 마침내 아오마쓰의 세력권 파괴에 들고 일어난 것이다. 도전을 받은 아오마쓰는 명동파의 이화룡을 만나 응원을 청했다. 14일 밤 30여 명의 명동파, 종로파 깡패들은 보복차 충정로 3가(서대문구)를 습격하고 서대문파의 일당인 李在寬을 구타할 셈이었으나 李를 못 만난 채 그의 부하를 구타하고 온 것이다. 깡패들의 패싸움이 본격화될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 경찰은 깡패의 조직체를 6개 내지 7개로 보고 있다. 2,30명으로부터 100여 명의 깡패들이 두목 밑에서 직업적으로 행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극장, 땐스홀, 캬바레, 시장, 스탠드빠 등의 유흥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경비원 겸 수표원 노릇을 하며 보수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서울의 깡패를 크게 나누어서 동대문파와 명동파의 2개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 둘만이 세력다운 세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밖의 깡패들은 사실상 동대문파가 아니면 명동파 쪽에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파별로 적어보기로 한다. 동대문파 종로4가를 중심으로 하여 동대문시장을 포함한 근처 일대에 세력을 잡고 있다. 이들의 인원수는 약 1백명 가량이라고 하는데 표면상의 두목은 유지광이며 수일 전에 검거된 權주赫 등의 부하가 있다. 이들의 세력은 현재 확고부동하여 종로파(아오마쓰), 서대문파, 소공동파, 세종로파, 을지로4가파 등을 총망라하여 화랑동지회를 조직해놓고 있으며 명동파와 대결하고 있다.(도중 종로파는 전기 이유로 사실상 이탈하였다) 모 당 당원인 李모씨도 이들과 끊지 못할 인연이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을 비호하고 있으나 표면상의 행동을 언제나 회피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柳는 사변 전에 단국대학에 재학, 그 후 군에 입대 육군 중위로 있다가 2년 전에 제대하였으며 앞서 장충단집회 방해사건과 상해죄로 복역하고 얼마 전에 출감하였는데 전기 李모씨와는 한 고향 출신이며 친척간이라고 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8년 9월 21일		

No.	254	작성자	서준석
제목	**“서울의 깡패 생태”- 이정재와 동대문시장(2)**		
이야기	“서울의 깡패 생태” 명동파 명동 일대를 중심으로 남대문시장과 대한극장, 명보극장까지를 세력권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1백여 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목은 이화룡이다. 한때는 왕년의 두목 정팔과는 물론 소공동파인 홍영철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어 동대문파에 대결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홍은 모종 사건으로 싸운 후 이탈하였고 정팔은 이 세계에서 완전히 발을 씻고 현재 원주에서 군납관계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화룡은 평양출신으로 군정시대에 西淸 감찰부장과 제주도 공비토벌에 종사하다가 명동에 거처를 둔 후로 오늘의 세력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대부분 이북출신이고 西淸 시대 이후 각 기관에 들어간 자들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수일 전 이화룡이가 검거되어 다소 동요의 기색을 보이고 있는데 보복을 주장하는 측도 있다고 한다. 종로파 종로1가를 중심으로 백운장, 화신일대, 우미관, 세기극장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고 약 7,80명이 있다. 본시는 동대문파에 예속되고 있었으나 세력이 팽창됨에 따라 독립세력을 이루워 현재는 화랑동지회에서 이탈하고 명동파와 손을 잡았다. 두목인 심종현(아오마쓰)이가 동대문파에 반기를 들게 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나와바리의 일부를 서대문파, 동대문파에서 할거해줄 것을 거절하여 험악해진 것과 또한 우미관 주인이 이화룡의 조카사위인 점에서 명동파에 접근할 수 있는 일련의 정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심은 사변 때 중앙극장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고 대한청년단 감찰대원이었다. 서대문파 모 극장 경리주임 최창수가 두목격이고 아현동, 영천 일대와 세종로까지도 그 세력권 내에 들어가고 있다. 화랑동지회에 속하고 있으며 동대문파와 합작하고 있다. 을지로 4가 근처에서 세력을 갖고 있는 이재관도 이곳에 속하고 있으며 5,60명 정도라고 한다. 崔는 서울출신으로 과거 권투선수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8년 9월 21일		

No.	255	작성자	서준석
제목	**“서울의 깡패 생태”- 이정재와 동대문시장(3)**		
이야기	“서울의 깡패 생태” 소공동파 ‘건설실업협회’라는 간판 아래 홍영철을 중심으로 약 30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명동파에 가까운 측이었는데 명동극장의 어깨를 홍의 부하가 구타한 사건 이후로 명동파에서 이탈하였고 현재는 화랑동지회에 가입하고 말았다. 홍은 서울시내의 일류중학교인 K중학과 Y대학 출신으로 그들은 비교적 인테리층으로 구성된 것을 자랑하기도 한다. ×× 그밖에 세종로파, 을지로4가파 등 군소조직이 있으나 그들은 전기 5개파에 실질상 예속되고 있는 것이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8년 9월 21일		

No.	256	작성자	서준석
제목	**평화시장 상우회에 모종 알력?**		
이야기	“평화시장 상우회에 모종 알력?” 9일 서울지검에서는 시내 을지로 6가 평화시장 상우회 평의원 林有根 씨 외 24명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를 접수, 인권의 중대한 인권의 침해로 보고 탐사에 착수하였다. 이 진정서에 의하면 동대문시장 깡패로 알려진 李天一, 李鍾玉, 金吉鏞 등은 지난 10월 경부터 평화시장 상우회의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종로5가 평화다방에 본거를 두고 진정인들을 한사람씩 한사람씩 충신동 소재 대동루로 유인 혹은 납치하다가 현 상우회장 朴漢福 씨를 불신임하고 전기 김길용을 상우회장으로 추대하라고 5,6시간씩이나 협박, 공갈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우기 전기 李 등은 지난 11월 9일 현 평의회 부의장 임유근씨를 충남상회 앞에서 시내 모처로 납치한 후 갖은 협박 끝에 김길용의 회장추대서에 강제 날인케 했다는 것이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8년 12월 10일		

No.	257	작성자	서준석
제목	**이정재 왕국 축출**		
이야기	"이정재 왕국 축출" 서울동대문시장 번영회에서는 7일 하오 연례총회를 갖고 번영회 역**원개선**(회장 朴致文)을 하는 한편 앞으로는 과거 李丁載 일파에 의하여 조종되어 왔던 상인연합회 및 납세조합과 결별하고 각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번영회에 관계하고 있는 동대문시장 내의 일 상인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제까지는 이정재 일파가 실권을 쥐고 있었던 상인연합회와 납세조합은 선량한 상인들을 중간착취하는 기관으로 존재하여 왔었는데 특히 상인연합회는 ▲하루 한 점포에 대하여 청소비라는 명목으로 100환 이상 천여 환까지를 징수하여 한달에 천여 만 환씩을 상인들로부터 착취하여 왔으며 ▲납세조합은 전세액(이는 세무서에서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매월 약 5,000만 환으로 추산된다고 한다)의 7부를 징수수당 비슷하게 얻어먹고 있었을 뿐 아니라 ▲노점상에게서는 公路인 도로 4방 넉자(四尺) 넓이의 면적에 25만환씩의 권리금까지 받아 착복하였다고 하는데 더욱 웃지 못할 일은 동대문시장 내에 이정재 왕국을 건설하여 입법, 사법, 행정의 3부 기관을 두고 시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이정재 일파가 자치적으로 처리하여 옴으로써 상인들에게 필요 이상의 출혈과 공포를 강요하여 왔던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동대문시장 상인들은 앞으로 이러한 중간착취기관에서 일제히 손을 끊고 상인 스스로에 의한 번영회만을 유지하기로 결의한 것이라고 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0년 5월 9일		

No.	258	작성자	서준석
제목	**혁명전후 (3) 깡패(1)**		
이야기	"혁명전후 (3) 깡패" 카포네의 후예들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잠시 옴추러 들었을 뿐이다. 거리에서 깡패들이 주워 먹던 공짜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결코 안심하지 않는다. 사회의 저류에 흐르는 깡패들의 주먹은 아직도 기분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중잡지에나 나올 이야기 같지만 이런 실화가 있다. P라는 여자, P는 나이트클럽의 싱거였다. 뭇 남자들이 그에게 추파를 던졌지만 P는 그가 노래 부르고 있는 클럽의 문지기-속칭 깡패에게 점령되고 말았다. 주먹의 협박 앞에 굴복한 것이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 얼핏 듣기엔 상식 이하의 말이지만 그 세계에서는 능히 통할 수 있는 위협이다. 애정없는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 후 P는 밤마다 돈을 벌어서는 남편에게 가져가야 한다. 안 그러면 얻어맞기 때문이다. 남편의 감시는 심하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야단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단 점령된 이상 쉽사리 헤어질 수도 없다. 그와 헤어지는 날이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남편을 박차고 나왔다 직장을 옮긴다고 하지만 옮길 수가 없다. 남편의 暴力線은 바로 그 직장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할 수가 없다. 이도저도 못하는데 아직도 흡혈귀와 같은 깡패 남편에게 매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날의 폭력 실태의 일부면을 나타내는 아주 조그마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폭력정치 10여 년 간 깡패와 폭력배들이 끼지 않은 곳이 과연 있었던가. 이른바 정치인들이 깡패를 움직여야만 정치를 해나갈 수 있었던 세상이었다. 아니 깡패들이 정치를 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었던 세상이었다. 정치인들 밑에 매달려 하수인 노릇을 해가면서 정권 연장을 위한 지표를 만들어주던 폭력배들의 난장판이었다. 정치인들은 깡패들을 힘으로 삼고 깡패들은 정치인들을 빽으로 삼아 폭력만능시대였던 李정권 하였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60년 6월 14일		

No.	259	작성자	서준석
제목	**혁명전후 (3) 깡패(2)**		
이야기	"혁명전후 (3) 깡패" 그러기에 가설극장 문지기 출신의 깡패가 정계요인과 줄이 닿았다는 것이 이유가 돼서 문교부장관이 될 번도 했고 무식한 그 청년 밑에 이름난 학자며, 소설가, 극작가, 영화인들이 굽실거리는 쓸개빠진 아부의 족속들이 생겨났었다. 뿐인가 씨름군 출신의 깡패가 수억 환의 재산을 얻어 무슨 회사 사장의 감투를 쓰기도 했다. 이것은 모두 깡패들이 정치에 이용당하는 댓가였다. 반대당을 때려부수는데 크게 힘을 쓴 깡패들, 그들이 아무리 범법행위를 해도 경찰은 손도 못 대고 쩔쩔매는가 하면 그들은 "잘못 다쳤다"는 까닭으로 모가지가 달아나는 경찰관이 수두룩했던 것도 엊그제의 일이었다. 그것은 또 약과다. 깡패 두목이 영화배우를 때려 갈빗대를 부러뜨렸다. 전치 3개월이나 되는 부상이었다. 보통사람 같으면 징역을 단단히 살 범죄다. 그러나 당국은 전치 2주일의 피해로 보고 그 깡패를 곧 석방해버리고 말았다. 분노를 샀던 일이다. 아무리 '깡패단속 폭력배 색출'해봤자 하나도 소용이 없었던 일이었고 그들의 세상이었던 지난날 불법행위의 만능은 언제고 간에 불법행위로 망한다. 마찬가지로 폭력은 폭력에 의해 망했다. 4월 18일 천일백화점 앞에서 고대 학생데모에 깡패들이 난입했기에 4.19가 있었다는 말도 있다. 혁명. 깡패들의 보스가 감옥에 갇혔다. 세상은 달라졌다. 폭력을 이용해야만 정치를 하던 세상은 물러갔다. 정치인이 된 보스를 믿고 마냥 활개치던 폭력배들은 믿을 곳이 없어졌다. 옛날처럼 경찰이 그들에게 쩔쩔매지도 않는다. 약간 얌전해질 수밖에 없다. 예전같이 캬바레나 빠 같은 곳에서 공짜 술을 마시며 난동하던 버릇은 없어졌다. 깡패들끼리의 구역다툼도 주춤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다. 구멍가게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점, 양품점, 술집, 캬바레 심지어는 통행인들로부터 돈을 긁어먹던 깡패들은 보스들이 감옥에 갇히자 황급히 고개를 숙였을 뿐 폭력과 완전히 결별을 고했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옴츠러 들었을 뿐이다. 신생공화국에서 해야할 일은 폭력배들의 뿌리를 뽑는 일이 남아 있다. 金泰運 記		
원천자료	『경향신문』 1960년 6월 14일		

No.	260	작성자	서준석
제목	**4.19의 음지 (3) 이정재왕국(1)**		
이야기	"4.19의 음지 (3) 이정재왕국" 종로4가에서 6가 오간수다리까지에 이르는 7만여 평의 대지 우에 펼쳐진 무려 2,900점포를 헤아리는 동대문시장은 12,000명의 상인을 갖고 옆으로는 그 범위가 청계천 넘어 깡통시장에까지 뻗치고 있다. 이 광대한 지역의 세력과 잇권을 한 손아귀에 쥐고 종횡무진 폭력 앞에 법을 무색케 하던 李丁載의 위력 밑에서 서식하며 날뛰던 부하들도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 그늘 밑을 찾아 먼발치로 시장주변을 떠돌고 있을 뿐이다. "어림도 없죠. 인제는 그림자 하나 얼씬도 못합니다" 들어설 틈바구니도 없이 와글거리는 시장내를 휘 둘러보며 감개무량한 듯이 말하는 상인회 모 간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웃음이 가득 넘치고 있다. 한때는 1억5천만 환짜리 저택에서 거드럭거리던 이정재도 돌이켜보면 불과 10여년 전만 하드라도 일개 씨름꾼으로써 처가살이로 빙빙 떠돌아나던 하찮은 신세였다. 그러던 것이 대한청년단 종로구 동부단장직에 오르면서 그는 광대한 잇권이 굴러다니는 시장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 당시 커다란 점포와 상인들간에 영향력을 갖고 있던 曺烈承(고대 데모대 테로사건으로 재구속중), 車錫俊 두 명을 포섭코 친목이란 미명 아래 일종의 폭력단인 가족회란 기본조직망을 만들었다. 그리고 6.25때 파괴된 시장의 중심지 부근의 일대의 공지 3,000여 평의 권리를 광장주식회사로부터 강점하여 점포를 지어주고 상인들에게 입주시키는 한편 모두 이들을 가족회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처럼 조직이 확대되자 7형제패를 구성, 비밀리에 배후조종을 전개하며 기성 상인단체와 간부들을 부하들로 하여금 공갈, 협박케 하여 거세하는 한편 '동대문시장상인연합회 회장', '청계상우회 회장' 직을 무난히 강취하고 '동대문시장납세조합'까지 만들어 회장직에 올랐다. 우두머리로서 군림한 다음 그는 우선 상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하여 부하들의 일체의 폭력을 삼가게 하고 과거 쫄맹이들이 상인들을 협박, 공갈하여 금품을 편취하던 폐단을 일소하였다. 민심은 자연 그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상인들의 애로가 있으면 그것을 타개해주고 돌보아주었다. 결코 한번도 상인들의 원망을 사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상인들을 등치고 이익을 착취하는데 있어 결코 밖으로는 눈에 뜨이지 않는 묘책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0년 11월 8일		

No.	261	작성자	서준석
제목	**“4.19의 음지 (3) 이정재왕국(2)**		
이야기	“4.19의 음지 (3) 이정재왕국” 광장주식회사에서 점포를 지을 때 평당 불과 5만환 내지 7만환이란 헐값으로 권리를 얻어 상인들에게는 삼만환 내지 5만환에 양도, 어마어마한 폭리를 올렸으나 상인들은 그 내막을 알지도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장 내의 전기, 전화 관계에 부하 林모를 사장직에 내세우고 자가발전을 구실삼아 백촉 1등에 관영요금 3백여 환에 불과한 것을 무려 2천환에서 2,500환을 거출케 하고 구내전화기 일대에 교환을 빙자로 7천환을 부과, 막대한 이익금을 송두리째 집어삼켰다. 그러나 내막을 모르는 이상 죽일놈은 직접 사장인 임모지 이정재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 비상한 수완엔 맞설 수가 없죠. 우리같은 건 엄두도 못냅니다.” 비교적 시장 내에서 발이 넓다는 한 점포주는 이렇게 말하며 혀를 내두른다. 이정재씨에는 시장회비 1일 1급 2백환에서 최하가 50환, 지금은 그 반절에서부터 더 이하인 1백환에서 20환까지라 한다. 자기의 이름은 더럽히지 않고 부하의 이름을 팔아 거액의 잇권을 잡은 李는 광장직물 입구에 시가 1억대에 달하는 3층 건물을 짓고 옥상에 청년도장을 설치, 부하를 육성하는 한편 그 분포세력은 경마장까지 미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세력과 조직을 배경으로 李는 자유당정권과 접선, 마침내 그의 세력은 정치계에 미쳐졌다. 특수협박, 감금, 제3세력 거세를 위한 살인교사 등 한때는 이천에 민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이기붕에게 양보도 하고 완전히 정치적 폭력배화한 李는 결국 오늘에 이르러 영어의 몸이 되고 만 것이다. “10월 징역에 2년 執豫 판결이 내렸을 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아습죠.” 첫 판결을 들었을 때 또 다시 李의 폭력세력이 대두될 것 같아 사뭇 공포에 떨었다고 상인들은 하나같이 말하고 있다. 연지동 호화롭던 저택은 4.19때 형체도 없이 부서져 지금도 윤곽만이 앙상하다. 李의 첩이 밑에 방을 하나 간신히 꾸려 살고 있었으나 동리의 눈총이 두려웠음인지 삼선교 어디론가 달포 만에 자최를 감추었다 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0년 11월 8일		

No.	262	작성자	서준석
제목	**“4.19의 음지 (3) 이정재왕국(3)**		
이야기	“4.19의 음지 (3) 이정재왕국” 지금은 李의 세력에 밀려났던 과거의 간부들이 다시 시장에 복귀, 동대문시장상인연합회, 청계상우회를 꾸려가고 있으며 각 부문별로 자치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어느 개인을 위한 폭력조직이나 잇권 독점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민주적 방침을 따라 오직 상호이권을 기조로 한 번영에만 모두 힘을 합할 것이라고 동 간부들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0년 11월 8일		

No.	263	작성자	서준석
제목	**동대문시장에 42개 점포 소유**		
이야기	"동대문시장에 42개 점포 소유" 부정축재자들의 각종 세금, 탈세를 예의 조사 중에 있던 서울사세청에서는 28일 하오 동대문시장 안에 있는 42개의 점포가 李丁載의 소유라는 것이 판명되어 200만 환의 부동산 소득세를 과세하여 즉일 징수하였다고 한다. 이는 시장 책임자로 있음을 기화로 점유한 점포들이라는 것이 상인들에 의하여 밝혀진 것이라고 하며 그간 동 점포는 매월 10만 환씩의 월세로 상인들에 제공하여 상당한 불로소득을 취득해 온 것이라고 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0년 7월 29일		

No.	264	작성자	서준석
제목	**깡패와 경찰 (1-1)**		
이야기	"깡패와 경찰 (1)" '깡패'란 이름의 인간기생충 – 이들은 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거리를 주름잡고 갖가지 악의 병균을 전염시키고 있다. 당장 주먹을 휘둘러 입에 풀칠을 하는 똘마니로부터 강력한 조직과 세력과 권위(?)를 무기삼아 상가와 유흥가를 휘어잡고 때로는 정치적인 세력과도 영합하는 하이클래스(?)에 이르기까지 이들 깡패족속은 완전히 한국의 법외지대에서 살고 있다. 자유당 때도 그랬지만 지금에 있어서도 당국은 툭하면 폭력배를 일소합네 하고 이들의 계보와 세력권을 줄잡아 그물을 쳐보지만 걸려드는 건 송사리뿐 큰 놈은 여전히 꼬리를 치며 돌아다니는 현실이다. 이렇게 이들 주먹의 왕국이 번성(?)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가 가난하고 혼란하기 때문임은 다시 말 할 나위도 없지만 ▲불순한 정치세력이나 사회단체가 이들을 이용하려 하고 경찰이 이들과 여러 가지 연관성을 맺어 봐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보복이 두렵거나 그들끼리의 의리(?) 때문에 그들의 행패는 쉽사리 근절될 수가 없는 것이다. 깡패 중에서도 하이클래스인 직업깡패들은 바로 정치세력 및 경찰과 직통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자유당 치하에서는 이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호화로운 깡패왕국들이 생겨났고 정치깡패라는 귀족(?)들도 등장하게 되었다. 동대문시장을 영토(?)로 자유당의 친위대 노릇을 하던 이정재, 연예계를 휘어잡고 영화인들을 노예처럼 취급하던 林和秀 등 모두가 그런 것이었다. 치안국 경제계장까지 지냈던 전직 총경이 경찰을 그만둔 후 왕년의 깡패 보스의 부하가 되었다면 좀 믿어지지 않지만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다 잘 봐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몇 년 전 이야기지만 어느날 새벽 1시경 명동에서는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중부서 형사대가 총동원되어 무장을 하고 긴급출동을 하였다. 이정재의 부하깡패들과 명동파 깡패들이 각각 찝차를 타고 와서 서로 맞서 권총과 단도를 휘두르며 결전태세를 벌이고 있었다. 원인은 이정재파가 명동의 관할권을 침범하려 들었기 때문. 이들이 충돌하는 날에는 엄청난 사상자가 생길 판국이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1년 4월 6일		

No.	265	작성자	서준석
제목	**깡패와 경찰 (1-2)**		
이야기	"깡패와 경찰 (1)" 그래서 당시 중부서 수사계장이었던 L씨는 파랗게 질렸다. 경찰관으로서 사고를 예방하고 충돌이 생기면 관계자를 잡아넣어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은 명동파의 두목 이 모씨와는 각별한 처지였다. 李씨는 수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저지르는 대소 사건은 부지기수였고 그때마다 L계장에게 부탁도 해야 했으며 L 계장은 L 계장대로 李씨의 세력과 조직을 이용하여 명동의 질서유지와 각종 수사에 도움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李丁載는 자유당과 손을 잡고 위세가 대단했으나, 이 씨는 별달리 정치적인 배후세력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충돌하는 경우 이 씨가 불리할 것은 뻔한 것이었다. 그래서 L 수사계장은 이 씨를 만나 어떻게든 충돌은 피하도록 간청을 하는 한편 이정재에게 친히 아는 사람을 보내어 "만일 피를 보게 되면 앞으로 당신의 세력 발전에 지장이 많을 것"이라고 담판을 지어 충돌은 겨우 면할 수 있었다. 이런 일 등으로 L 수사계장은 이 씨와 더욱 가깝게 되어 4 · 19 이후 경찰을 물러나자 전기 이 씨가 경영하는 H영화사의 전무취체역으로 들어앉게 되었다. "의리를 존중한다"는 깡패 세계의 논공행상이라고나 할까? 이래서 툭하면 외치는 깡패 단속도 구호에 그치고 만다. 정치깡패는 정치적인 압력으로, 직업깡패는 그 보스와 경찰과의 내통(?)으로 – 그러다보면 불쌍한 것은 아무 빽도 없는 조무래기 깡패들이다. 이들만이 늘 단속대상이 되어 무더기로 잡혀 와서는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이러한 일은 4 · 19 이후에도 매한가지다. 지난 달 27일 밤에도 명동의 소년깡패인 마사오파 67명이 중부서에 걸려들어 35명이 구류처분을 받고 나머지 32명은 훈방된 일이 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1년 4월 6일		

No.	266	작성자	서준석
제목	**깡패와 경찰 (2-1)**		
이야기	"깡패와 경찰 (2)" 지난달 22일에도 경찰은 시내 일원에 걸친 깡패들의 계보와 세력권 분포도라는 것을 일제히 작성했다. 서울시내의 가장 대표적인 깡패들의 집산지 명동 일대에만도 무려 50여 명의 직업깡패가 우글거리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 직업깡패 한 사람 앞에 쪼무래기 10여 명씩이 따르고 있다는 경찰 통계고 보면 도심지의 깡패 총수는 모두 500여 명을 헤아릴 수 있는 셈이다. 이들 보스는 모두가 자유당 때로부터의 주먹의 왕자들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깊고 조직과 세력이 강한 것이 여섯 개 있다. ▲명동 빠 골목을 중심으로 충무로 일대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명동파 ▲동화백화점 부근을 무대로 남대문까지 세력이 진출되고 있는 남대문파 ▲仁峴시장의 명물인 무허가술집을 중심한 텍사스파 ▲을지로6가 鷄林극장을 무대로 줄을 치고 있는 계림파 ▲을지로2가와 3가를 발판으로 주로 상인을 위협하는 을지로파 ▲이외에 충무로1가를 중심한 충무로파 – 이런 것들이다. 작년 가을 어느 날 명동 시공관과 성당 부근에서는 연이틀 밤을 계속해서 때아닌 서부활극이 벌어졌다. 돌멩이가 날고 몽둥이가 날고 -행인 수명이 머리가 터지고 몽둥이세례를 받는가 하면 노점상들은 물건을 거둬들일 틈도 없이 도망을 치고 다방은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사람들은 아무 집이고 뛰어들고- 이러한 쇼는 약 1시간 가량 계속되었다. 소위 명동파(메기파)와 을지로파(신상사파)가 얼마전 부하들끼리 약간의 충돌이 있은 데 대한 복수전을 하느라고 2,30명씩 떼를 지어 소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이 일이 있은지 48시간이 지났으나 명동파출소에서는 시공관 부근의 불상사만 본서에 보고했을 뿐 성당 부근에서 일어났던 쇼는 그저 묵살, 본서에서는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가하면 본서 수사계 H 형사주임(지금은 S서 수사계장)은 시공관 부근에서 일어났던 난투극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도 사건 수사는 물론 단 1명의 용의자도 잡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기자들의 빗발 같은 항의를 받자 H 주임 왈, "모두 도망을 가버리고 없습니다. 아무나 잡아들일 수도 없고…모두들 자기는 현장에 없었다고 하니…"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1년 4월 9일		

No.	267	작성자	서준석
제목	**깡패와 경찰 (2-2)**		
이야기	"깡패와 경찰 (2)" 이렇게 구렁이 담 넘는 듯한 수사를 하고만 있더니 얼마 후 양쪽 파 조무래기 몇을 잡아왔다. 기자들이 우루루 몰려갔다. 그러나 형사실 문 앞에서 기자들은 금족령을 당하고 말았다. "제발 들어오지 말아주시오…저애들이 기자들이 오면 당초 말을 안하니… 좀 봐주시오" 울다시피 간청을 하는 바람에 기자들은 물러나오고 말았다. 슬쩍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그래도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검거되어 온 피의자들인 깡패들 - 나이래야 겨우 스물 안팎의 조무래기들…이들 앞에서 형사들은 앉아 있고 깡패들은 뻐기고 서서 누가 형사고 누가 피의자인지 모를 것 같은 가관을 이루고 있었다. 며칠 후 이들은 깡패는 깡패이되, "이번 사건의 현장에는 없었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에 회부되기도 하는 우대(?)를 받았다. 이렇게 경찰은 깡패들에 대하여 의외의 호의를 베풀거나 때로는 속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정도로 아부(?)를 하기가 일수다. 깡패들은 형사를 '쟈브'라고 부르며 멸시(?)한다. 특히 파출소 순경들…때로는 본서 강력반 형사들까지도 깡패들의 기생충(?)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돈 한 푼…술 한 잔…한 달에 2,3만 환꼴의 박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상가와 유흥가를 쥐고 흔드는 깡패들의 신세를 지다보면 반대로 그들의 잘못을 눈감아주지 않을 수도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깡패들은 쟈브를 무서워하지 않고 파출소 코앞에서 난투극을 벌이고 경찰에 연행되어 와서도 융숭한(?) 대접을 받게 마련인지 모른다. '경찰은 깡패에게 아부한다'는 에피소드 하나- 얼마 전 어느 날 밤 명동파출소 P주임은 깡패들을 봉을 잡아 빠에서 진탕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때 평소 P주임과 친히 아는 모 회사의 L씨가 이곳을 지나가다 사소한 일로 깡패들과 시비가 붙었다. 깡패들은 떼를 지어 L씨를 포위하여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렸다. 원래 얌전한 L씨는 대항하려고도 하지 않고 은근히 P주임의 구원을 바랬다. 그러나 P주임은 "뻐기지 마…네가 뭐야…제일이야?" 하고 오히려 깡패들과 부화뇌동, L씨를 욕하는 것이었다. 얼마 후 이 사실을 안 L 서장은 당장 P 주임을 좌천시키고 말았다. 깡패들의 술 한 잔에 스타일 구긴 것이라고나 할까?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1년 4월 9일		

No.	268	작성자	서준석
제목	**깡패와 경찰 (3-1)**		
이야기	"깡패와 경찰 (3)" 이들 깡패세계의 행패는 너무나도 크다. 우리나라의 명물은 깡패와 데모라고 할 정도…. 구정권의 주먹 노릇을 하던 깡패들이 4 · 19 이후에도 여전히 조직과 관할권을 재정비하여 건재하는 동안 서울의 치안은 암흑의 거리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경찰은 경찰대로 어느 의미로는 굽실거리지 않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자유당 때로부터 내려오는 직업깡패들…그중에서도 특히 보스들은 캬바레나 극장의 수표주임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졸개들은 경비원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외형으로만 본다면 그래도 모두가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들은 법보다 주먹을 앞세우고 뒷구멍으로는 주먹을 무기로 상가에 깊이 뿌리를 박고 한 달에 얼마씩 텃세(?)를 받아가는 공갈 족속들인 것이다. 만일 이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날이면 장사는 끝장이다. 할 일 없이 몰려와서 자리를 점령하고 고성방담-툭하면 때리고 부수고-경찰에 잡혀가도 며칠 후면 다시 어슬렁어슬렁 나타나며 무자비한 보복을 하는 데에는 "울면서 겨자먹기"…그저 달라는 대로 바치는 도리밖에 없다. 이와 반면 10대의 신흥깡패들은 조직과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주로 노점상이나 다방, 빠 등을 돌아다니는 담배장수, 껌장수, 과일장수 소년들의 등을 치고 산다. 자그만치 한 달에 2만환 내지 5만환씩 착취를 한다. '이찌로', '따라지', '또치', '겐짱', '닥교', '소대가리', '토니', '사카스' 등등 괴괴망칙한 별명들을 가지고 설치는 것은 이들이다. 이들이 주로 단속대상이 되지만 이들은 주로 쟈브(형사)들에게 수사상 정보를 제공하는 앞잡이로서 한 몫 보기도 한다. 국물과 이용가치 또는 그들의 배후에 있는 빽 때문에 경찰이 깡패들에게 무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 개개인이 자기들은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각과 긍지의 결핍이다. 자유당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밤 중부서 정보계 근무인 K형사가 'L.C.I' 땐스홀에 들렀다. 마침 당시에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위세의 柳志光이가 부하들을 대동하고 얼큰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평소 柳를 잘 아는 K형사는 "어…재미좋군…"하고 한 손을 들고 柳에게 알은 체를 했다. 그러자 柳가 발칵 화를 내며 "뭐? 이자식… 쟈브 따위가…"하고 덤벼들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1년 4월 11일		

No.	269	작성자	서준석
제목	**깡패와 경찰 (3-2)**		
이야기	"깡패와 경찰 (3)" 부하들 앞에서 멸시를 당했다고 생각해서였다. 다음 순간 K형사는 柳를 번쩍 들어 머리 위로 치켜들고 내동댕이치려고 했다. 柳는 다급히 소리쳤다. "형님 실수했습니다…" 완전히 스타일 구기고 말았다. K형사는 시내 K대학을 졸업한 유명한 역도, 레슬링 선수였다. 이후부터 柳는 K형사만 보면 "형님, 형님"하며 굽실거렸다. 경찰은 이러한 자부심과 자주성이 절대 필요할 것이다. 경찰은 깡패나 히라이꾼(넝마주이)을 평소 봐주는 덕을 크게 볼 때가 많다. 얼마 전 동대문에서 일어났던 '아벡크' '땐서'권총살해미수사건의 갖가지 정보는 주로 깡패들로부터 얻은 것이 많았고 6촌 오빠를 간첩으로 이용하여 '현금 4백만 환'을 내라고 한 사건에 있어서도 히라이꾼들에게 술을 사 먹여가며 잠복근무를 시켜 범인을 잡게 되었으며 독일인 남편 살해미수범 田 鎭淑(34)을 체포할 때에도 히라이꾼을 동원하여 용산구 서빙고동 일대를 뒤져 그의 은신처를 알아내었던 것이다. 이런 것에 구미를 붙여 경찰은 서로 다투어가며 그들을 정보원으로 이용하게 되고 깡패들은 깡패대로 경찰을 '형님, 형님'이라고 부르며 따르기도 하는 것이다. 수사비 한 푼 없는 사건수사에 있어서 별 수 없는 노릇이라고나 할까? 그러고 보면 범죄(깡패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범죄를 캐어낸다는 아이러니컬한 현실이 깡패와 경찰의 일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경찰은 깡패들의 수사나 입건에 있어서 상당히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깡패들은 분명히 어느 의미에 있어서 범죄단체이다. 따라서 이들은 어떤 사건의 피의자와 연관성만 인정되는 경우 언제나 단체구성의 목적, 공갈·폭행·협박 등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대부분의 경우 직접가해자만 처벌하고 만다. 특수폭행 또는 공갈 등으로…. 지난 달 24일 C경찰서에서는 을지로2, 3가를 무대로 한 신상사란 유명한 깡패 외 1명을 붙잡아 와 특이하게도 범죄단체조직 및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관습상(?)으로는 공갈만으로 구속될 것인데…, 알고 보니 모 판사의 특별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신상사는 수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을지로 일대의 기업체에서 매달 2,3만 환씩 텃세를 거둬들였던 것이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1년 4월 11일		

No.	270	작성자	서준석
제목	**깡패와 경찰 (3-3)**		
이야기	"깡패와 경찰 (3)" 지난 6일 하오 민의원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가 제안한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행위(깡패 등의)를 일반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이에 관계하는 경찰의 행정적 책임을 무겁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 제정만으로 문제는 해결될까? 경찰은 지금에 있어서 현행법대로나마 그들을 다스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니 말이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1년 4월 11일		

No.	271	작성자	서준석
제목	**이정재는 동대문시장에 상주하던 상인이 아니었다**		
이야기	“이정재는 동대문시장에 상주하던 상인이 아니었다” 혁명재판 제5심판부는 31일 하오 1시 반 단체적 폭력행위죄로 기소된 피고 李丁載에 대하여 제2회 하오 공판을 열고 전 동대문시장상인연합회 부회장 曺烈承씨를 비롯한 4명의 증언을 들었다. 증인 중 사건 당시 시장에서 점포를 갖고 있었던 申甲順, 金수갑, 李祥根씨 등 상인들은 92년 2월경 그들의 점포를 강제로 빼앗겼으며 피고의 부하들이 가게를 때려부수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조 증인은 92년 6월부터 93년 3월 사이에 이정재에게 7천만 환을 갈취당한 일이 있다고 밝히고 “당시 이 피고의 말은 바로 법률과 같은 것이었기에 거역할 생각조차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증인은 이러한 “이의 행패는 4·19 이후 조금도 고쳐지기는커녕 더 심해져 지난 3월 10일경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멱살을 잡힌 일까지 있고 약 4백만 환 상당을 또 갈취당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현 동대문 상인연합회장 崔東煥씨는 84년에 이 피고가 회장으로 취임한 것은 상주상인이 아니면서도 청년단의 힘을 빌어 부당한 방법으로 그 직을 차지했다고 증언했다. (하략)		
원천자료	『경향신문』 1961년 8월 1일		

No.	272	작성자	서준석
제목	**운명의 17일, 말렌코프 이정재에 사형이 내리던 날**		
이야기	“운명의 17일, 말렌코프 이정재에 사형이 내리던 날” 李丁載(별명 말렌코프)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리던 날(17일), 한 생명의 운명을 다루는 이날의 법정은 ‘죽음에의 길’을 밟는 첫 코스이기도 했다. “판결 주문 - 이정재 피고에게 사형을 언도함” 상오 9시 50분 재판장은 극히 냉철하고 삼엄한 목소리로 선고했다. 이 순간 이정재 피고 뒷자리서 흐느끼던 그의 부인은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엉엉’ 울부짖기 시작했다. 왕년의 깡패대장 李는 빰에 사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야릇한 미소를 짓는 듯하더니 다시 무표정, 그러나 다음 순간 그도 눈시울을 붉혔다. 입술을 더욱 굳게 다문 그는 판결을 끝내고 심판관들이 퇴장하는데도 요지부동, “이게 웬일이냐”라는 듯이 멍하니 서 있었다. “이정재”-“동대문시장의 이정재”-“허다한 시민과 선량한 상인들을 울렸고…”-“전국씨름대회에 3년 연승한 것을 계기로 과대망상증에 걸린…” 별명 말렌코프라는 이 피고는 판결 이유를 읽는 20분간을 줄곧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순간의 廢木처럼 넋이 없었다. 고랑쇠와 오랏줄이 다시 그에게 채워졌다. 법정을 나갈 때 그는 꼭 한 마디 했다. “왜 사진을 못 찍게 해…사진을 찍게 하라!” 카메라맨들을 제지하려는 순경들에게 李는 날카롭게 쏘았다. 그리고 방청인쪽을 보면서 그는 정신나간 사람처럼 웃어제쳤다. 서로 부둥켜안고 우는 여인들, 손수건을 코에다 대고 비틀거리면서 가는 노파들, 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장과 혁재소장, 혁검부장도 이 모습을 보다 얼마 후 퇴장하는 것이었다. 李丁載 피고는 10·8판결 당시 서울지법에서 징역 10월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단 석방되었었으며 공소심인 서울고법에서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61년 8월 17일		

No.	273	작성자	서준석
제목	**이정재를 중심으로 하는 1950년대 서울시내 폭력조직의 계보**		
이야기	“이정재를 중심으로 하는 1950년대 서울시내 폭력조직의 계보” 柳志光은 21일 상오 혁재 제5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李丁載를 수괴로 한 서울시내 폭력조직을 도표로서 제시, 모두 폭로했다. 유는 폭로 진술에서 소위 ‘7인위원회는 부하폭력배들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누가 그 범인이 되어 형무소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까지 결정하는 일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유는 동 폭력조직이 이정재를 최고 수괴로 하여 조열승, 임화수 등이 부두목격으로 그 밑에 있었고 소위 7인위원회와 3인위원회라는 최고 조직이 있어 근 700명이나 되는 서울시내 폭력배들을 손아귀에 넣고 있었다고 말했다. 3인위원회는 이정재와 조열승, 임화수 3명으로 구성되고 7인위원회는 전기 3명 외에 오영환, 고일심, 김양수, 차석환 등이 포함된다. 또 李의 밑에는 참모부와 행동부, 외곽부 등이 있는데, 참모부는 감독반(7인위), 정치반, 사법반, 양성반, 사무반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임화수가 주도한 반공예술인단이 외곽부로 되었었다. 거리에서 직접 주먹을 쓰는 행동부는 서울시내 일원에 10개의 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①종로파(沈鍾賢 외 20명) ②소공동파(洪英喆 외 20명) ③광화문파(張永彬 외 50여 명) ④서대문파(崔昌洙 외 30여 명) ⑤특수부대(李錫載 외 7명) ⑥종로4가파(柳志光, 姜昇一, 朱堯漢 외 50여 명) ⑦경마장파(李景洙 외 50명) ⑧동대문시장파(張世奎 외 50명) ⑨청년도장파(李昌洙 외 300명) ⑩평화극장파(李天一 외 100명) 등이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61년 8월 22일		

No.	274	작성자	서준석
제목	**전후 시장 주변의 풍경(1)**		
이야기	“전후 시장 주변의 풍경” 전란으로 말미암아 부모 형제를 잃고 의지할 곳 없이 떠도는 청소년의 격증과 또한 보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서울 거리에는 날로 격증해가고 있는 현상에 있어 시급한 선도책이 요청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 퍼져 있는 불량청소년의 수와 그 성분 등 그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불량청소년 분포 수=서울시내 불량청소년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아 알 길 없으나 관계당국 추산에 의하면 부랑아까지 합하면 1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그중 품행이 좋지 않거나 범죄우려성 있는 불량청소년은 5백여 명에 달하고 있다 한다. 그리고 그중 약 2백명 가량이 남대문시장 일대와 자유시장, 미군PX 근처 일대 및 명동 뒷골목 등을 무대로 배회하고 있고 약 150명가량이 종로3가 일대의 사창굴과 동대문시장 등을 무대로 하고 있고 기타 150명가량이 마포 및 영등포, 용산, 돈암동 등 각지에 몇 명씩 패를 지어 돌아다니고 있다 한다. 그들의 성분=6·25 전 서울의 거리거리에서 불량을 떨던 그들 중에는 이미 수복 이후 장사꾼으로 전향하였거나 취직 또는 군인으로 출정하는 등 그들의 아름답지 못한 과거를 청산한 자들이 많은데 요즈음 나타나고 있는 시내의 불량청소년이란 의지할 곳 없는 청소년과 보호자의 감독을 벗어난 자 및 불량학생 등이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한다. 생활형태=그들은 대개 무허가하숙이나 밀매음굴에 묻혀 있고 또는 집 아닌 방공호나 허실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들은 돈이 생기면 먹고 없으면 대부분 부정행위를 하고 그 생활은 극히 불규칙한 것이며 때때로 지나치는 행인과 시비를 걸어 구타하거나 여인들을 조롱하고 상점 등에서 행패를 하여 몇 푼의 돈이 생기면 음주를 자행하는 습성도 있고 아직 미성년의 몸인데 불구하고 밀매음굴 출입을 일삼고 있으면서 때로는 공갈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절도, 쓰리에까지 손을 대고야 만다는 것이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4년 11월 27일		

No.	275	작성자	서준석
제목	**전후 시장 주변의 풍경(2)**		
이야기	"전후 시장 주변의 풍경" 방법견지에서의 당국대책=이 방면에 대한 예산이나 있다면 우선 수용소 등을 설치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감화시켜서 직업알선이나 기타 방법으로 생활안정을 시켜준다면 이상적이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렇다고 뚜렷한 범죄 증거를 발견치 않고 그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일이라 한다. 그러므로 경찰로서는 그들의 행패의 조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범법을 적용하여 치안재판에 회부하고 보호자가 있는 자라면 보호자에게 인도하여 책임, 보호케 하고 범죄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할 도리밖엔 별 도리가 없다하는데 시경에서는 이 달 말을 기하여 그 대책을 이행할 것이라 한다. 특히 불량학생들에 대하여는 학교 당국과 연락하여 철저히 단속하게 될 것이라 한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4년 11월 27일		

No.	276	작성자	서준석
제목	**남대문학생깡패단, 범죄단체조직혐의로 구속**		
이야기	"남대문학생깡패단, 범죄단체조직혐의로 구속" 중부서에서는 8일 밤 소위 남대문학생깡패단의 부두목 玄鈺涉(29, 주소 不定), 金東仁(21) 외 4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공범 金浩旭(23) 외 20여 명을 수배하였다. 깡패들에게 범죄단체조직(형법 114조) 조항을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법원 측의 영장발부 여부가 주목된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전기 玄 등은 지난 7월 중순경 安松(29)을 두목으로 하여 소위 남대문깡패단으로부터 분리되어 '남대문학생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 남대문시장 일대 및 수도, 명보극장 부근을 중심으로 행인을 위협 또는 집단폭행함으로써 용돈을 조달하여 왔다고 하는데, 지난 4, 6, 8 사흘 동안 남대문 韓水安 파와 활동장소 쟁탈을 목적으로 양파 약 50여 명이 모였다가 경찰의 사전경계로 해산하였다고 한다. 한편 9일 상오 중부서에서는 소위 남대문시장 깡패단의 두목 韓水安(런던 헬싱키 올림픽대회 권투선수) 및 부두목 元熙周(22)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구속하였다. "남대문깡패단, 지검으로 송청" 중부서에서는 16일 상오 남대문시장 깡패단 두목 한수안(32) 및 원희주(22) 2명과 학생파 현옥섭(29) 외 2명 도합 5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소요죄 혐의로 지검에 송청하였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7년 11월 10일 『경향신문』 1957년 11월 17일		

No.	277	작성자	서준석
제목	**사자파 깡패들, 집단폭행**		
이야기	"사자파 깡패들, 집단폭행" 연일 강력범이 점증하고 있는 요즈음, 4일 밤에는 또다시 시내 소공동 '모감보' 땐스홀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 4일 밤 7시 15분경 시내 소공동 모감보 땐스홀에 세칭 사자파 깡패 30여 명이 몰려들어 동 땐스홀 수표주임 金永煥(30)씨를 집단구타하여 전치 2주일을 요하는 안면타박상을 입혔다고 한다. 그런데 동 폭력사건의 원인은 동 땐스홀에서 전기 사자파에게 의례히 매달 2만 환씩 내고 있던 것을 지난 11월에는 1만 환밖에 내지 않은데서 일어난 분규라고 한다. 한편 중부서에서는 5일 상오 동 폭력사건에 관련된 사자파 깡패들을 수배하였다. "사자패 깡패 지명수배" 한동안 잠잠하던 폭력배 단속이 또 시작되었다. 8일 서울시경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부서에서는 서울시내 사자파의 중견 어깨로 알려져 있는 全 모(36, 제대군인) 외 1명을 구속하고 취조 중에 있다는데 이들은 남대문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어깨들이라고 하며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폭력배 단속을 계속하리라고 한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7년 12월 6일 『동아일보』 1959년 1월 8일		

No.	278	작성자	서준석
제목	**사자파 두목, 지명수배**		
이야기	"사자파 두목, 지명수배" 새해 들어 지난 9일부터 깡패단속을 재개한 경찰에서는 세칭 사자파의 두목인 李永德(별칭 사자)을 공갈, 상해혐의로 구속하고자 수사 중에 있으나 李는 경찰 수사착수에 앞서 행방을 감추어 버렸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李는 작년에 검찰측의 기소중지로 구속을 면했던 것이나 이번 단속을 계기로 재기되어 구속하기로 되었다는 것인데 그는 남대문시장과 미도파 일대를 무대로 하는 깡패들의 두목이며 공갈, 폭행 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한다. "사자파 두목 검거" 서울시내 미도파와 남대문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깡패, 세칭 사자파의 두목 李永德(32)이 마침내 경찰에 검거되었다. 李는 공갈, 상해 등 혐의로 작년 여름부터 경찰에서 수배되어 온 자로 이날 오후 시경 강력계 文 경사에 의하여 시내 모처에서 검거된 것이라고 하는데 서울지검 柳茂馨 검사는 직접 시경에 출장, 李를 심문하였다. 한편 시경에서는 역시 수배 중에 있던 宣石雨(21)를 공갈, 상해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하였다. "사자파 부두목 검거" 깡패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 서울시경 수사과에서는 26일 아침 세칭 사자파의 부두목 朴明鎭(30, 현역 해병, 별칭 번개=경찰 조사)을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하고 군 당국에 이첩하였다. 朴은 이미 송청된 두목 이영덕과 함께 미도파와 남대문시장 부근을 무대로 60여 명의 불량배들을 거느리고 행패를 일삼아 왔다는 것인데 경찰에서는 조직력을 가진 깡패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9년 1월 10일 『동아일보』 1959년 2월 19일 『동아일보』 1959년 2월 26일		

No.	279	작성자	서준석
제목	**사자파 깡패, 댄스홀에서 폭행사건 일으켜**		
이야기	"사자파 깡패, 댄스홀에서 폭행사건 일으켜" 사자파 깡패와 군인이 집단적으로 땐스홀 기도와 상이용사들에게 행패를 부린 사건이 일어났다. 4일 밤 8시 10분경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미도파 내 투완 땐스홀 내에 술에 만취된 사자파 깡패 李仁澤(23)과 군인 2명(성명 미상) 도합 3명이 몰려 들어와 전기 홀의 기도 李錫興(33, 명동2가 21)씨와 상이군인 尹鍾泰씨 등을 무조건 구타하여 李씨는 머리에 길이 5센치의 파열상을 입혀 인근 소공의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깡패와 군인들은 현장에서 중부서에 연행되어 군인들은 헌병대에 인계되어 문초를 받고 있다고 한다. "사자파 깡패 체포" 남대문서에서는 24일 시내 소공동 일대를 무대로 한 사자파 깡패 鄭南煜(24, 북창동 67) 외 1명을 공갈혐의로 검거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수배했다.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작년 6월부터 금년 7월까지사이에 소공동에 있는 쟈이안트 당구장, 東園장(음식점)에서 월 3만 환 내지 5만 환씩 전후 13회에 걸쳐 도합 107만 환을 갈취한 혐의라고 한다. 시내 남대문서에서는 25일 밤 속칭 깡패 사자파의 부하인 朴性哲(25)을 공갈혐의로 체포했다. 朴은 앞서 구속된 鄭南郁(25) 등과 소공동소재 당구장과 빠 등의 주인을 협박, 전후 13회에 걸쳐서 107만 환을 갈취한 혐의라고 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9년 3월 5일 『동아일보』 1960년 8월 25일 『경향신문』 1960년 8월 27일		

No.	280	작성자	서준석
제목	**중부시장 깡패 김춘삼 검거**		
이야기	"중부시장 깡패 김춘삼 검거" 서울지검 수사과에서는 30일 상오 중부시장 깡패두목 金春三을 특수폭행 치상혐의로 구속하였다. 검찰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은 앞서 그의 부하가 성균관대 학생 崔泳同군에게 구타당했음에 분개, 29일 부하 8명을 데리고 학교로 찾아가 수강중인 김 군을 끌어내어 폭행, 전치 2주일의 상해를 입혔다 한다. ▲성동서에서는 30일 상오 黃武龍(39, 연희동 합심원 감찰), 鄭有根(19), 呂斗燮(19) 등 3명을 불법감금 및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4명을 수배 중에 있는데 이들은 지난 27일 밤 7시경 성수동 뚝섬에 놀러갔다가 평소에 잘 아는 金貞子(16, 창신동)양이 깡패들에게 구타당했다는 말을 듣고 이와 관계없는 朴永一(22, 성수동 328), 조수 韓敬眞(19) 2명을 시발택시 3대에 납치, 동대문시장 무허가 하숙집에 끌고 와 그 이튿날 상오 8시까지 13시간이나 감금, 구타하여 각각 전치 2주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한다. (하략)		
원천자료	『경향신문』 1960년 4월 30일		

No.	281	작성자	서준석
제목	**신흥깡패 김춘삼의 등장**		
이야기	"신흥깡패 김춘삼의 등장" 경찰에서는 앞으로 있을 민의원 및 참의원 총선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검찰기동대'를 편성하여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경찰의 무력한 것을 기화로 각종 폭력배가 날뛸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선거 전에 기존 깡패는 물론 새로이 조직을 하려고 꿈틀거리고 있는 金春三 일당의 깡패들을 송두리째 뽑기 위하여 여러 가지 소탕방안을 21일 하오 검토 중에 있다. 이날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는 앞으로 있을 민의원 총선거에서는 종전에 경찰에서 자행하였던 각종 부정을 일부 몰지각한 정객의 사주에 의하여 깡패, 부랑배 등 폭력배들이 독무대를 만들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서울지검 柳茂馨 검사는 서울시경 국장 및 군수사기관에 그 방안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탐문된 바에 의하면 4·19혁명 이후 기존 깡패의 두목으로 알려진 李丁載, 柳志光, 林和秀 등 일당이 검찰에 체포되자 새로이 깡패가 대두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이 신진깡패 두목으로는 해병대 장교를 지낸 金春三으로 보고 있다. 이 김춘삼은 수사기관에서 수차에 걸쳐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 중에 있었으나 현재까지 체포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전기 金은 부하깡패들을 동원하여 수사기관에"나는 부랑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연판장을 보내고 있다. 한편 이 김춘삼을 중심으로 엉킨 신진깡패들은 서울 중부시장을 근거지로 하고 양주, 파주, 대구, 부산 등 전국적으로 그 조직이 퍼지고 있으며 벌써부터 일부 정객들과 합작하여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수주일 전부터 깡패리스트를 비롯하여 폭력배들에 대한 사건 중 기소중지된 사건을 들추어가며 재수사하기 시작하였고 정식으로 이 깡패소탕작전을 세우기 위하여 오는 24일 서울지검 관내 검·군·경 합동회의도 가질 것이라 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0년 6월 22일		

No.	282	작성자	서준석
제목	**신흥깡패 김춘삼(2)**		
이야기	"신흥깡패 김춘삼" (2) 신흥깡패두목 김춘삼을 수사 중에 있는 서울지검 柳茂馨 검사는 28일 상오 시경 강력계 權 모 형사를 직무유기로 입건하는 한편 시경 강력계와 중부서 수사계에 발부한 김춘삼의 구속영장을 회수하여 지검 수사과직원들로 하여금 체포케 하고 전국에 사진수배를 하였다. 검찰이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동기는 전기 권 형사를 비롯하여 일선 형사들이 깡패 소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고 일부 형사들은 오히려 깡패를 두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날 입건된 권 형사는 지난 15일 수배중인 깡패 김춘삼의 거처를 확인한 주우시장 상우회 회장 李翰運씨가 직접 권 형사에게 면접시키고 인사까지 시켰으나 "혼자서는 무서워서 잡을 수 없다"라는 이유 아래 김을 체포치를 않고 도망시킨 것이라 한다. 한편 깡패 金은 검찰에서 자기를 체포하기 위하여 관하 중부서와 시경에 강력한 지시를 하게 되자 양복지 20벌과 현금 100여 만 환을 갖고 도주하였다고 한다. 한편 김은 해병대에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충지대나 군사주둔지에서도 피신할 수 있다고 한다. 전국에 지명수배된 서울의 깡패두목 김춘삼(40)은 수일 전 부산을 거쳐 전남 광주 방면으로 도피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은 부산합심원에 몰래 숨어 있다가 경찰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광주방면으로 갔다는 사실이 부산서 경찰관들에 의해 밝혀졌다. 한편 김은 과거 경찰이 두둔해준 합심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다액의 횡령을 저지른 사실도 나타나고 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0년 6월 29일 『동아일보』 1960년 7월 1일		

No.	283	작성자	서준석
제목	**깡패 김춘삼과 고아원 원장 김춘삼**		
이야기	"깡패 김춘삼과 고아원 원장 김춘삼" 세상엔 이름이 같아서 화를 입는 수가 일쑤인데, 지난날 성수·화양동 운전수 살해사건 때 金斗滿이란 동명이인이 수십명이 되어 그 모두가 일단 수사대상이 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깡패 金春三이 때문에 화를 입은 선량한 김춘삼씨가 있어 화제. 즉 중부시장 일대의 깡패두목으로 온갖 행패를 부리던 김춘삼을 잡으려고 검찰이 관하 서에 강력한 지시를 하자 진짜 깡패 金은 양복 20여 □□, 현금 수백만 환을 갖고 삼십육계를 놓았는데, 그 즈음 부산 합심원 원장인 김춘삼씨가 부산합심원 조직을 마치고 청주에 이르러 그곳에서도 청주합심원을 세우고 마침 상경했다는 것. 그런데 부산 경찰에서는 합심원 원장인 김춘삼씨를 깡패 김춘삼으로 오인하고 서울에 연락을 하게 되어 신문에도 오르내리게 되었다고. 합심원의 김춘삼씨는 전국의 걸인들을 합심원이란 단체를 만들어 자활책을 세워주고 다니는 자선사업가인 상이군인이었다니 억울하기도 하지. "고아원장 김춘삼" 마포서에서는 7일 하오 시내 연희동 합심원(=고아원) 원장 金春三(34)씨를 사기 혐의로 연행, 문초 중이다. 조사에 의하면 김씨는 작년 9월 중순경 아현동 531 郭禹相(39, 청부업)씨에게 미 8군에서 기금이 나온다고 속여 고아원 건물 4동의 신축공사를 착수시킨 후 곽씨가 중도금을 요구하자 남의 돈을 돌려준다고 그 교제비조로 30만 환을 받고 무거래수표를 교부하여 그 돈을 사취하는 등 도합 470만 환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0년 7월 3일 『경향신문』 1961년 1월 8일		

No.	284	작성자	서준석
제목	**깡패 김춘삼 체포**		
이야기	"깡패 김춘삼 체포" 검찰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16일 하오 시내 중부시장을 무대로 한 깡패 보스 김춘삼(36)이 동 시장 안에서 체포되었다. 김은 92년 10월 자기 부하를 때렸다는 이유로 성균관대 학생 3명을 부하들과 합세하여 구타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4차에 걸쳐 특수폭행치상 혐의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그간 도피 중에 있었다고 한다. 서울지검은 6일 상오 4·19 이후 새로 나타난 깡패두목 김춘삼을 특수폭행 및 상해죄로 구속 기소했다. 중부시장 일대의 깡패두목인 김은 작년 9월 20일 그의 부하를 때린 성균관대 학생을 학교에까지 찾아가 때린 혐의가 있다. 대법원 형사부는 22일 상오 시내 중부시장 내 사자파 깡패두목 金春三(30, 전 중부시장 감리과장)에 대한 특수폭행 치상사건을 상고 기각함으로써 징역 10월에 3년의 집행유예를 확정시켰다. 김 피고인은 59년 4월 26일 하오 2시경 성대 학생 權炳圭, 崔泳河 군 등 3명을 시내 남대문로 3가 흥아공업사 3층 옥상에 납치해놓고 몽둥이와 주먹으로 무수히 때려 전치 1주일을 요하는 타박상을 입혔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0년 9월 17일 『경향신문』 1960년 10월 6일 『경향신문』 1962년 3월 22일		

No.	285	작성자	서준석
제목	**개척단장 김춘삼**		
이야기	"개척단장 김춘삼" 일할 자리를 마련치 못해 거리에서 방황해오던 시내 부랑청소년 200명은 황무지를 개간함으로써 자활의 길을 찾기 위해 한국합심자활개척단 이름 아래 1일 상오 11시 시청 뒤뜰에서 간소한 결단식을 마치고 개척지 대관령으로 향했다. 이들은 보사·농림·재무부 등 정부기관이 도와줄 식량·의료 및 농축자금과 행정자금의 원조로써 해발 650m의 고원지대의 황무지(대관령)를 개간하여 주로 농작물의 경작과 약초재배 및 축산사업으로 새 삶의 터를 닦게 될 것이다. 평균 연령 23·4세의 이들 개척단은 단장 金春三씨의 인솔로 내무부가 내어준 10대의 추럭에 분승, 시가행진으로써 작별인사를 대신한 후 힘찬 개척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한편 이들 선발대에 이어 제2차로 650명의 개척단원이 멀지 않아 현지로 떠날 것이라 한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61년 5월 1일		

No.	286	작성자	서준석
제목	**테러당한 이정재**		
이야기	"테러당한 이정재" 私感으로써 양민을 불법 납치하여 감금한 다음 집단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는 한편 순진한 상이군인을 허언낭설로써 선동시켜 납치가해에 대한 청년단 종로구단장 李丁載씨 외 1명의 피습사건이 1일 시경 사찰과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 즉 대한청년단 서울분실장 金基弘(37)은 자기 처남인 李丁載씨에 대하여 사역한 감정을 품어오던 중 소시 李씨를 좋지 않게 여기고 있는 한청 동대문시장특별단부 감찰부장 金東鎭(31)과 공모 협의한 후 李씨를 해치고자 5월 17일 김동진이 멀리 龜浦로부터 林三郞(24) 외 2명의 상이군인을 서울로 데려왔고 동월 19일에는 금호동 소재 '정양원'에 이르러 순진한 상이군인들에게 "이정재가 상이군인에게 줄 1,400만 원을 횡령했는데 이는 그야말로 고혈을 착취한 것이라" 허언으로 선동하여 20일 오후 3시 상이군인들로 하여금 이정재씨를 정양원으로 납치, 불법 감금시키고 동일 오후 8시까지 무수구타하였고 또한 김기홍 및 김동진 그리고 구포로부터 온 3명의 상이군인은 그 익일인 21일 오전 9시 30분경 이정재씨의 義弟되는 李明國씨를 후암동 모처로 납치, 불법감금하고 전치 2주일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김기홍, 김동진 외 5명은 불법체포, 불법감금, 상해, 법령 5호 위반으로 송청되어 방금 文仁龜 검사로부터 취조를 받고 있다. 私感으로써 일부 상이군인을 선동시켜 한청 종로구단장 이정재씨 외 1명에게 폭행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기홍(한청 서울분실장)씨 외 6명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청되어 문인구 검사로부터 취조를 받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와서는 당시의 피해자인 이정재씨 역시 상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종로서로부터 송치되어 문인구 검사로부터 취조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정재씨의 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사실을 극비에 붙이고 있어 아즉 밝혀지지 않고 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3년 6월 3일 『경향신문』 1953년 6월 17일		

No.	287	작성자	서준석
제목	**이정재, 피소당하다(1)**		
이야기	"이정재, 피소당하다" 자유당 중앙당부 감찰부 차장 李丁載씨가 살인미수, 특수폭행, 공갈, 협박 등 혐의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였다 한다. 고소인은 동대문시장 포목상 李德賢씨인데 동 씨의 고소장에 의하면 사건의 개요는 지난 10월 동양방직에서 광목경매 입찰을 할 당시 고소인이 입찰에 응하고저 하자 전기 李씨가 구타하고 공갈, 협박을 함으로써 고소인은 입찰을 하지 못하였고 李씨만이 광목입찰에서 이득을 보았다는 것이다. 동 고소장은 지난 16일에 서울지검에서 접수하고 조사는 金允燾검사가 담당하기로 되었다 한다. 17일 상오 지검 金允燾 검사는 살인미수, 특수폭행, 공갈, 협박, 입찰방해 혐의로 수명의 증인을 심문하는 한편 동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탐문한 바에 의하면 전기 사건은 현 자유당 감찰부차장 이정재씨에 관련된 혐의사실로 전하여지고 있는데 담당검사는 동 사실에 대해 상세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고위층으로부터 전하여진 동 사실은 지난 10월 東洋紡織 서울사무소에서 공매케 된 광목 입찰시 광목입찰 경쟁자 25명의 경쟁이 치열함에 비추어 동 입찰자의 한 사람인 이정재씨는 나머지 23명과 담합한 끝에 역시 입찰자의 한 사람인 李德賢(동대문시장 상인)씨에 대하여 입찰기권을 종용한 바 있으나 이 씨가 이에 불응하자 이정재씨는 그의 부하 수명을 시켜 '입찰을 기권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수차에 공갈, 폭행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권총으로 협박까지 하여 결국 이덕현씨로 하여금 부득이 동 입찰기권을 아니치 못했던 것이라 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4년 12월 18일 『경향신문』 1954년 12월 18일		

No.	288	작성자	서준석
제목	**이정재, 피소당하다(2)**		
이야기	"이정재, 피소당하다"(2) 살인미수 및 공갈, 폭행 혐의를 들어 전 자유당 감찰부차장 이정재씨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해온 사건은 앞서 기보한 바 있거니와 전기 사건의 수사는 6일 두 번째의 증인 심문을 함으로써 수사의 본격화를 이루었다. 이날 담당 김윤도 검사는 趙喜昌씨를 비롯한 증인 2명을 심문하였는데 동 심문내용에 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전하여진 바 동 내용은 모종의 정치적인 문제와 광범위한 정치성을 띤 복선에 관하여 심문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한편 담당검사는 전기 사건이 단순한 공갈, 폭행 혐의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동 사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유당 감찰부에서는 6일 동당 서울시당부 조직부장 李德賢씨를 제명처분하였다. 동 제명이유는 전기 이씨가 당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당규를 문란케하였다는 것인데, 이씨는 앞서 중앙당 감찰부차장 이정재씨를 걸어 협박, 상해 등으로 서울지검에 고소를 제기한 바 있으므로 정계에 관심을 집중케 하고 있다. 한편 정통한 소식통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덕현씨의 제명을 前奏로 하여 자유당 서울시당에는 계속 숙청의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하며 시당의 모 고위 간부에게도 모종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시당 일부에서는 중앙당부의 여사한 처사에 대하여 공공연히 불만의 의사를 표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5년 1월 7일 『경향신문』 1955년 1월 8일		

No.	289	작성자	서준석
제목	**단성사 앞 총격사건(1)**		
이야기	"단성사 앞 총격사건" 29일 밤에 발생한 단성사 앞에서의 권총발사사건에 관하여 昨 31일 검찰청에서는 대검차장 검사와 지검 검사장 및 서울지검 김윤도 검사가 긴급회동을 하고 동 사건배후에 개재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추측을 자아내고 있는 자유당 중앙당부 모 간부에 대한 수사당국으로서의 임할 방침을 논의하였다. 측문한 바에 의하면 이날 회의에서는 문제의 인물 李 모씨를 구속하자는 논까지 대두하였으나 그 후 법무부 고위층과의 협의 결과 보류되었다고 하며 앞으로의 사건 조사 진전에 따라서 태도를 결정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한편 서울지검 김윤도 검사는 객년 자유당 서울시당 전 조직부장 이덕현씨로부터 제기된 고소사건에 관련하여 피소자인 자유당 감찰부 차장 이정재씨를 昨 31일 하오 소환하였는데 검찰측에서는 금번의 단성사 앞 권총사건 관계자가 전기 李씨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동 사건이 고소사건과 모종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단성사 앞 권총사건 발생 이틀 후인 31일 하오 서울지검에서는 자유당 중앙당부 감찰부차장 이정재씨에 대하여 폭행, 협박, 살인미수, 입찰방해, 살인음모 등 혐의죄명으로 서울지법의 정식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고 하오 6시 반경 서울시내 명륜동4가 188번지 이씨 자택에서 영장을 집행, 간단한 예비심문을 마치고 동 10시 반경 서대문형무소에 수감하였다. 지검 당국에서는 이씨에 관하여 작년 자유당 서울시당부 조직부장 이덕현씨가 제기한 고소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이번에 이씨 從弟 李錫載씨의 권총 발사로 야기된 단성사 앞 권총사건 배후를 추궁할 것이라고 하며 더욱 금번 사건의 피해자인 金東鎭씨의 말로서 새로이 제기된 소위 '요인 40명 암살음모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한다. 이씨 구속에 뒤이어 담당 김윤도 검사는 다른 사건 일체를 제쳐놓고 1일 하오부터 서대문형무소에 출장하여 이씨 사건 전반에 걸친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이번의 권총사건 피해자의 입으로 알려진 '요인암살음모' 운운으로 검찰당국은 아연 긴장미를 띄우고 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5년 2월 1일 『동아일보』 1955년 2월 2일		

No.	290	작성자	서준석
제목	**단성사 앞 총격사건(2)**		
이야기	"단성사 앞 총격사건"(2) 그런데 일부에서는 작년에 이덕현씨가 제기한 고소사건에 뒤이어 이번에 발생한 권총사건을 절정으로 하여 그 배후에 이덕현씨(고소인), 김동진, 梁在熙 양씨(권총사건 피해자) 등과 李씨와의 宿怨 관계와 그 밖의 이씨와의 사감 및 모당 내부에 반목이 숨어 있어 이 일련의 사태들이 얽히고 얽혀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어 권총 발사자인 이석재씨에 대한 경찰조사와 이정재씨에 대한 검찰측 조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9일 밤 7시경 단성사 앞에서 이정재씨의 종제 이석재씨가 권총을 발사하여 김동진, 양재희 양씨의 다리에 관통상을 입힌 소위 단성사 권총사건은 피해자 김씨의 말에 의하여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에서 일어난 살인미수사건을 떠나 국회의원, 행정부요인, 기타 정계인물 등 40명을 살해하려던 어마어마한 정치성을 띄운 살해음모사건으로 등장하여 일반 정계의 커다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동 사건은 방금 수사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어 불원 그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부상을 당하고 방금 백병원에 입원가료 중에 있는 김동진씨 말에 의하면 사건의 줄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이 흘러 내려오고 있다. 김동진씨 談 작년 12월 6일에 이정재씨가 소위 제3세력 수령○○○씨, 부수령 李○○씨 등 참모에 李○○○씨 등의 명단이라고 하여 국회의원 20명, 행정요인과 정계요인 등 20명 도합 40명이 기입된 도표를 보이면서 이들을 없애버리라고 말하였다. "김○○를 없애버린 安씨를 보라. 정치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 은 살인아니다. 내가 뒤에 있으니 염려 말고 해치우라"고 말하였고, 그 후 명함에다 '조금 염려 말고 해치우라'고 적은 글월을 보내어왔다. 이에 다음날인 7일에 시경 찰국 사찰과에 출두하여 동 사실을 구두로 고발하였다. 이것을 알고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5년 2월 2일		

No.	291	작성자	서준석
제목	**단성사 앞 총격사건(3)**		
이야기	"단성사 앞 총격사건"(3) 암살대상명단 이정재씨의 암살대상인(김동진씨 담) 소위 제3세력 명단에 오른 정계 요인은 김씨 기억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인사들인데 이 명단은 경찰을 거쳐 방금 서울지검에 압수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명단은 작년 함상훈씨 성명에 뒤이어 서울지검 鄭允謨 부장검사 담당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제3세력과는 전연 면모를 다르게 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체명단은 지워져 있으며, 다만 가장 첫머리에 당시 서울특별시장인 김태선이 올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필자 주) (전략) 1일 새벽에는 이정재씨 집을 가택수수하여 모종 문서를 압수하였다고 하며 또한 동 살인음모에 협력을 요청받고 거절한 또 하나의 증인도 등장하여 동 사건은 더욱 세인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김동진씨 외 또 하나의 증인은 李昌鎔(국민회 종로구 조직부장)씨인데 이 씨도 김동진씨가 11월 6일 부탁받았을 그 당시 이정재씨가 자기에게도 소위 제3세력 도표를 보이고 동 계획을 수행하는데 협력하라고 요청받았으나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이하 동 사건이 터져 나오게 된 동기와 증인들이 말하는 이정재씨의 그간의 행동경과는 아래와 같다. 암살음모사건 폭로 동기=기보한 바와 같이 이정재씨는 지난해 11월 6일 경마장에서 김동진씨에게 또한 이창용씨에게 각각 소위 제3세력에 관련되었다는 40여 요인의 암살계획을 말하고 협력을 요청했으나 이정재씨의 전 동지였던 兩씨는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어처구니가 안 나서 이를 거절하자 며칠 후 이정재씨는 이덕현(전 동지)씨를 이창용씨 집으로 납치한 후 이덕현씨와 이창용씨 앞에서 단도를 끄내어 죽여버리겠다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덕현씨는 기어이 결심을 굳게 하고 암살계획을 검찰청에서 폭로했던 것이라고 한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5년 2월 2일 『경향신문』 1955년 2월 2일		

No.	292	작성자	서준석
제목	**단성사 앞 총격사건(4)**		
이야기	"단성사 앞 총격사건"(4) ▲소위 제3세력 도표=작년 11월 6일 자유당 감찰부차장 이정재씨가 경마장으로 김동진씨를 찾아와 협력을 요청하면서 제시한 제3세력 도표에 의하면 제3세력의 대표는 김태선(서울시장)씨라 하며, 부대표로는 李淳鎔(외자관리청장)씨가 되어 있고, 그밖의 요인으로는 신익희, 조병옥, 장택상, 김상돈, 백두진, 민관식, 임철호, 문봉제, 윤재욱, 이덕현, 김두한, 고영주, 김기홍, 전진한, 조희창, 노일영, 친필용, 안두희, 이화룡씨 등 40여 요인들의 명단이 기입되어 있었다 한다. 김동진씨가 폭로한 진상=그런데 이씨는 동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제1차로 이덕현씨를 살해하고 2차로 신익희씨, 3차로 김태선씨를 각각 암살하고 나면 기타 요인들은 폭력으로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다. 그런데 김씨는 "내가 이 음모계획을 거절하고 즉석에서 시경찰국에 보고하였으며 또한 검찰청에서 증언 당시에도 검사가 보관 중인 이씨의 친필로 기입되어 있는 동 제3세력 도표를 일일이 설명하여 주었다"고 말하였는데 경찰당국에서는 '금시초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씨 담에 의하면 동 암살계획의 협력을 거부하자 이씨는 명함에 '동 계획을 비밀로 붙여 달라'는 서한을 써서 봉함한 봉투를 보내어 온 사실도 있다 한다. 또한 김씨는 저격 당시 이정재씨는 노상에 멈추어 있는 찝차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자유당 감찰부차장 이정재씨가 검찰 당국에 구속되자 갑자기 자유당 인사들의 검찰청 방문이 부쩍 늘고 있다. 1일에는 자유당 조사부 차장 崔榕根씨, 동 사회부차장 金永瑾씨가 이씨 사건 담당 김윤도 검사를 방문하였다고 하며, 昨2일 상오에는 국회법제사법위원장 尹萬石씨(자유당원)가 김 서울지검 검사장을 방문, 요담한 후 다시 법무부 고위층을 방문하고 장시간 요담하였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사건담당 김윤도 검사는 2일 아침부터 이정재씨가 수감되어 있는 서울형무소에 종일 출장하고 형무소에서 이씨에 대한 문초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앞서 1일 서울지검에서는 서울시내 명륜동 4가 188번지 이씨의 자택을 급습, 가택수색을 한 바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며 다만 방금 백병원에 입원 가료 중에 있는 김동진씨에게서 이씨가 소위 40명 요인의 암살을 권고하였다는 서신(명함)을 증거품으로 압수하였다 한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5년 2월 2일 『동아일보』 1955년 2월 3일		

No.	293	작성자	서준석
제목	**단성사 앞 총격사건(5)**		
이야기	"단성사 앞 총격사건"(5) 자유당 감찰부차장 이정재씨 사건을 수사 중에 있는 서울지검에서는 담당검사로서 김윤도 검사 외에 黃鎭永검사를 증원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작 3일에는 상오 11시 반경 이씨를 서울지검 제8호 검사정으로 소환하고 외인의 출입 일체를 금지한 가운데 준렬한 문초를 거듭하였는데 한편 이와 때를 같이하여 검찰총장실에서는 신병으로 이날 처음 등청한 韓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검사 전원과 김 서울지검 검사장 및 김 서울지검 차장검사가 회동하고 장시간에 걸친 구수회의를 개최하였다.(하략) 자유당 중앙정책위원회는 3일 동당 의원부에서 중앙당부 부차장들과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중략) 그런데 동 연석회의에서는 현재 동 당 내에 야기되고 있는 감찰부차장 이정재씨를 위요한 소위 제3세력 명단 문제도 논의되리라고 하는데 특히 동 명단에는 중앙당부 조직부장 임철호씨가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여당 내의 중요인사도 포함되고 있어 동 당으로서 어떤 수습책과 태도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견지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전략) 검찰청측 수사의 초점은 소위 요인40명 암살음모사건에 앞서 단성사 앞에서의 권총 발사사건에 이정재씨가 종제인 이석재씨에게 교사하였는가의 여부와 사건 당시 이정재씨가 찝차(이석재씨가 타고 온 것으로서 사건발생시까지 단성사 앞에 있었다) 안에 타고 있었는가에 대한 반증조사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타고 있었다'는 증인들의 진술과 한편으로는 이씨 형제가 극력 이를 부인하고 알리바이 성립을 주장하는 증인들의 진술로서 상반된 증언 속에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하략)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5년 2월 4일 『경향신문』 1955년 2월 4일 『동아일보』 1955년 2월 5일		

No.	294	작성자	서준석
제목	**단성사 앞 총격사건(6)**		
이야기	"단성사 앞 총격사건"(6) 경찰에서 구속 문초 중에 있던 단성사 권총사건 관계자 이석재씨가 5일 일건 서류와 함께 서울지검에 구속 송청됨으로써 이정재씨 사건 수사는 드디어 최후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동일 이석재씨 사건 송치를 받은 지검에서는 담당 김윤도 검사가 장시간에 걸쳐 치밀한 문초를 거듭하였고 금 7일부터 이씨 형재 양 명에 대하여 최후적인 종합심문을 할 것인데 이에 따라 금명간 동 사건 수사는 마지막 고비를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정재씨 사건의 초점은 이덕현씨의 고소내용에 대한 조사보다도 오히려 단성사 권총사건의 살인교사 여부에 놓여져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 이씨 형제는 전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하여지고 있어 과연 검찰 당국에서 어느 정도의 방증을 들어 이 수수께끼의 문제점을 해명할 것인지 금후의 수사진전이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이정재씨 사건의 살인교사 여부를 해명하는 하나의 연결점인 단성사 권총사건의 장본인 이석재씨의 혐의내용은 경찰조사로서는 정당방위와 강요된 행위라는 중간 결론을 얻었다고 전하여지고 있어 금후 경찰에서의 동 송청피의 요지 전복 여부에 따라 사건의 귀결이 맺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5일 송청된 이석재씨의 송청 피의사실(살인미수, 무기불법소지) 요지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이석재씨는 미군PX 앞에서 미 군인으로부터 7천 환에 권총을 한 자루 사서 가지고 다니던 중 1월 29일 단성사 앞에서 김동진씨에게 발사하였다. ◦권총을 사게 된 동기는 경매입찰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김씨와 과거 반목을 거듭하여 온 일이 있어 혹시나 김시 편에서 해를 가하려 덤빌 때에는 권총으로 대항하려는 의도였다. ◦마침 사건 발생 당일 단성사 앞에서 김씨와 마주치게 되자 김씨가 '이자식 여기 왔구나'하고 덤벼들 기세이며 또 김씨가 한 대 치면 누구나 죽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위협하느라고 1발을 발사한즉 김씨 일행이 권총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어 또 위협하느라고 1발 발사한 것은 불발이었다. ◦세번째는 또 그들이 덤벼들 뿐 아니라 김씨 자신이 덤벼들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죽일 마음으로 발사하였으며 그후도 연이어 2발을 발사하였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1955년 2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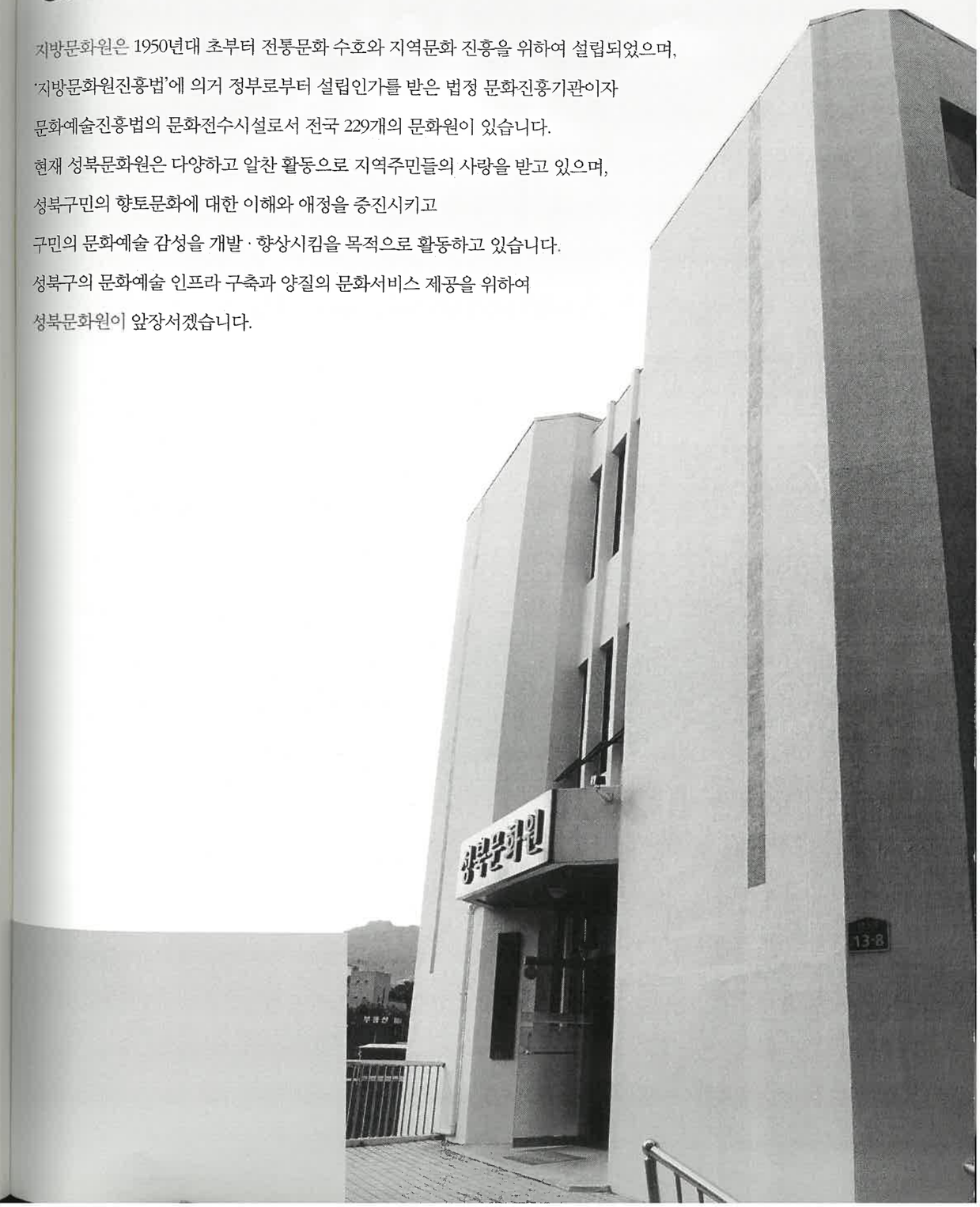
No.	295	작성자	서준석
제목	**단성사 앞 총격사건(7)**		
이야기	"단성사 앞 총격사건"(7) (전략) 서울지검에서는 단성사권총사건의 장본인 이석재씨의 송청을 계기로 최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7일에는 사건의 증인으로 이창용(국민회 종로구지부)씨와 조희창씨(상업)의 양인에 대한 증인심문을 거듭하였고 다시 작 8일에는 구속중인 피의자 李景洙씨와 이덕현씨(고소인), 이창용, 조희창씨의 4명에 대한 대질심문을 장시간에 걸쳐 진행하였다.(중략) 이날의 대질심문에서 이경수(이정재의 심복부하)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정재씨를 따라다닌 것을 후회하고 사과하였다고 한다. (중략) 한편 이정재씨는 문제의 암살대상자명단은 숙적인 이덕현씨 살해를 그럴 듯이 가장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작성한 허위도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다. 1월 29일 하오 단성사 앞에서 발생하였던 권총저격사건을 도화선으로 아연 긴장리에 수사가 진행되던 이정재씨 사건은 8일로써 대략 일단락 된 것으로 보여진다. 3개월 전에 발생하였던 이정재씨 상대 이덕현씨의 살인미수, 폭행, 공갈, 살인음모, 입찰방해 혐의 고소사건은 그간 김윤도 검사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어 오던 중 앞서 단성사 앞 저격사건을 계기로 수사는 본격화되었던 것인데 동 사건만은 그동안의 증인(이창용, 李海辰, 조희창)과 고소인 이덕현씨, 피고소인 이정재씨의 종합심문으로써 대략 완결되었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다.(하략)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5년 2월 9일 『경향신문』 1955년 2월 9일		

No.	296	작성자	서준석
제목	**단성사 앞 총격사건(8)**		
이야기	"단성사 앞 총격사건"(8) -혐의있으나 증거 박약- 이정재씨 사건을 수사중에 있던 서울지검에서는 16일 하오 돌연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한편 이씨를 석방하였다. 돌연히 내려진 이 불기소 석방결정은 동일 상오부터 하오에 걸쳐 법무부 장관실에서 개최된 법무, 검찰 수뇌회의 결과 결정되어 직후 서울지검에서 최후조치를 취한 것인데 이날의 이씨 출감으로써 지난달 31일 이씨가 구속되어서부터 만 17일 동안 '흑이냐 백이냐'로 화제를 총집중시켰던 동 사건은 마침내 백으로써 종막을 고하게 되었다. 그런데 동 사건은 당초 자유당 서울시당 전 조직부장 이덕현씨가 살인미수, 폭행, 협박, 입찰방해 등 혐의죄명으로 서울지검에 제기한 고소사건과 단성사 권총사건 및 소위 요인 40명 암살음모사건 등 세가지의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등장하여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것으로 서울지검에서는 지난달 29일 저녁에 발생한 단성사저격사건을 계기로 이틀 후인 31일 이씨를 정식 구속하고 김차장검사, 김윤도 검사 및 황진영 검사의 3자 공동수사로 사건을 추궁해왔던 것인데 이번의 내려진 불기소결정은 결국 검찰당국의 패배를 의미하게 되었다. 지검 당국에서는 동일 이씨에 대한 불기소 석방 결정을 내린 직후 김 검사장 명의로 공식 담화를 발표하고 그간의 수사결과를 공표하였는데 동 담화에 의하면 검찰로서는 특히 단성사 사건에서 이정재씨가 종제인 이석재씨에게 저격을 교사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할 만한 충분한 혐의는 가졌으면서도 결국 공소를 유지할 만한 결정적인 확증을 얻지 못하여 부득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의 검찰당국의 불기소 결정이 구류기간도 만료되기 전에 돌연히 내려짐으로써 석연치 않은 의문을 느끼고 있다. 한편 지검에서는 동일사건 관련자 이석재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이경수씨는 무기 불법소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하였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5년 2월 18일		

No.	297	작성자	서준석
제목	**단성사 앞 총격사건(9)**		
이야기	"단성사 앞 총격사건"(9) ◦김 검사장 담화=단성사 살인미수사건은 그간 검찰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수사한 결과 하수자 이석재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16일부로 구속 기소하고 이정재 가담여부에 대하여는 피해자 김동진의 진술과 현장에서 목격한 자 수명의 진술, 이정재와 김동진의 감정적 반목의 경위, 이석재를 체포한 순찰 헌병의 진술내용, 현장부근 행상자의 증언 등으로 보아 공범의 혐의 농후하며 도심지에서 더욱이 범죄의 방법이 권총을 연발한 중대사건이었으므로 예의 수사한 결과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가 없으므로 16일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하고 동시에 구속을 해제하며 그밖에 고소사건의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불구속으로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정계요인 살인음모명단은 고소인 이덕현의 배경적 인물을 나열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덕현을 오인시키도록 한 것이며, 제3세력 운운이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정재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불온문서는 이북에서 넘어온 불온문서가 아니라 이덕현의 동태를 기입한 문서였다. 한편 무기불법소지 혐의로 구속된 이경수도 증거가 충분하여 16일 부로 구속기소하였다. (전략)탐문한 바에 의하면 동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어 오던 14일에는 자유당 부차장들이 연서한 '이정재씨를 수사하고 있는 담당검사가 증인들을 고문하여 증거채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대검에 제출하였다 하는데 그 후 24시간 만에 이상과 같은 결정이 내린 것이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55년 2월 18일 『경향신문』 1955년 2월 18일		

성북문화원 깊은멋 · 나눔 · 즐김이 있는 열린 문화공간

지방문화원은 1950년대 초부터 전통문화 수호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법정 문화진흥기관이자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전수시설로서 전국 229개의 문화원이 있습니다.
현재 성북문화원은 다양하고 알찬 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성북구민의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증진시키고
구민의 문화예술 감성을 개발 ·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북문화원이 앞장서겠습니다.



201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생태탐방로 사업

한양도성

이야기 자원 모음집

※ 이 책은 201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